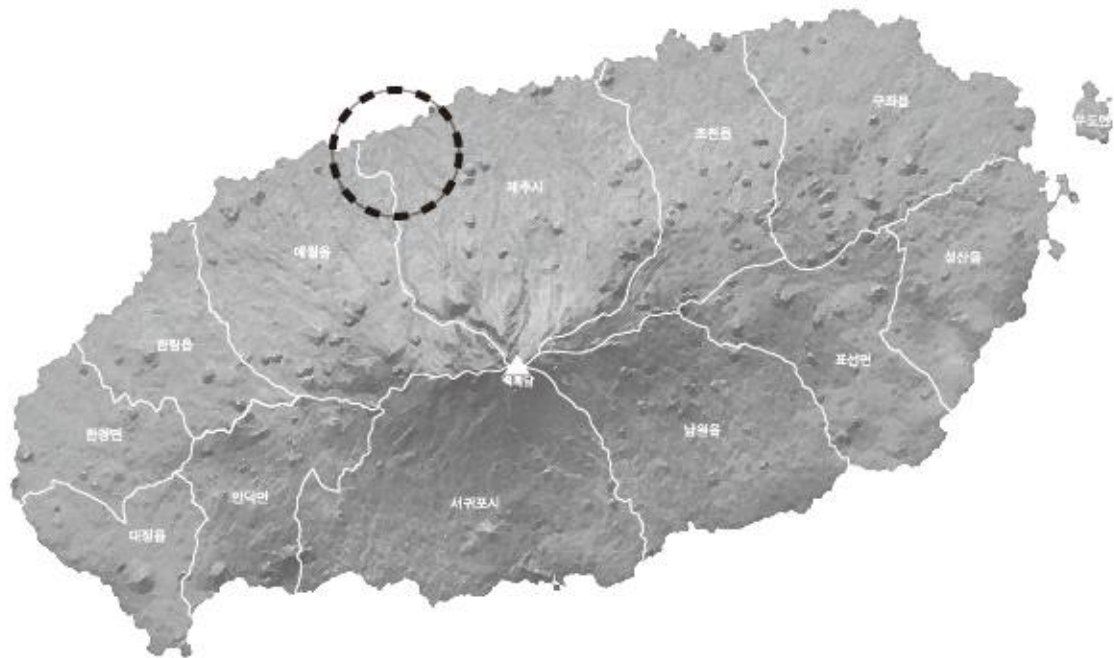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97-01

#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순자  
조사지점 제주시 외도동

#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13**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7
1.2. 사업 기간 .....	7
1.3. 조사 참여자 .....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9
1.5. 기대 효과 .....	9
제2장 제주시 외도동 조사 내용	
2.1. 제보자 .....	10
2.2. 조사 기간 .....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	10
2.4. 전사 .....	12
2.5. 장비 .....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14
3. 밭일 .....	50
5. 바다일 .....	126
2. 제보자 일생 .....	31
4. 들일 .....	96
7. 식생활 .....	146
제2절 어휘	
1. 인체 .....	189
3. 친족 .....	202
5. 음식 .....	211
7. 생업 .....	225
9. 민속 .....	240
11. 자연 .....	243
13. 식물 .....	261
2. 육아 .....	196
4. 의복 .....	206
6. 가옥 .....	220
8. 수와 단위 .....	237
10. 신앙 .....	243
12. 동물 .....	251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제주시 외도동 조사 내용

### 2.1. 제보자

김용국(1933년생, 남)  
김건웅(1943년생, 남)  
김창영(1937년생, 남)  
이옥희(1932년생, 여)  
강옥자(1941년생, 여)  
고상휘(1938년생, 남)  
박옥출(1940년생, 여)

2.2. 조사 기간: 2015. 5. 1.~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마을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00:47:09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이옥희	00:58:12	○
3. 밭일	구술 3. 밭일 1 보리농사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0:19:51	○
	구술 3. 밭일 2 조농사, 콩농사	김용국, 김건웅	00:28:16	○

		김창영, 고상휘		
	구술 3. 밭일 3 밭벼 농사, 고구마 농사, 기타 농사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0:48:34	○
4. 들일	구술 4. 들일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1:23:14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강옥자, 이옥희	00:52:37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이옥희	00:58:14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1 -밥과 국, 죽류, 범벅과 수제비, 김치, 젓갈, 장아찌와 회	이옥희	1:31:20	○
	구술 7. 식생활 2 -장 담그기, 떡류, 소와 고물	이옥희	00:42:39	○
	구술 7. 식생활 3 -소와 고물, 별식, 기타	이옥희, 강옥자	00:16:51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1 구조, 연장 1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1:33:03	×
9. 신앙	구술 8. 주생활 2 연장 2 구술 9. 신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00:23:01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1:17:39	×
11. 놀이	구술 11. 놀이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1:28:19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1 출생, 혼례 1	이옥희	00:48:12	×
	구술 12. 통과례 2 혼례 2, 상례	이옥희	01:20:52	×
	구술 12. 통과례 3 제례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1:23:43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0:48:04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30:11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이옥희, 강옥자 박옥출	01:33:43	○
	어휘 2. 육아 1 발달, 재롱과 놀이 1			
2. 육아	어휘 2. 육아 2 발달, 재롱과 놀이 2	이옥희, 강옥자 박옥출	00:25:58	○
	어휘 3. 육아 3 재롱과 놀이 3, 생리와 질병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0:52:54	○

3. 친족	어휘 3. 친족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0:33:43	○
4. 의복	어휘 4. 의복	이옥희, 강옥자	00:42:06	○
5. 음식	어휘 5. 음식 1 -주식, 부식, 별식, 부엌과 그릇 1	이옥희	01:34:00	○
	어휘 5. 음식 2 부엌과 그릇 2	이옥희	00:28:29	○
	어휘 5. 음식 3 부엌과 그릇 3	이옥희	00:34:57	○
6. 가옥	어휘 6. 가옥 1 형태와 배치, 내부 구조 1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00:43:45	○
	어휘 6. 가옥 2 내부 구조 2, 연장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00:38:06	○
7. 생업	어휘 7. 생업 1 농업 1	김용국, 김창영 고상휘	01:32:40	○
	어휘 7. 생업 2 농업 2	김용국, 김창영 고상휘	00:32:58	○
	어휘 7. 생업 3 어업, 기타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0:22:23	○
	어휘 7. 생업 4. 어업	이옥희, 강옥자	00:05:59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1	이옥희	00:23:37	○
9. 민속	어휘 8. 수와 단위 2 9. 민속	이옥희	00:45:05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이옥희	00:13:49	○
11. 자연	어휘 11. 자연 1 -들, 바다, 시후	이옥희	00:42:06	
	어휘 11. 자연 2 날씨, 방향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0:26:49	○
12. 동물	어휘 12. 동물 1 가축, 벌레와 곤충, 들짐승, 날짐승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1:18:32	○
	어휘 12. 동물 2 바다동물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0:26:27	○
13. 식물	어휘 13. 식물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고상휘	01:38:12 (음성)	○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 김순자 #1: 김용국 #2: 김건웅 #3: 김창영 #4: 이옥희 #5: 강옥자  
#6: 고창휘)

####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 관련해서 이제 여쭙볼 거우다. 맨 처음에는예, 마을 형성. 외  
도 마을은 어떻 형성됐었는지.

101001 #3 형님 얘기해서.

101001 #1 우령이라는 마을 이름은.

101001 @ 예.

101001 #1 여기서 흔 이킬로 뿔 건가? 저기 저 췌왓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선 췌왓동산 췌왓동산허는데.

101001 @ 예.

101001 #1 그 췌왓동산이란 말이 췌왓, 췌 동산이주. 췌맛이주.

101001 @ 예.

101001 #1 그 췌왓동산에 그, 그 췌동산이란게.

101001 @ 예.

101001 #1 우령이라는 말이 소 우짜에 고개 령짜라고 나는 생각허는데 옛 어른  
어느 어른의 얘기는 고개 영자가 아니라 호령령자라고 하는데 나는 호령령자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연유돼가지고 그 이제 우령이라는 마을이 이름이 형성되지 않  
은가

101001 @ 예.

101001 #1 글로 나오게 뉘든 그 뭐 여러 가지 그 지형도, 그 우령이 췌왓동산  
그 동쪽으로 오면은 그 저 송아지가 거기 잇었던 모양이라. 송아지.

101001 @ 예.

101001 #1 독짓굴이라고 허는가 마 같으고. 저쪽에 가면은 저실이라고 뉘지 저  
실이니까 뉘지 저짜에 그 열매 실짜를 허니까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디를 제  
실이라고 합니다.

101001 #3 제실이.

101001 @ 알아수다예. 예, 앞으로 말 끝 때랑 표준어로 말앙 제주도말로.

101001 #1 제주도말로.

101001 @ 예.  
 101001 #1 끝나나니까.  
 (중략)  
 101002 @ 이 마을은 성씨들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신고예?  
 101002 #1 예?  
 101002 @2 집성.  
 101002 #1 형성?  
 101002 @ 으.  
 101002 #2 신씨.  
 101002 #1 여기 외도 도시계획하면서 허니까 아마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아난  
 거 같은데 저디 우리 마을 남쪽에.  
 101002 @ 예.  
 101002 #1 그 기와도 귀난 터가 잇었고.  
 101002 @ 예.  
 101002 #1 또 고대에는 또 고인돌도 잇고.  
 101002 @ 어어.  
 101002 #1 이런 것이 그 이전에 마을이 형성됐는지 않은가 생각은 돼는다.  
 101002 @ 예.  
 101002 #1 여기는 예, 외도라도.  
 101002 @ 예.  
 101002 #1 여기 저 고려 말엽에.  
 101002 @ 예.  
 101002 #1 여기 수정사라고 해가지고 법화사 여기에 이 절이 잇었는데.  
 101002 @ 예, 예, 예.  
 101002 #1 그때 그 뭐 절 오백 당 오백을 부수었다는 문(?) 목사님이 그 저 뭇  
 이 잇어가지고 그때 여기 그 수정사가 없어졌지 않나 헌디 없어진 기록은 이렇게  
 돼는다 여기에 이 우렁이엔 헌 디가 여기 그 두 씨족에서.  
 101002 @ 예.  
 101002 #1 김해 김씨허고 예.  
 101002 #2 평산 신씨.  
 101002 #1 평산 김씨보다는 평산 신씨가 여기 와서 살아서 마을이 형성됐었다  
 고 허는데, 김해 김씨가 먼저 와가지고 우렁이를 동카름 서카름해가지고 고을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101002 @ 예.  
 101002 #1 그 이유인지 가운데로 고름물이라고 물이 흐르는 때문에 자연적으로  
 집을 못 짓어서.  
 101002 @ 음.

101002 #1 동카름 서카름 갈려졌지 이렇게 뵙니다. 아, 그게 언제쯤 돼느냐 허니까 여기 저 그 조상님이 여기는 알 거주마는. 아마 그게 지금부터 혼 아 천육백년.

101002 @ 음.

101002 #1 천육백년정도밖에 안 뵈 거 같애. 여기.

101002 @ 외에도 뵈게예.

101002 #1 여기 하르방 오란에 역대로 엮으면 천육백년 전후이.

101002 @ 예.

101002 #2 나에 십사세니까 삼십년씩 허면은 야튼 사백이십년.

101002 #1 경 뵈갈 거주.

101002 @ 예.

101002 #3 건 족수가게.

101002 @ 예. 웃음.

101002 #1 오백년 내지 스백오십년 \*\* 오백년 안 뵈서게. 스백오십년 뵈나마나.

101002 #2 스백오십년 그 안팎이우다게.

101002 @ 거난 여기는 김해 김씨 설촌이구나예?

101002 #2 저에 십사대니까.

101003 @ 완전 터춧대감인게. 웃음. 게믈예, 이 마을 사람들. 지금이야 외지 사름은 옛날에 이 마을 사람들은 무신 일허명 살아신고예?

101003 #2 거의 농삿줍.

101003 #1 여기에 보니까 이 부락 바깥디 이 수리대 잇지 았수가이.

101003 @ 예.

101003 #1 그게 여기 당이 워낙 많헤. 외에도 지경은 당이 많았는데, 그래로 비옥헌 땅이라.

101003 @ 예.

101003 #1 말왓이라고 얘기허는 건 뵈냐면 물 아니 고영은예.

101003 #2 말왓.

101003 #1 므른밧이주. 작지가 소왕져서 그린 건지 경해가지고 헌디 그 잣백마다 보면은 간간이 수리대.

101003 @ 예.

101003 #1 작백에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잇단 말입니다.

101003 #1 그때는 그자 이 부락보단도 주의에 물이나 영 잇곡 허민 사람들이 살아난 디라. 저 이 수리대 잇는 곳은 틀림없이 사름이 살아난 디라.

101003 @ 음, 예.

101003 #1 간간이 잇어.

101003 @ 아아.

101003 #1 경헌 걸로 보면은 뵈 여기가.



101003 #2 밭이 \*\*.

101003 #1 그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민 그런 게 있어 이.

101003 @ 예.

101003 #1 연대 이제 그런 곳이 상당히 만났주.

101003 @ 예.

101003 #1 만하난.

101003 @ 농사 짓고.

101003 #1

101003 @ 계란 바당일도 안 해수가?

101003 #2 바당일도 옛날 사름덜은 헛수다. 조반 전의 강 몸도 흔 지게 헤영은  
에 지여 올라왕 걸름허곡.

101003 #3 줌너도 많아났주.

101003 #2 줌너도 많아났수다.

101003 @ 예.

101003 #2 이제 그 신식 \*\* 들어사니까 이거 고웁 거 무신거 허리 허영 설러불  
기도 허고.

101004 @ 예, 맞수다. 계면예, 이 마을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101004 #1 오름은 아까 얘기한 데로 쉼앗동산 잇고.

101004 @ 그건 큰 오름은 아니지예?

101004 #1 여기다사 서칫동산이라고 잇엇어.

101004 #2 흔 육칠십메다 정도라.

101004 #1 연대 이쫘 서치란 말이 썩.

101004 @ 예.

101004 #1 썩을 영 돌아맨 치 그런 형국이라 해서 헛던 모양이. 그런 게 잇엇는  
디. 이디 저 도시계획 허멍 밀어부단 엇어저불엇는디 그디 잇엇고.

101004 @ 예.

101004 #1 또 올로 쫘끔 저디 가문 어디고 제멍이, 그거 어디. 제멍이 그 저 쉼  
앗동산 아래, 그디 흐끔 높은 디가 잇고. 또 이쪽으로 오면은 아까 얘기헌 제실이동  
산이렌 헨에 잇고.

101004 @ 제실이동산.

101004 #2 제실이동산.

101004 #1 제실이동산.

101004 #2 아, 수덕동산이다.

101004 #1 저딘 수덕동산이다.

101004 #3 수덕동산이 소레기동산 바로 알 \*\*. 또 소레기동산은 이거 제멍이 내  
령 소레기동산이고, 그 동산 수덕동산 수덕동산인데 거기 나무가 크게 잇고. 설드럭  
이 많수다. 상당히 돌덜이. 큰 왕석들이 많아서 수덕동산 수덕동산 헤났고. 우렁인

베 형국이 뭐가지고 아까 우리 회장님도 얘기했지마는 그 썩이 가냐 썩 헤가지고 돛대를 돛대를 들어서. 솟덕 액을 막나 해서 잇었고. 소레기 동산 제맹이라 제맹이. 제맹이라고 하르방덜이 제맹이 제맹이 것이 제맹이.

101004 #2 닥동네.

101004 #3 지금도 그 동네 잇는디 거기가 인구가 많아 가지고 집도 짓고 그 당시에에는 알고 보면 배 밑에는 뎀마가 항상 잇잖아. 배 타면 나루로 운선 허는 뎀마라 뎀마라 허는 그런 뎀도 잇었고, 그 당시에 이디 혼 뎀 년 뎀지마는 호수가 십칠 호.

101004 @ 예.

101004 #3 그거뻬기 잇었고. 큰동네는 좀 아까 이백 호가 넘어나가 그렇게 헤난 여기가.

101004 @ 그러면 우렁이가 큰 동네라마씨?

101004 #3 그렇지.

101004 #1 얘기허겄는데이 이 마을의 형세는.

101004 #2 베형세.

101004 #1 베 형국이라고 헤갓고 동쪽으로 가면은 던더리동산이 잇어요.

101004 #3 이젠 엇주게.

101004 #1 여기는 개탁가름이라고 이 동남쪽에는.

101004 @ 예.

101004 #2 개탁가름.

101004 #1 개탁가름. 아까 얘기헌대로 여기 돛대.

101004 #3 솔대.

101004 #1 솔대거리라고 헤가지고.

101004 @ 예.

101004 #1 그 춤 아닌게 아니라 베 돛, 돛대를 세와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허고.

101004 #1 하나 답뎀이라고 베 뎀 둘 모아가지고. 답뎀이라고 아래도 잇었고.

101004 #2 우리 뎀은 그때 거욱대왓이라고 헤낫어이.

101004 #1 그런 뎀니다. 경허고 그 배는 에 항구 안네,

101004 @ 예.

101004 #1 뎀 배라 이거여. 메여진 베 그러니까 발전을 못한다

101004 @ 배는 바당에 나가야되는디예?

101004 #1 바당에 나가야 되는데, 뭐 읽단 보니까 남원이 베 형국이고 헤. 헌데 발전을 헌다 허는데, 그 그 배가 항구안네 머물러 잇으면은 발전을 안 한대요. 문딱 풀어붙어근에 바다에 나가야 허는데, 도시 계획을 허다보니까 문딱 풀어붙어. 외도가 앞으로 발전을 헬로구나 나 이렇게 생각허고 잇습니다.

101004 @ 예, 예, 예.

101004 @2 그 솔대가 몇 개마썸?  
101004 #2 세 개.  
101004 #3 세 개.  
101004 @ 그 बात을 뭐라마썸?  
101004 #2 거옥대왓이라고 해났는데.  
101004 @2 거옥대왓. 아까 솔대라는 말도?  
101004 #2 솔대가 그겁주.  
101004 #2 거옥대엔 해났는데. 거옥대왓.  
101004 @ 솟대.  
101004 #3 솔대는 그 폭낭 중간에 거기.  
101004 #1 솔대거리, 솔대거리 헛어.  
101004 #2 우리 बात은 그 남쪽에 세 개가 있는데 쥘 남쪽에 잇는게 우리 बात인데.  
101004 #3 거옥대, 솔대.  
101004 @ 재난.  
101004 #2 그 잣벽에 거옥대 나무를 헤가지고예, 이렇게 행은에 쫓끄만허게 \*\*  
만들언 잇어났수다.  
101004 @ 잠깐. 말씀하십서?  
101004 #1 여기이 그 개, 개라고 허면은?  
101004 @ 바당.  
101004 #1 바다에 저 배 매는디 그라 개에 허지 아녀?  
101004 #3 개맛디.  
101004 @ 게맛디.  
101004 #1 여기에 그 짐동산이라고 잇어요. 동쪽으로 가면은 배에서 퍼다가 짐  
쌓여났다고 헤가지고 짐동산 짐동산.  
101004 #3 짐 퍼난단.  
101004 #1 경헤가지고 전험니다. 그 동산이라고 잇고. 이디가 저 무신 동산이라.  
우리 제터 포제터헌 디가.  
101004 #2 아, 거기 제서리.  
101004 #1 제서리동산.  
101004 @ 음.  
101004 #1 이제 쉼왓동산 또 아까 얘기허는.  
101004 @ 수덕.  
101004 #1 수덕동산. 이 서치동산이라고 해서 저 귀야지 입구 쪽에.  
101004 @ 혹시 그 내창도 여기 잇수가?  
101004 #2 옛날 베락맞안 내엔 해근에. 저 서쪽에.  
101004 #3 서쪽으로.  
101004 @ 베락맞은내 거기.

101004 #2 베락맞안 내가 터져분 생이라마씨.

101004 #1 아마도 아니 돌이 거기 영 쌓이는데 아마 그 자연적으로 아마 베락 떨어져가지고 아마.

101004 #2 \*\* 잇어났수다.

101004 #3 비가 와나면은 놀이터가 없으니가 바당에 못가니까.

101004 @ 예.

101004 #2 거기서 수영도 하고.

101004 #2 모욕도 하고.

101004 #3 생수가 나.

101004 @ 아아. 베락맞은내에.

101004 #3 구멍 낫젠 헤어.

101004 #2 비가 많이 왕 모이는 물입주.

101004 #3 그 물이 한 삼 개월간 계속 흘렀어. 요즘도 집 짓어부니까 허지만 제 명 구멍물터. 지금도 질왓인데 지금도 비 와나민 고랑창으로 내리고 허는다. 구멍나 거기가.

101004 #2 이디 \*\* 비 마정은에 비 많이 오당 구멍 터지른 아 이젠 날 좋켜.

101004 #3 마 거두왔다고. 마 거두왔다고.

101004 @ 마 거두왔다고예.

101004 #3 아닌게 아니라 비가 안 와.

101004 #1 일로 내리는 것이 광령 알로 해근에 광령 저수지 옆으로 헨 이레 오는 물인디.

101004 #2 아이고, 집도 끄어나고 옛날은 뭐.

101004 #2 우리 고모가 그 물에 끄언 죽엇주. 옛날에.

101004 #1 두 갈라진 거라.

101004 @2 아까 보룻물이 어디우과?

101004 @ 보룻물이 아니고 도룻물.

101004 #3 이것이 도룻물질이라.

101004 #2 이거 물질이우다. 우리 동네. 가운데로.

101004 #1 저 도룻물이엔 헨 게 광령1리로 알려레 내려가면 폭낭굴이라고. 폭낭 굴이 아니고 폭락굴입니다. 그 폭락굴. 그 영 폭포가 떨어진다는 말로.

101004 #1 글로 해근에 물 이리 내려오니까 여기가 비가 크믄 막 그냥 사름 끄을 정도록 물이 커.

101004 #2 도룻물물질입주. 물질.

101004 @ 도룻물질.

101004 #1 도룻물

101004 @ 도룻처럼 물이 흘렀구나예?

101004 #3 물에도 흠파지고.

101004 #1 내같이 흘러.

101004 #2 완전히 그냥 막 엄청 커.

101004 #3 계란 그 옛날에 연자방아 거 떠가지고 굴러왔단 말이 있어.

101004 #2 물질을 딱랑 동서카름.

101004 #1 그 물을 갈려가지고 동으로 빠도록히 맨들앗거든.

101004 @ 계문 그 물질이 외도천 간 거우과?

101004 #1 그디서 빠지주.

101004 @ 혹시 바위도 잇덴 헌데 바위 이름도 잇어마씨?

101004 #2 바위는 거. 옛날 바위엔 헛자 저 어디고? 바위 이름은 없고 단지 일로 우에 올라가든 무신 바위고?

101004 #3 어디?

101004 #1 이 저수지로 올라가는 디 퀘.

101004 #2 아, 지방돌.

101004 #1 지방돌.

101004 #2 돌이 가로 막아나서마씨. 지방톡 모양으로 지방돌. 거기 또 퀘가 잇어.

101004 #3 사름 비올 때는 비를 피혜가지고 밧디 갓당도 비오면은 그 쏘굽에 앓양덜 허고.

101004 #1 파괴시켜부런,

101004 #2 도로를 확장허젠 허난 파괴헐 수밖에.

101004 @ 앞으로 말 낄 땐에 혼 사름씩 혼 사름 녹음허면. 알아수다. 그 다음에 굴 이름은 뭐라난마씨?

101004 #2 그 굴?

101004 @ 퀘 이름?

101004 #2 지방돌퀘.

101004 @ 지방돌퀘. 지방돌퀘 말양 또 굴이 잇수가?

101004 #2 아 저, 폭낭굴퀘.

101004 @ 폭낭굴퀘.

101004 #2 마굴퀘 죽은 퀘가 잇어.

101004 #1 또 여기도 잇주.

101004 @ 여기 거는 뭐마씨?

101004 #1 여기 큰굴왓디도 굴 잇주.

101004 #2 그거 이름이.

101004 @ 아아. 큰굴왓디는 굴 귀 난디우과?

101004 #3 큰굴왓이고 물 고이고 밧이 넓으니까.

101004 #1 큰 굴이라.

101004 #3 넓으니까.

101004 #1 개발허연 보지 아녀니까 몰르주마는 숨굴이 터졌다 이거여. 게서 그 물이 많이 오면 퀘 안으로 물이 바다로 내려가요.

101004 @ 예.

101004 #3 아까 얘기하는데 지금 도리물이 터지면은 외도로도 가고 셋가름골은 그쪽디레 물이 가났어요. 큰굴왓디레 숨굴왓이라고 밧이 이름이.

101004 @ 숨굴왓예?

101004 #3 거기도 사름 오륙 명은 들어강 살 수 있는데 우의로 넘청 퀘 잇는 줄도 몰라. 비올 때는 그로 해서 물질을 터서 글로 보내면은 연대라고. 바로 밑에.

101004 @ 연대?

101004 #2 연대동 바다로 내려강.

101004 #3 아 어떤 연대로 가느냐 허는 걸 우리 조상들이 ㄱ스락 옛날 물이 얼루 가는 걸 확인할라고 그레 비우니까 연대로 헨에 ㄱ스락이 나왔다.

101004 #2 물질 따라 흘러 내려가지고.

101004 #3 그래서 이 물이 땅 속으로 가서 연대도 흐 군데 아니, 연대도 두 군데 또 물질이 따로 잇구나 헤연 조상들이 오던 물질이 따로 잇구나 그 옛날 지혜가 좋아서 알았다 험니다.

101005 @ 예, 알아수다. 외도에는 기관 같은 거는 어떤 거 잇수가?

101005 #1 기관?

101005 @ 예.

101005 #2 옛날 지서가 잇단 엇어져부런.

101005 #1 기관이야 엇지.

101005 #2 이제 또 초등학교 잇고 보육원도 제주보육원 잇어났고.

101005 #1 지금 예, 장애인복지관이 잇고.

101005 #2 건 이제사 생긴 거.

101005 # 또. 농협지소도 지금예.

101005 #2 장애인 운동장도 잇고.

101005 #3 지금이야 현 거고. 옛날으 기관이라고 현 게.

101005 #1 외도초등학교가 천구백스십 아, 천구백 에 모르켜이.

101005 #3 켄디 거.

101005 #1 천구백삼십 멧 년 일거라.

101005 #2 초등학교 생긴지.

101005 #3 헛수가 봐서 외도 초등학교 나온 사름덜 보면 우리가 육 헨데.

101005 #1 삼십년대.

101005 #1 일제시대부터 지서가 경찰지서가 잇엇고 것뿐 지금도 변헌 것이 없네요.

101005 @ 예.

101005 #3 외도 우렁이가 아니고 저번에 절물 월대 와서 헛 때 그 부락이고.

101005 @ 예.  
101005 #3 외도 우렁이 마을이 기관이란 게 없어놔주게.  
101005 #2 웨도에 속헌에 자연부락이 이름이 외도일동, 저 우렁이.  
101005 #3 지금 외도일동.  
101005 #2 마을은 하나. 외도동에서 마을은 하나.  
101005 #1 건디 우리 동네에서.  
101005 @ 예.  
101005 #1 예 김충희 지사가 나서 도지사를 했고.  
101005 @ 아.  
101005 #2 도지사도 난 동네우다.  
101005 #1 이승택 지사도 외도에서 자랐고.  
101005 @ 음.  
101005 #1 그렇습니다.  
101005 #2 도지사가 두 사람이.  
101005 @ 김충희 지사라고.  
101005 #1 켄디.  
101005 #3 살아난 집도 있어.  
101005 #1 켄디 외도 우리 제주도에는 대개는 바다 낀 마을이 예 부락이 갈려  
가지고 일구니 이구니 일리니 이리니 허는디가 잇는데, 모두가 바다를 낀 디는 일  
리로 보고 바다를 안 낀 디는 이리로 보는데, 외도1동엔 헌디만은 바다를 아니 낀  
데서 저 일동이라고 되었고,  
101005 @ 예.  
101005 #1 춤 이 저 이리는 바다를 끼어서 이렇게 뗏는데.  
101005 #1 아마 옛날에.  
101005 #2 권력이 켄어서.  
101005 #1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도 이 외도가 완전히 저 신우면.  
101005 @ 예.  
101005 #1 광령으로 할 건디 외도가 영 끊어정 트라정 시로 뗏주.  
101005 #2 외도천 저게.  
101005 #1 반대를 해갖고.  
101005 #1 면으로  
101005 #1 일로 해서 경계로 해서 제주읍으로 부찌고 영 헛답니다.  
101005 @ 예.  
101005 #1 그때 사름들은 잘 난 사름들이.  
101005 #3 아마 힘께나 쓰고 지사도 잇고 허니까 아까 베락맞은내 베락맞은내  
글로 경계선이주.  
101005 @ 아아.

101005 #3 이쪽은 제주시 저쪽은 애월면.  
101005 @ 예, 알아수다.  
101005 #2 저 우로 가든 광령이 서쪽에 부뜨난 건 애월면이고.  
101005 @ 예, 예.  
101005 #2 우리도 서쪽에 부뜨난 애월면에 부뜨 건디.  
101005 #1 옛날에 우리 마을의 경계가.  
101005 @ 예.  
101005 #1 이 마을의 경계가 광령1리 순두물이라고 중산간도로 그꺼지 이상인 지도 몰라요. 겐디 그 혼번은 광령에서 기별이 왔는데.  
101005 @ 네.  
101005 #1 이저 어느 그 지금 외도.  
101005 #2 경계선?  
101005 #1 경계, 경계선, 그 경계선에 노사한 사람이 가다가 죽엇다 해. 죽은 영장이 있으니까 이걸 당신네 경계 내니까 치우시오 허니깻 하, 여기서 허는 데는 “거 우리 경계 아니다.”  
101005 #2 치우기 실프니까. 웃음.  
101005 #1 우리 경계가 아니니까 당신네가 치우시오, 경해서 뉘어버렀다. 그제 경계가 족게 뉘었다는.  
101005 #2 땅따먹기.  
101005 #1 에피소드인지 뭐인지 그렇게 전합니다.  
101005 @ 예전에 바당도 경해났젠 허잖아예.  
101006 @2 바당에도 시신이 올라오면.  
101006 #2 치우기 실프니까.  
101006 @ 그 옛날에는 큰일들 허젠 허민 접들을 하영 들엇잖아예?  
101006 #2 계.  
101006 @ 접, 계. 화단체여.  
101006 @2 쓸제여 현 거거예?  
101006 @ 그런 거는 어떤 거 잇어나신고예?  
101006 #2 화단체가 잇어났는데 우리 동네도.  
101006 #1 화단체 잇어났는데.  
101006 @ 제들은 어떤 거 잇어난지 곱아줍서.  
101006 #1 화단체에 대해선 잘 모르겜네. 대현인 알 거여.  
101006 #2 대현인 알 거우다마는. 우리 동네 혼 잘 알거우다마는.  
101006 #2 이제 지금도 화단 대팻목엔 그도 화단체, 그저 화단이 영 네모지게서 리 허영 끼운 거 아니우과게.  
101006 @2 예.  
101006 #2 그거 이제 접어 놓는 하꼬가 잇어마씨?



101006 @ 아.

101006 #2 제서리 동산에. 막 뜯어져수다마는 그 하꼬는 남아있어. 대팻목도 영길게 행사 매는 대팻목도 그것도 있고.

101006 @ 예에.

101006 #2 칩지 아녀 어중간

101006 @2 화단은 이 동네서 하나만 잇어나수가?

101006 #2 글썸 두 개가 잇긴 잇어나서양.

101006 #1 무신 거?

101006 #2 화단제가 두 개 잇어나고 혼쪽에는 권력으로 느네 다 가져볼라. 그레 밀어부러어.

101006 #2 동서쪽이 다 잇긴 잇어나수다.

101006 @ 아까 연자매허영 그랫들도 잇엇덴 헛지예? 방에?

101006 #2 방에야 많이 잇어나십주.

101006 @ 그것도 점으로 동네마다 멧 개 잇어나수가?

101006 #2 동카름 서카름 딱시 옷가름 알가름 영혜영 잇어나는데 그런 방에덜이 다 잇어나서마씨. 몰방아.

101006 #1 대개 연자방아 대개 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조금 삶이나 잘 산덴 허는 부자는 자기 집 곁에.

101006 @ 예.

101006 #1 그 방아를 짓는 것을 아주 좋아헛덴 모양이라.

101006 #2 우리 김칩이.

101006 #1 경 올레에, 자기 올레에 방아를 놓는 이런.

101006 #2 김칩이 앞밭디 밧이 상당히 큰 밧이라. 그 집이 우리 조상 그 큰집이 잇어나수다. 그 저 뭐냐 대대로 내려오는 종손집.

101006 @ 종가집.

101006 #2 종손집이 쥔 가까운 디 큰 밧이 잇어마씨? 부자라 놓니까 일로 광령꺼지 우리 김칩 밧이난, 그 올레 쭈 나오민 바로 거기 밧이 잇는데 밧 혼 귀야질 끊어가지고 방에를 만들어분 거라.

101006 @ 그 집안에서.

101006 #2 아주 잘 사니까. 옛날 하르방덜 힘도 썸고 방엿들도 보민 이만은 헛거 넘적헛 거 둥글락헛 거 멘글양 개인 방아 식으로 이녁 밧디 멩글아근에. 혼 귀야지에.

101006 @ 게연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예, 게른 예전에 큰일들 동네 잔치가 잇거나 영장 어떤 식으로?

101006 #2 다 수눌영 헤십주.

101006 @ 수눌어예? 그 말 흐끔 곶아줍서.

101006 #2 아덜이나 돌덜 풀젠 허른 동네 사름 모다들영 도새기도 밥덜토 허곡

심부름도 해주곡 전 삼일 후 삼일 해서마썸. 삼식. 장게가기. 잔치허기 전에 삼일 간 두부허는 날, 도새기 잡는 날 뭐 이치록 혜근에 삼일 간을 잔치를 헤.

101006 @ 음.

101006 #2 또 낫나민 낫나면은 치우는 것도 삼일이 걸려. 전 삼일 후 삼일.

101006 @2 일뤼 잔치.

101006 #2 일뤼잔치. 칠일간 잔치헛텐 말이 잇주.

101006 @ 예.

101006 #2 아 저희들도 이 자식을 팔 때는 다 경헛수다. 전 삼일 후 삼일 허고. 뭐 이런 식장이니 무시거닌 엇엇고 전부 집에서.

101006 @ 게문.

101006 #2 우리도 큰딸 풀 때는 이 공훼당에 완에 헤십주. 옛날엔 공훼당엔 헛수다예.

101006 @ 회관이예?

101006 #2 거기 빌언에 족두리 씌원 주레 빌언 잔칠 헤십주.

101006 @ 큰딸을 족두리 씌완 해서마썸?

101006 #2 아 족두리 아니고, 집의서 멘든.

101006 @2 면사포.

101006 #2 면사포.

101006 @ 예, 예.

101007 @ 이 우렁이 마을만 특별헌 풍습 같은 거 이시카마썸?

101007 #1 여기에 할망당 당 잇는데, 이런 여기 이 우렁이당은 돛당이라고 헛니다. 돛당.

101007 @ 돛당예? 예.

101007 #1 똤지 돛, 똤지 돛당이라. 허는데 이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당 하르방허고 당 할망이 부부가 이제 신 살앗는데, 혼번은 하르방이 어디 갓다완 보니까 할망이, 할망으로 똤지고기 냄새가 많이 낫던 모양이라.

101007 @ 음.

101007 #1 경혜가지고 말이여 이거 어떻게 똤 거냐 허니까 똤지고기 먹어 허니까 이거 못 살갓다고 할망은 쫓겨부럿어.

101007 @ 예.

101007 #1 하르방 혼자만 허연에 현디 이 어디 알부락으로 갓다고 허는데, 경혜가지고 저 이 당을 돛당, 돛당 허고 하르방당이엔 현디 이런 말이 잇는데, 게도 그 당 그스를 허는 거 보니까 그 멜 두 꺼 올령은에 할망 할르방 그 메는 올리는 거 닻읍디다.

101007 @ 예.

101007 #1 여기에 칠월에는 포제를 허고.

101007 @ 예.

101007 #1 이렇게 해가지고.  
101007 @2 멧월달에 포제마씨?  
101007 #2 팔월멧일 전이 험주.  
101007 @ 정월에 안 험수다예?  
101007 #1 당터도 잇는데,  
101007 @ 예.  
101007 #1 이 칠십년대인가 이제 새마을운동 하면서 이제 그 당은 이거 미신타  
파라고 해가지고 그날 철거시켜 버리고.  
101007 #2 없애버리고.  
101007 #1 현재 그 당ㄴ스나.  
101007 @ 예.  
101007 #1 옛날에는 그 무속인들이 그냥 그거 춤 굿하고 해냈지만 것도 아니고  
그 다음은 고스허다가 치와부리고.  
101007 #2 것도 우리 옥은 후에 치왔수게.  
101007 #1 단지 포제를 허는데. 포제는 이제.  
101007 #2 기우제로.  
101007 #1 한 아마 여기 포제 그 헌 게 저 언제 헌 줄은 몰라도 저게 그.  
101007 #2 옛날 옛날에.  
101007 #1 뭐 때문에 헛는고 허니까 기우제 형식으로 헌 거 같애요. ㄴ물아놓니  
까.  
101007 #2 ㄴ물안.  
101007 #1 칠월달에 허니까. 여름에. 부락 수호신은 틀림없이 당인데 게서 칠월  
달에 허고 허는데 여기서 지금도 이 포제만은 험니다.  
101007 @ 음.  
101007 #1 포제만은 허는디 이제 칠월 들어가지고 음력 저 칠월절 들엉은에 첫  
에 정일이나 해일 택해서 이제 포제를 허는데 그 포제가 연유된 연대는 아메도 혼.  
101007 #2 멧 백년 뒤실 탭주게.  
101007 #1 천 육백년 후반이나 그렇게 한 거 같애요. 그렇게 허고 잇다.  
101007 @2 아까 하나만예, 다른 동네 조사 가보면 포제는 정월달에 험주게. 음  
력 정월달에.  
101007 #1 정월달에도 허고.  
101007 #2 바닷가 쪽으로.  
101007 #1 정월달에 허는 디도 잇고 예.  
101007 @2 결국은 그것이 이사제가 돼는데 마을을 위한.  
101007 #1 예.  
101007 @ 정월달엔 안 험니까?  
101007 #1 안 험니다.

101007 @2 저기 보니까 액막이라고.  
 101007 #2 액막이는 저거는.  
 101007 #1 당콧스가 아니라.  
 101007 #1 저거는 여기.  
 101007 #3 그것은 나가 설명허쿠다. 당 잇어났다고 헛주이, 그 당이 이거 한 몇 년 전까지라도 정월 나면 무당 행은에 막 굿허는 사름덜이 잇고 그렇지 아녀민 집 안에 액운이나 아이들 킵는디 조상들 뒤 신이 잇으면은 우리 돌봐주세요 헐가지고 당에 가서 심방 빌영 강 \*\*도 두드리멍 허고 헛는데, 이제는 그걸 사삼사건 나기까 지는 헛는데 사삼 나서 부락을 불 부찌고 그 당시에 지서에서 완 그때 모르주만, 다 부수와불고 해영덜. 글로부터는 그래도 허는 분이 잇어나서. 그걸 따라서 정월보 름날에든 동네에서 액막이로 헐가지고 결궁.  
 101007 @ 예.  
 101007 #3 결궁을 해. 결궁을 해. 게서 우리 저거 멘들어단 사진.  
 101007 @2 이천육년도.  
 101007 #3 것도 오륙년까지는 헛수다. 여기도.  
 101007 @ 음.  
 101007 #1 헛는데 이젠 옛날 할망덜 흐는 분이 모르고 아는 사름이 없어가지고 글로부터 끊어버렸수게.  
 101007 @ 게문 결궁은 이 마을에서 해마다 해난마씨?  
 101007 #2 해나수다.  
 101007 @2 이천육년도 아냐.  
 101007 #2 액막이 해질.  
 101007 @2 돈도 받고.  
 101007 #2 쓸도 받고 술도 받고 경해십주.  
 101007 #3 사삼사건으로 낫났다 옛날 조상덜 허는 거 우리도 하자 것도 좋더라 고. 아 메칠 간 허니까.  
 101007 #2 재미로.  
 101007 #3 이제는 그렇게 아는 분이 없어, 이제는.  
 101007 @ 그러면 대가 끊겼다가 다시 복원을 헐가지고 헨 거구나예?  
 101007 #3 사삼사건 당시에 순경들 완에 폭리 목숨이난 팡팡 죽이는다.  
 101007 #1 아니라게.  
 101007 #3 사삼사건 당시에 \*\*.  
 101007 #1 천구백육십일년도에 아냐 육십삼년도에 이 마을을 떠나가지고 좀 공 직생활을 좀 헛는데 그 천구백육십이년.  
 101007 @ 예.  
 101007 #1 예, 일월달에.  
 101007 @ 예.

101007 #1 이 저 당 고사라고 해가지고.

101007 @ 예.

101007 #1 옛날에는 그 무당들이 좀 알아가지고 막 춤 걸궁도 허곡, 춤도 추고 이제 비넘허는 여자들은 오랑 비넘도 허고 헤낫는데, 이것도 한가지 그 너무 그 재원이 없어가지고 허니까 간단허게 고사를 험시다 해서 그때부터 고사를 헛는디 혼헨가 미신타파로 없어지고 현재까지 포제만 허고 잇다 이렇게 보면 텔 거.

101009 @ 예, 알겠습니다. 외도 자랑거리엔 허든 뭐 이시코예?

101009 #1 자랑거리 허민 뵈이. 외도 외도 전체로 뵈은.

101009 @ 예.

101009 #2 도지사도 두 사람씩.

101009 #1 외도천이 가장 그 춤 훌륭한 춤 내엿주기.

101009 @ 예, 예.

101009 #1 옛날엔 그 석상, 석상페라고 하는가.

101009 #2 칭창페?

101009 #1 돌에.

101009 #3 칭창페.

101009 #2 칭창페, 칭창페.

101009 #1 그게 그 외도천 그

101009 #2 바위에 딱 부떠가지고.

101009 #1 골고로

101009 #2 물 그 아래 왕 놀아.

101009 #1 돌마다 부뎡 나고. 그 틈새에 안에서 은어가 놀곡 헤근에 우리도 어룬 때 삼봉이라고 낚싯줄 멘들아.

101009 #2 많이 잡아십주.

101009 @ 예.

101009 #1 그게 해방 텔 허니까 약초 캐는 사름덜이 석상페를 문딱 저 문질런 가져가부러어.

101009 @ 예.

101009 #1 그것도 잇고, 춤 이 저 수도 공사. 저 이 수도 공사 허게 뵈니까 그뎡 물을 먹게 뵈니까 저거 그 내를 그디 거 건드령 파헤칠 때 엇어저부런.

101009 @ 음.

101009 #1 경 아녀민 상당히 아름다운 참 하천이라.

101009 #2 이제도 많이 잇수다. 이제 또 번성헤연. 사름덜 못 다니게 허니까 지금 번성헛주.

101009 #1 자랑스러운 \*\*.

101009 #3 올레에 거 다 심어낫주게. 베염 안 텅긴텐 헨에.

101009 #2 약초. 약초로.

101009 @ 약초로예?  
101009 #3 베염 안 땡긴데.  
101009 @ 약초로예?  
101009 #2 검질매기 실프민 그거 싱거불민.  
101009 #3 골목 뭐 현 집은 다 싱거가지고.  
101009 #2 옛날은 골목이 질게시리덜 혜영 살아십주게.  
101009 #3 골목이.  
101009 #1 갯맛. 옛날에는 글로 헤가지고 일본에 군대환도 땡겨낫텐 허는디.  
101009 @ 음.  
101009 #1 저게 매몰되어 가지고 허는 이유가 그 뭐냐 허면은 그 저 내 동쪽으로 거기에 흙 담을 쌓으거나 헤가난 그디 그 모래가 경 저축돼가지고 그 메와져가지고.  
101009 #2 알작지로 그거 메와불엇수게.  
101009 @2 석상베마씨?  
101009 #2 청창폐.  
101009 #3 청창폐.  
101009 #1 난 닦은 거 질게 나는 거 잇수다게.  
101009 @ 표준어로는 석창포.  
101009 @2 음.  
101009 #2 아, 석창풀 거라.  
101009 @ 청창폐. 약초하고 꽃도 피고예?  
101009 #3 오월 단오에 빨리 허영 머리도 금곡. 그 뿌리 헤가지고 머리 감곡 헤난 거.  
101009 #1 우리 마을에 자랑허영은에 이거 빛날 게 없네이.  
101009 #3 없어.  
101009 @ 옛날 월대 그.  
101009 #1 월대가.  
101009 @ 그 외도천에예?  
101009 #1 외도 일동이 경계가 그 월대 그 저 내.  
101009 @ 예.  
101009 #2 이 저 옛날 구 한질 구 신작로 남쪽은 다 외도 일동이난에.  
101009 @ 예, 예.  
101009 #1 거기 속하다시피 헛주.  
101009 @ 예전에 그 월대 이신디 은어튀김 이런 것도.  
101009 #1 그때사 춤말로.  
101009 #3 지금도 은어집 셔?  
101009 #2 웃음.

101009 #2 외도팔경엔 현 것도 잇어나지 아녀수가?  
 101009 #3 무사 엇어.  
 101009 #2 외도팔경 몰릅니까?  
 101009 #1 외도팔경은.  
 101009 #3 저디 책에 실 건데.  
 101009 #2 큰아버지 신 때는 거 잘 알아났는데.  
 101009 #3 이 형님도 알아. 달밤에 술잔 비우민 뉘 달이 비쳐가지고 뉘허는 노래 잇주게.  
 101009 @ 예.  
 101009 #1 써져신가 이런 디 웃일 거라.  
 101009 #3 아 거긴 엇수다. 거긴 엇고이번 월대에서 행사할 때 책 이실 건디.  
 101009 #2 아, 그거엔 안 나옵니다.  
 101009 @ 알아수다.  
 101009 @2 어르신.  
 101009 #1 이건 축벧기 없네.  
 101009 #3 이 백부님이 쓴 책이주. 자필로 써가지고 복사헨 놔둔 건디.  
 101009 @ 이 마을에 대한 거예?  
 101010 @2 축시. 예, 예.  
 101010 @ 그러면은 그거 말고 외도 자랑거리 잇이면은 마을에 덧붙일 이야기는 없어마씨?  
 101010 #3 마을에 덧붙일 우리는. 우리 사는 우렁이는 나서 허는 거 고대로 허고 또 들은대로 헛자 크게 행정이나 뉘허고 직장이나 \*\* 별로 없어 배고. 도의원 헛 멧 사름 종사헛주마는 그 전에는 우리 므슬에 별 뉘가 엇어.  
 101010 @ 예, 알아수다. 게른 다른 거 물어보커라 이젠예?

## 2. 제보자 일생

102001 @ 계난, 삼춘 여기에서 언제 나고 어떤 생활을 허명 살앗수가? 이제까지.  
 102001 #4 이제까지.  
 102001 @ 예.  
 102001 #4 나 춤 이 나 어린 때부터 우리 아버진 나 돌 전이 우리 아버진 세상을 떠불고 경허난 할머니 할아버지네광안테 나 컨.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라나신디 경허난 경허연 허단에 우리 죽은아버지넨 일본 살아나신디.  
 102001 @ 음.  
 102001 #4 일본서 우리 아버지 형제라나신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난 춤 아니

왕 오젠 현디 막 옛날은 그런 말이 잇주기게. 지금ㄴ트민 전보 치고 전화로 할 건디.

102001 @ 예.

102001 #4 옛날이난 경 곶안게. 춤 호출허다실피 막 기냥 허난 우리 족은아버지네가 완게. 완 허난 나가 저 족은아버지네 손에 크고 우리 스춘덜이영 ㄴ치 어린 때부터.

102001 @ 음.

102001 #4 어린 때부터 나가 여동생 하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원 우리 여동생은 우리 어머니가 가진 중 몰라나신 쟁이라.

102001 @ 음.

102001 #4 경현디 가전에 허연 춤 우리 여동생아올라 여자 몸이 뉘연게. 경허연 해연 우리 어머니가 경해연 살단에. 우리 어머니가 막 젊을 때게 옛날은 얼른 춤 쭈무남은만 나가민 결혼덜 시킨 거 아니?

102001 @ 예.

102001 #4 경허난 경허난 우리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부난 우리 딸 성제고 경해연 허난 어떻허단 보난 웨가에서 우리 웨삼춘들이 하귀라게.

102001 @ 아아.

102001 #4 하귀, 옛날은 하귀보고 귀리렌 해낫주기, 귀리.

102001 @ 귀리.

102001 #4 귀릿장에 장 사나서게. 오일장. 귀릿장에 가자. 경덜 허연 허고. 귀리엔 허고. 이 외도도 지금 외돈덴 옛날은 도고네.

102001 @ 아, 도그네?

102001 #4 도그네. 지금도 서착 내 지난 서쪽이난 서착 내 동쪽은 동착. 내 지금도 경 곶아.

102001 @ 예.

102001 #4 경 ㄴ는 사름도 잇고 표준말로 지금 말로는 내도 외도.

102001 @ 음.

102001 #4 경허곡 경 헤나신디 아이고, 우리 할머니네광 경허연 살단 춤 나가 족은어머니 족은아버지네광 살단 우리 스춘 아시넨 이제 부영 살아.

102001 @ 예.

102001 #4 우리 딸레 즈궂디 사는다. 경 이녁 형제간ㄴ치 허곡 우리 스춘오래비가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니까 기일 제스도 스춘아지방이 허여. 우리 스춘오래비도 저 세상 떠블고 경허난 스춘아지방이. 이녁 혼 막 동기간보단도 더 스춘오래비가 막 경해연 어린 때 부모 잃연 할머니네광 산 중 알고 경허난 커가난 우리 스춘오래비도 옛날 시에 상고이.

102001 @ 예.

102001 #4 상고 나오고 경해신디 이제 그전엔 요디 외도 살아나서. 우리 저 할



머니네 집의덜 경허연 살아나신디. 그 오래비가 나신디 허는 말이. “누님.” 이녀 동생 서녀이 싯주마는 날 불쌍히 네기곡 막 경허연 나 어린 때난게. 잘못된 일이 서도이 나신디데레 욱 안 허영 다 이젠 생각나곡 알아져. 동기간 신더레 나 잘못된 것도 헤여놓난 경허여낫주기. 지금도 스춘 닳진 안 허여. 형제간보담 더 기냥 날 생각허고 우리 아시 하나 싯단 저 세상 떠블로고이. 경헨게. 아이고, 경헤연 헨게. 옛날은 지금ㄴ때민 춤 딸이고 아덜이고 하나 둘 낭 말아신디 옛날은 가지는대로 가지난 아 벗 부찌젠 허단 보난 딸이 으라 개. 경허난 우리 말젯씨아버님이 일본 살아신디 오랏단에 우리 아덜 하나 이신디 경허연 돌아강은에 뒤희켄 허연 어린 때부터 이디 중혹교 일혹년 썸에 뒤희헨 가실 거라게. 경헤연 허난 거기 사름 뒤희불언.

102001 @ 예.

102001 #4 거기 사름 뒤희불언, 우리 말젯씨아버님넨 다 돌아가셔불고 막 이제 막 오래엿주게. 쓰무남은에 가난.

102001 @ 예, 예, 예.

102001 #4 경허난 우리 아덜이 오십으뜸이라. 거기서 결혼허연 아덜 하나 난 허여신디 나도 두번 가완. 결혼식에 가오고. 아기 난에 돌 험수덴 허연 돌잔치에 가고 나도 일본 비행기 두 번 타완.

102001 @ 예에.

102001 #4 경헤연 허여신디 그디 우리 메뉴리가 한국 사름 ㄴ뜨민 나가 그디 가져실 건디.

102001 @ 게니까.

102001 #4 게난 우리 아덜이 경허는 거라. 왕 살단 집의 가켄 허든 나가 데려오곡 데려가곡 자꾸 허쿠덴. 아이고, 것도 말이 쉽주. 이제 직장 텅기곡 경 못헌다. 경허명 이디 아무도 엇이민 흘 수 엇이 나가 가젯주게. 경허주만은 딸덜이 으라 성제션. 경허난 딸덜 싯고 이디 저. 웃음.

102001 @ 그냥 곱읍서.

102001 #4 저 경헤연 이디 살암신디. 지금도 우리 스춘 아시가 이녀 동기간보담도 흘 베 동기간보담도 더 나를 생각허여게. 저기 부영 사는디.

102001 @ 예.

102001 #4 경허영 막 뒤희영 허고 기자 게난 아시에 나가 웨롭게 살렌 헨 팔잔ㄴ라.

102001 @ 음.

102001 #4 웨롭게 살렌 헨 팔잔ㄴ라 아시 하나 신 거 신디도 저 세상 떠블고이. 경허연 허여도 딸덜이 시난 게도 뒤희 허연 옛날. 웃음.

102002 @ 알아수다. 게난 그 어머니는 어떤 일 헤난마씨? 여기 살 때.

102002 #4 누게 나.

102002 @ 예, 아니, 삼춘네 어머니.

102002 #4 옛날은 뒤희 허여게. 옛날은 모즈도 좃고이. 모즈 그 옛날 노인네덜 탕

건 쓰고 뭐 허는 그런 모즈. 옛날은. 나도 무신 거 헤나서. 그물 짜는 거이.

102002 @ 예.

102002 #4 바농대에 썰 감양은예. 그거 허영 바늘대 썰 감양 썰 타당 뭐허는 사  
름 시난 그거 허영 그물 짜꼭 경허영 용돈 벌엉 쓰꼭 경허연 현디.

102002 @ 음.

102002 #4 계난 나 일본시덴 아니 그뻐. 일본 시덴디 초등학교도 못 나완게. 나.  
102002 @ 그때야 다 경험주게.

102002 #4 초등학교도 못 나완 경 허영. 겨영저영 살단보난 나 이제 팔십너이난  
널모리 팔십다섯.

102003 @ 예, 경해도 막 정정허여마씨? 어머니 고향은 어디마씨? 저기 그.

102003 #4 우리 친정어머니?

102003 @ 으.

102003 #4 하귀. 귀리.

102003 #4 귀릿장에 가자 저 지금은 표준말로 하귀.

102003 @ 아버지 고향은 어디?

102003 #4 저 원래 우리 아버지진 금덕, 애월면 금덕. 지금은 이수암엔 현디.

102003 @ 이수암. 경혜영은예 여기는 외도에는 언제 온 거마씨?

102003 #4 외도에 저 언제 우리 어린 때 완. 우리 하르버지가 우리 족은아버지  
가 일본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부난 막 오랜 지금은 전화허고 뭐 퍼지로 해도 돼  
주마는 경 전화 엇인 세상이나 아니 오젠 허는 걸 옛날 말로 호출게. 막 법으로. 우  
리 아버지 엇어부난 경허연 오랜 불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부난 우리 족  
은아버지 족은어머니네광 나가 산디 스촌덜이 이년 친동기간보단 더 나를 생각허연  
게. 큰아방 딸로.

102003 @예.

102003 # 4 경허연 허난 우리 요디 집의 서나서게. 경현디.

102003 @ 계난 원래 계문 그 웨할머니 웨할아버지는 외도였수가?

102003 @ 하귀고. 그 큰아버지가.

102003 #4 우리 할아버지넌 애월면 금덕.

102003 @ 예.

102003 #4 옛날은 이수암.

102004 @ 삼춘 어렸을 때는 우리 놀기도 하영 허잖아예? 어떤 놀이허명 놀아나  
수가?

102004 #4 우리 여기 잇을 땐 외도 드리 잇지이. 드리 그디 흐뎡 땅 널른디 그  
니 성 허민 백몰레.

102004 @ 예.

102004 #4 백몰레 영 담아당근엿에 글로 영영 그뎡 곳영. 일본 그 뵈으로 경 골  
아신가. 하시아다리.

102004 @ 아.

102004 #4 하이아다리 허게 허영 놀곡 서로 영 막 밀리곡 서로 등기곡 경허멍 허멍 그런 것도 허영 놀아나곡.

102004 @ 예.

102004 #4 베펠락도 허어나고.

102004 @ 베펠락도 허고.

102004 #1 경허연.

102004 @1 그것 말고 다른 노래는? 놀이는?

102004 #4 하시 아시아다렌 말은 일본 말일 거라게. 하시아다리 허자 백몰레 해당 영 그릇 굿영 그거 허여 먹어나고 베펠락 허어나고. 땅따먹을락. 영 허영 땅따먹을락 허자 니개반듯하게 허민 뽀으로 폐왕. 영허영 사금파리나 쪼끄만 돌세기 무시 거 영 특 튀와근영에 허영 허면은 그 상대방 그 거세길 맞이민 땅따먹을락 허영 영 허여근에 그릇 굿영 땅 그릇 굿영 이녁이 따먹을락 경해난.

102005 @ 땅따먹을락허고예? 그 다음에 예전에 일제시대에 그 막 공출도 하영 해서양?

102005 #4 막 공출 허연. 우리 어린 댄디이, 우리 할머니네가 그때 저 애월면 금덕 지금은 금덕 그뻐 우수암 그디 허연 살아신지. 감저 고구마. 지금은 고구마. 감저허영 허영 허민 그거 썰영.

102005 @ 예.

102005 #4 썰어근에 지금은 감저뻐테기엔 현디 그때는 감저 썰멍 들령 나왔디 그것도 공출헤어나고. 웨야지공출. 웨야지도 허여근에 애월면 금덕 우수암엔 현 디 살아신디. 하귀 금덕은 지금 말론 허민 옷드르 웨지. 하귀에 내려오랑 그걸 허영 바 썩신디. 잊어불어지질 안 허여. 웨야질 경허연 오란 허연 현디 키로 수가 떨어진 생 이라. 키로수가 떨어지난에 합격이 안 웨영 따시 다른 걸로 헤여 오렌 허난. 우리 할머니네가 애월읍 금덕 그전에 표준말로 이수암인디 그디 허연 하귀 우로 저 고성 도 지금은 옛날은 항바두리엔 헤낫주기.

102005 @ 예.

102005 #4 항바두리. 고성ㄱ라. 항바두리. 글로 몰양 우터레 막 강 뒷날은 맛좋은 걸로, 보릿ㄱ를 그런 걸로 맥여놓난 합격웨연게. 그 웨야진디. 그 웨야진디 뒷날은 잘 맥여놓난 합격웨연. 윈 잊어불어지지 안 허여. 경허고 금덕물이 윈체 물이 좋아. 생수. 막 물이 좋은디 일본 군인덜 오란에 그 금덕, 절산디, 절산디에 허는 우리 그때 어린 때 절산디에 꼬박꼬박허는 것이 뵈고 경허든 미뿌쟁인, 미뿌쟁인 현디. 희민 하르비여. 하르빈 동굽은다. 경현 말도 셔나고이.

102005 @ 예.

102005 #4 웃음. 경허연 그 그런 거세기도 허멍 놀아나고이.

102005 @ 예.

102005 #4 경허연 웨정시대 일본 사름덜이 그 이제 이수암엔 현디 막 생수 물

이 좋주기. 경허난 빨레허는 디 먹는 물도 이 방만씩 두 개 우알 저디 허고 이디 허고 방만씩 일본 군인들이 완 해서. 우리 아인 때이. 이제 원 잊어불지 아년디. 일본 군인덜이 질 우의 이 방만큼 현 거 우 더쨍 세멘을 허연이.

102005 @ 예.

102005 #4 집의 제 지낼 때난 기일제사 혈 딸랑 비 아니 맞인 물. 생수만 내려 온 거. 그걸로 허영은에 질어당 이제 춤 지금 말로 메라도 지라 경헌 뜻으로 허고, 그 알 물통은 아래 것 우리 허벽으로 저당 먹고. 허벽으로 물대바지 대바지엔 현 것도 저나고. 우리 외도 나 온지 후제도 이 고망물에 현 디 셔. 저 우의, 이 내로 저 우펜이. 그디도 춤 허벽으로 물 저단 먹고 경 해난.

102005 @ 계난 그 공출혈 때 늦그릇같은 거는 공출 안 험디가?

102005 #4 아이고, 무사 안 허여? 할머니 저가 장손으로 옛날 뵈으로 수박기이.

102005 @ 예.

102005 #4 늦그릇 영허영 허른 곡지 돋은 수박기로 옛날 흥끔 집안이 뭐허다 현 집안은 그런 그 그런 늦그릇에 수박기에 현 거 곡지 돋은 두께 영허영 허곡, 그 걸로 메 거리고 늦그릇게. 계영국 거리고 그거 다 공출허연. 다 바치렌 허연 허고. 이제 저 그 동네에서 옛날 지금은 동장 밑에 동장엔 허지이.

102005 @ 예.

102005 #4 그때는 구장.

102005 @ 구장예?

102005 #4 구장이엔 해낫주기. 구장신디 나라에서 왕 뭐허영 허른, 그런 기일제 스도 못허게게. 못허게 해나서. 경허영 허영 허곡 저 멩질 때에 팔월추석 때에 현 거 알아져. 팔월추석 때에 적 지정은에 적지지는 것도 못허게 막 허른. 옛날은 이런 카뎅도 엇어낫주게. 이불 꺾데기나 이불 안이나 허영 창문 막앙 포장 처뵈이 것도 모르게 지정은에게 허난 다 조사 왓져 현 즈끗디덜 영 연락헤주민 우리 할머니네 대왔디 강 또 적채롱.

102005 @ 예.

102005 #4 곱지곡 허는 거 원 잊어불어지지 아녀. 경 곱져당 이제 제 지내곡.

102005 @ 예.

102005 #4 경해난.

102005 @ 예.

102005 #4 경허곡 옛날은 술 그 제주 쓰젠 허른 술 향아리에 돕앙, 담앙이 누룩 헤영 밥허영 술 담앙 허는 술, 그 소주 빠는 고수리엔 현 거 잊어나서.

102005 @ 예.

102005 #4 그 경허른 영 이 가운딘 영 쪼라지곡 아래 그 옛날 그 저 무췌숯.

102005 @ 예.

102005 #4 꺾은곳이, 그 솟에 맞은 그 고소리 헤근에 그 우의 자박지에 물 낳은 에 허민 물 막 뜻앙 허민 어떻사 아는디 그걸 잘 알아근에 물 글명 그췌룩허영 요

추룩헌 헌 그 거세기로 졸졸졸졸 허영 허문 그 옛날 저 썩 게. 사기쟁이.

102005 @ 예.

102005 #4 그거 영 허영 받아근에에 그 술 빠고 경허는 거 우리 어린 때 봐난.

102005 @ 예.

102005 #4 옛날 어른덜 잘도 고생해연 살았주게. 그런 거 경 허영. 에이고.

102006 @ 혹시 사삼사건에, 스삼 때 그땐 어떻 험디가?

102006 #4 사삼스, 경허난 일본 시대만 적간 우리 죽은아버지가 막 오렌 지금 그땐 말론 호출허단시피 허연 경허영 허난.

102006 @ 예.

102006 #4 그땐 베로 왔거든. 비행기 엇이난 베로 멩길 땐디 부산인가 어디 오 난에 곶아탄. 부산까지 저 허연 오란에 헌디 글로 오란 글로 허젠 허난 우리 말젓 하르버님 아덜허고 우리 죽은아버지허고 스춘 성제가 ㄱ치 오느디 그때도 막 일본 거세기로 막 폭발허고 막 험 때에 허연 허난 경허난 그런 시절에도 멩 진 사름은 어뎡어뎡 살게 돼고 스춘 성제가 ㄱ치 나와신디 기냥 앞에 우리 말젓하르버님 아덜 은 아덜이난 우리 죽은아버지허고 스춘 성제 웰 거주게. 경해연 폭발 맞안 배가 폭발해연에 죽고. 우리 죽은아바진 경허난 어른덜이 경 곤는 말 들어나서. 형제간도 혼 배랑 타지 말렌 헛젠. 사름 일이 모르니까 혼 배랑 타지 말렌, 그런 춤 속담이 셔낫주게. 경허연 헌디 앞의 타고 우리 죽은아바진 뒤에 뒷배로 오주긴 해연 만원이 돼난 경헌 모양이지.

102006 @ 예, 예.

102006 #5 경허난 우리 죽은할아버진 살아난게. 경허난 그때는 산지축항으로 배 여 공항에 비행기 허주만 그때는 산지 축항으로 못 완에 저 금덕, 애월면 금덕이, 유수암 그디난 그딘 애월면이나 애월 축항으로 배 들언.

102006 @ 음.

102006 #4 경허난 왓짜 허난 우리 어린 땐디 막 지꺼전 마중가고 경 해난.

102006 @ 음,

102006 #4 막 경헌 거세기도 잇고이. 춤 옛날 어른덜 잘도 고생허멍 살았주기. 공출 다 허여부난 먹을 거 졸바로 못 먹곡. 막 경허고 사삼스건에도 우리 이디 이 외도 죽은아버지네 우리 할아버지네 온 디 후제도 우리 켤당이 파출소 순경으로 셔서. 외도파출소. 지금 ㄱ뜨민 지금은 그땐 지서, 지서 해낫주기.

102006 @ 예.

102006 #4 지서, 지금은 파출소엔 허느디, 지서 도그네지서, 도그네 지서 이디 외돈디 도그네지서 헌디 그디 순경으로 시연 허난에 사삼사건이 아이그, 다 올라오 렌 허연 허난에 다 올라덜 가신디 우리 하르버지가 조끔 옛날 어른으로서 흐뎡 역 세다. 지금 ㄱ뜨민 나가 아는 바에.

102006 @ 예.

102006 #4 역세다 흐는 성격이라나서. 난 앙 죽으키엔. 이왕 죽을 거 산에 올라

갓당 내려왔다 허명 죽지 않고 난 나 집의 앓양 죽으켄 난 나중에 딱 해서 아이덜 이녀 집의서 죽겐. 경허연 헛는디 우리 켄당 어른이 파출소에 순경으로 션 허난에 싣고 허난 경허연 해신디 문딱 그 산에 올라가난 이딧 사름덜토.

102006 @ 예에.

102006 #4 어디 명령이라. 막 기냥 밤중의 오란 죽여부카부덴 경허연 가신디 그 파출소에 그 숙직허는 순경들이 영 밤이민 올레 돌 거 아니라. 어디 사름이 싣고 엇이고 돌아판 우리 하르버지네 집의 시난 막 지꺼정 스뭇 지꺼전 아니 가난 지꺼전 막 기냥 스뭇 안양 우리 하르버지 순경덜이 우리 하르버지 안양 고맙수덴 그런 거 나 잊어볼지 아녀고 경허연 헨 거 알아져.

102006 @ 사삼에 피해보거나 이런 건 엇어마씨?

102006 #4 우리 피해본 거 엇어. 파출소에 켄당이 싣고 그 거세기 허연 허고. 경허난 그때 춤 저 이제 산에서 몰르게 오랑 뭇 허곡 그쪽에도 흐뎡 여기 사름덜토 하나씩 셔낫주게.

102006 @ 예, 예.

102006 #4 경허영 허난 이제 저 어디로 피란 가야 헌텐 해연 허난 이제 신지미 이 모요탕 아래 신진미엔 헨 켄가 잇어나서. 그디 강도 곱아나고이 산에서 오카부덴.

102007 @ 예, 알아수다. 결혼헨 때는 중매결혼 헛수가 연예결혼 헛수가? 어떻허 연 결혼헨 거우과?

102007 #4 우리.

102007 @ 예. 삼춘 결혼헨 때?

102007 #4 저 연애만 중매 반 뉘긴 헛지. 중매가 뉘지. 옛날은 헌디 우린 셋하르버님 딸이 저 이 월대동에 그디 저 뉘헌 어른이 션에 영해연 살아신디 우리 집의 아방이 그때 시절에 우리 스물둘 난 스물둘에 우리 집의 아방은 스물넷에 결혼을 해신디.

102007 @ 예.

102007 #4 우리 셋하르방이 딸이 그 셋하르바님 딸이 난 고모가 날 소개헨 거라.

102007 @ 예.

102007 #4 경 무사 소개해신고 허민 그때 쑈물둘엔간 스물 뗏, 스물엔가 군인 간에 해연 제대해연 완. 옛날은 지금은 혼 집이 운전수덜이 뗏 개 아니? 딸이고 아덜이고 손지고 그뎨 운전수가 엇어낫주게. 경허연 허난 이제 군인 간 운전을 베왔던 모양이라.

102007 @ 예.

102007 #4 그때 시절에 우리집의 아방이 경허영 허난 셋하르바님 딸이 날 소개헨 거라게. 산판에 뎡기는 찰 몰안낫젠. 그 총각인 때에 그때 그것ㄴ라 통신대엔 허던가, 통신대 찰 몰아낫젠. 경허연 헌디 날 경허연 허난 우리 죽은아버지네, 죽은아

머지가 저 이녁 딸보다 더 나를 이제, 성 딸로 허연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서 불곡 경허난 허난 춤 막 더 생각해난게.

102007 @ 예.

102007 #4 죽은아버지 죽은어머니나 우리 스춘덜 간이이라도 지금도 경 허여. 우리 스춘 아신덜토 경허영. 경허영 헌디 그 우린 셋하르님 딸이 경허연 우리 죽은 아버지네 곶으난 우리 죽은아버진 “느 몸 약하고 웃드리나 어디 씨집가민 느 농스 허여사 살 거난 뒤흔다 운전수엔 허난 느 몸도 약하고 경허연 살라, 살라. 죽은아버지네 막 경허곡 우리 셋하르바님 딸이 경 소개허연 춤 중매 반 춤 연애 반 헌 폭이 주기게.

102007 @ 예.

102007 #4 경허연 경허연 우리 씨어머님넨 시에. 상곶동산 싯지아녀 상고. 생깃동산 그 아래 그 옛날 등글락헌 물통. 두레박으로 영 물땡 허벅으로 저당 떡곡 헤나서. 경허난 그 안네 이제 서문시장 안네 우리 씨어머님넨 살고. 우리 결혼허난에 생곶동나 딱로이 경헤여근에 살렘 살고 경헛주게. 경헌디 우리 집의 아방이 아이고 옛날은 그 차 운전허연 경 차 운전 허민 춤 아무나 못 헤낫주게. 군대에서 배완 오난 이디서 면허중도 쉽게 타고 경헛젠. 관광차 타나서. 회산 관덕청 신진관광 그때. 신진관광 회사라낫주기. 계난 거기 차 탄 늘 도일주 관광 온 사름덜 뒤흔고 경허연 허연 헌디 그 경헤연 그 벌곡 막 경허연 헌디 곶아주지 아녀민 좋은디 누게가 오랑 “야 느네 집의 아방 어디서 노름 험서라.” “어디서 뒤흔 험서라.”

102007 @ 웃음.

102007 #4 어디서 곶아쥬 허민, 잘 싸와나기도 허연게.

102007 @ 예.

102007 #4 경허명 나 이치록 허연 나 암만이라도 못 살켤. 경 아녀민 이제도 시에 살아실 건디. 나 이치록 허명 못 살켤 허연 죽은아버지신디 외도 완, “죽은아버지 나 암만이라도 못 살कु다. 아이덜 생각도 안 허고 노름만 허영 못 살कु다. 어디 방 하나 빌어쥬서.” 경허명 허난 “경 허라. 남의 돌굽인데. 어떻 어떻 살아진다.” 오란 놈의 밧거리엔 처음에 빌어쥬게 아기덜 처음엔 이제 아기 오누인 아덜 하나허고 큰딸허고 허연 우리 씨어머니신디 간 “암만이라도 나 못 살कु다. 야이 흐뎡 뒤흔 허엽십서.”허연 어린 거만 업어아전 오라낫주게.

102007 @ 예, 예.

102007 #4 경허연 허난 이제 아방이 경허연 아기덜 들고 온 거라.

102007 @ 음.

102007 #4 오난 허난에 우리 죽은아버지가 “놈의 남편이고 놈의 각시가? 경허난 와세. 경허난 아멩헤도 느네 느네 흐 스주 흐 팔자난이 아기덜도 싯곡 헌 거 아나가. 경허난 아멩이나 울멍이라도 살암시민 살 디가 난다.” 경허영 허연 헤신디 우리 집의 아방도 일찍 돌아가셔불언게.

102007 @ 음.

102007 #4 쉬은 다섯에 돌아가셔서.

102007 @ 게른 어디 아팡 돌아가션마씨?

102007 #4 아르, 응 아파신디 경허난 지금은 뭐헌디 그때 시절엔 니가 막 알려서.

102007 @ 아.

102007 #4 막 니 알런근에 허연 허난 관광 간 완에. 그때 아멩해도 운정 못허연 가켄 회사로 전화허난 운전수 간 왔덴. 경허연 헌디 중앙로 아래 북국민학교 그 즈 곳디 제주치과가 잇어나서게. 제주치과가 이신디 그디 이제 저 뭐허기로 헛젠 허난 흥그는 건 빠지 좋주마는 그 경 아년 헌디 알리기만 경 허난 그디선 보증 앓이렌 헛젠. 치과에서. 보증 앓아야지 경 아년민 못허켄 허난. 우리 씨아지방이 이발관에 땡길 땡디 아시신디 강 경허난. “아이고, 나 나 죽어져도 느 월망 안 허고 우리 아 이덜카라 경 다 굴으커메 어떻 허느니 막 기냥 경허연 허난 흘 수 엇이 성 경허난 보증을 앓앗젠게. 보증을 앓안 흥글지도 앓고 아뭉치도 아년 닐 뺏텐게. 경허연 동티로 경 헌 걸. 니 알린 거. 경허난 아귀특이 오뭇 요만큼 벌기지 못헌디. 경허난 밥도 영허영 어려운 시절이나 지금ㄴ트민 미음이라도 닭암직이 뭐힐 걸. 밥도 국에 나 줌으민 영허영 혹허명 빨아먹는 식으로 먹고 경허영낫주기게. 경허명 웃음. 경허영 스뭇 울명 앓으명 경허연 헤연 살아신디 이제 경허영도 어려운 시절이난 아기덜 밥 맥이기가 어렵고 이녁 토지 엇도 집 웃고 경허영 놓난 아방이 바당을 땡겨서. 이디.

102007 @ 예.

102007 #4 외도 바당. 배에덜 헤연 땡겨나난. 차에 운전 허어나곡 경허난 배에 기계도 쉽게 환게. 경허난 기관장으로 땡겨서 배에도. 배에도 허연 헌디 우리 아방도 춤 경허명 돈은 씨도 경 미음이 뭐 거세기 아년난, 아년신고라 바당에 허영 궤기 나강 오민 이 그땡 일덜 경 지금ㄴ치 직장 놀곡 힐 때난 갓맛디 허영 얼마나 헤신고 구경덜 가고 막 경 허연게. 경허영 허른 춤 술 옛날 어른 말이 “경해도 술 먹는 사름이 남으 간장을 열린덴 헌다.” 헌다 허영 옛날 어른들 말 들어나신디 경허영 오민 이거 돈 허영 뭐 살 생각을 안 허고 흐뭇 친헌 사름은 “예, 이거 갖당 사시미 헛서” “이거 갖당 먹읍서.” 막 경 헤난 생이라게. 강 보민 “느네 집의 아방은 영영 헤라, 아기덜 생각도 안 허고.” 경허영 허민. “이녁 헤진 거 이녁 경 허는 거 어떻헛니까?” 경허명 허여신디 그런 경허난 니 그치룩허난 동티로.

102007 @ 예.

102007 #4 동티로 헤연 경 알린 생이라. 경허난 우리 저 우리 씨어머님은 경허단에 오일장에 살단 이젠 서문 서국민학교 뒤에 질긋집의 살아서게. 질긋집의 헤연 살아신디 넘어, 큰아덜이 경허곡 허난 우리 씨어머님도 우리 그 씨아버님이연 경허연 즈들 거 아니게. 경허영 우리 씨어머님 마리에서 걱정헤연 그레 젓영 저레 젓영 질긋집의 헌 생이라. 경허난 어떤 할무니가 “이디 흐뭇 나 쉬영 가민 안 땡쿠과? 나 그들에 흐뭇 쉬져.” 여름에 경허난에. “아이고, 경헛서.” 영허난 앓앗단에 영헤연



바래반에 “아주머닌 무신 걱정이 신 생이우다.” 아는 사름인 생이라.

102007 @ 예.

102007 #4 “걱정이 신 생이우다.” 허난 “걱정이멍 말멍 영영 허우다.” . “영협서, 손그릇이나 봐 안네져.” 경헤렌. 경허난 들어옵서 허연 손그릇을 보난에, 어머니 손그릇에도 신 생이라게.

102007 @ 음.

102007 #4 이 아픈 환자여에 할머니 산을 천리헤보민 알을 도레가 실 거우다. 경 헤렌.

102007 @ 음.

102007 #4 경허난 처음에 아프기 시작허난. 거꿀로 곪안, 처음에 아프기 시작허난 이디 발강캐.

102007 @ 목에.

102007 #4 튀어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헤가민 귀따기 알러레 가민 그것이 삭아져불고. 그거 뭐 조훼로 경 현 생이라. 경헤엇젠.

102007 @ 예.

102007 #4 경허연 허난 이젠 예 우리 저 씨어머님 ㄹ라 그 어른 허는 말이 이 아픈 환자여에 할머니 천리 헤보민 알을 드레가 실 거엔 경허난 이젠 우리 씨어머님은 조케덜 신디 우리 큰씨아버님이 우리 씨아바님이 셋아덜이라난 생이라. 식 성젠디.

102007 @ 예.

102007 #4 경허난 큰씨아버님 아덜덜신디허고 작은씨아버님 아덜덜신디 조케덜 신디 ㄹ튼 조상이난 느네도 ㄹ튼 조상 아니가? 경허난 어떻 허느니? ㄹ치덜 저디 아픈 딘 아기덜 때도 굶는 실정이라부난 흘 수가 웃고. 느네덜이 ㄹ튼 조상이나 이제 뭐허영 \*\* 부족허연 어떻허연 천털 못 허커냐? 경허난 우리 작은씨아버님 아들이 흐뎡 베운 사름이라. 그때 시절에도. 스춘씨아지방이 “아이고 경만 허민 뭐헌덴 허민 경협주.” 우리 스춘씨아지방이 작은씨아지방님 아덜이 나산에 춤 경허연 돈이 영 허연 그 막 어려운 때게. 경허연 천털 헤보난 아픈 식으로이 이디 돌세기가 특받탄 셔렌. (기침.) 조훼로. 겨난 옛날은 지금은 춤 술아불곡 다 허는디 옛날은 경문을 때난에 옛날 어른덜 하관허젠 허민 즈순덜 다 오랑 돌 잘 좇으렌 막 허여낫주게. “이 돌덜 잘 좇으라.” 경 헤낫주. 조훼로 잘 좇엇주마는 어덜로 튀어난 나쁘젠 현 것이 경허연. 경허연 저 애월면 그 고내, 고내봉에 우리 할머니님이 모사나서게.

102007 @ 음.

102007 #4 경허연 이제 춤 천리허고 그때 경허연 지금 경헤연 천리허연 허난 이젠 천리허난 이젠 어디 뭐 할 수도 엇고 허난 납골당에 뭐 협주긴 허연 다 슬안.

102007 @ 예.

102007 #4 슬안에 이젠 납골당에 간 짓고.

102008 @ 알아수다. 게난 옛날 결혼허젠 할 때 사주도 보잖아예?

102008 #4 스주도 받게. 스주도. 스주도 봐실 건디 우리 집의 아방이 경허연 허난 윈 어떻사 헤여신디 몰라. 결혼을 헌디. 우리 큰딸 낳고 그 다음 아덜 하나 낳신디 벗 부찌젠 허단보난 아덜은 그거 하나뿐 뉘허렌 헌 생이라. 경허난 어린 때에 우리 말젿씨아버님이 땡기레 왔단 우리집의 아방도 경 아판도 뉘허난 야이들아강 그디서 뉘 허켄 헤연 허연 이디 중혹교, 중혹교 졸업을 못헤연 가실 거라게.

102008 @ 음.

102008 #4 저 상고 고등학교도 잇도 중혹교도 셋주기게, 그디 땡기단 졸업 못헤연 간. 경헤연 말젿씨아버님 씨어머님은 돌아가셔불고. 그디서 어린 때 간 그디서 오래 살아가난 그디서 그딧 사름 결혼허연 이제 아덜 하나 난 벗 부찌라 지집아이도 스나이고 벗 부찌라 벗 부찌라 헤여도 아이 어멍이 하나민 충분헌덴 허는 걸 어떻험니까. 이제 아덜 하나. 손지 하나.

102009 @ 혹시 삼촌 결혼험 때 혼수품ㄴ튼 건 결혼험 때 가져가는 거?

102009 #4 가정 가는 건 그때에 옛날은 가정 가정 가는 건 예단 거세긴 우리 험 땡 기자 이불자리이.

102009 @ 예.

102009 #4 그런 거 춤 세숫대영 요강이 그런 거 헤영 가낫주. 화리 불 살르는 화리 허고 헤나신디. 저 웃음. 그거 경허영 가난 옛날은 그레 불살랑은에 영 넘영 가렌 허곡이. 막 경헌 뉘 방법이라. 불 살른 거난 곳인 방법으로 경 헤낫던 더 님아. 경 허렌도 헤나서.

102009 @ 음, 이불은 뉘 채나 험 간마씨?

102009 #4 이불게 가와리험 거. 이불 둘 요 둘. 궤 허연 우리 어머님이, 나가 큰딸이주기. 경 궤 허연 허연 가시난 잘 허연 왓덴 헤나서 궤, 궤.

102009 @ 궤 헤나고예?

102009 #4 궤 허나, 시숫대양허고 요강허고 궤. 아이고 춤.

102010 @ 게 결혼식은 어디서 허연 마씨?

102010 #4 시에서게. 우리 씨부모네가 시에난.

102010 @ 아, 시에서. 집의서 허는 거우과?

102010 #4 집의서 허연. 집의서. 집에서 영 팽풍 제스 때에 팽풍 영 바깳딜로 둘러싼 영헤연 심곡. 우리 집잇아방은 족두리 쓰고 옛날 사모관대 춤 사모관대 난 족두리 경허연.

102010 @ 쟁은에 그때 사진도 칩디가?

102010 #4 사진 찍언게.

102010 @ 어.

102010 #4 사진 찍언.

102010 @ 사진 찍은 건 셔마씨?

102010 #4 사진 찍은 거 신디. 윈 신가 옛인가 몰라. 우리 큰딸 누게 배우켄 자랑허켄 허멍 옛날 사모관대 쓰고 난 족두리 쓰고.

102010 @ 예.

102010 #4 옛날엔 경허연게. 저 신부덜 고팡더레 돌아 앓지렌 허고.

102010 @ 예.

102010 #4 경헤난게.

102010 @ 음, 영 고팡더레 돌아앓지렌 허고, 이거 무사 고팡더레 돌아앓이렌 허  
염신고. 전례가 경허연 여즌 고팡더레 돌아앓넨 거렌 경허곡. 이불자리도 허른 동네  
에 옛날은 심바람허는 그 동네에 하간 거 영 그런 것ㄴ라 옛날은 소스 소스 헤낫주  
게.

102010 @ 예.

102010 #4 경헌 어른 어렵게 사는 여자 어른이 헤서게. 동네 어른아, 그 어른이  
나 이불자리도 헤연 가난에 그 어른이 경 저 날르고 우리 죽은아버지 와시난에 “어  
뎡 치메 혼 허릿 값이나 벌어전” 경 허여. 허난 “아이고, 예게, 치메 혼 허릿값 든  
든히 줍디다102011.” 경허명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난 경 헤난.

102010 @ 경허난 그 분이 이불을 정 갖구나예?

102010 #4 그 계난.

102012@ 계른 그 신희살림은 어디서 현 거? 처음에.

102012 #4 처음에 시에게. 우리 씨집의가 시에난.

102012@ 예.

102012#4 시에서 방 빌언 딱로 살앗지.

102012@ 시어머님네영 ㄴ찌 안 살아봤구나예?

102012#4 ㄴ찌 안 살안 딱로 살안. 우리 저 아방네가 식 성제주게. 우리 셋아지  
방은 이제도 시에 살암서.

102012@ 아아.

102012#4 시에 살고. 죽은아지방은 장전. 양간. 그 친족 간에 자식 웃언 경허난  
거기서 양 가고, 식 성젠디 씨누이 하나 신디 씨누인 이제 화북 살아, 이제. 나보다  
흔나 알.

102012 @ 예, 계른 아까, 이제 우리 삼춘안틴 아들 하나고 딸은 으라 개렌 허  
명. 딸은 멧 개? 웃음. 딸 다섯.

102012 #4 부끄러와.

102012 @ 무사 부끄러울 말이우과? 계른 딸들은 어떻 살맨?

102012 @ 예.

102012 #4 게, 지밥덜 먹고. 나 이제 부영, 옛날 어른 말이이.

102012 @ 음.

102012 #4 쥐도 굶으민 혼 고망 굶으렌 헛저, 혼 고망 굶으렌 헛저, 그런 말을  
어털 땀 들어난 거난, 이거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허염 신고 헤신이 나가 정험헤  
보고 뭐허난이 이런 뿔으로 옛날 어른덜은 그런 말을 곶왔구나. 그디저디 주악주악  
허민이 뭐허영 혼 밧디, 미움을 받아도 혼 밧디 이 그냥 좋게 봐도 혼 밧디. 혼 밧

되로 뭐허렌 현 뜻으로 경 현 생이라. 경허연 허난 딸이 여러 성제라도 이제 부영.

102012 @ 예.

102012 #4 딸레 집의 으지허영 허곡. 우리 사위가 저 부모 어린 때에 돌아가션  
우리 사위도 우리광 똑ㄴ판.

102012 @ 음.

102012 #4 딸이 누님 아래 누님이고 우의 누님허곡 허고 다섯이고 독자게.

102012 @ 예.

102012 #4 우리 아덜광 똑 ㄴ탄게. 우리 집광 똑 ㄴ판. 경허연 허난 처음에 우  
리 말젧딸은 지금 저 화북 살아.

102012 @ 예.

102012 #4 화북 사는디 친구가 무신 말말을 영허멍 허연, 그디도 그 우리 부영  
딸을, \* 딸광 우리 딸광 친구란난디 친목도 허고. 집안에 사는 딸도 곤고 허여져신  
ㄴ라 현디, 뭐허연 허난 이젠 막 춤 우리 이제 부영 딸을 기냥 막 뭐허연 허난 이  
젠 우리 부영 딸이 저 영영영 허는디 “어머니 어땡 허코?” 막, “어땡 허코?” 경허  
연 허근데.

102012 #4 “느 인생은 느가 사는 거여.” 나가.

102012 @ 음.

102012 #4 “느 인생은 느가 사는 거난 느가 결정허여근에 경을 허든 저영을 허  
든 허라. 어머니ㄴ라 듣지 말라. 어땡이엔 허연 경허곡 가지 말렌 안 하곡 거세기  
경현 사름덜은 게민 장게 못 강 사느냐, 못 강 살렌 말라.”

102012 @ 음

102012 다 뭐허다 거세기 허영 허든 나도 이제 나 혼자 아니가게. 느네 아버지  
엇어불곡 경 허연 허난 그딘 우린 사둔님 두 어른이 다 돌아가셔불언게.

102012 @ 으음.

102012 #4 춤 우의 누님이영 아래 동생이영 으라이라도 여동생은 경 헤도, 스  
주 팔즌ㄴ라 게도 가난 우리 사위가 부영 사위가 춤 어린 때에 경허난 어머니 돌아  
가셔불고 군대에 가신디 군대에서 아버지 돌아가섯젠 허연 와나ㄴ렌.

102012 @ 예.

102012 #4 와나ㄴ렌 현디 경 고생허연 사난, 살아나난 부모 잃언 살아난디 막  
착허여.

102012 @ 예.

102012 #4 나도 경허난 그디만 경 간 살아점주기. 그 이제 오누이라 얘기. 가네  
들 거넵허고 부영 딸은 중개사 허매.

102012 @ 예,

102012 #4 중개사.

102012 @ 멧 번째 딸이우과?

102012 #4 거세기 식 번째 딸.

102012 @ 아.

102012 #4 식번 짜 뜰 여상 나완이.

102012 @ 예.

102012 #4 여상 나완에 중개사 허연 허난 이녀 집허고 밥은 먹어게. 사위가 얄 전허영 뭐허곡 경허난 그디 이디서 나들게 가깝고 텅기단 보난 그디서 그디 으지허 염서.

102012 @ 예.

102012 #4 뜰 으라이라도.

102013 @ 맞수다. 그 혹시 씨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랏수가?

102013 #4 옛날 그 서문시장 오일장.

102013 @ 예.

102013 #4 오일장엔 우리 씨어머님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난 거 알아져. 우리 결혼허연 보난 그 서문 매일장도 허곡게 옛날 매일장에이 풀떡 장시 험서고게.

102013 @ 음.

102013 #4 이제 지금 ㄴ트민 붕어빵이지.

102013 @ 예, 예.

102013 #4 그거 보난 경 허염고 경헤난.

102013 @ 으음, 성격들은 어떻 헤낫수가? 씨집살인 허여보진 안 험디가?

102013 #4 곧 결혼허난 딱로 살고 허난 경 아녀고. 우리 씨아바님이 경 춤 막 좋안게. 경허난 그땐 물허벅 질 때난이.

102013 @ 예.

102013 #4 물허벅 질 때난 씨아바님이 물허벅도 고운 걸로 사그렌 허멍 허연 씨아바님이 이제 허벅이영 물구덕이영 다 창영 으간이 허연 영영 대허영 이거 영 허영은에 허렌 허멍 우리 씨아바님이 경 좋아난.

102013 @ 아, 씨아버지가 막 세세헛구나예?

102013 #4 \*\* 경허난 우리 씨아바님 경허난 우리 이 셋아지방허곡 셋동세넨 결혼허연 일본 가낫주게. 그때 어릴 땐 가난 일본 간 뭐허영 살주기 허영 일본 가불고 셋아지방 아덜 이제 우리 말젓뜰광 동갑인디 할머니광 ㄴ치 시에 살아서게.

102013 @ 음.

102013 #4 시에 사느디 춤 나 하고 뭐허연 허난 어떻허단 내려전.

102013 @ 음.

102013 #4 내려전에 오몽 못허연 허난 이젠 우리 족은동, 셋동센 일본 가불고 셋동세 아덜 하나가 할머니영 ㄴ치 허연 산디 장게 안 간 총각인디 어린 때에 경허연 산디 이제 장전 간 양간 동세허고 난 춤 외도 경 살아신디, 교대식으로 간 춤 뒤 받아냈주게.

102013 @ 예, 예.

102013 #4 뒤 받아 내고 허연 허난 나 씨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못받게.

102013 @ 음.

102013 #4 거 허연 허난 우리 동세가 흐를 걸렁 흐를 동세 허른 흐를 나 가곡 경 해서게.

102013 @ 예.

102013 #4 서문파출소로 옛날 서문파출소로 서쪽에 살아신디 경허연 허난 죽은 동세가 장전은 촌 아니라 이디보단도.

102013 @ 예.

102013 #4 경허난 아이고, 흐를 걸르난 매일 와지는 것 같고 집잇 일을 못허쿠 덴. 밧디 일을 못허쿠다. “형님, 우리 이틀씩 허여근에 허른 어떻허코마씨? 흐를이 랑 므음 낱 집잇일 허고” “경허라게. 경허라게. 늘 허연 춤 샷바 첩고이 경허난 우리 저 셋씨아지방 아덜이 ㄴ치 경 살곡 허여신디.

102013 #4 아멩헤도 우리 죽은동센 젊은 사름이난 씨어머닌 샷바 첩젠 허른 따 ㄸ곡 뉘허젠 허른 고무장갑을 찢던 모양이라.

102013 @ 예, 예.

102013 #4 젊은 사름이난. 고무장갑을 경허난 실렷덴 말도 못허곡 메뉴리 빌언 경허젠 허난 춤은 거 아니게.

102013 @ 예.

102013 #4 경허영 난 가른 기냥 손으로 경허영 허른 에이고, 우리 동세딸이 미영이라. 미영이 어명은 오른이 장갑 찢난이 선뜩허민 나가 춤막헤지고 선뜩허영 춤 막 헤지곡 경헌디 는 경 안 허영이, 경허명 곶아낫주기.

102013 #4 경허난 “미영이 어명은 젊으난 경 험수게. 나보단 나이가 젊수게게.” 나 경 허영 허여신디, 씨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나 못받게. 무사 못봐신가 허민 나가 위 수술을 허여서게.

102013 @ 아아.

102013 #4 우리 씨어머님 아흔셋에 돌아가션. 경헌디 나가 위 허영 막 경행 원 밥도 잘 먹곡 예상허영 말 곤곡 놀곡 허당 허곡 경허연 허여신디, 붉아가민 새로 서너디 시썸에 허민 이 웬착 가슴 알이 아래 경 꺾꺾 아광허단 서너디 시 새벽도 뉘곡 더 즈주 아픈는 거라. 더 즈주 아판 허난.

102013 #4 즈주 아판 허난 딸덜ㄴ라 곶아낫주게. “영영허영 거세기 헌디이 붉아가 난 더 허영 어떻허코?” 허난 우리 저 화북 사는 딸이 남편네ㄴ라 곶아신고라. “어머니 영영 험덴” 헤신고라, “아이고 게른 병원에 가봐야 뉘덴.” 허연 병원에 한라의 료원에 한라의료원에 간에 나가 이때ㄴ장 살젠 허난 춤 어덜로 발려단 헌 거 답아.

102013 @ 음.

102013 #4 경허연 헌디 영허연 뉘신게 그 서월서 박사가 마치 이 병원을 잘 돌 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검사온 때 나가 입원을 허연게.

102013 @ 예.

102013 #4 경허난에 그디 경 나 간 때 엑스레이 찍고 그 박사가 허여신디 말로

골으민 겁나카부텐 현 거 닻아.

102013 @ 음.

102013 #4 으만헌 중이에 처음엔 요 손부리만인 허곡 그 다음은 요만큼 크게 허곡 그 다음은 흐뎡 더 크게 허고 허연 말도 곤지 아녀고 이거 영영허연 영 그때 암이란 난 생이라 위암게.

102013 @ 예.

102013 #1 경허난 영영허당 골으민 겁나카부텐 산디사 종일 오란 들렁 나 신디 레 박사가 침대에 누디 영허연 베운디 나 생각에 아 처음 시촌 이만이 그 다음 츠 츠 커가는 허난 마지막은 영 큰 걸로 베웁구나 말은 곤지 아녀고 허염구나. 나 생각에 경헤서게.

102013 @ 음.

102013 #4 경허연 헌디 이제까지 살젠허난, 살렌 현 거세기ㄴ라 그 박사 온 때 수술을 허연게.

102013 @ 예.

102013 #4 수술을 허연 헌디 검살 허젠 허난 춤 일로 호수 디물안 이까지 들어 오는 거 닻안게. 경헤도 딱 춤안에 수술을 이젠 헤여서.

102013 @ 음.

102013 #4 그 전에 저 그 검사허는 사름이 셔신디 막 죽어지켄 악살을 허고 막 들럭킨 생이라. 게난 우리 죽은딸이 이제 신제주 살아 죽은딸이 나 경허연 나와시 난 아이고 영영 현 어른은 막 스뎡 울르는 소리 막 난게 어머니 ㄴ딱 소리 안 헤 렌. 울르민 어떻허영 팍 숨 춤안 춤ㄴ렌. 웃음

102013 @ 그때가 멧 슬 때마씨?

102013 #4 그때 저 거시기 쉬은아홉에.

102013 @2 아홉수.

102013 @ 아, 그 당시에는 그 별로 저기도 아닌데예. 살더레 부튼 거주게, 삼춘 은예?

102013 #4 경허난 살러레 경허난 옛날 어른 말이 살더레 부뜨렌 허는 팔제는 살러레만 부뜨는 거여. 경 곤는 거 들어난, 우리 할머니 적에. 이때도록 살렌 현 팔젠ㄴ라 춤 즈들명 울으멍이라도 영허영 살렌 현 팔젠ㄴ라 이제까지 경허영 그때 수술허연 헌디 경허난 그때 저 그 박사 허는 말이.

102013 @ 음.

102013 #4 쯤썸 입금이랑 쯤썸 헉썸.

102013 @ 음.

102013 #4 육고기 ㄴ뎡 거랑 쯤썸 헉서. 당분간이랑 헉서 경헌게. 헌디 이제까지도 나 안 먹어 육고기. 경헌디 요 즈ꎴ 친구 남편이 또 위 수술을 허여서게. 허연 허연 헌 디 나 경 퇴원 허영 온 거 저디서 건널목에서 봐지난 “아주머니, 바닷고기 량.” 그 친구 남편이.

102013 @ 음.

102013 #4 “아주머니, 바닷고기랑 아무 거라도 먹고대고 저 육고기만큼이랑 멀리협서.” 그디도 경 골앗던 모양이라, 원장이. 경 허멍 허연게 “기.” 나가 경허멍 허연신디 . 지금도 아무 거나 심상허여. 노인당에 가도 반찬덜 허영 막 먹곡 경허여도 어떤 친헌 친군 경 우시개로 경 곶아. “아이고, 이제랑 나 하곡 먹단 죽주지.” 경허멍 허민 “역불 먹기 실픈 거 경 먹으멍 죽느냐?” 경허멍 우시개 허주게. 웃음.

102013 @ 음. 경허멍 육고긴 안 먹엄구나예?

102013 #4 나 안 먹어. 육고긴. 바닷고긴 먹어도 경허멍 아이고 이제도록 살안.

102014 @ 그 자식들은 다 결혼시킨마씨?

102014 #4 으. 다 허연.

102014 @ 으, 일 다 출려신게예?

102014 #4 다 출려. 겨난 그 요번에 요디 친구 경 곶안. “언니, 경해도 고생허멍 살아도 혈찬 일 다 허엿수게” 경. “무신 거 혈찬 일 다 헤시? 이때도록 이녀 집도 못허영 놈의 집 살곡. 경허영 헌디.” 경허멍. “경허여도 언니 일 출릴 걸 다 헛수게.” 경허멍.

102014 @ 흘 찬일?

102014 #4 혈찬일게. 아이덜 결혼식ㄴ든 거 다 허지, 허엿수게 경 헌 말해주기 게.

102014 @ 걸 혈찬 일이렌 험니까?

102014 #4 몰라게, 경 곶안게.

102014 @2 혈 차례의 일.

102014 @ 으.

102014 #4 혈 츠렌 일 다 헛덴 허는 말해주게. “언니, 경해도 흘 츠일 다 헛수게.” 경. 웃음.

102015 @ 예, 메뉴리는 일본 메뉴리난 허고. 우리 사위 자랑 흐끔 헤봅서? 사위 들은 어떻험니까?

102015 #4 사위덜 다 좋아. 츠 다 좋아게. 화북 사위 말젯사윈디 이제 저 개인 택시 험 관광 허곡 경허여. 경 츠 용돈도 트멍에 경허영 주곡 경허여근에 “아이고 게, 나 용돈게 뉘엿저게. 무신 이젠.” 먹썰일 허단 이제 작년 팔월멩질부터 우리 씨 아지방네가 마타간. 나 허는 거보난 뉘헌ㄴ라 경허연 경허난 그때도 저 경헛주게. 우리 씨아주버님이 돌아가셔신디 우릿 집의 아방 어신 때라게. 거기서 옛날은 초흐 를보름 썩일허곡 대소상 다헤나신디 지금은 기자 츠 소상 점 스십구제로 다 냉기지 아녀게. 난 아방이사 웃주마는 아명 못살아도 게도 흘츠 일은 헤사웁니께. 나가 큰 메뉴리로서 아멩해도 나가 혈 겨난 아버지 먹썰일을 나가 뉘허쿠다. 허난 아이고, 무시겨 준 것도 엇고 게도 이디서 허당 뉘허라게. 우리 씨어머님이.

102015 @ 예.

102015 #4 그 셋아덜 손지광 살 때난 경허고대. 아무제 가도 나신디 가야 혈 거



아니우과? 나가 경 아무제 가도 나신디 가야 혈거난 잘헛든 못헛든 츠레로 나가 뭐 허कु다게. 아이고게, 경허민 고맙단 준 거 엇이난 미안허연. 미안허나 아니 준 거 엇덴 부물 버리고 준 거 싯젠 무헛니까. 경 나가 이제까지 헤여신디 나가 이제 목은해로 으든닛 아니. 경허난 우리 씨아지방이 미안헌ㄴ라 이제랑 아주머니 혈만큼 헤시매아직은 나가 아주머니네보다 아 동세영 이젠 우리가 말아당 허कु다 허연 팔월맹질부턴.

102015 @ 예.

102015 #4 이젠 나 먹썰일 안 허여. 저 아방 먹썰일은 또 이제 저 나가 또 허연 허단에 일본서 아덜이.

102015 @ 예.

102015 #4 경 이제 말아꾸덴 글로 강 잉감헛센 고 헤여볼곡.

102015 @ 예.

102015 #4 고 헤연 헌디 아이고, 맹질 넘으난 이월들에이 새해 나는 이월들에 이월이 제스라게.

102015 @ 음.

102015 #4 경 멧 번 헤여신디 영영 허연 사진도 못 가고 영영 허난 아버지 일 립 성명 씨근에게 영 허여근에 메 거려놓라. 난 언제 혼번 아맹해도 손지도 마지막 으로 보고 영허영 혼번 강 오켜. 어머니 경 말앙 저 오켄만 허민 나가 데리레 가쿠다. 데리게 가근에 헤영 오켄 허민 데려오곡 데려가곡 허कु다. 그 노릇을 어멧 헐 디? 그 ㄴ만 앓앙 놀암샤? 그디서 저 춤 베운 것 엇고 뭐허난이 식당 허노렌. 게도 이녁 집 마련허고, 이녁 집의서 식당 허고, 메누리도 이디 사름 아니라도이 지네 경 헤연 사노렌 허난 난 춤 걱정은 아넘주기에.

102015 @ 예.

102015 #4 경허난 언젠가는 혼번 우리 툄덜카라 혼번 돌아다드라 나만은 못 가 키여. 경허난 돌아다드라 가근에 기일제사 허는 거 보고 경허연 허켜 허멧 이제 싯 주기. 웃음.

102015 @ 예, 알아수다.

102015 @2 계난 일본서가 잘허어예? 제사 허는 건예?

102015 #4 경허난 어머니, 걱정허지 맙서. 경허난 아메도 우리 아덜 지 혼자고 허난 누이덜 싯고 누님 싯고 허주만은 우리 큰딸 다음이라, 아덜이. 경헛 허주마는 아맹해도 걱정은 헤염신고라 자꾸 뭐허여게. 나가 돌아오곡 돌아가곡 허कु다. 그 노릇을 어멧허리 ㄴ만이 앓앙 사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뭐허여근에 언제 혼번 느네 아버지 제스 때에랑 헤연 나만은 못 갈 거고, 누게 큰딸이나 누게 헤영 앞세와근에 지금 강오켜 허연 지금 잇주기.

102015 @ 예, 딸들은 다 제주시 살아마씨?

102015 #4 으, 저 화북 살고 부영 살고 부영 읍에 또 셋딸은 또 허영 사느디 장 스허여 셋딸도.

102015 @ 예.

102015 #4 두갯이 장스. 부영 딸은 중개사 허고 사원 직장 텡기고 경허여. 죽은 딸은 저 어디 살곡. 신제주 살고. 씨집은 한림인디,

102015 # 예.

102015 #4 한림인디 신제주.

102015 @ 알아수다. 흐꿈만 쉬쿠다.

### 3. 밭일

103001 @ 우리, 밭일은 옛날에 어떤 일들을 헤신고예?

103001 #6 밭일은 어떻허여.

103001 @ 계난 떤 일?

103001 #6 밭갈고 씨뿌리곡.

103001 #3 불리곡게.

103001 #2 불리곡.

103001 #1 걸르고.

103001 #6 이제 종자 나면 검질메고 비료허고 그거주.

103001 #2 옛날 비료셔서. 오즘 오즘 저당 오즘 췌주.

### 보리농사

103002 @ 예, 알아수다. 한분씩예? 보리 용시를 허젠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2 걸름허곡.

103002 #6 거름 준비 퇴비.

103003 @ 예. 거름 준비가 췌 하영허는 거예? 보리밭 걸름은 어떻 마련허는 거 마씨? 길게 곶아줍서.

103003 #2 옛날 통시에거게.

103003 #6 소 기르면은 소똥 짠 거.

103003 @ 예.

103003 #6 제주도말로 통시. 거기다.

103003 #2 내영 췌형 낱.

103003 @ 예.

103003 #6 소똥을 거기다 닦는 거라.

103003 @ 예.

103003 #6 돼지가 거 다니면서 똥아주는 거 아니. 저 똥고? 텡.

103003 @ 음.

103003 #6 경허른 사람이 이제 꺼내영.  
103003 @ 예.  
103003 #6 밧데 가져 가는 거.  
103004 @ 음, 계영은에 그런 말을 제주도 말로 잘 알아줍서예? 보리밧 걸름은  
경 마련허고, 보리는 누가 언제 가는 거우과? 보리 혼번 갈아봅서?  
103004 #2 가을에 쟁기 명에 씨왕 밧갈앗주.  
103004 #6 튀비부터 쥐 낱.  
103004 @ 예.  
103004 #6 다음에 씨 빼어낱 갈 거주게.  
103004 @ 예. 경허영은에 이제 가는 거라예? 계난 보통 어느 적에 갈아마씨?  
103004 #2 가을에.  
103004 #6 시기?  
103004 @ 예.  
103004 #2 가을에.  
103004 #6 예 보리는 십일월 중순.  
103004 @ 십일월 중순에 으.  
103004 #6 십일월초.  
103004 #3 중순 튀여가주.  
103004 #6 십일월.  
103005 @ 삼춘네는 보리 걸름 헤갓고 보리씨헨에 안 헤볶디가?  
103005 #2 그건 통시에 거름 내영 썰 거기에 낱 불령.  
103005 #6 그거는 상당히 힘들주게. 썰 거기 낱 막 불령.  
103005 #6 씨 묻영 가는 거.  
103005 #6 툫양은에 씨 뿌린 거 모양 해야되니까.  
103005 #3 계난 것도 췌로 불려, 불려.  
103005 #6 거름을 씨에 잘 묻게꾸리 허는 거라.  
103005 #2 절약허고.  
103005 #3 보리가 좋아.  
103005 @ 거난 비료 엇어부난 그렇게  
103005 #3 그렇지 그렇지.  
103005 #6 그 당시에 비료가 엇주게.  
103005 @ 그치록허영은에 허고예? 보리씨는 어떤 식으로 헤영 간 거라. 그냥  
빼연 갈안마씨 아니면?  
103005 #2 툫아놔야 튀여. 걸름에 묻치니까.  
103005 #6 그거는, 그거는.  
103005 @ 예.  
103005 #6 특수현 사름덜이 허는 거고.

103005 @ 예.  
 103005 #6 보통 허는 사름들은 그렇게 허영은에 시간 걸리곡 안 돼주게.  
 103005 #1 전원 보리를 골보리로.  
 103005 @ 예.  
 103005 #1 갈라고 장려도 해낫지.  
 103005 @ 음.  
 103005 #1 이 대충은 다 저 그냥 이렇게 널리 산파를 허는디.  
 103005 @ 예.  
 103005 #1 예, 그 보리는 대개 그 기후로적으로나 절기적으로 아까 얘기헌 대로  
 마 시월 빠르른 시월 하순도 될 수 잇지마는 뭐 십일월 혼 들 동안에 저 갈른 뉘는  
 거니까 그 시기에 허는 거고.  
 103005 @ 음.  
 103005 #1 그, 거거 웨론 대개 산파를 허는디 이 그 산파를 허기 전에 보리 갈  
 쟈 허른 준비허는 것이란 일찍에도 얘기헛주마는 밧을 에 보리밧을.  
 103005 @ 예.  
 103005 #1 처음부터 여름농사를 이제 목적으로 허지 아녕은에 콩을 갈양.  
 103005 @ 예.  
 103005 #1 콩걸름 험다고 헤 풀콩을.  
 103005 @ 예.  
 103005 #1 콩낭을 비여가지고 밧 고랑에 길명 쪽 행간에 놔뒀당 그거 갈양.  
 103005 #2 썩히는 거주.  
 103005 #1 걸게 허는 경우도 잇고.  
 103005 @ 예.  
 103005 #1 그 웨로 아까\*\* 통시 걸름이라고 헤가지고 우마를 기르는 사름은 거  
 름이 많고. 게난 저.  
 103005 #6 우마 똥 허영.  
 103005 #1 똥이영 문딱행 통시레 담아놔가지고.  
 103005 #6 썩영.  
 103005 #1 썩여가지고 혼 이 보리 갈기 전에.  
 103005 @ 예.  
 103005 #6 꺼내영  
 103005 #1 꺼내영은에 싸여 뒀다가.  
 103005 @ 예.  
 103005 #6 마차로 시끄는 사름 쉼물로.  
 103005 @ 예.  
 103005 #2 질마 지왕게.  
 103005 #1 가져당 밧디다 부러냥은에 골고로 텅기명 군데군데 빼여냥은에 이젠

일부러 그건 사름이 들어가지고 걸름을 골고로 허경.

103005 @ 예.

103005 #1 그 우에 씨도 빠는 사름이 빠지. 아무나 빠지 못허거든. 계난 적당히 빠는 사름이 대개 남자덜이 빠곡.이제 빼여냥. 이젠 쟁기허고 좀 췌 가져다가 잇으면 자기대로 허는 거고 없으믄 놔으 빌영이라도 가는 거주기.

103006 @ 예, 알아수다. 보리씨 종류는 어떤 것이 잇엇수가?

103006 #1 슬오리라 해가지고 것보리가 잇엇고.

103006 #6 줄보리.

103006 #1 세 가지가 잇주.

103006 @ 줄보리도 잇고, 밀도 잇엇어.

103006 #1 또 밀은 벨로 허지 아녀?

103007 @ 그러면은 옛날 보리밭도 블랏수가?

103007 #2 예.

103007 #1 보리밭도 일제 말엽에 웨어서 장려를 해서 블랏지 그 전에는 안 블랏어.

103007 #2 땅이 부각허니까

103007 #6 골보리라고 잇어. 골보리이.

103007 @ 예.

103007 #6 골로린이 고랑에 그냥 이 뵈고 산과 모양이랑 씨를 전부 뿌리는 게 아니고 밧고지가 이렇게 시면은 그 이렇 말고.

103007 @ 예.

103007 #6 이 밀에.

103007 @ 고랑에.

103007 #6 훔쳐진 고랑에. 거기만 빼여 가지고 걸 웨 그러냐 허면은 거름을 절약허고.

103007 #2 걸름 메기 싫으믄 그레 더꺼부는 거주.

103007 #6 수확을 많이나게 허는 거주.

103007 #2 골갈안개

103007 #6 비료도 그레만 주믄 웨니까 또 이제는 영 중간으로 갈아줘이.

103007 @ 예.

103007 #6 경허민 흑 더꺼줄 거 아니라게.

103007 @ 그걸 골보리엔 허는 거라예?

103007 #6 쌀보리.

103007 @ 슬우리를 간 거라예. 슬우리허면 보리씨 헐 때 췌장히 씨 빠는 게 신중허게 해야켜예.

103007 #6 그렇주.

103007 @ 싹싹 뿌리는 게 아니고.

103007 #6 그렇주.

103007 @ 그걸 골보리렌 헤어서예?

103007 #3 그게 힘들주게. 쉼로 갈아도 사름이 고랑을 골라야 돼여. 씨를 잘 가  
게. 사름 들어상 고랑 골라가지고 쉼 뿌려야주게.

103007 #2 게난 그건 근래에라게. 옛날엔 그런 거 없었고.

103007 #3 이 분 말했지만 수확을 잘 돼게.

103007 #2 다수확허젠허니까.

103007 #3 산파로 헛주.

103007 @ 예, 알아수다. 보리밭 불르는 거는 땅 꺾아부난?

103007 #2 꺾아부난 현 거.

103007 #3 걸어. 그래서 이제 불라지는 거.

103007 @ 거리젠 허는 거구나예?

103007 #6 보릿밭이 단단해.

103007 #1 겨울에 꺾으면 땅이 꺾거든. 꺾으면 이것이 들러져.

103007 #6 눌러지는 거주.

103007 #1 특히나 제주 땅 어디 저 남군 땅들은 더허주마는. 잘 뵈으지 아녀민  
자라지 아녀. 단단히 잘 자라도록 허문 영 불름으로써 춤 거리는 것은 더 많이 거  
려.

103007 #2 우 그렇주게 막아지고.

103007 #1 수확에 상당히.

103007 #3 우 막는 거.

103008 @ 우막는 거예? 알아수다. 보리왔디 검질은 몇 번 메었수가?

103008 #6 두 번 정도.

103008 #2 두 번 정도 잘허는 사름은 세 번 정도.

103008 #3 흔번 매는 사름도 잇고 두 번 매는 사름 잇고.

103008 #1 여름 농사가 아니라 겨울 농사기 때문에.

103008 #2 시면?

103009 @ 보리왔던 주로 어떤 검질덜 납니까?

103009 #6 검질이 뒷.

103009 #1 사스락쿨엔 현 것도 나고 담베쿨, 진풀.

103009 #3 진풀 뒷.

103009 #2 안 나는 게 엇어. 절마니.

103009 #6 절마니, 진풀.

103009 @ 예.

103009 #2 담베쿨.

103009 #6 담베쿨.

103009 #3 담베쿨 이젠 엇어 해도 옛날 담베쿨 많이 나났어.

103009 #2 옛날 말이주.

103009 #6 속.

103009 @ 속도 잇고예?

103009 #3 속게.

103009 #2 속은 여름에.

103009 #1 아니다.

103009 #3 겨울에 별로 엇수다.

103009 @ 담배쿨허고 사스락쿨 절마니, 진풀, 속.

103009 @ 담배쿨허고 사스락쿨 진 모르겠네.

103009 #2 아니우다.

103009 #6 담배쿨이 여름에 나는 거 아니라.

103009 #2 아니우다. 진풀이영 ㄴ치나.

103009 @ 아, 이거 어떤 풀인지 모르겠네이.

103009 #2 진풀에 ㄴ치 나는 거.

103009 @ 담배쿨도 잇어. 이거 어떤 검질인고?

103009 #1 속ㄴ튼 것은 씨가 물을 정도도 엇어져주.

103010 @ 게른예 이제 보리 익을 거 아니우과? 옛날은 수확을 어떤 식으로 헛수가?

103010 @ 비는 거부터?

103010 #2 집의 홀트는 클이 잇어.

103010 @ 예.

103010 #2 췌로 영 창 날 세왕

103010 #6 힘들게 헛주게.

103010 #3 힘들어서.

103010 #2 그거 허젠 허민 이웃집 수늘영.

103010 #3 어제도 도깨질도 두드리고.

103010 #2 우리 동네는 거의 도깨를 안 썼어. 옷드리털은 도깨 많이 사용헛주.

103010 @ 보리는 수확행 오면 그때 이제 홀트지 못허면?

103010 #3 늘어야주.

103010 @ 늘영 놔뒤예? 갱은에 보리 비영 물렁 무끄고 누는 과정까지를 한번 쪽 새로 갈아줘봅서?

103010 #6 비영.

103010 #3 비영.

103010 @ 한 사람씩?

103010 #1 들류왕이 저 그대로 무꺼지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들류와가지고 비어놓은 것이 몰라야 무끄주기. 무끄는 것도 뭐 무꿈도 우리가 생각 얼마나 텔건고? 그.

103010 #3 그것꺼질랑 곧지말앙게.

103010 #1 게여가지고 대개 보리뭇이 서른 뭇이 혼 바리 뻬던가?

103010 @ 음.

103010 #1 서른 뭇이 혼 바리. 믱쉬에 시끄는 거이.

103010 #2 믱쉬에 시끄는 거 서른 뭇 무끄지 못합니다게.

103010 #1 경혜영 우마가 잇는 사름은 무꾼 것을 이제 한 군데 모여놔가지고 우마로 이제 집까지 운반헤당 집에 왕은에 걸 그냥 내불지 아녀곡 놀영.

103010 #2 비 맞이카부덴게.

103010 #1 놀어가지고 다 가정 와지민 우의 더경 놔뵤당 날 봐가지고 클. 홀테.

103010 @ 예.

103010 #1 그거 혜영은에 사름 시른 자기 식구만 허고 웃이믄 또.

103010 #2 수놀영.

103010 #1 놉도 빌어다가말여

103010 #2 옛날 삼방에서도 많이 흘타수다게.

103010 #1 경허영은에 흘튼 고고리를.

103010 #1 전부 마당에 쌓여가지고 헛당 탈곡기 빌어당은에 탈곡 행은에 헤낫 주기.

103012 @ 예, 그치룩 혜영은에 허면은 탈곡기 전에 옛날에 보리썰 멘들젠 허면 뤼에 강 보리썰 만들엇수가?

103012 #2 밧엿간에 강 둥그려당

103012 #1 멘탁기가 와가지고 썰 보리를.

103012 #2 멘탁기 헐 때는.

103012 #1 멘들여 낱 따시 이제 방앗간 연자방아, 아니, 아니고.

103012 #1 옛날엔 연자방에도 해서.

103012 #2 물방에.

103012 #1 물방에. 물방에 강은에 사람으로도 방아를 돌리기도 허고, 또 물이나 소가 잇는 사름은 그 소를 메와가지고 돌리곡 헤가지고 거기서 쥘어가지고.

103012 @ 예.

103012 #1 저 보리썰을 만드는 거지.

103012 @ 예. 그렇게 행은에 보리썰 물그레에서 행오면 물방에에선 집의 왕은 바로 안 행 한번 더.

103012 #2 아, 그것도 방에 강 저사여. 물 적지명.

103012 #3 물리왕 체 걸러 내여뵤 경혜영은에 방엿간에 강 물리왕 그는 거주.

103012 #2 보리 지영 물방에 강 새로 물 주멍 보리썰을 껍데기 벧경 물주멍 멩 글아낱 반착으로 그레에 낱 글앙.

103012 @ 예.

103012 #2 경혜영 밥 헤 먹엇주.



103012 #2 아니, 쌀을 멩글 때 말이주게.

103012 #3 들방에 강 정왕 멩석 정 온 걸 그거 곶에 반착 내영 먹으나.

103012 #6 이제는.

103012 #2 옛날 소리허렌.

103012 #6 반착 안 내영 이제는 그냥 먹더라고.

103012 @ 한 사람씩?

103012 #1 그때는 그 ㄱ레에 놔가지고 곶고 헛주마는.

103012 @ 예.

103012 #1 이 근래 왕은 이 방엿간에 기계 저 뒤 방에 강.

103012 @ 예.

103012 #2 정미소에 헛주게.

103012 #1 이걸 몰랑은에.

103012 @ 예.

103012 #1 멩 불.

103012 @ 예.

103012 #1 방에 혼 번 낱 혼 번만 지는 게 아니고 두 번이고 깨끗허게이 그 짝 어지게 허는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방에에서 오든 그대로 몰랑 밥 먹을 수 잇어.

103013 @ 예, 알아수다. 게든 그렇게 허면 보리쌀로는 주로 무엇을 허는 거마 씨?

103013 #1 보리밥 행 먹주기.

103013 @ 밥 해먹고 또.

103012 #6 주로 밥해 먹엇지.

103013 @ 보리 곶앙도 뭐 해먹어서예?

103013 #2 보리 곶앙 보리떡도 해먹고.

103013 @ 보리보깡은?

103013 #3 개역도 행 먹고.

103013 #6 즈베기도 행 먹고.

103013 @ 개역허는 거 한번 곶아줘봅서?

103013 #1 개역은.

103013 #2 보리로 보깡.

103013 #1 보리 물론 곶로만. 짝어오지 안 헛 거.

103013 @ 예, 보리 해갓고 ㄱ레에서 곶앙 헛 거라예?

103013 #1 보깡 ㄱ레에서 곶기도 허고 정미소 강 곶아당도 먹고.

103014 @ 알아수다. 보리 방에 방에 지면 보리체도 나올 거 아니우과예? 그 체 허고 그 체는 어떤 데 씻수가?

103014 #1 돼야지 것.

103014 #6 누까.

103014 #1 소 것. 그런 딜로 쓰고 독 사료도 하고.  
 103014 #2 도새기 사료 허곡 쉼 사료 허엿주.  
 103014 #6 사료용.  
 103014 @ 아까 누까마씨?  
 103014 #6 누까.  
 103014 #2 거 일본말일 거라.  
 103014 #6 보리 꺾질보고 누까엔 헛어.  
 103014 @ 예, 예, 예. 그 다음에 보리 그 냥은 뭐혜수가?  
 103014 #6 보릿낭 뭐헛냐교?  
 103014 #2 불도 숨고. 걸름도 멘들고,  
 103014 #6 옛날은 옛날은 주부들이.  
 103014 @ 예.  
 103014 #6 보릿낭으로 불 숨안 밥을 해서. 기가 막히지.  
 103014 #2 눈물 짙짙 나명.  
 103014 #6 경만 해서. 뭐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지는 이 동넨 저 밑에 물이 서  
 이? 허벽으로 물 날란.  
 103014 #2 밤이 물 질영오고.  
 103014 #6 거 봐, 옛날은 주부들이 얼마나 힘들어시니.  
 103014 @ 계난예?  
 103014 #2 검질  
 103014 #6 즘은 자져? 요즘은 한걸리 살아가난 브름이나 피우곡. 웃음.  
 103014 @ 계난 요즘 할머니들 만나민예, 대통령 삶도 이것보단 안 좋덴 경 골  
 아마씨.  
 103014 #2 옛날 할망덜 말은 어떻게 허느냐 허면 “아이고, 보리 비영 왕 저너  
 먹어 심상 말아 심상 허민 즘자젠 허민 애긴 뺨뺨 울영 췌 물령 제왕 일어난 흥 즘  
 일어 암퇘 울영 일어난 밥허곡.  
 103014 #6 삶이 춤.  
 103014 #2 경허영 말을 옛말을 곱아.  
 103014 @ 예, 맞수다. 경허고 보릿ㄴ시락으론 뭐헛수가?  
 103014 #2 굴묵 진엇주게.  
 103015 @ 음, 보릿ㄴ시락은 이제 굴묵 진고예. 혹시 삼춘네 보리 용시허멍 잇어  
 불지 못허는 추억 잇수가?  
 103015 #2 그뻘 곤란헛 가난허난 먹을 게 엇어가지고 보릿고개 보릿고개 헛 때  
 가 그렇게 가난헛 때라. 전분 공장이 잇영 전분 주시를 가져다가 물령 그걸 그르를  
 멩글양 그걸로 떡도 행 먹고 속 캐당 그 보리 곱아당 그, 그걸로 해근에 늘쿠는 거  
 라. 늘쿠는 거. 양식이 모자라니까 불루왕은에 속, 속범벅도 허영 먹고 행 살아났주  
 게.

103015 @ 삼춘도 그치록 혜영 먹언 살안?  
 103015 #1 육이오 일어나는 혜에 흥년이 들었던가봐. 내가 군인 갖다가.  
 103015 #2 그거 곶아당 다 행 먹어서.  
 103015 #1 양력 유월 그믐께 집의 와 보니까.

103015 #6 농번기치곡 보리빌 때가 켈 힘들엇주게.  
 103015 @ 음.  
 103015 #6 요즘같은 밀감, 밀감 따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15 @ 음.  
 103015 #6 막 벳게 보리, 보리 수확시기가 막 더운 때주게.  
 103015 @ 음.  
 103015 #3 더운 것도 더운 거주마는 비나 왕 허민 보리가 곱은, 곱은 보리 곱은 보리 헤낫주게.  
 103015 @ 예, 예, 예.  
 103015 #2 비지 못헤나서 막 꺼꺼정.  
 103015 #3 막 꺼꺼지면은 벳은 나쁜 곱은 보리로 와삭와삭 문딱 털어져부러.  
 103015 @ 음.  
 103015 #3 그게 켈 에렵고. 게난 그 당시에도 보리 헤가지고 반 수확도 못 건지 사름덜 많주게.  
 103015 @ 음.  
 103015 #3 다 거두지 못허연. 간 보리도.  
 103015 @ 예.  
 103015 #6 그때 주농이 보리니까.  
 103015 @ 예.  
 103015 #2 그때 젊은 사름덜이 허는 말이.  
 103015 #3 날만 좋아도 허는디 날씨도 꺾어놓고 허면은 환장허지. 집의 왕 홀타도 거 마리레 문딱 들어가고.  
 103015 #2 마리에서 홀타주게. 마리. 구들이고 뭐고 아무 디라도 홀타놓는 거라. 비 안 맞는다.  
 103015 @ 예.  
 103015 #3 그뻘 삶이 삶이 아니라. 요즘 아이덜허고 천지차이.  
 103015 #2 목숨 부뜨난 사는 거주. 게난 어틸 때 젊을 때덜게 애기 낳면은 애기 업영 보리 비레 강 녹져뵤 보리 보리 곱안은에 거 보리 벳 낭 \*\*나민 와삭와삭허는 소리가 나.  
 103015 @ 예.  
 103015 #3 와삭와삭 낭으로.  
 103015 #2 애긴 뵤뵤 울곡 보리 와삭와삭하고 색색말축은 썩썩허곡 어느.

103015 @ 무슨 말축?  
 103015 #2 색색말축.  
 103015 @ 색색말축예.  
 103015 #2 그치룩 허영은에 노래 부르멍덜 헤나서.  
 103015 #3 맞주.  
 103015 #6 요즘은 농약해부난 그 말축 엇인디.  
 103015 #2 메뚜기.  
 103015 #6 메뚜기 종룬디.  
 103015 #2 다리 영영 허명 소리 내는 거.  
 103015 #6 시기적으로 다 그런 거 잇엇주게.  
 103015 @ 예. 옛날 어려웠던 시절 말 끝넌 허민 멧날 메칠을 곶아예? 우리 할  
 머니들은 특히 여자들은?  
 103015 #3 등짐으로 정 오젠 허민 보리 정오당 빠지민 애기 낫젠 허주기.  
 103015 #2 애기 낫젠 허여.  
 103015 #3 애기 낫젠. 짐을 정 오당 하영 지면은 보리 못이 족지 아녕 크거든.  
 잘 낵은에 저도 오당 빠지면은 질레서 애기 낵젠.  
 103015 @ 아아.  
 103015 #3 겨민 뚝 흘리면서 울어 울어 거 허젠.  
 103015 #2 겐디 그 보릿대가 잘도 미끄러와 가지고 짐 정 오당봐도 잘 빠져.  
 103015 @ 음.  
 103015 #6 계난 지금이 일본에 우리 제주도 할머니덜토 많이 가 잇어게.  
 103015 @ 예, 예.  
 103015 #6 겐디 나 몇 년 전에 일본 간 좀 살단 와신디 그 할머니네들이 허는  
 애기, 영 넘어가명 들으른 그 옛날 해난 애기이. 당신덜끼리 앓아가지고.  
 103015 @ 예, 예.  
 103015 #6 제주도말 허길래 “제주도 어디서 읍디가” 허난 어디 저 남군 쪽에서  
 오그렌 허명 허는디 말허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실하고 아주 그냥 대조적인 애  
 길 허여.  
 103015 @ 예.  
 103015 #6 그거는 옛날 애기고 지금은 아닙니다 허니까 굳이 듣질 앗더라고.  
 103015 #2 안 들어.  
 103015 @ 안 보니까예?  
 103015 #6 나가 거짓말허는 걸로 듣는 거라. 당신에 올 때 이렇게 헛고.  
 103015 #2 여기 완 안 보니까.  
 103015 #6 제주도는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엇다는 애기지. 그 분네들의 얘기는.  
 지금게 뭐라게 지금게 저 뭐 제일교포 일세덜 구경시키지 그분덜이 왕 뺨 막 놀래  
 지 아념서게.

103015 @ 음, 맞수다.

103015 #6 당신네 옛날 살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천지 차이지.

### 조 농사

103016 @ 그렇주마씨. 알아수다. 이젠 조 농사 해보쿠다?

103016 #6 조?

103016 @ 조 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해신고예?

103016 #6 조 불리젠 허민. 조 불리젠 허민.

103016 #2 그거는 거의 거름을 잘 안 써.

103016 #2 건 여름 농산디 그거는 미룻 보릿그르를.

103016 @ 예.

103016 #2 거시렁 놔둬. 비올 때. 이 저 쉼로 행 밧 갈양 엇영 낫당. 이젠 또 조 불리젠 허면은 그건 \*\* 갈양 멘짜허게시리 갈아냥 그 우의 좁씨 뿌렁.

103016 @ 음.

103016 #2 이젠 불리는 거라. 밧로 뭐 몽둥이 지퍼 보멍 몽둥이가 안 들어갈 정도로.

103016 #6 우마로도 허고 사름으로도 불리곡 허는다.

103016 #2 막 불려.

103016 #6 조는 그 뭇고, 그 나는 게 약허니까

103016 @ 예.

103016 #6 보리씨 모양 밑에 빠면은 잘 나지 안 허주게.

103016 @ 음.

103016 #6 겨니까 우에 빠져가지고 그 섬피엔 현 거.

103016 @ 예.

103016 #2 곳어근에 불리는 거.

103016 #6 섬피엔 현 거 우에 더퍼주는 게 섬피.

103016 #3 아래도 우의 빠져가지고.

103016 #2 거의 우에 뿌렸주. 거의.

103016 #6 거의 우에.

103016 #3 쪼끔 툇아진 사름은 아래도 빠엿어. 우알씨 빠주.

103018 @ 조는 보통 언제 갈아마씨?

103018 #6 조는 보리 낫나면 허니까.

103018 #3 보리 낫냥 가는 거난.

103018 #2 유월절 전의 헛주.

103018 #6 아니.

103018 #3 양력으로.

103018 #6 유월.  
103018 #3 양력 오월 달에 조 같아. 양력 오월 달에.  
103018 #2 오월 말 아니면 유월 초 돼겠다.  
103018 #3 유월 초계.  
103018 #1 유월 이 저 이 절기로.  
103018 @ 예.  
103018 #2 유월절 절기.  
103018 #1 이 저 예.  
103018 #6 유월 중순 텔 거라.  
103018 @ 음.  
103018 #1 망종, 소서가 칠월절이라고 허는디, 경헌디 소서.  
103018 #6 그 전에.  
103018 #2 아이고, 아주 전의주.  
103018 #1 들기 전의.  
103018 #3 유월 중순 양력으로 유월달.  
103018 #1 약 유월 말 정도이.  
103018 @ 예.  
103018 #1 유월 말 칠월 초순까지 대개 파종헌다 허여.  
103018 @ 그 무사 조 불리젠 허면 비도 하영 올 때 아니우과예? 그때예.  
103018 #3 그렇지.  
103018 @ 그러면 여기 마갈이조여. 그런 말 험니까?  
103018 #2 마갈이.  
103018 @ 그건 무슨 말이우과?  
103018 #6 무슨 말이나면 조는 파종헤가지고 한 이 주 동안 비가 안 와야.  
103018 #2 검질 안 나주.  
103018 @ 예.  
103018 #6 한 이 주 동안 비가 안 와야.  
103018 #6 만약 비가 많이 오면 검질도 많이 나고 종자도 몰명헤영 제주도말로.  
103018 #2 마갈이엔 현 말은.  
103018 @ 예.  
103018 #2 마 젓다가 그 마 조 불릴 때는 마지주기게.  
103018 @ 예, 예.  
103018 #2 마 젓다가 마를 막아분다 허는 거. 마가 가되분다는.  
103018 @ 마 가되부는 거예, 조 불린 다음에 마 가되분예? 계문 마갈이 전에  
마 전에 간 조는 무신 조 험니까?  
103018 #3 건 뭘 조라고 안 허고.  
103018 #6 뭘 조예는 안 허고 그건 그저.

103018 #3 딘 데는 뒤똥 허주. 마간이 안 뒤난 뒤똥다.  
103018 #2 잘 안 뒤똥 뒤똥.  
103019 @ 혼 불 더 갈앙예?  
103018 #3 뒤똥는 거.  
103018 @ 여기서는 이제 불리는 게 몰이나 쉼 행은에 허고. 그 다음에 섬피로 헤영예?  
103018 #2 섬피로 끗어낭 블라.  
103018 #6 씨 뻘영 섬피로 끗어낭 블라.  
103018 #2 무주건 블라.  
103018 #1 그 섬비가 밧 면을 골르는 거라.  
103018 @ 보통 어떤 낭으로 허엿수가?  
103018 #6 팡낭엔 현 게 잇어이.  
103018 @2 팡낭  
103018 #3 삼동낭 팡낭.  
103018 #6 팡낭이 쉼 좋아.  
103021 #2 그런 거 엇이민 소낭가지도 허영 허고.  
103018 @ 어제도 남테 ㄱ튼 거는 여긴 안 쉼똥 허명양?  
103018 #6 남테는 뒤라?  
103018 #3 남군 가른이 낭으로 끗는 거 잇어.  
103021 #6 아 그런 거.  
103021 @ 조팏디 검질은 언제부터 똥 번이나 똥니까?  
103021 #6 조팏디 검질은 보통 혼 세 번 메는데.  
103021 #2 세 번.  
103021 #6 그제 파종 후 혼 이십일 쉼.  
103021 #2 아니, 열흘, 열흘.  
103021 #3 이십 일 전에 메여.  
103021 #2 열흘만 똥면은 조가 바짝 나. 스파야 똥여.  
103021 #6 열흘에?  
103021 #2 제각허게 나고 스파야 똥여.  
103021 #3 열 슝곡.  
103021 #2 삼일 만에 조 낭은에 일주일 똥민 스파야 똥.  
103021 @ 삼일 만에 나불어?  
103021 #2 물만 부뜨른 그냥 나불어.  
103021 #3 삼일 만에 나.  
103021 #6 슝젠 허민 커야주게.  
103021 #3 커야주. 하이튼 밧디 강 살아야 똥여.  
103021 #2 게난 슝도게 그제 하도 일손이 엇어놓난 미룻헐 서눔으로.

103021 #6 계난 종사 빼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게 그걸 잘 골고루 빼여야 소끔 질 덜 허고. 또 빈 공간이 엇일 거 아니라게. 그걸 목적으로 허기 때문에 시 빼는 게 좀 기술적인 거주.

103022 @ 예, 맞아예. 게든 조빏디 조팍디 검질은 멧 번 메여마씨?

103022 #6 세 번.

103022 @ 음.

103021 #2 초불 두불 막불.

103022 @ 막불. 어떤 검질 납니까?

103022 #2 제환지.

103022 #6 제환지.

103022 #2 췌비눔.

103022 @ 예.

103022 #6 복쿨.

103022 #2 복쿨.

103022 #3 천상쿨. 여름 검질은.

103022 #6 췌비눔

103022 #2 여름 검질은

103022 @ 아까 삼추느 보리빏디는 절마니 난덴 헤서예? 절마니허고 제완지 허고는 어떻 틀려마씨?

103022 #2 아주 틀릴 정도

103022 @ 이건 어떤 거지? 절마니는?

103022 #6 절마니엔 현 거는 이렇게 포기 짓어가지고 막 그 저 잎이 가늘게 그냥 이렇게.

103022 #2 머리털 모양으로.

103022 #6 머리털 모양으로 헤영 나는 거고.

103022 @ 음, 제완지는?

103022 #6 제완지는 또 그냥 이렇게 줄 번영.

103022 #3 땅으로 막 번어가.

103022 #6마디마디마다 마디마디마다 이디 맺혀가지고 여름에 일찍 메여불지 아녀민 불휘 번어놓면은 메기가 힘들어.

103022 @ 제완지는예? 계난 절마니는 막 터럭처럼 나는 거라마씨? 흐끔.

103022 #6 아니, 절마니가 아니고.

103022 @ 어, 제완?

#6 아니 절마니, 절마니 맞다, 맞다.

103022 @ 절마니예. 절마니허고 제완지허고 비슷합니까?

103022 #6 아니, 아니.

103022 @ 절마니가 것도 어떤 건지 모르겠네.



103022 #6 여름에는 웨터럭 나메.  
 103022 @ 예, 웨터럭도 나고예?  
 103022 #1 그 으름농사라고 하면은 조.  
 103022 @ 예.  
 103022 #1 산두.  
 103022 @ 예.  
 103022 #1 뭐 콩 녹두 이렇게 등 잇는디 아까도 얘기했구나마는 그 조팠되는 보통 두서너불 이제 김을 메야허는 거고.  
 103022 @ 예.  
 103022 #1 콩밭디나 이런 되는 혼두 불 메도 돼지.  
 103022 @ 예.  
 103022 #1 경허고 이 조 조팠데 검질들은 대충 그 절기에 따라서 허지만 어제 굴앗주마는 즈 쳐서까지.  
 103022 @ 예.  
 103022 #1 그 이전 여름 거즘 농사 짓으믄 그자 매날 검질 멧다고 허면 거 맞을 거라. 쳐서까지.  
 103023 @ 알앗수다. 그 다음 조 수확허젠 허민 어떤 식으로 해야돼마씨?  
 103023 #6 것도 비어다 돼여.  
 103023 @ 비영.  
 103023 #2 비영 툷아. 고고리만 툷아.  
 103023 @ 무끄지는 안 허여.  
 103023 #2 밧디서 주로 툷앗주.  
 103023 #6 밧디서 툷는 수도 잇고 무경 집의 아정 오는 수도 잇고.  
 103023 #2 밧디서가 주로 툷암주.  
 103023 @ 예.  
 103023 #2 들방에왕 알맹인 알맹이대로 다 털어질 거 아니라게.  
 103023 @ 예.  
 103023 #2 계영 건부 체로 칭 불려똥은에 조를 멩그는 거주.  
 103024 @ 그거는 들방에. 이거는 도리깨질은 안 헤마씨?  
 103024 #2 도리깨도 허곡. 또 저.  
 103024 #2 근래에는 탈곡기.  
 103024 #3 메탁기 메탁기  
 103024 @ 메탁기도 하고예? 예전에 호미로 행 툷을 거 아니우과예? 덩드렁마께?  
 103024 #6 그걸로도 허는디 그거는 많이 못허주게.  
 103024 #2 소싯적.  
 103024 #3 흥끔 툷당 방에 못 간 거.

103024 #6 헤저게.  
103024 #2 도리께 아니믄 들방에 가주게.  
103025 @ 예, 가장 쓸 허는 거는 들방에서 허는 거우과?  
103025 #6 그거주.  
103025 @ 좁쌀은 그렇게 들방에서 장만허는 거라예? 밥 행 먹젠허민 어떻 해야  
돼?  
103025 #6 게난 조 장만헤여낭.  
103025 @ 예.  
103025 #6 조 장만허민 조알이 나올 거 아니라게.  
103025 #2 껍데기 썩와진 거난 그것도.  
103025 #6 정미소에 강 저 뵈고. 방아 짱어야주게.  
103025 #2 정미소 나기 전에.  
103025 #6 정미소 나기 전에도 들방에서 둥그리면은 껍데기가 벗겨 질 거 아  
니라?  
103025 #2 게믄 불려근에.  
103025 @ 게믄 초불 한 번 헤놓고 좁쌀만 떨어진 것 갖고 다시 들방에서 둥그  
리멍 현 거라예? 아아.  
103025 #2 어.  
103026 @ 방에 정 오민 좁쌀로는 주로 뭐 현 거라마씨?  
103026 #6 보리쌀, 보리밥 허다가 우에 보리쌀이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좁쌀  
우에 살짝 놓면은 끈기가 잇고 밥이.  
103026 @ 음.  
103026 #2 서꺼질 거주.  
103026 @ 경허영은에.  
103026 #6 오매기떡도 허고.  
103026 #3 것보고.  
103026 #2 술도.  
103026 #6 옛날 그 술 담은 거 혈 때 밀주. 그걸로 멘들고 허는 게 많아서게.  
103026 @ 예. 게난 조팝도 행 떡곡. 떡도 헤먹고.  
103026 #3 떡고 헤먹고.  
103026 #1 술도 빗엿 먹고.  
103026 @ 술도 빗으고.  
103026 #1 죽도 썩 먹고.  
103026 @ 그 다음에 감주 이런 것도.  
103026 #3 골감취 헤가지고. 골감취.  
103026 #6 지금도 좁쌀 먹어. 잡곡밥이라고.  
103026 @ 지금예?

103026 #2 지금도 서경 먹엄주게.

103026 @ 그 다음에 조 종류는 어떤 종류 있어나신고예?

103026 #2 흐린 조 모인조.

103026 #6 흐린 거 모힌 거.

103026 #2 뭐 두 가지로 보든 돼주. 여러 가지 종자 있어. 개발시리 무신 거.

103026 @ 옛날에는 조 종류가, 제주도는 거의 조 농사였으니까예? 조 종류가 하나신디 요즘은 흐린조 모힌조 허민 곳.

103026 #1 대개 모힌조는 옛날에 강돌와리라고 헛고.

103026 #2 개발시리도 잇고.

103026 #1 개발시리는 흐린조로서 검은흐린존디 이제 쥬 냉중에 그거 씨가 전해 왔주.

103026 #2 계난.

103026 #1 그 중간에 우린 또 모힌조 흐린조가 있어.

103026 @ 예.

103026 #1 고고리가 굵은거이? 노랑거. 거 세 가지는 대개 아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잇는디 모르겠어.

103026 @ 그 노란 거 이름은 무신 거우과?

103026 #1 잘 모르커라.

103026 #6 대개 저 뵈고.

103026 #1 강돌와리는 모인 게.

103026 @ 예.

103026 #6 그거는 품종에 따라서 얘기고.

103026 @ 예.

103026 #6 조 허면 흐린조 모힌조.

103026 #3 모힌조게.

103026 #2 두 가지로.

103026 @ 예.

103026 #6 이제 강돌와리여 무시거여 허는 거는 그 안네 들어가서 품종이 이름이주게.

103026 @ 예.

103026 #3 거 특이하게 허는 사름이 허주 귀찮앙 허도 아녀. 모힌조 흐린조주.

103027 @ 예, 맞수다. 그 다음에 조 행은에 방에 헤나면.

103027 #2 돼지, 돼지.

103027 #6 좁쌀에 껍데기는.

103027 #3 봉당체게.

103027 #6 체는 돼지 맥이고.

103027 @ 예.

103027 #1 처음에 고고리  
103027 #3 조 각메기.  
103027 #1 체가 그 곧 혼 그 조 질 우의.  
103027 @ 예.  
103027 #1 껌데기를.  
103027 #3 봉당체마씨게?  
103027 #1 봉등체. 봉등체라 허고.  
103027 @ 봉등체. 예.  
103027 #2 봉등체라 허주.  
103027 @ 예.  
103027 #1 또 방엿간에 지는 거는 뭇엔 끈는고? 그건 아주 줌진 거라.  
103027 @ 예.  
103027 #2 것도 조체엔 허문 웰 겁주.  
103027 #3 조체나 마나, 봉등체고게 두 번째 나오는 게 조체주게. 그게 다 조체 주기.  
103027 @ 봉등체는 누게가 먹는 거?  
103027 #2 돼지.  
103027 #3 아무 것도 돼지 먹어.  
103027 @ 아까 췌 먹는 건 뭐우과?  
103027 #2 아 그건 각메기.  
103027 #6 조 고고리에서.  
103027 #3 알맹이 떨어져 남은 거. 각메기라 헤가지고 거는 소 맥이고.  
103027 @ 음, 봉당체는 이제 돼지 먹고.  
103027 #3 조체는.  
103027 #2 조가 웬 후에.  
103027 #6 요 사이 돼지는 그런 거 췌 먹지 아녀.  
103027 @ 요즘은 다 사료?  
103027 #6 안 먹어 진짜, 계란 돼지나 사름이나 춤.  
103027 #3 고급이주.  
103027 #6 옛날허고 지금 비교허민.  
103027 #2 아, 지금.  
103027 @ 그 다음에 찍으로는 뭐헛수가? 조찍으로 뭐 헛수가?  
103027 #2 췌도 맥이곡.  
103027 #3 불도 슴곡.  
103027 #2 불도 슴곡.  
103027 @ 아, 불도 슴아, 조칙을예?  
103027 #6 그땐 뭇 게 엇어나지 아녀서게.

103028 @ 삼춘, 옛날 말 들어보면 보리도 힘들었주마는 조 농사하는 것도 막 힘들었던 험디다?

103028 #1 힘든 게 그 김매는 때문에.

103028 @ 음.

103028 #2 보리보다 더 힘들었주게.

103028 #6 왜 그러냐 허믄 조라는 거는 잔디 이파리 모양 허거든.

103028 @ 예.

103028 #6 이렇게 그냥 끈게 올르곡, 콩 같은 거는 이파리가 굵어가지고 탁 더 퍼져부니까 이 검질이 잘 나지 아녀. 겐디 조는 햇빛 잘 쏘니까 검질이 엄청 잘 나서 그래서 힘들덴 허는 거주게.

103028 @ 여름 검질메젠 허니까 힘든 거라예?

103028 #3 불리는 과정부터 얼마나 힘들어. 사름으로 불리고 검질메고.

103028 #6 주로 주식 보리쌀 줍쌀로 생활했거든게.

103028 #2 콩ㄴ튼 거는 판로가 엇인 때로 놓니까 그것은 서숙엔 해근에 저 밥에도 햅뎀 서경 농곡 국 꿩렁 먹젠 허민 곶아당 국도 꿩렁 먹곡 콩늑물도 낡 먹고 경했주기.

103028 @ 삼춘, 조 용시허멍 가장 힘들었던 건 뭐우과? 잊어불지 못허는 거?

103028 #2 불리는 거주기.

103028 #6 검질메는 거게.

103028 @ 검질메는 거?

103028 #3 주로 검질메는 거.

103028 @ 검질메는 게 쥬 힘들언예?

103028 #2 쥬터럭 짓어놓민 또.

103028 @ 알아수다. 아까 이제 서숙 헛짚우과? 어제도 물어보긴 헛지마는 뭇 서숙이렌 험니까?

103028 #2 콩ㄴ뜬 거 꾀 ㄴ튼 거 서숙이렌 헛주게. 헤 먹는 것.

103028 #1 조팍ㄴ라 서숙밥이엔.

103028 @ 조팍ㄴ란도 서숙밥엔도.

103028 #1 조팍ㄴ라 서숙밥엔.

103028 @ 보통 서숙허게 뉘면 줍썰허고 기장이주마썸. 제주도는 콩 서숙

103028 #2 잡곡류를 서숙이엔.

103028 #3 서숙이주. 보리 때도 보리쌀 말고 서숙이주.

## 콩 농사

103030 @ 예, 게믄 아까 서숙헛 때 콩 해신디, 콩 용시는 언제 어뎡허는 거우과?

103030 #2 마찬가지로 조 불릴 때 그것도 같이.

103030 #6 조 허기 조금 전에.  
103030 #2 내중에 허지 않습니까?  
103030 #3 전에, 전에.  
103030 #2 전해 허여?  
103030 @ 콩도 하영 같았수가?  
103030 #6 콩은 이 장마 시기에 허매.  
103030 @ 장마 시기에?  
103030 #6 장마 시기에 왜냐면 장마에 나게끔 헤여.  
103030 #2 물 우뚝 나야.  
103031 @ 아아.  
103030 #6 경혜야 그 종자가 훌룽허여.  
103031 @ 예예, 장마 때예?  
103031 #6 장마에.  
103031 @ 그러면은 콩은 걸름을 안 헌텐 허명예?  
103031 #3 아너.  
103032 @ 장마 때 허면 그 콩씨는 어떤 식으로 빼여마씨?  
103032 #6 콩씨도 손으로 빼여야지.  
103032 @ 건 밧 갈아낱 빼는 것과?  
103032 #3 옛날 말 잇주기. 콩 지피 갈면은 장 주지 말란 말이. 왜냐허면은 장  
마철에 가니까 콩을 깊이 혁 물어불인 콩이 잘 못 나. 비 와불민.  
103032 #2 올라오젠 허든 힘든텐 말이주.  
103032 #3 콩이 야피 갈앙 잘 나게 허는 거주.  
103032 @ 콩 지피 갈면은 무시거 주지 말라고마씨?  
103032 #2 장 담양 콩으로 담은 주지  
103032 @ 콩 지피 장남.  
103032 #3 장 주지 말라.  
103032 @ 장 주지 말라  
103032 #3 콩 안 난다 허는 소리로  
103032 @ 콩 안 난다는 예.  
103032 #2 깊이 갈아불민 잘 안 텐다 허는 말이주.  
103033 @ 콩밭 검질은 몇 번 메마씨?  
103033 #6 흔 번 두번 정도.  
103033 #1 흔 번 아니면 두 번.  
103033 #2 검질이 못 나니까?  
103034 @ 콩밭디는 어떤 검질 납니까?  
103034 #6 아까 말한 제완지.  
103034 @ 예.

103034 #1 스웨이.  
 103034 @ 스웨이기도 나고.  
 103034 #3 비눔게 췌비눔 천상쿨.  
 103034 #2 복쿨.  
 103034 #6 복쿨.  
 103034 #3 복쿨 천상쿨.  
 103034 #1 으름 나는 거 다주.  
 103034 @ 콩은 아까 보리나 소는 비는 거 아니우과예? 콩은 어떻 헌덴 헉니까?  
 103034 #2 꺼끄다  
 103034 #6 콩은 꺼끈덴 곶으메. 비는 곶 보고.  
 103035 @ 꺼끄다예. 건 무사 꺼끄다 해염신고예?  
 103035 #2 비기가 힘들어. 땅이 췌놓니까 호미 잘 안 들어.  
 103035 #6 꺼끄는 소리가 나고 꺼꺼지주게.  
 103035 #1 잘 익으면 낭이 누렇게 되면 그 호미로 비기도 허주마는 곶쟁일 가  
 정은에 영 꺼꺼도 꺼꺼져.  
 103035 #3 콩낭이 삭주기 좀 삭아.  
 103035 #1 그래서 그 꺼끈다는 말 나온 거.  
 103035 #6 꺼끈다.  
 103035 @ 거난 호미로 아니고 곶쟁이로도 이렇게.  
 103035 #6 주로 호미로 허여.  
 103035 @ 장만은 어떤 식으로 헤마씨?  
 103035 #2 도리께.  
 103035 #6 장만은 다 옛날은 도리께.  
 103035 #3 옛날은 옛날은 도께.  
 103035 #1 도께질허단 근래는 또 탈곡기에.  
 103035 #3 이제사 탈곡기주마는 멧 년 전의야 우리 부친은 전부 두드렛주 우리  
 어린 때.  
 103035 #2 난 금년도 두드렛수다게.  
 103035 @ 콩 갈아뵈디가?  
 103035 #2 도께로 두드려야주.  
 103036 @ 음, 게문예, 그치룩허영 도께로 허여갓고 허면 콩허영은 주로 뭇허여  
 마씨?  
 103036 #6 콩을 뭇허냐고?  
 103036 @ 음.  
 103036 #2 콩죽도 췌 먹고. 지금은 거의 뭇 풀아.  
 103036 #6 그때 당지 얘기라 이제 얘기라?  
 103036 @ 그때 당시?

103036 #6 그때 당시는 콩죽 콩국.  
 103036 #2 콩누물 농국.  
 103036 #1 풋쉬도 허고. 밥쉬도 허고.  
 103036 @ 음, 밥에 쉬도 허곡. 가장 중요헌 거 안 곁아수다게. 콩 가는 주 목적이 뭐우과?  
 103036 #6 그거주게.  
 103036 #3 둤비도 허영 떡곡.  
 103036 @ 둤비도 허영 떡곡.  
 103036 #6 또 웬장.  
 103036 @ 예게 쥬 우선 아니우과? 콩 가는 목적이.  
 103036 #3 아까 콩 기피 갈민 우선 그거. 장을 해서 먹어사주. 우선 장이 쥬고 목적.  
 103036 @ 거난 장이 목적인데 곁 안 곁아부난.  
 103036 #1 두부도 허영 먹고.  
 103036 #3 두부야 가끔 헤영 먹는 거주마는.  
 103036 @ 그 다음에 장을 허민 콩도 종류가 으라 중 아니우과?  
 103036 #6 맞아.  
 103036 @ 어떤 종류 잇수가?  
 103036 #5 종류가 뭐.  
 103036 #1 청태콩.  
 103036 #2 그 당시는 흔 뒤 가지벳기 엇엇어.  
 103036 #1 청태콩 산콩.  
 103036 @ 예? 산콩은 어떤 콩이우과?  
 103036 #1 어,  
 103036 @ 산콩은 어떤 콩이우과?  
 103036 #1 거 노랑헌 건디 저 보통 저 콩이고.  
 103036 @ 예.  
 103036 #1 산콩. 청태콩은 퍼렁헌 거.  
 103036 #1 노랑헌 건디  
 103036 @ 장콩 아니마씨?  
 103036 #3 장콩엔 허주. 노랑콩보고 득새기콩 허는 게, 득새기콩 허는 게.  
 103036 #6 콩나물콩보고  
 103036 @ 콩마물 콩 주름콩.  
 103036 #6 아니 전문 얘기가 콩나물콩은 준자리?  
 103036 @ 요즘은 준자리 옛날에는 주름콩.  
 103036 #6 청태콩 썬?  
 103036 @ 청태콩으로. 청태콩이 파랑헌 거우과?



103036 #3 과란 거 청태콩.  
103036 #2 거허고 득새기통벧긔 엇어어.  
103036 @ 삼춘 득새기콩은 어떤 거?  
103036 #6 굵은 거.  
103036 #2 아니, 아니, 노랑거.  
103036 #6 방울이 굵은 거.  
103036 #3 방울 굵은 거.  
103036 @ 예, 예. 장을 담는 콩은 뭇로 담간?  
103036 #2 득새기콩으로.  
103036 @ 득새기콩으로? 으음, 계난 우리 장콩이엔 현 게 득새기콩이우과?  
103036 #2 으, 득새기콩.  
103037 @ 알아수다. 그 다음엔, 콩으로는 그렇게 허고 콩찍?  
103037 #3 대, 콩대?  
103037 #2 쉼벧엇주.  
103037 #6 콩꼬질.  
103037 @ 콩꼬질은 뭇혜수가?  
103037 #6 쉼 벧이주.  
103037 #1 쉼 벧이곡.  
103037 #3 것도 불도 습곡. 쉼도 벧이곡.  
103037 @ 예.  
103037 #6 소 잇는 사름은 소 벧이고 경 아년 사름은 불 습곡.  
103037 @ 예.  
103037 #3 콩각지 뭇니 전부 소는 먹엇쥐.  
103038 @ 콩 농사허멍 잇어불지 못허는 추억 잇어마씨?  
103038 #6 벨로.  
103038 #3 잇어불지 못헌 추억은 나 그 콩검질 메렌 허난 콩낭 강알로 기어뎡  
겨낫저 마는. 나 그거 추억. 어멍 검질 메렌 \*\*허민 콩낭 강알로 고녕이ㄴ치 술술술  
술.  
103038 @ 콩이 그만큼 큰 거라예?  
103038 #3 두불 검질멜 때.  
103038 @ 두불 검질멜 때.  
103038 #6 계난 콩낭 막 나민 사름 앓이민 얼굴이 더퍼질 정도라나서게.  
103038 @ 아, 경 콩이 잘 똥 거라예?  
103038 #2 완전.  
103038 #6 옛날 콩은 다수확 품종이 아니고.  
103038 @ 예.  
103038 #6 다수확 품종일수록 기장이 안 크는 거라이.

103038 @ 예.

103038 #6 다수확콩은 옛날은 엇어거든. 전부 청태콩이 이렇게 크는 거.

103038 @ 키가 커예?

103038 #6 지금은 뭐 다수확 콩이 쫘 짧으고 이룬데.

103038 @ 삼춘 콩도 보면 한꺼번에 콩밭디 가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영 가는 이런 콩도 잇텐 험디가?

103038 #3 듬성듬성 가는 콩?

103038 @ 다른 거 가는디 조팏디 하나씩?

103038 # 머드레

103038 #3 조팏디나 풋밭디. 풋밭디 주로 갈았주.

103038 #6 하나씩 틸틈이.

103038 #2 서경 들이청 낫당 그거.

103038 #1 밥쉬나 허젠게.

103038 #2 맞추기.

103038 #6 그게 그 다른 품종에 하나씩 허면은.

103038 @ 예.

103038 #6 그렇게 잘 돼여. 그게 또.

103038 #3 서로 씹는 생이라. 곡식 곡식끼리. 너가 잘 췌다 잘 췌다 곡식 곡식끼리.

103038 #1 머드레콩이.

103038 #3 머드레콩게.

103038 @ 머드레콩예? 아까 밥쉬렌 헛잖아예?

103038 #2 밥쉬가 머드레콩으로 밥쉬.

103038 @ 것도 밥에 낱 먹어예? 노랑콩도예? 걸 밥쉬?

103038 #1 익기 전이라도.

103038 #6 밥쉬에.

103038 #2 서경 밥헌다는 거 밥쉬.

103038 #1 따서 밥에 낱 먹곡.

103038 @ 우리 떡헐 때도 쉬렌 허지 아녘니까?

103038 #2 그건 췌양은에.

103038 @ 계난 이제, 계민 밥에 놓는 콩도 쉬렌허고 우리 풋밥도.

103038 #2 풋쉬.

103038 #6 예.

103038 @ 녹디 농민 녹뒤쉬?

103038 #3 그렇지.

103038 #2 떡에 허민 떡쉬.

103038 @ 떡에 허민 떡쉬 허지만 그냥 쉬?

103038 #3 떡에 허민 떡쉬 뒤고 밥에 허민 밥쉬허곡 뒤는 거주. 두 가지로.

103038 @ 예, 알아수다. 게민 오늘날 보리허고 조허고 콩만 갑주. 널랑예, 발벼 그 산뒤부터허영 갈쿠다.

103038 #2 산뒤.

103038 #3 널랑 경허여.

103038 @ 예.

103038 #3 아이고, 다섯 시 뒤저야?

103038 #6 다섯 시 뒤연.

### 발벼농사

103039 @ 예, 산뒤 농사 지어봡주. 산뒤 갈젠 허면 준비허는 거 우선 뒤뒤 필요 현고예?

103039 #3 게 갈젠 허민게 씨부터 준비헤야 뒤고.

103039 @ 예.

103039 #3 그 다음에 쉼 몰앙 가는 거 잠대 ㄹ뒤 거 준비 과정은. 우선 산뒤 씨 주게.

103039 @ 예.

103039 #3 산뒤씨.

103040 @ 산뒤는 언제 어떤 식으로 갈아마씨?

103040 #6 그냥 산파로 허매.

103040 @ 아, 산파로 행예? 언제 갑니까?

103040 #6 봄에.

103040 @ 봄에 몇 월에.

103040 #6 산뒤가 삼월달에 허는가?

103040 #3 산뒤 일찍 허여. 삼월달.

103040 #6 삼월달.

103040 #2 삼월달?

103040 @ 직접 갈아보긴 헛수가?

103040 #3 갈아봡주게. 갈아보긴 헛수다.

103041 @ 갈아본 거 어떤 식으로 헤연 갈아난 거 곺아줍서?

103040 #3 아까 곺앗주마는 산파로 헤가지고 갈앙 게난 것도 우알씨 뺨주마는 것도 산뒤씨는 우에 뺨영 블러야 뒤여.

103040 #2 잘 블러야주.

103040 #3 검질매곡 다 헤 갈 거주.

103041 @ 알아수다. 게민 산뒤는 곺름을 안 헤마씨?

103041 #3 곺름 허는 거 엇어.

103041 #6 곺름 헤주민 좋주마는 시기적으로 그때 곺름 안 허매.

103041 #1 걸름 안 허메.

103041 @ 산디는예? 예, 알앗수다. 게니까 아까 산디씨는 빼엿주마는 보통 산디씨는 어떤 식으로 빼영은에 갈앙마씨? 산판데 밧 갈앙 험니까 아니면은 갈앙은에 산디씨 빼는 거우과?

103042 #1 산디 허는 거는 그 밧을 갈앙 그 씨 빼여가지고 섬비로 꺾는 게 보통이주기 뽕으지는 안 험 건 같은데.

103042 #3 불릅니다.

103042 #2 산디 불리고 산디 불리고.

103042 @ 우알씨를 허는 거라예?

103042 #3 골고로 나렌.

103042 @ 먼저 빼는 씨를 알씨 험니까?

103042 #3 옳지 알씨.

103042 @ 밧 갈앙 빼는 씨는?

103042 #6 늘씨.

103042 #3 늘씨.

103042 @ 알씨, 늘씨예. 줍씨도 어제 늘씨로 뺨덴 헛잖아예?

103042 #3 그렇지.

103043 @ 그 다음에 산디밧은 검질은 몇 번 메마씨?

103043 #6 것도 두 번 내지 세 번.

103043 #1 것도 세 번은 메야돼. 일찍.

103043 #3 세번은 메야돼 일찍 가니까.

103044 @ 어떤 그 검질덜 нама씨?

103044 #2 조팍디 나는 거 그대로.

103044 @ 곱아줍서.

103044 #2 제완지 쉼터럭.

103044 #6 복쿨.

103044 #1 복쿨.

103044 #6 그런 거주.

103044 @ 예, 여름 검질이 나는 거네예?

103044 #1 썩.

103044 @ 음.

103044 #3 속.

103045 @ 속. 썩 아니고 속. 그 다음에 산뒤 수확은 어떻허여마씨?

103045 #2 흘탕.

103045 #1 낮으로 비영. 거 역시 마찬가지로 조 허듯이 들류왕.

103045 @ 예.

103045 #1 밧데서 그냥 들류왕 다시 무경. 그 무끄는 것도 조 무꿈은 좀 굵게

무끄는디 이견 족게 무꺼가지고 에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것같이 혜영이 홀테로.  
 103045 @ 예.  
 103045 #1 그 집의 가져당은에 홀테로 그 떠는 거.  
 103045 @ 음.  
 103045 #6 그 전에는 홀타는데 이 중간에는 발로 눌러면서 로라가 돌아가는 거  
 잇주게.  
 103045 #2 탈곡기.  
 103045 #6 탈곡. 그걸로도 해서.  
 103045 @ 발로도 돌리멍 헤마씨? 경운기로 허는 게 아니라.  
 103045 #2 경운기 나지 전에.  
 103045 #3 것도 오래지 아녀서. 경운기 나기 전에.  
 103045 #1 수동이주게.  
 103045 #1 수동으로 둥그렁헌 것에 췌 오그려 가지고 박아 가지고 떨어지게끔.  
 돌아가멍. 그레 놓믄 떨어지게.  
 103045 @ 게믄 그 일름은 뭇렌 곶아수가?  
 103045 #3 탈곡기.  
 103045 @ 것도 탈곡기예? 음, 게믄 홀테 다음에 탈곡기하고.  
 103045 #3 그렇지.  
 103045 @ 경운기헌 그거는 뭇우과?  
 103045 #2 맥테기.  
 103045 @ 거는 맥?  
 103045 #1 것도 탈곡기주기.  
 103045 #6 젠디 아까 두 번째 쓰는 거.  
 103045 @ 예.  
 103045 #6 그거는 발로 허는 거라이.  
 103045 @ 발로 혜영 수동으로 허는 거 탈곡기. 경운기로 허는 거는?  
 103045 #3 맥탁기. 맥택기나 맥탁기.  
 프#2 순 우리 여기서 허는 말을 곶아줘야지.  
 103045 #6 맥타에 허는 거는. 순 우리 보리 맥자주게.  
 103045 @ 예.  
 103045 #6 게난 탈곡이 맞추게.  
 103045 @ 탈곡. 알아수다.  
 103045 @ 탈곡예, 알아수다. 탈곡기.  
 103045 #3 젠디 산디도 도께로도 때렸어.  
 103045 #2 도께로도 허곡.  
 103045 @ 산디도 도께로도 때령예?  
 103045 #3 도께허곡.

103045 #2 쳇망으로 허연.

103045 #3 이거로도 홀트고. 집의 오면은 ㄹ레착 뇌가지고 이렇게 때림도 허곡  
헤나서.

103045 @ 음, 아까 삼춘예, 쳇망으로 홀튼다는 말은 무슨 말이우과?

103045 #2 땅에 영 놓민 이런 체 잊지 아녀게. 걸로 허영 영 좁아텡기멍 영 홀  
어.

103045 @ 아 산디는?

103045 #6 그거는 아주 양 적게 허영.

103045 #3 적게 허단 고고리를 부뜰 거 아니라. 그 고고리를 쳇망으로 홀어야  
깨끗이 떨어지주게. 허당 떨어진 거.

103045 #2 옛날 떨어진 거.

103045 #3 우리 열댓 솔 때도 안

103045 #2 봐나난 곶아지는 거주기.

103045 #3 경 헤나난 그치록 허는 거.

103045 @ 쳇망으로 허는 것도 홀튼텐 곶아예?

103045 #3 쳇망으로 홀튼데.

103045 @ 다른 곡석도 쳇망으로 홀트는 게 잇수가?  
#2 아이 엇어.

103045 @ 산디가 잘 떨어지는 거구나?

103045 #3 아래 거 시난 쳇망으로 홀트는 거주.

103046 @ 죽은 것덜예, 그 다음엔 산디쫄로는 주로 뭐 헤영 먹어수가?

103046 #6 계난 우리 제주에는 육지부허고 틀러가지고 알겠지만은 논이 적지  
아녀게.

103046 @ 예.

103046 #6 계난 산디로 많이 헤서. 제사 때도 산디쌀 하고.

103046 @ 예.

103046 #6 지금 쌀 허는 거를 지금 나룩쫄이지, 그때는 산디쫄로 주로 헛주.

103046 @ 예, 계면 제사할 때 메 ㄹ튼 거. 그 다음에

103046 #3 보리쫄에 서경 낱도 먹곡게.

103046 #6 특별한 날은 곤밥이엔 허지 아녀.

103046 #1 곤밥 곤떡은 저번도 곶앗주마는 메 저 메곤제이. 산이엔 현 거. 메가  
산이주기. 메가 오름 산. 메 곤떡 곤쫄. 그렇게 육도로 이젯말로 육도지만은 그렇게  
옛날 얘기로는 그정게 허주게.

103046 @ 이젠?

103046 #1 제사나 모든 게 이 그걸로 메 행근에 올리곡 전부 헛주 어디 뭐 쫄  
받아당 허는 건 특이헌 거고. 그 당시에는.

103047 @ 예, 알아수다. 그리고 산디쫄 용도는 뭐우과?

103047 #2 쉼도 맥이곡.  
103047 @ 음.  
103047 #3 산디찍은 쉼 많이 맥여서.  
103047 @ 아, 산디찍도 쉼 맥여.  
103047 #1 쉼도 맥이고.  
103047 #1 찍신도 삼았고.  
103047 #6 초신.  
103047 @ 초신예.  
103047 #3 늘도 꼬고 새끼도 꼬고.  
103047 #6 나락집이 쫘 귀했주.  
103047 @ 예.  
103047 #2 귀허나마다 완전 맞벼주 뭐. 이녁이 논 엇이난 맞벼.  
103047 #3 걸로 짐페도 멘들고 지게 등테도 멘들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주.  
103047 #6 여기서는 지금은 폐답뒤엇주만 그 양쪽으로 \*\* 집 하난.  
103047 @ 알아집네다.  
103047 #6 준공도 안 행 잇는디 그디서 주로 째이 나왔어.  
103047 @ 예, 게문 이제 그 째 사당은에 허든.  
103047 #6 그렇지.  
103047 @ 아니른 산디찍으로 현 거 아니라예? 산디찍으로 신 삼곡 용도가 하시  
커라예?  
103047 #2 아 뭐 이것저것 베도 꼬왕 그걸로 짐도 정 텅기곡 다 했주.  
103048 @ 산디 농사허멍은에 잊어불지 못헌 경험 같은 거 이신가마씨?  
103048 #3 우리 뭐 그 당시 경험 무신 거 그런 거 없어. 들은 거밖에.  
103048 #2 들로 밧 불리다근에 차분아 눈 까져나서 나.  
103048 @ 음. 경헨 어떻 험디가?  
103048 #2 어떻 허여 거. 병원 좇아엔 강 쥘.  
103048 #3 병원이나 즐바로 잇어.  
103048 #2 거 물 툃툃툃툃 몽둥이로 조름으로 산에 두드려가난 이눔이 \*\* 와닥  
닥허게 이눔의 새끼가.  
103048 @ 그런 거 잊어불지 아녀는 거.  
103048 #3 밧 불리당 물에 맞은 사름 하.  
103048 #2 이거 나 본치.  
103048 @ 본치도 낫수가?  
103048 #3 물 헐 때.  
103048 #6 소는 빨로 허는데 말은 발질이주게.  
103048 #2 탁 차농민.  
103048 #6 뒷발질. 말은 주로.

103048 #3 불리기 게난 지치긴 차곡 허 멩직 물 쫑지 영 허민 차곡 슬 차곡. 멩 직지 말아야.

103048 #2 멩둥이로 제게 가레 두드려가난 부에나난 차실 테주.

103048 #1 산디쪽으로 멩석이영.

103048 @ 예, 맞수다.

103048 #1 멩이영 그걸로 즐앗고이. 그것도.

103048 @ 아주 중요한 얘길 헤침수다. 예전에야 다 멩석 헛잖아예?

103048 #1 멩석도 즐곡 멩도 즐곡.

103048 @ 예, 알아수다.

### 고구마 농사

103049 @ 이제는 예전에 감저들 하영 같앗잖아예? 감저 싱것던 얘기에?

103049 #1 고구마.

103049 @ 어떤 준비가 필요헉니까?

103049 #2 메중.

103049 @ 메중 놓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낫수가?

103049 #1 메중. 내가 굴옥카.

103049 @ 예.

103049 #1 예, 이 해동기에. 해동기엔 굴아점짜. 얼음이 풀리믄.

103049 @ 예.

103049 #1 풀려가지고 삼월 썸 돼면은 가을에.

103049 @ 예.

103049 #1 그 수확을 헤가지고 고구마를 저 과당은에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저 월동을 저 \*\* 해근에 그디 저 묻어가지고 혁도 올리고 해근에 겨울을 나도록히 행은에.

103049 @ 예.

103049 #1 걸 공기도 통허곡 주쟁이도 올앗다 더껏다 허면서 저장헤여이.

103049 @ 예.

103049 #1 저장헤다근에 봄나믄 날 좋믄 헤싸근에 먹기도 허고 씻감자로 이제 팔기도 허고 사당고 허고 자기대로 저장헌 사름은 자기 걸로 행은에 사당허는 사름은 말로 혼 말 두 말 말로 풀믄 사다가 이제 그 멩자리를 멘들양.

103049 @ 예.

103049 #1 이제 ㄱ트믄 저 무우 무판 종자판 같이 멘들양은에 이저 거기에 드 멩드멍 고구마를 심어. 싱그는데 걸름 잘 묻영근에 제게 키우젠 허믄 돛걸름도 놓 고 또 불치도 놓곡 헤여가지로 그걸 낵. 건 이젠 그디서 순이 나가지고.

103049 @ 예.

103049 #1 뭐 크게 돼면은 대개 에 어느 때 돼느냐 허면은 망종 스시 돼여이.



103049 @ 예.

103049 #1 보리 익었은에 거저 허여가믄 이게 크기 시작하면 보릿그르 나믄 싱 그주게. 보리 후작에. 보릿그르 나면 싱거.

103049 @ 그치록허영 피운 줄을 뉘렌 험니까?

103049 #6 감젓줄.

103049 @ 감젓줄. 어, 거 끊어당 싱그는 거 아니라예? 예.

103049 #6 수확 고구마 가을 들면은 상강일 기준 헤가지고 상강 넘영 파면은 썩넨 허주게.

103049 @ 예.

103049 #6 게니까 상강 전에 파는 거라이. 감저 눈뎨 곶아 그거를.

103049 @ 감저 눈다예?

103049 #1 감젓눌.

103049 #6 구텡이 이렇게 파가지고.

103049 #2 느람지 둘러근예.

103049 #6 찻 조집 같은 거 둘러가지고.

103049 #3 콩꼬질 콩꼬질.

103049 #6 옆으로 흑 올려. 가운데는 숨 쉬게끔 뉘 찻이나 무경은에 영 낱.

103049 @ 예.

103049 #6 우의 주쟁이 더경. 주쟁이 알아져.

103049 @ 예. 알아집니다.

103049 #6 그때는이 날이 좋양 헤가민 그걸 흐뎡 열어줘.

103049 @ 예.

103049 #2 공기 통허레.

103049 #6 공기 잘 통허렌. 추워가민 더꺼불곡. 그런 식으로.

103049 @ 씨감저 저장허는 게 보통일이 아니엇네예?

103049 #6 조금 그 내중에는 온도계 헤여근예 그레 집어낱.

103049 #3 온도계도 \*\* 손 질러봐서 뉘뉘허면은 아이고 주쟁이 올곡.

103049 #2 맞아 맞아.

103049 #3 그것이 온도계라. 추웁 어둑어가면은 더끄곡. 오늘

103049 @ 오늘 뜻이난예? 예.

103049 #2 짐이 팡팡 나주게.

103049 #3 그 속에 들어간 거는 찻이 뜻이거든. 그 가운데는 콩꼬질.

103049 @ 예.

103049 #3 공기통을 잘 낱은에 허곡. 썩은 감저가 하.

103049 #2 온도 잘 맞으믄 안 썩고 온도 잘 안 맞으믄 썩고.

103049 #1 또 그렇게 허고 이 구들에.

103049 @ 예.

103049 #1 구들에도 겨울 보관을 하여.

103049 #3 뜻인디 백장 어염에.

103049 #1 맥에나 가마니네다 담아가지고 방안에도 저 보관행은에 월동 시기는 경우도 있어.

103049 #6 겐디 고구가 줄이 거름놓고 그 얘기가 나왔주마는 많이 커블면은 고구마 막 길주게. 보통 삼십센터 내시 사십 센터 정도로 찢르는 거라.

103049 @ 예.

103049 #6 경 심어야 돼여. 그냥 길게 심으면은 그대로 막 달리든 좋은데.

103049 #3 므디로 나주게. 므디로 나.

103049 @ 아, 므디로 헤영 나는 겨우과? 그 줄 싱글 때는 어느 철에 싱근 거마 씨? 키운 거?

103049 #2 그 오월 말쯤은 돼겐네. 보릿그르난.

103049 @ 바로 감저 가는 거예?

103049 #6 고구마부터 심어야 돼여.

103051 @ 예, 알아수다. 게믄 감저밭디도 거름 헉니까?

103051 #3 거름 허는 디 엇어.

103051 #2 옛날은 안 헛주마는 이제 이젠 굶벵이가 많아 농난 제초제 아녀믄 안 돼여.

103051 #6 약이엔 현 건. 아까 걸음엔 곱안? 거름은 안 허는디.

103051 @ 예, 걸름.

103051 #3 거름은 안 허고.

103051 #6 이제는 그 굶벵이.

103051 #2 경 아녀민 굶벵이 때문에.

103051 #6 옛날은 굶벵이가 심허지 아녜는데 이젠 굶벵이가 쟁장허여. 토양 살충제를 해야 돼여.

103051 @ 아, 감저 싱그젠 허믄예?

103051 #6 그거 안 허영 허믄 수확기에 보믄 굶벵이가 문딱 옴과부렁은에 먹을 게 엇어.

103051 @ 경 농약헤도 굶벵이가 핫구나?

103051 #3 땅에.

103051 #6 게난 이제 비단 고구마 뿐만 아니라도 다른 농사에도 전부 이젠 살충제를 해야 돼여.

103051 @ 땅에 예.

103051 #6 씨뿌림과 동시에.

103051 #6 콩 갈 때도 다 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되고. 옛날에는 저 벌레가 엇엸덴 허는디 이 최근에 와서는 벌레가 쟁장허여.

103051 #3 눈 하영 묻고 허민 충이라는게 대개 없엇는데.

103051 @ 이제 뜻아부니까.

103051 #3 전부 나주.

103051 #2 겨고 옛날에는 농약을 아녀부니까 천적들이 그걸 잡아먹으멍 허니까 그게 엇는데.

103051 #3 그렇지.

103051 #2 이젠 농약허니까 천적이 엇어.

103051 @ 그게 큰 원인인 거?

103053 @ 감저밭도 여름이난 검질 하시커라예? 멧 번 뻘니까?

103053 #2 두 번.

103053 #6 겐디 고구마는이 줄 벌어가면은.

103053 @ 음.

103053 #6 그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마디서 땅에 부뜨주게. 부뜨는냥 내불면은 감저가 안 든덴 허영.

103053 #3 안 든덴 허여.

103053 #6 부뜨는냥 떼어줘야 헌덴 허주게.

103053 #3 감저가 안 들어.

103053 @ 아아. 혹시 골도 갑니까?

103053 #3 골 갈앗주게.

103053 #3 골 갈앗주게. 저번에 선생이 헌 얘기가 골벳.

103053 #2 끊어지게 뒤엇주.

103053 #6 그거는 뒤 좀 혼헌 일은 아니고.

103053 #6 혼헌 일은 아니고예?

103053 #3 검질메기 힘든 때 허면은 그 골을 갈아서.

103053 @ 예.

103053 #6 소가 밟아버리고.

103053 #3 밟아도 갈앗주.

103053 @ 게문 그 줄 때는 거는 사름 손으로 다 떼여주는 거예?

103053 #6 검질 메멍. 검질 메멍.

103053 @ 아, 검질매멍.

103053 #3 소 갈 때도 떼어주곡.

103054 @ 감저 밧디도 검질들은 아까랑 ㄴ튼 가마씨? 어떤 검질 주로 나낫수가?

103054 #6 주로게 아까.

103054 #2 여름 검질.

103054 #6 여름 검질. 대개 그거주 뒤.

103054 @ 경해도 여기 녹음해야돼는디?

103054 #2 제완지, 복쿨.

103054 @ 예.  
103054 #2 쉼터럭.  
103054 @ 예.  
103054 #3 천상쿨.  
103054 #6 속.  
103054 @ 음 천상쿨.  
103054 #6 지금 말허는 표준언 썩이주만 속.  
103054 @ 이것 말고도 쉼비눔영.  
103054 #6 쉼비눔도 나고.  
103054 #2 비눔, 쉼비눔.  
103054 @ 어, 비눔도 나곡예. 여기도 비눔도 먹어수가?  
103054 #3 먹엇주.  
103054 #2 춤비눔엔 해근에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103054 @ 예.  
103054 #6 겐디 육지 보니까 쉼비눔도 먹대이.  
103054 @ 요즘 뭐 쉼비눔 좋덴 허멍 허염수게.  
103054 #2 우린 독허덴 허연 안 먹엇는데.  
103054 @ 예.  
103054 #2 나오는 거보난 쉼비눔 좋은 거더라고.  
103054 #6 육지 사름덜 막 먹어고.  
103054 #3 개자리도 해영은에 삶앙 먹고 해낫주.  
103054 #2 약재로 좋은 거더라고.  
103054 @ 예, 맞수다.  
103054 #3 여기서 쉼비눔 보리홀틀 때 거 슥양은에 냉국 허민 쉼고주.  
103054 @ 쉼비눔을마씨?  
103054 #2 아, 춤비눔.  
103055 @ 아, 제주도도 춤비눔도 먹엇구나?  
103055 #2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103055 @ 감저 수확은 언제 허는 거마씨?  
103055 #2 상강 이전에.  
103055 @ 감자 수확허젠 허면 어떻허영 허는 지 순서를 한 번 곁아줍서.  
103055 #3 줄 곁어낱.  
103055 #6 낱으로 줄을 끊어 이만큼  
103055 #3 손으로.  
103055 #6 해청 자쳐근에.  
103055 #1 손으로 파곡 소로도 곁아가지고. 뒤에서 곁면서 좇어근에 모으기도  
허고.

103055 #3 감저 좇곡.

103055 @ 어느 걸 더 하영 헛수가?

103055 #2 주로 파서이.

103055 #6 주로 곱셈이로 파서.

103055 @ 곱셈이로 파서예? 여기서 곱셈이로 판 이유는 뭐고마씨?

103055 #3 췌가 없으니까.

103055 #6 경허고 곱셈이로 파면은 고구마가 상허지 안 허는디 췌로 허면은 그  
게 아무래도.

103055 #2 췌기

103055 #6 췌기로 허니까 췌여지는 거 소 발로 밟아지는 거 잊주게.

103055 #2 곱닥허게 좇지도 못허고게 건 거벳기.

103055 #6 흑으로 무쳐정예?

103055 #3 크게 간 분들은 소나 신 분들은 췌로 같고.

103055 #2 부업으로

103055 #3 췌로 같곡. 췌 빌영 강 힘드니까 곱셈이로 파곡 대부분 하영 현 사름  
은 소로 같앗주. 파젠허민 힘들엇지.

103055 @ 예, 게믄 감저 같은 경우도 옛날 이거도 환금작물 게믄 어떤 식으로  
허연 폰 거라마썸?

103055#2 전분공장에.

103055 #6 전분공장도 아주 오랜 그뻤 엇엇주.

103055 #1 전분공장이 외도에도 잇었는데 예 천구백 혼 사십삼년 정도 일본 시  
대 웨어가지고 해방웨니까 뭐헛는데 이 외도에는 고구마를 많이 안 심엇는데이.

103055 @ 아아.

103055 #1 주로 어디 대정 신도 ㄱ뽏 디 무릉 ㄱ뽏 디 췌장허 많이 싱그는 거  
더라고. 거기 신산이라든지 경헌디 이 그 고구마 헤가지고 이 그 고구마 헤가지고  
이 전분 행근에 이익웁다는 건 어느 순간 순간 넘어가멍 그런 게 잇엇지. 계속헤가  
지고 그거 저 큰 벌이가 웁다는 건 아니던디 그전에 오일육 혁명이 웨니까 이 제주  
도에 절간을 장려헤가지고 허라고 헤가지고 거 돈벌이 되는 걸로 헨에 춤 절간을  
장려헤가지고 절간 갖당 바치지 아너믄 비료도 덜 주고 허면서 현 예가 잇어났는  
디.

103055 #2 경 헤나서.

103055 #6 건디 그 말씀 가운데우다마는 웨정 때도 절간을 공출로 헛주.

103055 @ 그 말씀 한 번 헤줍서?

103055 #6 절간이엔 허믄게 췌어근에 말리는 거.

103057 @ 예.

103057 #6 경허영 웨정 때는 게공출이엔 헤가지고 게 어느 집의서 어느 집의  
활당시켜가지고 무상으로 공출, 글자 그래도 공짜로 내놓라. 그거야 비단 고구마 뿐

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보리던 뭐든 다 경헛주마는. 절간, 절간엔 허영 그때 당시  
웨정 때도 그거 해서.

103057 @ 예, 그 절간 감저예 그걸 여기서 뭐렌 헛니까? 썬 것을.

103055 #3 뻗테기. 여기.

103055 #6 감저뻗테기.

#3 감저뻗테기.

103057 @ 그 다음에 감저뻗테기도 허영 먹곡. 이왕이면 외도 말로 하영 곶아줍  
서예? 감저뻗테기허영도 풀고.

103057 #2 아, 그거 허영 청 먹으민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ужи.

103057 #1 감저 무신거?

103057 @ 뻗테기?

103057 #2 뻗테기.

103057 #1 감저뻗테기?

103057 @ 예, 삼춘은 안 들어봄디가?

103057 #2 일본 가분 때.

103057 #6 그 전에는 그런 말은 엇엇어.

103057 #1 감저뻗테기렌 말은 무슨 말이라?

103057 @ 감저뻗테기를 절간이라고 헛수가?

103057 #1 썰영 물리는 걸 절간이라고 얘기헛고.

103057 #2 옛날 하르방이 아닌 생인고.

103057 @ 뻗테기예, 알아수다.

103058 @ 감젓줄. 이 줄도 요긴허게 쓴 거 아니우과예? 어땡 헛수가?

103058 #6 소 맥여.

103058 @ 물리는 과정부터 밧디서 비면?

103058 #1 아무 디라도 헤청 널영 내불민 웨여.

103058 #6 그 밧테가 헤청 말르주게. 마르면 조끔씩 무경은에.

103058 #2 도막도막 꿩으멍 무경은에.

103058 #6 집의 낫당.

103058 #1 그냥 파는 날 캐영 저 허문 뭉텅이 그냥 밧에염에도 데껴불곡 넓형  
내불영 허문 비 맞고 므르고 비맞고 므르고 허연에 것이 다 몰라시민 모두아다가  
집의 가져다가 집의 가져다가 놀 놀영. 우마에게 그 출로 주곡.

103058 @ 예.

103058 #1 또 아니믄 불습곡.

103058 @ 감젓줄로도 불습아마씨?

103058 #1 므퓌고 좋느니라.

103058 #3 감젓줄 습지 아녀곡.

103058 #6 그거는 소 맥이는 것이

103058 #1 쉼 신 사름은게 소 맥이지게. 쉼 엇인 사름언 거 밥 헤 먹어서. 걸로. 막티여근에.

103058 #3 감젓줄 아까 얘기헛는데. 밧담. 담더레 꺾어당 걸치는 사름도 잇고 감저 팔 때 힘들어 허질 못허거든. 뒷날 그거 가서 헤청도 널고.

103058 #2 파난 밧디 널영.

103058 #3 널영. 것도 비 맞으면 소가 잘 안 먹어요게.

103058 #3 가능허민 비와가민 거두어 무짱. 밧디 놀영 낫당 저오는 사름도 잇고. 그렇지 았으면 무끄멍 자식이나 신 사름덜은 무끄는 대로 자기대로 운반허영 저오는 거주게.

103058 @ 예, 알아수다.

103058 #6 견디 아까 담에 걸친덴 허는 건 조끔식 현 사름.

103058 #2 소수씩 허는 거.

103058 #6 생각을 허여봐게.

103058 #2 담에 어떻 다 걸쳐.

103058 #3 감젓그르에.

103058 @ 알아수다. 감저그르에. 그치룩허영 다 수확허면 풀 건 풀고예, 그냥 날고구마를 파는 거를 뭐렌 험니까?

103058 #6 전분공장에 풀 때.

103058 @ 그 날고구마를 뭐렌 불러?

103058 #3 썩감저.

103058 #1 썩감저로느 풀곡.

103058 @ 훑은 거? 그 쥌쥌한 것들은 뭇헛수가?

103058 #2 골랑 시들랑 청 먹고.

103058 #6 쳐먹고.

103058 #2 시들랑 치믄 상당히 맛 좋아.

103058 @ 찌꺼기들은?

103058 #2 찌꺼기는 돼지도 주고.

103058 #3 찌꺼기는 돼지.

103058 @ 건 돼지용예. 예. 알아수다.

103058 #3 감저탱쿠리영 뭐영 허민?

103058 @ 감저탱쿠리?

103058 #3 탱쿠리. 감저 부터난 탱쿠리가 슬진다 말여 감즈 아취엔 허연.

103058 @ 감저 아취?

103058 #3 감저 쥌쥌한 거 부튼 거 탱쿠리에 부튼 것은 쥌 것덜은 헛당 도새기 주는 거.

103056 @ 도새기 것으로 하영 현 거라예?

103056 #3 하영 현 거주.

103056 #6 혹시 씨감저만 거 귀하게 먼저 험니까? 아니면?  
 103056 #6 씨감자는 고구마 많이 잇는 데서 어떤 걸로 허느냐 허면,  
 103056 @ 예.  
 103056 #6 쥬 큰 것도 말고 작은 것도 말고 중질.  
 103056 @ 음.  
 103056 #6 아까 굽벙이 얘기헛주마는 그때도 굽벙이 잇었어. 상처 안 나고 깨끗  
 현 거. 게른 굽벙이 안 파고. 그런 걸로 먼저 추령.  
 103056 #3 제주도말로 고운 걸로  
 103056 @ 예. 곧 걸로 골령. 맞수다. 게른 이제 감저 수확하면 맨 먼저 씨 감저  
 골르는 겨우다예?  
 103056 #3 우선이주.  
 103056 @ 걸 먼저 헤낭 게른 그때 늙니까? 아니면 나중에 늙어.  
 103056 #6 쪼끔 이저 그냥 노지에서.  
 103056 @ 예, 예.  
 103056 #2 수분 흐뵀 제허영. 흐뵀 물리왕.  
 103056 @ 흐뵀 물린 다음에.  
 103056 #6 이삼일.  
 103055 @ 예, 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감저 팔 때라든가 아니면 감저줄 빌 때  
 라든가 잊어버리지 못허는 추억거리 잇으면은?  
 103055 #6 감저 줄 비는 게 힘들주게.  
 103055 @ 예.  
 103055 #2 그게 힘들어.  
 103055 #3 난 감저줄 등기곡 누님 감저줄 비곡 앞으로 등겨줍서 돌로 맞추곡.  
 이눔으새끼 잘 안 등겸젠.  
 103055 #2 잘 안 등겸젠.  
 103055 #3 게른 힘 엇이민 이젠 쉼스령으로 멩긴단 말여.  
 103055 @ 예.  
 103055 #3 쉼스령 호미질허는 허는디 강 쉼스령으로 거져냥 잘못헿 옥들고. 추  
 역이 많어. 감저는. 술직이.  
 103055 #1 감저줄 걷는다는게이, 이 그 고구마를 놓은 것도 다른 것보다도 고지  
 를 영 올리면서 헤놓면은 고지와 이령  
 103055 #3 감저 이령 .  
 103055 #1 구덩이채로 올리니까 이랑이 더 커져이. 그거 영 약 두 개쯤이나 세  
 개.  
 103055 #1 영 사이로 호미로 꿩영 영영 질게 꿩영 이제 두 고지른 두 고지 세  
 고지른 세고지. 흐 사람은 쉼시랑으로 굽으멍 흐 사람은 뒤에서 호미로 저 꿩으멍  
 경허영은에 내쳐서.



103055 @ 아아. 계난 이인 일조 행은에 빈 거구나예?  
103055 #3 정도 허곡.  
103055 #1 건 많이 허는 거이.  
103055 #3 혼자, 혼자. 주로 혼자.  
103055 #1 혼자가 허는 수가 있지만 많이 헐 때는 그거.  
103055 #2 사름이 남아 돌 때는 뭐 돌이허고. 경 안 허민 그냥 혼자.  
103055 #6 고구마 줄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영켜져. 경혜 놓니까 중간에서 끊영. 두 고지에 두 고지에 하나씩 해냥 미리 잘라냥.  
103055 @ 아아.  
103055 #6 이렇게.  
103055 @ 다 효율적으로 이제 할려고예?  
103055 #3 하영 현 분덜은 뒷날 감저 파젠 허민 아시날 강 문딱 고랑 청 딱 끊기 좋게 행 놔두주.  
103055 @ 미리 고랑마다예?  
103055 #3 바쁘니까 쉼로 같민 바쁘니까 미리 혜영. 걷어 가멍 파곡 좇어 가멍 허곡 다허는 거.  
103055 @ 이제.  
103055 #2 옛날 하르방덜도 모자 안 썩 데가리덜 쓴 거라.  
103055 @ 알앗수다. 겐디 이제 다른 데 강 조사할 때 보면 감저뻗데기 헐 때 비웁직허면 밤에도 강 막 좇엇덴 험디다.  
103055 #3 아이고,  
103055 #6 젓으민 색깔이 변허니까.  
103055 #6 맛도 없고게.  
103055 #3 건 갑도 안 주주기. 남군더렌 출밭디 넓어가지고 강 보민 \*\*\* 여기는 그런 출왓 없어.  
103055 #2 지붕 우의 강 널곡.  
103055 #3 계난 여기서는 썩감저를 주로 많이 풀앗주 뻗데기는.  
103055 #2 뻗데기는 집의서 먹을 거. 지붕 우의 강 널기도 허고 놀 우의도.  
103055 #3 그럼. 마당에서 멍석 뻗데기는 심허게.  
103057 @ 뻗데기를 허영 청 먹는 거예?  
103057 #3 감저떡도 행 먹고 다 혜영 먹엇주.  
103057 @ 감저ㄱ를도 즈베기도 행 떡곡마씨?  
103057 #3 뻗데기  
103057 #2 돌리는 방에에 강 둥그렁 혜나서. 체로 청게.  
103057 #6 건디 그거는 극히 드문.  
103057 @ 예, 예, 예.  
103057 #2 부제칩의 하영 허민 물방에서 혜서게.

## 기타 농사

- 103060 @ 알아수다. 혹시 여기 수박도 갈아놨수까?  
103060 #6 근래에 해놨주. 근래에.  
103060 #3 수박 전문.  
103060 @ 수박 어떻 해놨수까?  
103060 #2 메종 사당 해서.  
103060 #6 묘종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잇주게. 거기 강 사당게.  
103060 @ 어느 철에 허는 겨우과? 수박은.  
103060 #6 요즘, 아 저 수박이.  
103060 #2 삼월 혼 이십일 쯤에 싱거.  
103060 #6 삼월 이십일 쯤에.  
103060 @ 게른 여름에까지 허는 거라예? 몇년도쯤에 수박을 싱거놨수까?  
103060 #6 아히고 그거 해나건디가 이십년 넘은 것 같다.  
103060 #3 삼십년  
103060 #6 이십 년이 넘은 거 닷다.  
103060 #2 일부.  
103060 #6 쯤썸.  
103060 #2 손이 많이 가서.  
103060 #3 돈벌이로 허는 사람도 잇어놨주게.  
103061 @ 이 동네서도?  
103061 #3 이 동네서도.  
103061 #6 참웨는 밧디 살아야 웨여. 노상 손봐야웨니까.  
103061 @ 음. 아아 참웨는 예. 수박은 경 안 험니까?  
103061 #6 수박은 그때 그때.  
103061 @ 어떤 게 손 보는 겨우과?  
103061 #2 꽃도 따 줘야 웨여. 순도 따주고.  
103061 #6 그냥 내불민 순이 엄청나게 나오주게. 달리지도 안 허주마는 달려도 제주도말로 간잘귀엔 현 거 잇어이? 알아져?  
103061 @ 예.  
103061 #6 간잘귀 모양으로 좋아게.  
103061 #6 상품 가치가 없다는 말이지. 많이 달리믄. 그렇지 못허게 가지치기도 꽃도 따주고 사람이 이파리 멧 개에서 그거를 이제 그 전에 거는 이제 따불고 이파리 멧 개 그거 세어가지고  
103061 @ 음.  
103061 #6 또 그런 식으로.  
103061 #2 세 믱디 손지순에서.

103061 #6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  
103061 @ 잠깐만예? 손지순이 뭐우과?  
103061 #2 세번 짜 순.  
103061 @ 아.  
103061 #2 사이에 또 나올 거 아니라게.  
103061 #3 거  
103061 #2 세 므디 나오믄 끊어볼거든.  
103061 @ 예.  
103061 #2 세 번째 허민 열릴 거.  
103061 @ 그걸 여기서 손지순이렌 해. 우에를 찰르는 건?  
103061 #6 우 막는 거.  
103062 @ 고치도 싱것수가?  
103062 #1 봄에 싱그고.  
103062 @ 봄에 싱그고.  
103062 #6 삼월 말 내지 중순.  
103062 @ 예.  
103062 #6 늦으면 사월 초.  
103062 @ 보통 모종들은 보통 봄에 싱검신게예?  
103062 @ 게믄 삼춘네는 고치 하영 싱거받마씨?  
103062 #2 이녀 먹을 정도.  
103062 #2 흔 백 근 정도.  
103063 @ 그 다음에 느믈은?  
103063 #6 느믈도.  
103063 @ 예.  
103063 #6 품종에 따라랑 틀리고.  
103063 @ 예.  
103063 #6 느믈을 어느제 먹을 거 생각행 심어야주.  
103063 @ 예. 게믄 이제 김장 느믈예?  
103063 #6 김장 느믈은 칠팔월 때 파종을 허는 거고.  
103063 @ 예.  
103063 #6 그냥 이저 봄배추니 것보고 뭐라드라. 막 저 아이고 얼른 생각 안 남  
짜.  
103063 @ 봄동?  
103063 #3 봄배추주게.  
103063 #6 하여튼 자기가 어느 시기에 먹기 위해서 그 시기에  
103063 @ 싱그는 거라예?  
103063 #6 싱그는 거주.

103063 @ 싱그는 거라예? 계절이, 보통 하면 그 배추는 칠팔월?  
103063 #6 김장배추?  
103063 @ 예.  
103063 #6 칠팔월.  
103063 @ 칠팔월 하고.  
103064 @ 늬삐는 언제 싱거?  
103064 #1 늬삐는 원래 할망덜 말이 이 파종을 허는 그이 칠월을 흐를이라고  
취야 돼야 웬다 허여. 게니갸 칠월달에 파종할 땐 흐를이라도 칠월달이 있어야지,  
칠월달이 넘으면 늦는다는 애기지.  
103064 #6 무슨 애기냐면은 말이나면 칠월은 음력을 말허는 거라이.  
103064 #6 팔월 넘으면 경 곶으매.  
103064 @ 음.  
103064 #6 팔월 냉기면은 무가.  
103064 #1 한 가지 웨에 대해서 얘길해야 될로고.  
103064 @ 예.  
103064 #1 여기 좀 뭐 이 웨 싱그는 게 아니고.  
103064 @ 예.  
103064 #1 걸 보면 이 동네 전체가 싱그는 게 아니고.  
103064 @ 예.  
103064 #1 우리 흐 집이나 두 집이 전문으로.  
103064 @ 예.  
103064 #1 웨 싱그는 밧은 보른 가을에.  
103064 @ 예.  
103064 #1 걸 가을에 밧을 변헤엿다가 봄 나면은 밧을 잘 에 갈아가지고 구텡  
이를 올렁.  
103064 @ 예.  
103064 #1 거기다 뭐 오쭈도 농곡 저 걸게 멘들아가지고. 경헤근에 그레 저 씨  
를 구텡이레 씨를 꼽아가지고.  
103064 @ 예.  
103064 #1 경헌디 그땐 비니루도 아녀고 허난에 그자 자연적으로 나는 상태로  
오허려 나가지고 허면은 많이 나시믄 소끄와가지고 하나둘만 그것이 물웨허곡.  
103064 @ 물웨허곡.  
103064 #1 춤웨허고 두 가지를 주로 허엿근에 . 수확이 쫓나면은 어느 양력으로  
는 아마 칠월달 쫓 뵈 거라. 수확이 쫓나면은 경허면은 이제 쵸그르에.  
103064 @ 예.  
103064 #1 이제 배추를 갈기 위해.  
103064 #2 배추.

103064 #1 이 동넛사름덜이.  
103064 @ 예.  
103064 #1 웻그르에 느믈 잘 웻다고 헤가지고 겨믈 밧 갈믈 혼 밧이여 난 두  
밧이여. 저 면적으로 느냥 상은에.  
103064 #2 사근에.  
103064 @ 음.  
103064 #1 돈 쥬 사가지고 자기만씩 이제 베추나.  
103064 #2 그때도.  
103064 #1 영헤가지고.  
103064 #2 보리썰 혼 말 두 말 행은에 그.  
103064 #1 그 저 크는 동안 슝명 헤가지고 김장, 김장.  
103064 @ 예.  
103064 #1 짐치느믈을 헤서 당베추 갈앗당 거기서 이 베추를 자기대로.  
103064 @ 음.  
103064 #1 제작헤가지고 이젠 쏘 짐치를 헤 먹었다. 이렇게 허믈 웻 거.  
103064 #6 지금은 김장을 많이 허는데 옛날은 경 아넛주게. 조끔씩 허니까 지금  
처럼 허면은 멧 밧 가지고 거 뉘여게.  
103064 @ 맞습니다.  
103064 #6 옛날이주게, 진짜.  
103064 #1 옛날도 많이 헤서. 김칫독 헤가지고 딱딱하고.  
103064 #3 식구 한 디는 우리도 보민 하영 헤넛주.  
103064 #1  
103064 #2 지금보다 더 헤서, 더 헤서.  
103064 #3 우리도 아닌게 아니라 항에 컷당  
103064 #2 이제는 냉장고에 그때 그때.  
103064 # 김장 헤왔다.  
103064 @ 알아수다. 늣뵈도 ㄱ튼 시기에 하고예.  
103064 @ 그 다음에 지실도 여기 싱거마씨?  
103064 #2 전문가들만. 부업으로  
103065 @ 지실은?  
103065 #6 지실은 토질이 외도 토질에는 안 좋주게. 지실엔 현 거는?  
103065 #2 식은 땅.  
103065 #6 식은땅. 여기는 사질 양토라가지고.  
103065 #2 중산간 정도.  
103065 #6 구좌 쪽디레가 전문이.  
103065 @ 그레가 식은땅이 잇고 무신 땅 잇는 거우과?  
103065 #6 출땅은 어디레?

103065 #3 한림더래.

103065 #1 화산회토로서이 여기서 식은땅 식은땅 여깃말로.

103065 @ 식은땅.

103065 #1 불치 모양으로이 중량도 좀 거뻐고 이런 땅이 잇주기.

103065 @ 걸 식은땅예?

103065 #1 식은땅에서는 보리 농사는 잘 안 되는 게 원칙이라. 으름 농사는 돼  
여도

103065 #2 으름농사도 별로우다게.

103065 #6 지금도 그레는 저쪽디렌 뵈고.

103065 @ 당근.

103065 @ 그러면은 이 동네는 자갈밭. 자갈밭예?

103065 #3 말왓.

103067 @ 말왓. 식은땅에서 말왓. 그 다음에 피는 여기 안 갈아났지예?

103067 #3 아니.

103067 @ 피는 여긴 안 허고. 믰말은 어떻힙니까?

103067 #1 믰말도 여긴 잘 안 허여.

103067 #1 견디이, 믰말 전문으로 가는 건 아니로 으름에 조를 불리면은.

103067 @ 예.

103067 #1 조가 큰 비브름에 의헤가지고말여 유실뵈부런.

103067 #3 벗어부러.

103067 #1 벗어불영 그 트명에.

103067 #6 보조 작물로.

103067 #1 이 저 믰말은.

103067 @ 예.

103067 #1 이 조 불린지 후제 파종허는 생이라. 계난 그걸 영 보니까 그 불치.

103067 @ 예.

103067 #1 불치를 저 뵈고 걸름으로 허영은에 그 조 벗어분 디

103067 @ 예.

103067 #1 이제 불치도 농곡 쪼끔 상것당 물말 헤 먹는 사름 잇어.

103067 #6 쪼끔 쪼끔.

103067 @ 쪼끔예.

103067 #2 조 벗어분디.

103067 @ 그 지역만 본격적으로 허진 아녀고예?

103067 #1 그런 거는 헤도.

103067 #3 이모작.

103067 #3 남은 밧덜 빈 밧덜 시민 강근에 믰말 갈곡.

103067 @ 믰말떡덜 허젠허면 여기서는 믰말은 사당 먹는 거우과?

103068 #6 사당.  
103067 @ 여기서는 사당 먹는 거라예?  
103067 #6 토질로도  
103068 @ 혹시 여기 담배도 해낫수가?  
103068 #6 우리도 나는 안 헛는데 선대 부친 때 해나서.  
103068 #2 나도 혼변 해낫수다.  
103068 #3 담배 공출 해나지 아녀신가.  
103068 #2  
103068 #1 담배는 이 웨정시대에 쪼끔 허는 거.  
103068 #2 웨정시대 후에마씨.  
103068 #3 담배도 종류가 두 가지.  
103068 #6 종류가 여러 가지주.  
103068 #3 나 알거니는 입담배 후리초라 건 늘 거 데평 막 독허는 현 담배.  
103068 #1 삼동초엔 현 거 막 그 독헌 거.  
103068 #3 독헌 거.  
103068 #1 삼동초허고 무신 거 두 가지라게. 삼동초엔 현 건 토종 같은 거라.  
103068 @ 예.  
103068 #1 크지 아녕 독헌 거고. 엽담벤디.  
103068 #6 백입촌가,  
103068 #1 백입촌가.  
103068 #1 어떻게 구분이 돼냐른  
103068 #3 이파리 넓주게.  
103068 #2 믰디가  
103068 #6 삼동촌가 현 거는 이파리가 즐고.  
103068 @ 예.  
103068 #6 자기가 피는 걸로는 주로 허고.  
103068 #2 토종이고 완전 허고.  
103068 #6 저거는 파는 거.  
103068 @ 저기 담배 허는 거는 언제 같고 가는 거라마씨?  
103068 #1 건 아메도 봄에.  
103068 #6 것도 봄에 허는디 폭는 것도 전매청에서 그때 허긴 헛주마는  
103068 #2 제때에 안 받아가.  
103068 #6 전매청에서.  
103068 #2 여름 혼 칠팔월에 받앙 갖는데.  
103068 #2 제경은에 아주 오래 잇어야 받아갓어.  
103068 #6 대대적으로 현 게 아니고.  
103068 #1 혼 이삼년 동안 그 여기서도 심으렌 해가지고.

103068 #2 신순이네 우리.  
 103068 #1 수지가 안 맞아신ㄴ라.  
 103068 #2 으깬  
 103068 #6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파리 따는 거라. 하나씩 따는 거라이. 으까이  
 영 행영 무경 것도 햇빛 맞으면 안 돼니까 그늘에서 그런 식으로 허는 거난 손 하  
 영 가는 거주게.  
 103068 #2 처음엔 그늘에서 티왕 반 시들민.  
 103068 @ 아까 티운 텐 말은 무슨 말이우과?  
 103068 #2 그늘에서 티왕.  
 103068 @ 그리고 담배 풀 때도 멧 개씩 으까?  
 103068 #3 흔 접 두 접 해근에.  
 103068 #2 흔 으남은 이파리  
 103068 #6 열 꺾 거라.  
 103068 @ 열 개 흔 접.  
 103068 #6 다섯 개 허영 두 줄.  
 103068 #2 그런거 많이 무경 흔 다발.  
 103068 @ 멧 개로 흔 다발?  
 103068 #2 흔 백 접 들어가주.  
 103068 @ 열 개씩 무끈 거를 흔 다발이라마씨?  
 103068 #3 백 개.  
 103068 @ 이만씩 행 폰 거예?  
 103068 #2 요거 정도 돼주.  
 103068 @ 예, 알아수다. 잠깐만예?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췌는 어떻 키왔수가?  
 104001 #6 췌 어떻 키와게.  
 104001 @ 계난 그 키와난 과정을 대강?  
 104001 #6 계난 쪼꼬만 현 거 사당.  
 104001 @ 예.  
 104001 #6 이젠 집의서 길황 경허민 돈 남을 거 아니. 작은 것으로 사당 그런  
 식으로.  
 104001 @ 음.  
 104001 #6 나 경우는 경허영 재미 봐서 그걸로.



104001 #2 쉼 질루는 사름 그런 재미 봐십주.

104002 @ 계문 쉼도 종류가 으라 가지 아니예? 색깔에 따랑 이름 이실 거고 빨  
에 따랑 이름이 이실 거고.

104002 #6 맞아게.

104002 @ 어떤 거 잇수과?

104002 #2 검은쉼.

104002 #6 잣자빨.

104002 #2 앞더레 영 오그라진 건 영계빨이.

104002 #3 어.

104002 @ 이거는 영계빨.

104002 #3 그 두티레 그 빨이 영 가.

104002 @ 귀 뒤트로.

104002 #3 것이 잣작빨이.

104002 #2 뭐 두 가지로.

104002 @ 예. 잣작빨이하고. 영계빨하고. 또 어떤 거 잇수가?

104002 #1 난 잘 모르주마는 그 쉼빨을.

104002 @ 예.

104002 #1 하늘로 영 올른 건 천향각.

104002 #3 천상빨이.

104002 #1 천향각 앞으로 나가는 건 전향각. 이거 두 가지는 아는데 나머지는  
몰르커라.

104002 @ 한자어고,

104002 #3 천상빨이.

104002 @ 그 다음에 이딧말로? 한자로 말고.

104002 #1 한자로 말앙. 앞으로 영 뿃산디 모르지.

104002 #3 아까 건웅이 아시 곤는 말이 맞수다.

104002 #2 전향각인지 후향각이 들어본 적이 엇고.

104002 #1 경 글아고.

104002 #3 잣작빨이 다음 뿃렌 해서.

104002 @ 영계빨이.

104002 #3 그게 영계빨 그게 맞추게.

104002 @ 혼드는 것도 잇어나시 아넛수가?

104002 #2 들각빨이.

104002 #3 들각빨이.

104002 @ 이거는 빨 모양. 털 색깔에 따랑은 어떻 구분헉니까?

104002 #2 노란쉼

104002 #1 검은쉼.

104002 #2 검은소.  
 104002 #3 숙쉐, 숙쉐.  
 104002 #2 칩  
 104002 #3 툄은 태성백이. 쉘도 태성백이. 아이고, 쉘도 숙쉐 말고 하얀 거 노란 거 또 뭐라.  
 104002 #6 쉘가 그때 하얀 게 노란 게 잇어?  
 104002 #3 얼럭베기.  
 104002 @ 얼룩소 헛수가 어럭쉐가 헤수가?  
 104002 #3 어럭쉐 어럭쉐가 맞아.  
 104003 @ 어럭쉐렌 헛지예? 그 다음에 쉘는 주로 어떤 디 이용헛수가?  
 104003 #3 주로 밧 같고.  
 104003 #6 암소는 새끼내우는 거.  
 104003 @ 암소는 새끼 내우는 거.  
 104003 #1 짐 시끄곡 또 고기로 풀곡게. 고깃소로.  
 104003 @ 그 밧가는 쉘를 다른 말로 허영 뭐렌 헤여마씨?  
 104003 #1 밧갈쉐.  
 104004 #6 밧갈쉐.  
 104003 @ 밧갈쉐를 주로 어떤 쉘를 이용헌 거우과?  
 104003 #6 솟소.  
 104003 @ 수소?  
 104003 #1 솟소도 솟소.  
 104004 @ 밧갈쉐예? 그 밧 갈젠 허면 쉘 질들여야잖아예?  
 104004 #2 마리친덴.  
 104004 #6 쉘 마리친덴 허여.  
 104004 @ 어느 쑤에 쉘 마리칩니까?  
 104004 #2 세 설 때, 세 설 때.  
 104004 #3 세 설 사릅.  
 104004 @ 사릅부렁이렌 헤예? 예. 게문 그 쉘 마리칠 때는 어떤 식으로 마리쳐 마씨?  
 104004 #6 게난.  
 104004 #2 마리착 꺾엉.  
 104004 #6 게난.  
 104004 #2 멩에 썩왕.  
 104004 @ 예, 쉘 마리쳐난 과정을 한번 곴아취봅서?  
 104004 #6 멩에 밧갈 때 썩우는 거 뒤에 잠대 대신에 돌멩이.  
 104004 @ 예.  
 104004 #6 돌멩이 어느 정도 큰 거 허영 저 테레비만큼 구멍 뚫엉 게영 그 저

맞갈 때 들뽕이뽕에 무꾼덴 허지 아녀서게.

104004 @ 예, 예.

104004 #6 거기다가 집어메여가지고 이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이꺼이. 뒤에서  
 들고.

104004 @ 예.

104004 #6 건디 어젠가 밧 가는디 쉼 빨리 걸으렌 행 빨리 때리꼭 어느 방향으로  
 글렌 허는 거.

104004 #2 가린 석.

104004 #6 가린석엔 헌 걸 안 써실 거야.

104004 @ 양쪽에 허는 거우과?

104004 #6 오른 쪽으로 땡기고. 그제 가린석이라이. 그걸로 헤영은에.

104004 @ 양쪽에 꺾는 걸 말하지예?

104004 #1 쉼뽕에 감양.

104004 @ 으, 쉼뽕에 감양예? 예. 경행은에 이제 하고 그 ㄱ리치지 아녕은에 질  
 드리진 았은 쉼, 그 그 쉼은 무신 거렌 곱아마씨?

104004 #2 생쉼.

104004 @ 부룽이.

104004 #6 부룽이엔 헌 건 솟소를 말허는 거고.

104004 #3 일 못허는 거 생부룽이. 부룽이째 들어가주.,

104004 #2 수소를 부룽이.

104004 #3 아까도 밧갈소도 뉘지마는 예 쉼을 큰 거보고.

104004 #2 지등쉼.

104004 #3 건 지등쉼고. 곧젠 허난 깜박 잊어불엇는데, 이 대개 밧갈쉼은 큰 거  
 나 죽은 거는 밧갈쉼주마는.

104004 @ 예.

104004 #3 쉼 중에서도 밧갈쉼은 큰 소.

104004 #6 쉼디 이거 잊어이. 거세헤부런.

104004 @ 예, 예.

104004 #6 옛날은 거셀 안 허면은 소가 살 안 쉼덴 헤서.

104004 #2 오래 질루젠 허믄.

104004 @ 건 고깃소로 나가는 거우과?

104004 #6 집에서 길르는 것도.

104004 #2 일을 부러 먹어야 거세 시경.

104004 #6 거셀 안 시켜불면은 사름 ㄱ트면 브름등이 모양으로 거기다 신경 써  
 가지고 경허니까 거세헤부는 거.

104004 #2 말도 잘 듣고.

104004 @ 거세헌 쉼 이름은 뭐마씨?

104004 #2 중성귀.  
104004 @ 중성귀. 거세헌 말은 무슨 거렌 험니까?  
104004 #2 불간덴.  
104004 #3 까는 거는 불줄른덴 그.  
104004 @ 불 줄른덴예?  
104004 #3 낭 영 행 낭 낭으로 음을 찢라부는 거지. 통허지 못허게.  
104004 @ 음.  
104004 #3 그 낭이름 몰르커라. 불 줄르는 낭 이름이.  
104004 @ 예, 게른 그 췌 아까 험 때 지등췌. 그건 무슨 말이우과?  
104004 #3 건 오래 질룰 거.  
104004 #2 그 집안에 오렐 길룰 거를 지등췌렌 허주. 오래 질룰 걸.  
104004 @ 오래 질룰 걸.  
104004 #3 중성귀 전에 목 뒤로 슬지주게. 그 슬을 빠지기 전에 불을 즐라부러야. 그 슬을 오래 이용헌 다고 해서.  
104004 #6 아니, 게난 슬지질 아녀서.  
104004 #3 게는 슬진 때 즐라야. 게난  
104004 @ 예.  
104004 #3 요즘 그 총각덜 어디 브름 난 식으로. 불을 즐라불어야.  
104004 #2 불췌왕 돌아뎡긴데 허주.  
104004 #3 슬진 췌를 즐라야 그 슬을 유지험 나가주.  
104004 @ 예, 예, 거난 오래 허는 거를 지등췌렌 허고.  
104004 #3 집안에서 일허는 췌.  
104004 @ 아, 게난 보통 부리는 췌는 어느 정도 질룰 수 잇어마씨?  
104004 #2 흔 십년 질루주.  
104004 #3 건 집주인이. 일이나 잘 허고 신용이나 좋은 췌는 오래 지탱허주게.  
104004 #2 으서 일곱 슬에.  
104004 #6 대농 그런 사름은 맞가는 게 목적 아니.  
104004 #2 지등췌 허영.  
104004 #6 중성귀를 이제 오래  
104004 @ 예.  
104004 #6 일반적인 뭐는 거는 어느 정도 크면은 팔아불주게.  
104004 #3 중성귀 전에.  
104004 #1 성질이 거친 것도.  
104004 #2 온순해 저.  
104004 #1 온순해저이.  
104004 @ 음.  
104004 #1 그런 이유 때문에도 거세를 헤영은에 불 즐라가지고 그 저 온순헌

그런 뿔으로 오래 기루는 곳도 있고.

104004 @ 음.

104004 #1 그 또 뿔을 잘 가는 쇠가 있고 못 가는 쇠가 있을 거 아냐? 뿔가는 거 아까운 오래 기루고 싶으면 불블르고 영 현 거라.

104005 @ 예,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쇠 나이 아까, 이제 사릅헨 게마는. 어떤 식으로 세여마씨? 혼 설부터 세어봅서.

104005 #1 금승.

104005 #2 사릅.

104005 #6 혼 설짜리 금승.

104005 #2 그 다음은 다섯 슬, 으섯 설.

104005 #6 보통 그 정도니까.

104005 #1 아니, 오수 욱수허는 것이.

104005 #6 건 물이고.

104005 @ 다섯예? 다습이렌은 안 곁아마씨?

104005 #3 다습꺼진 근대. 빠지곡.

104005 #6 견디 암소나 아니면은 암소는 새길 내올려고 오래 기르는데.

104005 @ 예.

104005 #6 솟소는 아까도 얘기햇주마는 농사 많이 허는 사람.

104005 #2 말 잘 드는.

104005 #6 그런 소는 헌디 오래 질루질 아녀.

104005 #3 욱소로 폴아불주게. 맥여빤자.

104005 #2 나릅쇄나 다습쇄 돼여가민 야개기가 슬져불주기. 게믄 폴아불어.

104006 @ 우리 으번에도 헛주마는예, 쟁기 부분 명칭 한번 다시 한번 곁아줘봅서. 양주머리 허영은예 보섭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곁아줘 봅서.

104006 #3 쉘 쳇번 허게 돼면 양줏머리.

104006 @ 예.

104006 #3 양주머리 허민 잠대 무클 오그라진 거.

104006 #3 성예. 그 우에 들어가는 거는 설칫.

104006 #2 설칫.

104006 #3 잠대 무클에서 설칫. 설치 설칫뭇이 서이 나무로 똥 거.

104006 @ 예, 설칫뭇.

104006 #2 벳 바드랭이.

104006 #3 그 다음 벳바드랭이.

104006 @ 예.

104006 #3 벳틀레. 벳코. 벳칼.

104006 @ 벳칼.

104006 #3 그 다음에는 또.

104006 #6 그 나무 영영 허는 것ㄴ런 뉘엔 현다마는 벳 움직이지 못허는 게.  
104006 @ 뜸.  
104006 #3 벳바드랭이.  
104006 #2 아까 헛수게.  
104006 #6 헛저 춤.  
104006 #3 벳바드랭이끈도.  
104006 @ 예.  
104006 #3 옹지. 베코 끌고 베칼 허고. 장기에는 거 뿐이라. 벳 보섯 거다 부찌  
면은.  
104006 @ 보섭.  
104006 #2 들벳이빨.  
104006 #6 들벳이빨.  
104006 #3 성에에 들벳이빨.  
104006 #6 성에.  
104006 #3 성에 뜸 놓는 게 잇어. 설치 우의 놓는 뜸. 그거. 잠댄 일단 끝나고.  
104008 @ 예, 그 다음엔 멩예?  
104008 #3 멩예.  
104008 #2 솜비줄.  
104008 #3 솜비줄 아니고 목 매는 거게. 좁게부터 시작해서 솜비줄.  
104008 @ 이게 솜비줄.  
104008 @ 솜비질.  
104008 #3 솜비줄에서 등켓줄. 그 다 오리목매는 나무라이.  
104008 #2 벳을레.  
104008 @ 벳을레가 나무우과?  
104008 #3 벳을레는 솜비줄 소 뒷다리  
104008 @ 벌레가 나무우과?  
104008 #3 벳을레.  
104008 @ 벳을레 지난번에 안 나오고.  
104008 #3 오리목은 벌레에 낚는 거이. 솜비줄허고 연결허는 거.  
104008 @ 예.  
104008 #3 그 다음은 오리목.  
104008 @ 들벳이빨하고 ㄴ치 연결허는 거예? 오리목.  
104008 #3 오리목 코.  
104008 #2 쟁기에 연결 허는 거.  
104008 #3 무끄는 거 오리목베.  
104008 @ 오리목코. 지난번에 벳을레가 안 나왔수다.  
104008 #3 벳을레가 안 나완.

104008 @ 우리가 두 번씩 하는 이유가 이런 거.  
104008 #1 오리목 무끄는 끈이엔 해서.  
104008 #3 오리목끈.  
104008 #1 끈엔 해서.  
104008 @ 그땐 오리목 매엔 갈아수다.  
104008 #3 오리목끈. 그거는 이제 쉐앗베. 가린석도 안 들어갔져 거기.  
104008 #6 가린석은 쉐에 들어가는 거.  
104008 @ 가린석은 밧 갈 때허는.  
104008 @ 평소에 영 무경허는 거는?  
104008 #2 쉐석.  
104008 @ 건 쉐석예? 이게 지난번에 오리목이 아니라.  
104008 #2 벼올레.  
104008 #3 가린석.  
104008 @ 음, 벼올레가 그때 안 나온 거.  
104008 #3 벼올레.  
104008 @ 여기 아니다. 이게 벼올레. 매는 줄이 오리목.  
104008 #3 매는 줄 오리목. 오리목 끈.  
104008 @ 끈, 끈,  
104008 #3 들벵이에 무끄는.  
104008 #2 거 즐라매는 게  
104008 #3 오리목허고 들벵이뿔 매는 게 오리목게 이거.  
104008 @ 그 다음에 양쪽에 긴 거를 숨비줄.  
104008 @ 쉐하는 거는 가린석.  
104008 #3 가린석.  
104008 @ 가린석은 양쪽에.  
104008 #3 필히 그거 들어가사 뿔 겨주.  
104007 @ 그 다음에 질매.  
104007 #3 질매도 곱앗주마는  
104007 @ 지난번에도 한 번 헛지만.  
104007 #3 앞가지 뒷가지.  
104007 @ 앞에게 앞가지우과. 뒷가지.  
104007 #3 뒷가지. 앞가지가 노프고 뒷가지보다 노프고 그 다음에 벌레. 아니, 물매. 아이고, 건웅이 어제 곱앗지, 자네안티.  
104007 #2 나도 잊어불어서. 요걸 말허는 건데 고망 딸랑 우알로 행은에 무끄는 게 잇어.  
104007 #3 그때 써져실 건디. 나 근 거.  
104007 @ 그때도 뭔가 안 나오기도 헛수다.

104007#2 잊어불언 모르커라.  
104007 @ 물레렌 헤신게.  
104007 #3 물레렛망.  
104007 @ 도곰.  
104007 #3 그 다음은 또 질메오랑 베따지에 부끄는 오랑.  
104007 @ 질메 오랑.  
104007#3 그 다음에 고들개.  
104007#2 고들개친도 있어.  
104007 @ 예, 고들개친.  
104007 #3 고들개끈 써져신가.  
104007 @ 고들개 친이 고들개끈 아니마씨?  
104007 #3 아니, 고들개에 무경 배등으로 오랑으로 무껴줘사.  
104007 @ 고들개 끈이 뭐우과?  
104007 #2 가운데 고망 툄랑 배때기  
104007 #6  
104007 @ 예, 예, 예.  
104007 #2 고들개가 툄랑지 우에  
104007 @ 고들개친은 뭐우과?  
104007 #3  
104007 #2 양쪽에 잇주게.  
104007 @ 오랑하고 위에 직선 올라가는 거?  
104007 #3 오랑끈개. 그거는 오랑 델 때 끈이 잇어알 거 아니라게. 질메 오랑끈도 질메 부떠야주게. 부땡 홀타 매알 거주게.  
104007 @ 예, 여기가 가운데가 저 뭐렌 헛잖아예. 고들개.  
104007 #3 고들개?  
104007 @ 오랑 어느 거?  
104007 #3 질메민 그 저 오랑을 영 멘들아놓면은 이쪽으로 끈 질메에 무끌 거주. 즐라매는 거.  
104007 #3 이 고들개끈은 요래 무끄는 거.  
104007 @ 이게? 이게오랑끈이렌 헨.  
104007 #3 오랑끈은 옆에.  
104007#2 이거.  
104007 @ 거꼴로 꼴앗수다. 이게 고들개친이렌 허고 이거 오랑끈이렌 곶아.  
104007 #3 꺼꾸레. 옳은게 저 오랑끈. 오랑끈이 아니라 저 뭐고 고들개끈.  
104007 @ 고들개끈.  
104007#3 고들개끈.  
104007@ 끈. 양쪽에는 고들개친?



104007 #3 고들개친?

104007 @ 막 서껌수강? 엇음, 가운데 건 오랑이잖아예?

104007#3 오랑.

104007 @ 오랑이고?

104007 #2 거 잇주기.

104007 @ 저기 고들개 연결하는 그 두 개?

104007#3 저 생각 안 나네이.

104007@ 고들개친?

104007 #2 고들개친이고

104007 @ 이거는.

104007 #2 고들개친이고 이 가운데로 현 게 오랑끈.

104007@ 오랑끈이 없고?

104007 #2 오랑끈은 이디 즐라매영 잇주기.

104007 #6 오랑끈이 아니고 오랑이주게.

104007 #2 배때기로

104007#3 고들개친.

104007 #3 고들개친에 고들개

104007 @ 예, 알아수다. 알아수다.

104007 #3 그거.

104009 @ 그 다음엔 예, 여기도 목장들이 잇어신가마씨?

104009 #6 목장 관리는 그 목장조합이 잇엇어.

104009 @ 예.

104009 #6 목장조합이 잇어가지고 그건 뭐 매 사름이 허는 게

104009 #2 가입헌 사름.

104009 #6 아니고 든 사름.

104009 @ 여기 지경에서는 어느 목장?

104009 #6 해안.

104009 @ 아아 해안. 쉼 보레 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마씨?

104009 #6 조합원에 한해서는 그 뭇고. 그 여름에.

104009 @ 예.

104009 #2 쉼 보는 삭이 헐헐주게. 조합원이니까.

104009 #3 조합원 아닌 사름은 촌금을 내곡.

104009 #2 촌금을 내곡.

104009 #6 우리 동네 이사를 헐는데.

104009 @ 예.

104009 #6 조합 이사.

104009 @ 쉼 올리는 거 아니우과? 언제 올려?

104009 #6 조 불리는 거 낫나민.  
104009 #3 부중 끝나면.  
104009 @ 쉼 봐주는 사람은 누게우과?  
104009 #3 조합에서.  
104009 #6 희망하는 사람을.  
104009 @ 이 동네 사람인디?  
104009 #2 주로 조합이 한 오 개동 칠팔 개동.  
104009 #2 주로 해안쪽 사람들이 허여.  
104009 @ 아아.  
104009 #6 목장에 가젠 해도 드나들기가 힘들고.  
104009 #3 막 짓엉 살주게.  
104009 @ 막 짓엉은에 그런 막을 뭐렌 험니까? 그 목감 사는 막을?  
104009 #6 목감 사는 막?  
104009 @ 으.  
104009 #6 뭐엔 헤신고?  
104009 #2 쉼막.  
104009 #3 쉼막.  
104009 #2 쉼보는 막.  
104009 #3 쉼보는 말.  
104009 @ 쉼보는 막. 쉼 봐주는 사람이라고 현 거라예? 목감안테는 부중끗냥 허면 언제까지 목장에 올리는 거라마씨?  
104009 #3 목감.  
104009 @ 언제까지 목장에 올리는 거라마씨?  
104009 #6 팔월절 들기 난에.  
104009 @ 두 들? 삭은 어느 정도 쥐마씨?  
104009 #2 그때 보리찰로 헤나서.  
104009 #3 삭 무는 거?  
104009 #2 서 말, 서 말.  
104009 @ 목장에 올리기 전에 쉼 먹이레 가지예?  
104009 #2 봄에덜은 쉼 맥이레 덩겻주.  
104009 #6 번.  
104009 #2 쉼번, 돌번.  
104009 @ 음. 쉼번 돌번이렌 헤마씨?  
104009 #6 들은 돌 번 소는 소번.  
104009 @ 어떤 식으로헤여마씨?  
104009 #2 순번제로.  
104009 #2 동네에서.

104009 #3 번 므쉬가 하거든.

104009 #2 웃가름번.

104009 #3 동네에 두 사름씩도 가는 수도 있어. 부락이 너르니까 므쉬가 하나까. 넬은 이 사름 넬 가고 교대식으로 오늘은 누구 누구? 게여가지고 번 치는 거주.

104009 @ 만약에 오늘 그 쉼 맥이는 사름 ㄴ란 뭐렌 곶아?

104009 #2 쉼 보는 사름.

104009 #3 자연히

104009 #6 번 치는 사름게.

104009 @ 번치는 사름. 그 쉼을 번쉼렌 허는 거라예?

104009 #3 번쉼.

104009 @ 번쉼렌예. 삼춘은 쉼 하영 질랐다고 하나까.

104009 #6 숫잘 많이 계속 질룬 거주.

104010 @ 잊어 쉼 질루멍 추억. 잊어분 것도 이실 거고.

104010 #6 그 잊어부리지 아년 건 거 소 보래 가는다.

104010 @ 예.

104010 #6 그러 잊어붙어지지 아녀. 중산간 가는 버슬 타는데, 돈 쓰리 당헨 게. 질 안 잊어부는 거. 뒷주머니에 낫는데 야 히안허대이. 밀리고 땡기고 하더라고이. 만원 돼니까 영헨신가 헛는데 내중 목장 간 보고 돈 꺼내젠 허난 돈이 셔?

104010 @ 어어, 게난 그 돈은 쉼 폰 돈이우과?

104010 #6 쉼 폰 돈이 아니고 그때 소가 이상해가지고 목감안티 치를 헐려고 경해난 일이 있어게. 웃음.

104010 #3 목장에 올리는 건 고사하고, 목감이 쉼 잃어버렷젠 쉼임제안티 연락 오면은 ㄴ치 강 좇기도 허고 어디 아팜 출을 안 먹으면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뭐 번청 강

104010 @ 예.

104010 #3 어디 헿싱 나쁘면은 쪼끔 강 어디 도망 가불어.

104010 @ 예.

104010 #3 좇젠 허멍 애 먹주기. 방문 놔. 일로 글로 없으면은 방문 낱 게가지고 그것이 애 먹고 쉼 춤 뭐 기억에 남는 거주기.

104010 #6 건디.

104010 #6 쉼 볼 눈 뭉 볼 눈 있어이.

104010 @ 예.

104010 #6 거 무슨 말이나 허면 사름바다 보는 눈이 틀리다는 거지, 나가 소 길 봐왔는데 생각웨에 사당은애 쪼끔 질랐는데, 예를 들어 만원 쉼 사왔는데.

104010 @ 예.

104019 #6 생각 외에 와서 만오 천원 주켄헌다 말여. 그런 경우가 잇주게. 쉼 볼 눈 뭉 볼 눈 허는 말 잇는다. 요즘 말로 지 눈에 안경 허는가,.

104010 #3 이 사름 보믄 얼른 사 가는 사름 잇고. 우린 가믄 경 안 좋다. 계난 눈이 다 틀리단 말이주. 까격 차이에서 그것 서리고, 그것 뿐이 아니고 그런 소릴 많이 쓰주. 췌 믱음이 가지각산.

104010 @ 췌 갑 쳐주는 물 불눈 아까 삼춘 헐 때. 방문허덴 말은 무신 말마씨?

104010 #3 방 놓는다고 방문. 잃어불면은 이 줄로 없으면은 예를 들영 이제 이 사름 봐지면은 이런 췌 못 봅니까?

104010 #2 방문 놓는 거. 믱을마다 텅기멍.

104010 #3 만약시 석이나 꺾이는 거 봐지거는 어디 살암시메 곱아줍서 허는 거 방 놓는 거주게.

104010 @ 방문이렌 해예?

104010 #6 물을 방자 잇지 아녀게.

104010 @ 물어보는 거? 음. 알아수다. 아까 췌고 물은 어떻 질릅니까?

104010 #6 물은 어떻 질좌.

104010 @ 경해도 췌 질를 때는 막에 췌막에 드르에 매여분덴 험디다.

104010 #6 겨울에는 물도 집, 막에 매여게.

104010 #3 겨울에는 대개 물도나 췌마 막에 멧고. 소도 막에 멧고. 소도 드르에 도 매여. 안 매도 안 허영. 여름 때는.

104010 #2 에왕.

104010 #3 밧 담 당양 에왕도 메곡. 말톡 박양.

104010 @ 예.

104010 #1 보리 비어나민 보리왓디도 메곡 출왓디도 메곡 질레도 메곡. 뉘 그런 정도. 물도 췌도 마찬가지로.

## 말 기르기

104011 @ 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질룬 거라예?

104012 @ 종류는 어떤 거 잇수과? 것도 털 색깔에 따라 따나덴 험디다. 그 종류 곱아줍서.

104012 #6 검은 거는 가라물.

104012 @ 예.

104012 #6 과란.

104012 #3 일 가라.

104012 #2 일 가라 이 청춘이.

104012 #6 적다엔 현 거는 빨간 거.

104012 #3 스 유마.

104012 #1 청춘이.

104012 #2 이청충이.

104012 #2 두번째 쥐색.

104012 #6 청춘이엔 현 건 하얀 허 허고.  
104012 #2 쥐색 닳은 거. 토끼색.  
104012 #6 청춘이엔 허민 흐뎀 푸린덴 현 거 아니?  
104012 #6 청춘매예?  
104012 @ 청춘매예? 가라물.  
104012 #6 적다엔 현 건 노랑거이.  
104012 @ 유마는 어떤 거우과.  
104012 #1 백마도 잇어게.  
104012 #3 흰 건 백마.  
104012 @ 흰 건 백마.  
104012 #3 또 뵈고.  
104012 @ 얼룩얼룩현 거는?  
104012 #3 얼룩얼룩현 거는?  
104012 #1 가라물.  
104012 @ 가라는 검정 거.  
104012 #6 나가 착각했저.  
104012 #2 어.  
104012 #2 그런 거는 등급으로 안 허고. 그냥.  
104012 #6 얼룩매?  
104012 @ 월라, 월라.  
104012 #2 월하 월하. 월하가.  
104012 #1 월하에 허는 가 월레몰엔 허는가?  
104012 #3 월레몰.  
104012 @ 월레몰예? 그 다음은 또 뵈 잇수가?  
104012 #3 그 다음에 등 오그라진몰은 뵈라.  
104012 @ 등 오그라진 건 뵈라.  
104012 #3 곱새도 잇고. 오그라진 거 활동이.  
104012 #2 알러레 휘와진 거 활동이.  
104012 #3 오그라진 거 활동이.  
104012 @ 밑으로 이렇게.  
104012 #3 곱새도 잇어.  
104012 @ 등 튀어난 거.  
104012 #3 곱새몰.  
104012 @ 그 다음 또 뵈 잇수가?  
104012 #3 그 다음에 몰이 없을 걸.  
104012 @ 여기?  
104012 #3 태성백이.

104012 @ 태성백이.  
104012 #3 간전이.  
104012 @ 간전이.  
104012 #3 코간전.  
104012 @ 코간전예? 예, 그 다음에 입 주둥이 허영헌 것도 잊지 아녀우과?  
104012 #3 아이고 그거는 잘 몰르켜.  
104012 @ 거홀마?  
104012 #3 입. 거홀만가 입 헤영헌 거.  
104012 #3 들어나긴 헨디 잊어부난 모르커라. 거홀마로 헤부러.  
104012 @ 혹시 고라물 이런 말도 들어봍디가?  
104012 #3 고라?  
104012 #1 가라물.  
104012 #2 가라물 쥘 색깔 알아주는 거.  
104012 #3 고마물. ㄹ라는 그 것이 그 노란 거 들어간 거. 그것이 ㄹ라주. ㄹ라물도 들어가긴 들어가나서.  
104012 @ 유마도 즈유마  
104012 #3 유마란 거 것도 검은털 박아진 거.  
104012 #2 유마,  
104012 #2 흔 멧 가지 이실 거라.  
104012 @ 자주색.  
104012 #2 들어난 적은 잇는데 어떤 거는.  
104012 @ 잘 모르겟고예 예, 알아수다. 게믄 발도 허영 헌 것도 잊지 아녀우과?  
104012 #3 발톱에 흰 거 박아진 거. 몰르커라 것도. 무신 것.  
104012 @ 스족백이?  
104012 @ 걸 뒤편 헤마씨?  
104012 #3 족발이엔 현 부뜨는 거.  
104012 @ 걸 뒤편 헤마씨?  
104012 #3 족발이엔 허고.  
104012 @ 족발이?  
104012 #3 또 통통헌 거 그런 거 잇고. 무슨 말이 엇어 족발만 잇어났지.  
104012 @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헐 때 이거를 앞발 허고 뒷발허고 ㄹ치 낡 가는 거.  
104012 #3 본심으로 가는 거.  
104012 #2 재매.  
104012 #3 제마게.  
104012 #2 제매.  
104012 #3 제마, 제마.

104012 #1 제가 아니고 제미.  
104012 #3 제매.  
104012 #1 두 굽으로 뿔다.  
104012 #2 너 굽으로 뿔다.  
104012 @ 제매는 너 굽으로 뿔다.  
104012 #3 제매는 발  
104012 #2 발 네 갠데 너굽으로 뿔덴.  
104012 #1 흔쪽에  
104012 #2 건 재매고.  
104012 #1 너굽 낱.  
104012 #3 앞 발 가는 디 뒷 발 가는 거.  
104012 @ 걸?  
104012 #2 두 개씩 앞발  
104012 @ 경주마 같은 경우  
104012 #6 앞 발 가난 디 .  
104012 #1 웅매 즈매 써 놔뒀.  
104012 @ 암수로예, 예, 알아수다.  
104012 #6 인척에 소 허는 디 요 근래에 와서는 미국소가 들어왔주게 양종. 그  
거에 대해서는 안 써서이.  
104012 @ 그거는 뭐우과?  
104012 #3 것도 종류가 으라 가지.  
104012 @ 예예.  
104012 #6 췌근에 브라 싹타 짜르레.  
104012 #2 짜르레.  
104012 #6 짜르레.  
104012 @ 짜르레? 요즘 것들은 다 저 한우?  
104012 #3 한우 지금 반종도 잇주게. 지금도 반종도 거의 나 보기엔 없는 거 같  
은데. 요즘은.  
104012 @ 췌나 물이나 이 다리가 안짱다리 허는 것도 잇어예?  
104012 #3 대우리. 안대우리 뒷대우리.  
104012 #2 안대우리, 밧대우리.  
104012 #3 안터레 들어온 건 안대우리 밧대우리는 거는 소가 잇주게. 밧 갈 때  
에 밧대우리는 어디고 오리목매로 헤가지고 이디 막 뱃겨지주게.  
104012 #2 영 현 췌가 잇어. 안 대우리영 걸는 거고.  
104012 #3 양주머리 뱃겨져.  
104012 @ 안대우리가 어떤 거?  
104012 @ 거꼴로 꼴암신게. 영 걸는 게 안대우리. 영 밖으로 바

104012 @ 삼촌, 거꿀로 굴안 아까?  
104012 #2 난 밖으로 나갈 현 거.  
104012 @ 아아.  
104012 #6 안대우리엔 허는 안으로 허는 거주게.  
104012 #2 다리가  
104012 #6 사람도 영 걷는 사름 잊지 아녀게.  
104012 #2 아니우다게. 안대우리 이디 걸러마씨?  
104012 @ 두분이  
104012 #3 걸러마씨.  
104012 #6 사름이나  
104012 #2 이디 나오명 가는 거. 안대우리.  
104012 #3 안터레 쉼도 안대우리고 이건 바꼈디레 안터레.  
104012 #6  
104013 @ 예, 예, 예. 알아수다. 그 다음엔 어 물은 어떻게 주로 사용현 거주과?  
104013 #3 물?  
104012 @ 예.  
104012 #3 들사 물 탕도 텅겨나고.  
104012 @ 예.  
104012 #3 마차. 우선 방에 질 때에.  
104013 #2 밧블릴 용도로 많이 질랐주.  
104012 #3 밧블릴 용도로 많이 헛주.  
104013 #2 조 블릴 때 밧 블릴 용도로.  
104013 #3 동네마다 마차허는 분덜이 잇는데 하지 아녀주마는 그런 분들은 실 현 돌덜 헤가지고 마차로도 쓰고. 겨꼭 가정에 쓰는 거는 밧 블리는 거허고 짐 시 켜 날르는 거. 또 방에 질는 거. 사름으로 버치니까 경 헤가지고 많이 헛주.  
104013 @ 여기는 쉼로는 허고예?  
104013 #6 쉼로도 헤서. 우리 동네 경우는 말을 많이 안 질화서?  
104014 @ 바령허는 거는 안 헛수가?  
104013 #6 바령허는 거는 뭐라?  
104013 #3 저 사름 장인 바령허는 거 밧디 강 돌 다왕게.?  
104014 @ 알아수다, 알아수다. 그난 제주도가 널러마씨?  
104014 #3 아이그.  
104014 @ 돌 나이는 어뎡 쉼니까?  
104014 #3 이수 삼수.  
104014 @ 한 살부터?  
104014 #3 일수 맞아게.  
104014 @ 아니우다게. 금승뎡 쉼이.



104014 #2 흔 술이 금승이고.  
104014 @ 금승몽생이.  
104014 #3 이수허여.  
104014 #2 삼수  
104014 #1 금승엔 현 건 소에 한 해서. 물은 그게 아니라.  
104014 #2 금승, 금승몽생이.  
104014 #3 몽생이.  
104014 #2 금승몽생이.  
104014 #1 금승몽생이 해나신가.  
104014 #3 금승몽생이.  
104014 @ 금승몽생이. 맞수다. 금승몽생이험디다게. 물 질루멍 잊어볼지 못하는 추억?  
104014 #3 것도 해주기. 즈매  
104014 #1 이수 삼수 영 헤실 거여.  
104015 @ 잊어부리지 못하는 추억 곱아줍서?  
104015 #3 물이 더해여.  
104015 @ 음.  
104015 #3 물은 삼사 술 돼면은 즈매가 냄새 나. 즈매 좇앙 도망 가는 수가 많 주. 그때 환장허고 그런 추억벧기 그 전에는 그런 거는 없고게.  
104015 #2 아이, 나가 췌 질루단 추억 하나 있다.  
104015 @ 곱아봅서.  
104015 #3 곱아봐?  
104015 #2 그때 당시 열으섯일곱 쫘인디 동네 사름 췌덜을 나가 벵여주켄 형여 그 그거 허연에 들어서.  
104015 @ 예.  
일본 가분 누구 잊지 아녀우과? 준해씨. 큰내에 간 들이천 나뉘서 은얼 걸리는데, 삼봉으로. 은어가 어뎡사 잘 걸리는지 뭐. 은어 걸리단보난 췌 볼 생각은 아니고 그때가 팔월 멩질 아시날인데 췌가 없단 말여. 췌가 흔 머리도 엇어. 열 그걸 잃어먹 언 생심 좇아져. 저녁까지 뒷날 강 호호 방문 농멍 광령으로 하간 디로 돌아뎡기멍 방문 농멍 사준 사름신디 간에 들엇어. 이 췌 고향이 어디냐고?  
104015 #3 점 치는 사름. 점쟁이.  
104015 #2 그 사주 사름신디. 양상언이.  
104015 #2 아 그 췌 그 열안지췌엔. 열안지 간 보난 그디 간 잇어. 지선 좇안.  
104015 #3 맞아.  
104015 #2 문딱 이녁 난디 지선이렌. 지선 좇안. 일러먹은 거기서.  
104015 @ 지선?  
104015 #2 지선 좇앙 일주일간 내불어났는디 거기서 연락완.

104015 @ 멧 머리우과?  
104015 #2 일곱 마리 일곱 마리.  
104015 #2 좃안 오난 봉근 거 같대.  
104015 #3 난 논일 헐 땀디.  
104015 #2 혼낫주기게.  
104015 #3 우리 논두둑 잘 매긴 내부난 췌가 셔?  
104015 #2 아, 빨리 좃아가는 거대. 지선 좃아.  
104015 #3 뭇 즈름 게난 닛 먹언 광령으로 다 돌아 다녀서. 낭중에 보니까 가까운 췌  
104015 #6 업은 애기 일뤼 좃넌 허지 아녀?  
104015 @ 업은 애기 일뤼 좃듯이.  
104015 #3 말톡 꺃언 내부난에 내창으로 들어가단 돌에 걸려가지고.  
104015 #3 흐루 종일 굶은 거지.  
104015 #2 말톡 찬 췌는 잃어먹으면 위험허여.  
104015 #3 위험허곡 그 줄에만 좃기고 허주게.  
104015 @ 예.  
104015 #3 췌 줄 꺃어난 디로.  
104015 #2 췌디.  
104015 #3 엇어부러가지고. 애 먹어난 적이 잇는데.  
104015 #2 내창에 들어간 췌.  
104015 #3 옆에 놔똥 좃으레  
104015 #2 우리 일주일.  
104015 @ 알아수다.  
104015 #2 놉 빌언 동네 사름덜 빌어  
104015 #3 맞추.  
104015 @ 화륙 삼춘, 그것을 지선이렌 곶아?  
104015 #2 췌.  
104015 #6 췌도 경허네이. 개는 백프로.  
104015 #2 지선 췌는 췌는 꼭 지선을 췌여. 그 스월 달 나가문 지선 이녀 생각  
나가문.  
104015 #3 새풀 나가면 그 지선 췌영 좋은 고개 들렁 영 막 허주기.  
104015 @ 아아.  
104015 #2 해년마다.  
104015 #3 그런 췌는 잘 매사.  
104015 #2 잘 매곡 경 아녀민 폴아불어사 똤여. 옥도록 경 허더라고.  
104015 #3 그런 거는.  
104015 @ 새 출 날 때에.

104015 #3 그렇지 그렇지.

104015 #2 출도 웬만한 담은 픽픽 뛰엿 들어나곡.

104015 #3 경허곡 말고.

104015 @ 삼춘, 말혈 때 일곱 바리엔 헤서예. 췌 혼 머리 두 머리 혈 때 혼 바리 두 바리 헉니까?

104015 #2 일곱 바리.

## 떡이

104016 @ 일곱 바리에, 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마소 떡이 어떤 것덜 잇수가?

104016 #3 툄 떡이.

104016 @ 물이나 췌나 먹는 거?

104016 #3 비슷허주 뭐.

104016 #3 콩질 ㄱ튼 거.

104016 #1 곡식. 곡식뽕엔 혈 건가? 곡식 그 나무엔 혈 건가? 대엔 혈 건가. 그 전부.

104016 #3 조집.

104016 #6 암물은 즈매.

104016 @ 예.

104016 #6 건 췌?

104016 @ 예.

104016 #1 조짚, 콩꼬질.

104016 @ 예.

104016 #6 소 먹는 마찬가지로.

104016 @ 예.

104016 #1 무슨 뭐.

104016 #3 감젓줄이나 다 마찬가지로.

104016 #1 산디쩍도 먹고. 안 먹는 거? 또 산에서 저 출 헤영.

104016 #3 새꿀개.

104016 #1 새꿀헤영 놔둔 거 맥이곡.

104017 @ 알아수다. 산에서 허는 췌꿀 출 비젠 허면은 어떻 비어났구가?

104017 #6 출 호미로 비주. 어떻 비여.

104017 @ 어느 철에.

104017 #6 팔월에.

104017 @ 그 과정을 췌 글아줘봅서.

104017 #6 식구 엇인 사름은 놉 빌영 비곡 그겨주게.

104018 @ 출 빌 때는 어떤 거로 비엿수가?

104018 #6 호미로.

104018 @ 동쪽 가민 낮으로?

104018 #3 장낮을 이딘 테역출 호미로 비지 아녕은 장낮이 안 돼주. 동촌덜은 거친 밧디 준둥 우로 비는 거.

104018 #6 이제 말허고 잊지마는 녁쿨이니까. 여기는 잔디 모양으로.

104018 @ 예.

104018 #3 문작허주게.

104018 #6 길이도 짧으고 빨리쪽이 단단허주게.

104018 @ 아까?

104018 #2 맛 좋은 거 보고 테역출이엔 허주게.

104018 @ 그 다음에 출 빌 때는.

104018 #2 긴 건 웨동출엔 허고.

104018 @ 긴 건 웨동출?

104018 #3 소세.

104018 #2 웨동출.

104018 @ 쫄는 거는 테역출.

104018 @ 팔월에. 팔월멩질

104018 #2 익어. 게난 그 그날 강 저녁이 무꿀 수도 잇주기. 잘 허민.

104018 @ 출 빌때는 뭐 불민 빈덴 험니까?

104018 #6 게난 하늬브름.

104018 #6 지난 날에는 계절 따라서 바람이 불엇거든, 출혈 하늬엔 허여.

104018 #3 그렇지.

104018 #6 그때

104018 #2 비오라나민 하늬 불어.

104018 #1 추석날 전후해서 불엇주.

104018 #2 예, 추석 전후.

104018 @ 추석 출혈하늬.

104018 #3 게난 멩질 전의 허는 분덜토 잇고 멩질 넘영 허는 사름 잇고. 늦게 허는 사름 멩질 넘영 허는 사름 잇고.

104018 #6 주로.

104018 #6 출에 따라서

104018 #1 그 잔디밧의 출왓이 자기 출왓이 잇는 사름도 잇고 없는 사름도 잇고 허는디 가까운 출왓이 드물곡.

104018 @ 예.

104018 #1 대개 목장밧디 이제 출왓 출 사기도 허고.

104018 @ 예.

104018 #1 자기 밧디 강 허기도 하는데 세베 때 헤가지고 아 우마에 다 질메 그 짐 시꿀 수 질메 이 시끄곡 행 강 올라가가지고 그 저 놓도 빌영 가른 허곡 아

니른 자기대로만 비여가지고 여러 날 비 맞히고 거세기 허니까 곤란하니까 몰라가는 상태를 봐가면서 거 무끄고 모아두고 올 때는 혼 바리 시꺼아정 오고 저 혼 스무남은 바리.마 우마 므쉬 하나 맥이는 스무 바리나 열 바리 이상 확보해야 돼. 시꺼와가지고.

104018 #3 툄 므쉬 혼 머리 맥이는 것이 열 바리주게. 기준으로.

104018 @ 열바리민 몇 개월을 맥이는 거우과?

104018 #1 봄 나도록.

104018 #3 봄 나도록.

104018 @ 혼 바리가 멧 못이라마씨?

104018 #3 서른 못, 서른 못.

104018 @ 서른 못?

104018 #2 새꼴은 육십 못

104018 #6 육십 못은 헛는데 이젠 오십문으로 허매.

104018 @ 작은.

104018 #2 조짚은 서른 못이 혼 바리.

104018 #6 오십 못으로 허더라고.

104018 #3 것도 틀려. 동촌더렌

104018 @ 이 동네.

104018 #3 여기는 육십 못인데 기준. 육십 못 기준인데.

104018 #3 약현 쉼 육십 못 시끄지 못허여.

104018 #2 하.

104018 #3 흥뽀 중소는 마흔 못도 시끄고 계난 질멧골이 세 골이거든.

104018 @ 예.

104018 #2 혼 골에 열 못씩.

104018 #2 옛날 하르방 육십 못을 혼 바리 잡앗주게.

104018 @ 여기는 출이. 못도 죽은게예?

104018 #6 크게 무끄지 못허주게.

104018 #3 쉼짐 잘못 질메가

104018 #2 질메 짐 시끄는 디 으섯 골이라. 계난 육십 못.

104019 @ 예, 알아수다. 경허영은에 허고 쉼 아까 쉼 짚마헌에 짐 빠젓덴 출 운 반허곡 저정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4019 #2 놀굽에 놀어.

104019 #3 대부분 목장에 헤가지고 거기 막을 지언 살앗주기. 출허젠 허민.

104019 #2 출막엔 허연.

104019 #2 거기서 밥 헤먹고 즘 자곡.

104019 @ 멀어부난예?

104019 #3 늑덜은 내려왓당 올라가지 못허주만. 밧 임제 주인은 거기서 살아사.

경혜영 비 와가도 므른 출은 데미기도 허고.  
 104019 #2 데미기도 허고. 그렇게 헛어.  
 104019 #3 어욱.  
 104019 #2 그렇게 헛어.  
 104019 #3 뉘덜은 걸어 강 부인들은 내려 강 게믄 췌질메나 몰질메 지왕.  
 104019 #2 정심더레.  
 104019 #3 차룽에 시꺼아정 정 어뎡.  
 104019 #2 경허당 들럭키영 밥 손아불민 그날 굽곡  
 104019 #3 그런 적이 잇어요. 그런 적이 잇어.  
 104019 @ 췌질메에 밥을 행 가는 거라예?  
 104019 #2 가당.  
 104019 #3 들이나 췌나 착헌 거. 그런 것에 시끄지. 거는 꼭 이꺼사.  
 104019 @ 예.  
 104019 #3 맞아 맞아.  
 104019 #3 거는 꼭 이꺼사.  
 104019 @ 음.  
 104019 #3 들른 출왓디 쪽 들어가. 알앙.  
 104019 #2 잘 좇앙 가. 또. 잘 좇앙 가.  
 104019 #3 흐뵤 성질 나쁜 것에 시끄민 밥 헛영 허는 그런 거 잇어났주.  
 104020 @ 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그 으물예, 췌 밧 갈젠 허민 으물은 어떤 식  
 으로 마련허는 거라마씨?  
 104020 #3 췌것 혜영 주는 거.  
 104020 @예.  
 104020 #2 그때 당시는 보리 먹젠 허단 즘쫂 므튼 거 그런 걸로 것헛 췌주.  
 104020 #6 밧을 오늘 새풀이엔 현 거.  
 104020 @ 예.  
 104020 #6 작두 잇잖아. 작두로 이렇게 길이로 혜영 췌어.  
 104020 #3 즘질게 췌어.  
 104020 #2 누까허영 버무렁 주고.  
 104020 #6 어느 정도 췌 맥일 정도로 보리 체.  
 104020 @ 예.  
 104020 #6 누까엔 현 거. 그거 허영 버무려근에. 경 맥이주게.  
 104020 @ 밧 갈기 전날예?  
 104020 #6 전날 준비헛다가 아침이.  
 104020 #2 세백이 일어낭  
 104020 #3 동세백이 일어낭 것도 혜사.  
 104020 @ 특별식으로 맥여낭은에 일 시켓구나예?

104020 #3 이녁 쉼도 안 맥영은 안 쉼주기게.  
104020 #6 그치록 맥여야 낮에는 쉼 때마다 그 것을 안 주고 출.  
104020 #3 낮에는 출 쫓지.

### 멜감

104022 @ 낮에는 그냥 출 주고예? 그 다음 삼춘, 요즘이야 다 가스주마는 옛날은 멜감허는 것도 큰일 아니우과예?

104022 #3 소로 산에 강 진을낭 해다가.  
104022 #6 장작.  
104022 #3 쉼에 물에 시꺼오곡. 것도 혼 열흘 이상 뎅기주.  
104022 @ 아아.

104022 #2 열흘 이상 뎅기고 말고.  
104022 #3 월동  
104022 #2 어욱 비레도 뎅것수게.  
104022 #3 어욱도 비곡 보름 이상 뎅것주.  
104022 #2 나도 비레 어욱비레 하영 뎅것주.

104022 @ 어욱을 뭐렌?  
104022 #3 헤영헌 거 반 거.  
104022 #6 지들커엔 허주.  
104022 @ 지들커예? 지들커 종류가 어떤 거 있어?  
104022 #2 어욱. 허드렁 헌 거 보고 진을 거라고.  
104022 #6 술입이라고 술나무에서 떨어진 거 끊어와서.  
104022 #6 연기 안 나고 불 잘 타고.  
104022 @ 술입 해당은 다 집에 놀어? 그런 놀은 무슨 놀?

104022 #3 술입놀.  
104022 @ 게 그거를 열흘씩 헤서마씨?  
104022 #3 그렇지게.  
104022 #2 멜감은 열흘 이상 헤사 돼여.

104022 @ 여기는 소나무밭이 엇구나예?  
104022 #2 일부에 잇는 집덜은 겨울에 그런 거 장작 거시려당은에 헤도 뎅고. 없는 사름들은.

104022 #3 우리 집 씨집 완 술입 끊으레 잘 뎅겨서.  
104023 @ 쉼똥허고 똥똥 그런 것도.  
104023 #2 건.  
104023 #6 우리 동네는 별로?  
104023 #1 장작도 풀고 술입도 풀곡 사당도 쓰고.  
104023 @ 장작은 무끝 거 아니. 건 뭐렌 헤마씨?

104023 #6 흐 바리.  
104023 #1 서른 가지가 흐 바리.  
104023 @ 장작은 서른 가지가? 그 다음은 뭐는 마씨?  
104023 #1 무신 거?  
104024 @ 솔입은?  
104024 #1 쳐 가지고.  
104024 @ 보달.  
104024 #1 보달엔 허는가.  
104024 #3 세 끼로 딱.  
104024 @ 게른 장작 흐 바리하고 이런 것들은 흐나 흐 바리 허면 두 개를 시경  
웁니까?  
104024 #2 양쪽 해사 흐 바리 열다섯 가지씨.  
104024 #3 실현 거고.  
104024 @ 예.  
104024 #2 스무 가지벧긔 못 시켜.  
104024 @ 아까 솔입 견으레 간 거예 어떤 식으로 헨 정 온 거라마씨?  
104024 #1 글쟁이라는 게 있어. 제주도는 대나무로 오그라지게 헨 멘들앗고, 근  
래에는 췌줄.  
104024 #3 췌로도 허곡.  
104024 #1 오그려가지고 굵게 멘들어가지고 그걸로 소나무땃.  
104024 @ 예.  
104024 #1 들어가근에.  
104024 #2 하도 소나무 아래는 깨끗허여. 경해농민 떨어지믄 굵기가 좋아.  
104024 @ 맞아예?  
104024 #3 하늬 브름 붙어야 솔썩이 떨어지거든.  
104024 #3 하늬 브름 부난.  
104024 #2 솔입 좋으켄.  
104024 #3 흐 두 씨 썩 것도 흐번에 모들 모여뇌. 침범해영 오지 말라. 모드락  
허면은 강보믄 강 허민 재미진 얘기 많이 허여.  
104024 #2 굵읍서. 굵기 좋은 이녁 허고.  
104024 @ 아아.  
104024 #3 혼자는 보달 싸기가 힘 들어. ㄴ치 항상 배로 두 흐 짐 경헿주게.  
104024 @ 흐 짐이 케민 두 보달예?  
104024 #3 흐 보달사 이만이 허주게. 우의 놓는 건 쪼금 족아.  
104024 #2 배를 세 개 영헿 쪽 깔아뵤 솔입 굵어근에 밑에서 툃툃 박치믄 이만  
이 멘들아.  
104024 #3 베로도 허주.



104024 #2 뱅뱅하게 불르멍 다 무끄면은 떼깅허여.  
104024 @ 어어.  
104024 #2 보달이.  
104024 #3 우의 건 족게 허고 큰 보달 족은 보달.  
104024 #2 우알 보다 흔꺼번에 등 질엉 지지 못허여.  
104024 #2 짐을 옷마치를 거 똥글락 헨 거 낱 또 정 오는 거주.  
104024 @ 거를 옷마치엔 허여마씨? 건 옷마치인고에?  
104024 #2 우에 놓으난 옷마치주.  
104025 @ 알 옷마치? 그 다음에 삼춘, 나무 허레.  
104025 @ 나무 헛던 얘기 한 번 헤줍서.  
104025 #6  
104025 #1 종냥허고 서리냥이 켈 삭은 거 내창. 주로 내창에 강 허여.  
104025 @ 아, 내창에 강.  
104025 #2 우린 어린 때 가니까.  
104025 #6 지금은 단속이 요즘처럼 안 허니까.  
104025 #3 생냥은 안 허여. 삭다리 삭은 거. 큰냥 가지 ㄴ튼 거.  
104025 #6 생냥이.  
104025 #2 옷드르 슷을 굽젠 허민 썩냥을 허엿거든. 우리는 그거 행 우의 거.  
우리는 냥.  
104025 #6 장소 경허 종냥이니 나무 자체가 가벼운 거.  
104025 @ 예.  
104025 #3 무기 안 나.  
104025 @ 똬 가져강 찢르는 거우과?  
104025 #2 주로 나대.  
104025 @ 나대를 여기서 뭐렌 곶아낫수가?  
104025 #3 나대보고 미호미.  
104026 @ 여기는 슷 안 귀봤수가?  
104026 #6 아, 여기는 별로?  
104027 @ 혹시 지들냥 잊어버리지 못허는 추억 잇수가?  
104027 #3 마중 강. 냥 마중 강. 냥 마중 곧초 가도 흑교나 마중 늦을 때가 셔  
계. 흐뎡 늦어 이놈의 새끼 베롱히 멀리 못 강 갈 때 잇다 말여. 경허민 본인도 좀  
미안허주마는 욱을 안 헤도 이놈의 새끼 우리 아버지 성질도 몽둥이로 때리 울멍  
져도 와나서계.  
104027 #3 내외가 허민 멀리 자식 아이 난 때 가면은 아기 메껴똥고 가고 헤알  
거 아니. 나 ㄴ치 독헌 남편 만나민 짐 부러똥 오는 사람도 셔나서.  
104027 @ 예.  
104027 #3 너 정 멀리 그런 예도 좋고.

104027 #1 웨람된 친구백 육십삼년 대니까 지리산 대 도벌사건이 발생해갖고 여기서도 경찰서영 산림과영 현에 한라산 산림반에 국유림 지대에 이제 돌아보게 됐는데, 내가 그때 애월에 조금 실 건디.

104027 #2 하봉하네 조림할 때다. 하봉하가.

104027 #1 사월달이라게. 지서 직원허고 군청 직원허고 나허고 서이가 올라 갓 단 말여. 이십 어승생 애월목장드레가이.

104027 #2 십칠번부터.

104027 #1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 눈이 다 녹지 아녀서 이렇게 쌓여 잇는 데, 낭 끊어난 게이. 조림헌 거라. 소낭을 아무 이 일부러 조림.

104027 #2 하봉하가 스기목.

104027 #1 소낭덜은 이 눈이 이렇게 묻은 상태에서 소낭을 토벌을 현. 사듬서 이거를 가슴 높이는 내불고 이 우의만 끊어 간 거라.

104027 #1 영 도망가부러. 좃진 못허고. 흐루는 도치 소리가 툃툃 나거든게. 겐 디 그 자왈로이. 서위가 포위허는 책 허영 바러왔단 말여. 돌아보니까 마차, 우차. 쉼에 구루마 우차 놓고 보니까 남을 그 비어다가 자왈 앞의 난에.

104027 @ 음.

104027 #2 깨는 거.

104027 #1 영 보니 나이가 많은 하르방이라.

104027 #6 네 시.

104027 #1 당신 어디요 허난. 어음이놓렌 허여. 현행범 아니 돌아갈 수도 엇덴 허여 돌아아전에 초기왔에 강 녹지 아녀서. 그 그때 그 이 밥은 뭐 서숙밥허고 저 보리밥 정도이지만은. 반찬이엔 현 건 멀치 이루꾸엔 현 거 허연 밥도 해주곡 경헌 디 연락을 부찌쨌시민 헐 건디 이 하르방은 그날 고향에 돌아가야 웰 건디 마치 고향에서는 어음분교 사람이 많이 모였거든, 사름 잃어불엇거든.

104027 #6 경혈 테주.

104027 #1 뒷날은 일루에 불르쿠덴 허연 갑센 보낸 그런 예가 잇는데, 그렇게 소나물 토벌헤.

104027 #2 집 짓젠.

104027 #1 야, 이거 어마허게 저 낭도 비여가버렸구나 허는 것도 느껴봤어.

104027 #3 화목 마차에 도벌헤가지고 시에 왕 풀곡 헤나서.

104027 @ 낭예.

## 사냥

104028 @ 사냥헌 거 어떤 거 헛수가?

104028 #3 우리 들어본 말인데 노루게 노리. 노리 사냥도 허고.

104028 #3 지달이.

104029 @ 지달이.

104029 #3 꿩사농도계. 꿩 사농도 칠팔월 낭 더울 때 따올리면어 개 낡 잡아보  
길도 허고.

104029 #6 우리는 안 해반.

104029 #6 말만 들었주.

104029 #3 광령 쉼 보레 갈 때 꿩 따올려 낡 잡아난 기억도 셔.

104029 @ 건 어떤 식으로 잡아났수가?

104029 #3 망 보는 동산. 일로 따올리라 허민 꿩 놀암저.

104029 #2 어디레 감저.

104029 #3 손을 게민 그 놀아당 얼로 박아지거든. 경허민 쥘 냉중에 꿩 본 사름  
이 어느 그때 잡알 나는데, 박은 자리가 없어. 없어. 돌아나분. 게민 그런 디 사름으  
로 개를 봐야돼고.

104029 @ 개 들양 뎡기명 꿩 잡아보진 아녀마씨?

104029 #3 좃도 못 허여.

104029 #1 개 들양 뎡기명 경 허는 거.

104029 #1 여름엔디 쉼동산 우쪽에서 서너네 사름이 꿩을 날렸어.

104029 @ 예.

104029 #1 이 놈의 앓는 거라. 어디 쫓 간 앓는 거라. 게난 갠 들고 갖는데 거  
길 따시 이걸 그 꿩 앓인 디를.

104029 #2 ㄹ리쳐사.

104029 #1 여기 완 일로 영 이레 가대. 다시 꿩을 날리는 거라.

104029 @ 예.

104029 #1 좃안이 놀리니까 어디 간 앓이난 개가 잡던데 그 꿩이 지치는 썩이  
대.

104029 #3 꿩도 얼터거리 어린 꿩은 멀리 놀지마는 얼터거리 늙은 꿩은 터럭이  
다 빠져부는 모양이라.

104029 #2 놀지 못허주.

104029 @ 늙은 꿩을 뉘렌 곶아마씨?

104029 #3 얼터귀.

104029 @ 얼터귀?

104029 #3 놀개에.

104029 #6 칠월이나 팔월 묵은 털이 다 빠져분다 허여. 털갈이. 그 시기에는

104029 #3 조 띠울 우리 욱허곡. 사농허는 놈안티.

104029 #1 노리도 심어봐서이, 나는.

104030 @ 어떻 심어봅디가?

104030 #1 그것이 천구백육십일년인가. 여기 상당이 눈이 많이 오니까. 내가

104030 #1 하귀1리에 우리가 기와를 만들어이. 기와공장이 여기서 일킬로썩 떨  
어진 디라. 우티레 셋동생하고 그 물건인 급작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얼어가지고.

104030 #2 대개 절물로 막 따울령 바당에 강도 빠져나꼭 노리가.

104030 #1 올라가는 가는 도중에.

104030 @예.

104030 #1 길 숲의 밧디 길보다 높은 밧디 넘어가당 보니까 천리터.

104030 @ 예.

104030 #1 천리터에 대개 버드나무덜을 싱그지 아녀이이.

104030 @ 예.

104030 #1 그디가 \*\*네 밧인디, 개 푹 저 세과드 바리는 거라.

104030 @ 예.

104030 #1 왜 그걸 의심있게 봤냐면 밧자국이 너 개 나야 돼는디 밧자국이 쇠 개라게. 이 쇠개 나니까 이상허다 난 영 바려보난 저건 노리가 아니가? 노리 닥다. “맞수다.” 영 허연 우로 간 가니까 막 서로 내뺌는 거라게. 서쪽이 내창이거든. 노픈 디 잇잖여이. 내창에 이리저리 올란 높아 망설이다 헐 때 우리도 까까이 가졌어 게. 거저 내에 우리가 다달을 때 아 그놈의 노리도 튀어 가지고.

104030 #1 족은 소나무들이, 크지 않은 소나무들이 잇는다. 케연 그디 간 이디 심젠 허민 착허멍 착허멍 느시 심질 못허여. 이젠 그게 또 소\*\* 동산으로 헤여 어디냐 저 어디냐른 바굼지오름. 바굼지오름 목까지 아이고, 틀렀다. 보니까 김\*\* 꿩코보레 텅기단에 그걸 잡으라, 폭허게 잡으난에 심어서게. 심어가지고 헐 보니까 그 노리가 금승오른다.

104030 #2 노리.

104030 #1 엇어부난에 세 개도 경 잘 뛰더라.

104030 #6 제 기능을 발휘 못헌 거지.

104030 #1 잠아난 그걸 술 먹어난 예가 잇는데.

104030 @ 알앗수다.

104030 #1 큰 사냥.

104030 @ 큰 사냥 헤신게마씨?

104030 #1 산 짐승 살 거 아니.

104030 @ 그 이후에 재수 엇입디가?

104030 @ 알아수다.

104030 #6 꿩코 놓으레도.

104030 @ 꿩코

104030 #3 안 들거든게. 야심으로 놈의 꿩코 낭중 알앙근에 이놈으 새끼덜 싸와도 나고.

104030 #2 그치록 꿩이 그 자리로 안 텅겨.

104030 @ 예.

104030 #3 놈의 꿩 잡는 거 야심이주.

104030 #1 옛날 꿩코 꿩코 난 그 지방돌 그 밧 우의 줌 올라간 디 이제 경수네

그 저 밧 보길이네 밧 그디 그 소낭밧디 그 저 꿩코를 낫는다.

104030 @예.

104030 #1 꿩코 낫 돌아오단 보난 꿩 들어서고게.

104030 #3 경 험니다게.

104030 #1 잡앙 먹어가지고 육이오 때 잡은 분이 우리 웨삼춘인데 죽어부런.

104030 #3 죽젠허난 죽엇수다게.

104030 #3 허뜩헌 의심의 병이라.

104030 @ 맞아.

104030 #2 사냥허는 사름 문딱 죽어불어.

104030 #1 강원도에이 갓을 때 보니까 강원도에 그 이 내. 냇가에 그 꿩, 꿩 닭은 디들 대개 보니까 거기다가 멍지 ㅁ튼 거 하간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그런디 그 냇 담양 내불어. 거기에서 그걸 멜빵허켄 허멍 멍지 손 봐가지고 허고 거기서 이제 득 심영은에 먹고 그날 죽어불어. 나도 그날 죽어불어 총 맞앙.

104030 #2 역불로 잡으레 간 거는 사냥허는 사름덜 다. 어찌다가 우연이 일치로 늘짐승을 잡게 뉘면 그거는 잡지 말라.

104032 @ 알아수다. 혹시 지달이 사냥허는 것도 봐낫수가?

104032 #2 웃드리덜.

104032 @ 족제비는?

104032 #3 족제비 덧 놔봐서.

104032 #3 으남은 설 때.

104032 #2 벳기지 못행.

104032 #3 죽덧 해가지고 나 하나 잡아나서.

104032 @ 걸 좇덧헤예?

104032 #3 족제비덧.

104032 @ 족제비는 주로 뉘헤낫수가?

104032 #3 것도 잘 벳겨사. 하르방덜이 벳겨.

104032 #2 벳길 줄 몰란 안 허여.

104032 #3 입으로 멍기민 짹 나와. 므디는.

104032 #2 상처 안 나게시리 잘 헤사.

104032 #2 벳겨놔두 거 손보기가 힘들어.

104032 #1 족제비 또꼬망에 털.

104032 @예.

104032 #1 꿩지에 털 상당히 저 붓.

104032 #6 붓 만들더라고.

104032 #1 붓이 좋으냐면 이게 탄력이 잇어가지고.

104032 #2 글밭이 짹짹허게

104032 #1 그걸로 멘든 붓이 일등 붓.

104032 #3 뱃기민  
 104032 #2 풀리도 털도 많이 씹니다게.  
 104032 #3 그 당시에는 비싸나서. 족제비뒷 받으레 텅겨나민 그걸 손을 뺑 물려사. 찻혜가지고 물아가지고 술 셔난디 담아가지고 늘어나게 몽글아져. 그거 담양 털릴 때 족제비ㄴ치.  
 104032 #1 그 당시에는 족제비에 의해가지고 독이 많이 희생돼여이.  
 104032 @ 예예.  
 104032 #3 독은 안 먹어. 머리로만 찻라붙어.  
 104032 #1 독망 저가지고 독을 질뤄야 허는디 문쳐도 희생웨는  
 104032 #1 족제비뒷 탁 눌러지게끔 경혜근에 눌러지게끔 눌러 잡는 건디 그 이 미끼는 대개 독데가리ㄴ튼 거.  
 104032 #3 돛술 ㄴ튼 거 행은에.  
 104032 #1 덧이 알러레 더꺼지게끔 경혜영 잡는 거.  
 104032 #3 족제비뒷은.  
 104032 @ 아까 돛술은 뭇마씨?  
 104032 #2 도새기털.  
 104032 #3 돛터럭 등겨당 구면은 그끄렁내 족제비가 그 냄새마탕 먹으레 오주 기.  
 104032 @ 아아.  
 104032 #3 아 곶앗주마는 딱 놀렁허민 어떤 족제비 발로 팡도 나오는 수도 잇 고.  
 104032 #2 닷을 잘 뒷야. 닷을 잘 쥐야.  
 104032 #3 족제비 살앙 나오는 것도 잇어. 땅 팡 기어.  
 104032 @ 닷은 뭇우과?  
 104032 #2 우에 지둘르는 돌.  
 104032 @ 덧을 지둘리는 것은 닷.  
 104032 #3 닷.  
 104032 @ 여기까지 허쿠다.

## 5. 바다일

105001 @ 이 동네는 이제 바다 동네잖아예? 바다에서는 어떤 일 헷수가? 여자들은 어떤 일 허고 남자들은 어떤 일헌 거?  
 105001 #5 남자들은 어부고 여자들은 해녀고.  
 105002 @ 음, 혹시 듬복이나 감태도 즈물아난마씨?  
 105002 #5 옛날은 감태도 즈물아나서.

105002 #4 듬복도 막 굿디 밀리민.  
105002 #5 거름으로 췌거든.  
105002 #4 경헌디 없어진  
105002 #4 것도 없어지고 허젠도 안 허고.  
105002 @ 그 듬복은 허면은 용도가 뭐마씨? 혼 사람씩 곶아줍서.  
105002 #5 거름용.  
105002 #4 밧디 곶앙 곶름게.  
105002 @ 보리 날 때 뽕족뽕족 날 때 곶아예?  
105002 #5 보리가 자라불민 뽕족뽕족 안 뵈고. 이렇게 찢이면서 더퍼주주게. 영  
허민  
105002 #4 듬복은 즐게 호비로 착착헤영.  
105002 #5 그 정돈 아니고. 펼치믄 퍼져.  
105002 #5 그때는 비료가 어려운 때라 그걸 거름으로 췌거든.  
105002 @ 예, 그 다음에 감태는 즈물양 뭐 헌 거?  
105002 #5 거 뭐허는디서 받아가는지 몰라 건 받아가나서.  
105002 #4 옛날 사름던 감텐 사스락검질 아녀는 사름 안 헤난.  
105002 #5 감태는 곶지 아녀텐 허고 화약 재료로 들어가텐 헨 사가나거. 쓴 덴  
허멍 받아가나서.  
105002 @ 화약  
105002 #5 무시거, 무신 화약 그런 곶로 간덴 우리 들어나서.  
105004 @ 음, 경허영 채취허고예? 알아수다. 이 바당에 나는 보멸 종류. 어떤  
종류들 잇수가?  
105004 #5 보말?  
105004 #4 으라 종.  
105004 #5 수드리가 잇고 코트테기가 잇고 문다드기.  
105004 #4 문다리는 두경 더꺼진 거.  
105004 #5 메옹이가 잇고.  
105004 @ 뚜경 더꺼진 게 문다드리예? 게믄 그거는 어느 바당에 주로 나마씨?  
105004 #5 이 앞바당에 그런 종류 다 잇어.  
105004 #4 모살조개도 잇고.  
105004 @ 모살조개예, 여기 조개도 하영 납니까?  
105004 #5 훑으진 아녀도 요만씩 허긴 헤도 나와.  
105004 @음.  
105004 #4 겨곡 외도바다가 깨끗허덴 허여근에 뭐 허주게.  
105004 @ 조개는 어떤 종류들 잇수가? 게믄.  
105004 #5 조갠 그거 하나.  
105004 #4 그거 존 거.

105005 @ 그 다음에 갱이는 어떤 종류 있어?  
105005 #5 갱이도 으라 종류지. 참게가 있고. 또 얼룩얼룩헌 그.  
105005 #4 건 흑갱이.  
105005 #5 저 뭐냐 지름갱이엔 흰 거 있고. 꽃갱이가 있고, 들갱이가 있고, 까메  
기갱이가 있고 으라 질이라.  
105003 @ 음, 그런 갱이도 잡을 수 잇습니까?  
105003 #5 잇지.  
105003 @ 어떤 거를 봐야 이게 꽃갱인지. 삼춘, 바당에 갈 때 멧 개 잡아다줍  
서?  
105003 @ 그 다음에 아까 보멸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잡는 거?  
105003 #5 돌일령게.  
105003 #4 돌 일령게.  
105003@ 음.  
105003 #5 돌 일령도 잇고 보말도 으라 가지주.  
105003 #4 영덕에 영 보말은  
105003 @ 지금도 보말덜은 잡아져마씨?  
105003 #5 잡아.  
105003 @ 음. 어느 철에 보말은 어느 철에 잡는 거우과  
105003 #5 보말은  
105003 #4 삼월 보름이 질 삼월 놈의 집의 도둑질이나 허젠 앓는 거예. 그런 우  
시개도 잇어나서.  
105003 #5 보말 바다에서 나는 건 이 스월 오월.  
105003 @ 예.  
105003 #5 그때가 다 알 벨 때라.  
105003 @ 음,  
105003 그때가 쥘 맛있어.  
105003 @ 보말들은예? 사오월에? 여름에는  
105003 #5 여름에도 사오월로부터 그거 아메도 유월쯤 뉘든 유월꺼진 안 가고  
다 알싸부는 생이라.  
105003 @ 음, 거는 여름엔 맛 엇일 알 싸불민예?  
105003 #5 수두리엔 흰 거는 또 여름에가 알이 막 짝 차. 소라도 그때가 알 차  
곡. 그거 숲양 까민 하얀게 꼬리에 잇주게.  
105003 #5 그게 알.  
105003 #4 하얀 게 슬진 거. 경해야 맛 좋아.  
105003 #5 숲양  
105003 @ 암 수 구별도 험니까?  
105003 #5 우린 그건 못 허여.



105003 @ 그것 못허고  
105003 #5 강인 알 수 있어.  
105003 @ 강인 어떻 구별합니까>  
105003 #5 강인 암놈은 숫놈은 길쭉허고. 배에 잇는디 동그락허게 잇어이 암컨. 수커는 이렇게 잇어.  
105003 @ 가로로 이렇게 잇고. 암놈은?  
105003 #5 개가 이렇게 기어가잖아. 암커는 동그락허게 잇고, 개는 수커는 이렇게 잇어. 개는 수커 암커 알아져.  
105003 @ 보멸은 안 데고.  
105003 #4 게끔 브게기 물믄.  
105003 #5 밥허라 죽허라 경헛주게.  
105003 #5 바위 틈에 부글부글부글 부글레기 막 나와.  
105003 #4 게끔 브게기 무는 강이가 잇어.  
105003 #5 그게 뭘 행동인지 몰라. 바위 틈에 그디 앓앙 밥허라 죽허라 밥허라 죽허라. 경헛나서.  
105003 #4 우리 생각으로  
105003 @ 밥헛 때 부각부각허니까예?  
105003 #4 밥 부끌 때 그런 식으로.  
105003 #5 놀이가 엇이난 그런 걸 보멍 다 놀이로 삼앗지게.  
105006 @ 맞수다. 다 바당동네니까예. 옛날에 헛불들령도  
105006 #5 바위에 올라오주게 겨 그거 잡으레 헛불 쌍 다녓지.  
105006 #4 밤의만 올라오는 생이라. 헛불 쌍  
105006 #5 낙지도. 이제는 낙지가 씨가 몰라.  
105006 #4 낙지도 허고, 우리 원 원이라도 경허영 허민 그 안네 돌만 일려도 조쟁기 부땡 싹고 막 소라도 잇고 헤난디 이젠 씨가 엇어.  
105006 @ 음.  
105006 #5 이레 웨쓰곡 이레 웨쓰고 하도 헤놓난. 걸어다닐 수 엇어. 궁글궁글 돌 뒤집어 놓난.  
105006 #4 그 식으로 일렁 떼영 내불곡 내불고 허난.  
105006 #5 난 글로 물에 들레 가전 허민 성가셔. 궁글궁글허민 어찌당 자빠지면 은 큰일이거든. 그레 가는 것이 잘도 싫어.  
105007 @ 아, 원담 념영 가야웨는 거구나. 아직도 원담 잇어마씨?  
105007 #5 음.  
105007 #4 다완.  
105007 #5 그 멜 뜨젠 원 줄기가 잇어.  
105007 @ 게믄 원담은 멧 개가 잇수가?  
105007 #5 죽은원 큰원 허주기.

105007 @ 죽은원 큰원예?  
105007 #4 원담 다운 거 얼른 나가지 못하게 담을 쌓은 거/  
105007 #5 에와지면 떠났지.  
105007 @ 요즘도 멜 듭니까?  
105007 #5 어떤 대 호갱이에 든 때가 셔난 생이라.  
105007 #4 우리 물산 때 즘은 까막여엔 허고.  
105007 #5 진여, 진여.  
105007 #4 돌이 까망허니까 까막여엔도 허고 진여에도 허고.  
105007 @ 연이 지니까. 여가.  
105007 #4 돌이 까망허니까 까막여.  
105007 #5 개갯되 돌은 다 껌으난 워낙 질게 뻗쳐 이시난 진여.  
105007 @ 원에서 잡는 건 다른 것도 들어?  
105007 #5 우리가 큰 때는 붓 봐서.  
105007#4 멜 게.  
105007 #4 다른 것도 들긴 들엄실 거라. 고기 그런 거게.  
105009 @ 멜 잡을 때는 어떻게.  
105009 #5 멜 뜨는 족바지가 따로 잊지게. 은어 뜨는 족바지 말고. 집집마다 그  
결로 강 떠.  
105009 @ 멜 들면 동네  
105009 #5 “멜이여,” “멜이여” 허지.  
105009 #4 “멜 들언.” 빨리  
105009 #5 소리 치주게. 멜이여 멜이여 막.  
105009 #4 멜.  
105009 #5 혼자만 뜨민 막 요해.  
105009 #4 알지도 못허곡.  
105009 #4 구덕에 들렁 강.  
105009 #5 폴레 강.  
105009 #4 친헌 딴 먹으런 거려주기도 허곡.  
105009 @ 알동네.  
105009 #4 이딘 저 웃동넨 잘 모르주게. 한질동넨 잘 몰라.  
105008 @ 그치록 허영은에 허곡 허곡. 원 헤갓고 허면 허물어지잖아예?  
105008 #5 보술 못헨 그냥 잇주.  
105008 @ 지금은 원 보수는 언제 허여?  
105008 #5 일년에 혼 번 다 보술 헛덴. 누가 헐 사름이 내불언.  
105008 #4 이젠  
105008 #5 그 원담으로 다왔던 돌들을 이레 원담으로 다왔던 돌이 다 툐이 나.  
이 잡으로 온 사름덜은 다 뒤집어불어. 툐은 뒤집어불민 꺾이거든. 밭이 죽어불어.

툃이 막 줄어붙어거든.

105008 @ 그 원에?

105008 #5 원 담에서 톨이 많이 나거든. 그때만 해도 백 오십 개 헛던 개.

105008 #4 헤싸부난개.

105008 #5 그 이제 쓰무 개.

105008 # 아아.

105008 #5 다 비여가불고..

105009 @ 그 다음에 멜은 원담 말고 다른 식으로도 잡아낚수가?

105009 #5 바위 틈에 물 고여 잇는디 지금도 그거는 가끔씩 잇어.

105009 #4 절잘락 지치민 싹 물이 내려가불민 그치 내려가지 못헌 거.

105008 #5 멜 잡아 먹는 고기가.

105009 @ 예.

105009 #5 따들리면 급헌 절에 들어온 거야. 물 든 때.

105008 @ 음.

105008 #5 멜배가 도망친다고 헌 게 물 든 때 돌에 고인 물에 오는 거.

105008 @ 그게 호갱이우과? 물 고인 디가.

105008 #5 돌 호갱이. 그것도 작은 거에건 차롱으로 강 건지곡 막 차로 아정 강  
요번에도 차롱으로 건정 젓 담양 놔둬서.

105008 #4 손으로도 강 줍고.

105008 #5 거 멜이 성질이 급헌 거라. 성질이 급헌 거라 지네냥으로 죽어, 죽어.

105008 @ 음.

105008 #4 잘락 지쳐불민.

105008 #5 막 담고망에도 잔뜩 담아지곡.

105008 @ 그렇구나. 멜도 튀김 같은 것도 맛 좋은데.

105008 #4 맛 좋주게.

105011 @ 여기에는 퀘기 같은 거는 옛날 낙시들 허잖아예? 어떤 퀘기덜 나까신  
고예?

105011 #5 고등어, 갈치, 생성 나끄곡.

105010 @ 이 바당에도 생성 나?

105010 #5 저 난바당에 건 저 난바당에 거 닻지 아녕 줄아. 줄아도 맛이.

105010 #4 애월로 서드렌 맛이 옛넨 허여. 애월로 이렌 그튼 고기라도 맛있고.

105010 #5 그디 건 크기는 막 커. 경허여도 맛이 아니예..

105010 #5 이 앞바다에 작아도 맛이 잇어.

105010 #4 그튼 가력이라도 큰 거주마는 죽은 걸 사. 아는 사람은.

105010 @ 아는 사람은예?

105010 #5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큰 거 허주마는 아는 사람은 이 앞바다에서  
난 건 알아지주게.

105010 @ 것도 요즘도 계믄 생선 잡는 사름 잇구나.  
105010 #5 잇어. 이젠 주낫으로 잡암지.  
105010 #4 낫의덜 강.  
105010 #5 주낫으로 나끄는 사름은 엇고게. 생성 나끄는 사름. 우리 아버지네만  
해도 겐디 이제는 그거 허는 사름은 없고.  
105010 @ 생선 나끄는 거는 어떤 거로 나끄는 거라?  
105010 #5 낙시로.  
105010 @ 궂되서 이제 그 그건?  
105010 #5 낙시줄 허는 거.  
105010 그건?  
105010 #5 그거는 대개 지금이지예 메역치 나끌 때.  
105010 #4 메역치 가을에.  
105010 #5 이때  
105010 #4 메역치 가을에.  
105010 #5 그 고편에 왕 줄 대영 앓아시민 나깁 그거 이 가을엔 많이덜 잡앗지  
그거.  
105010 @ 미역치?  
105010 #5 응.  
105010 #4 미역치로  
105010 #5 걸로 쏘으면은 혼 나고.  
105010 #4 우리 집의 아방도 옛날 오란 와들랑와들랑 들럭퀴는데 볼 나위 엇언  
게.  
105010 #5 저 바다에서나 솔치나 마찬가지, 그 독이.  
105010 #4 물들언가난 그것도 녹연.  
105010 @ 아아.  
105010 #5 아 든물에 쏘으면 썬물에 쏘으면 썬물 뉘도록 기다리곡 옛날 어른덜  
경헛덴.  
105010 #4 누게가 오란 물 들어가사 녹일 건디 물 들어가난 썬 녹연게.  
105010 @ 아, 미역치가 경허는 거? 아까 삼춘 뭐?  
105010 #5 물 쌀 뎀 그 물이 싸가야 녹이곡 물이 들 때 쏘은 건 그 물이 쌀앗  
당 들어올 때.  
105010 #4 물이 들어야.  
105010 #5 경허는 거.  
105010 @ 솔치나 메역치나 똑ㄱ타?  
105010 #4  
105010 #5 난 솔칠 블라낫거든.  
105010 #5 그게 확실헌 지는 난 쏘아도 어뎡 안 헛디다.

105010 #5 난 등가시 께전 할아버지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허연 그걸 고기 다 먹으렌. 켜 솔치 고기 다 먹었어. 아무 충도 아녀더라고.

105010 @ 아.

105010 #5 피는 줄줄 여러 개. 영 불르난 맨발이고 허니까 건디 구원 먹으난산 디 아무렁지도 았대.

105010 @ 켜 먹어불면 췌는 구나.

105010 #4 그것이 죽어부난 독이 았는 거지.

105010 #5 나 딸 이레 오라, 나 딸 이레 오라. 그거 심연 불에 췌 이 고기 다 먹으라, 다 먹으라 췌 맛이 췌더라고. 지금도 솔치는 비짜.

105010 @ 예.

105010 #5 그거 봐지민 죽아도 지금도 그거 봐지민 조레기 았영

105010 #4 췌허난 등췌이

105010 #5 위험이 느끼민 그냥 영 헛당 것이 췌.사람이 가나 뭐나 .

105010 #4 건디

105010 #5 눈 텅 눈으로 봐. 눈으로 빵 사름 가난 췌 세우메.

105010 @ 아. 솔치예? 솔치가 솔치우력이우과?

105010 #4 솔치우력. 것도 우력았은 건디.

105010 #5 솔치허고 솔치우력이 틀려.

105010 @ 아, 틀려예>

105010 #5 우력이 솔치 ㄱ튼 게 았어/

105010 @ 음. 게든 고쟁이덜 이런 거 나끄는 거는?

105010 #5 그것덜은 여름에덜게. 세월 나끈덴 허나. 그런 사름덜게. 벌이론 안 되고게.

105010 #4 오랑 지금도 췌미상.

105010 #5 여름에 나끄매. 고쟁이. 맥진다리.

105010 @ 여름에 그치룩헨 춤대 췌 아이덜 험난 거 코쟁이허고.

105010 #5 고쟁이 맥진다리 그런 거.

105010 #4 배가 빨락허난 맥진다리엔 허는 췌이라.

105010 #5 거 히안헌 거라. 물에 톡 들어넣 눈만 췌롱췌롱 잘도 았아서.

105010 #4 아이덜 맥진다리 밥만 처 먹으라. 봐

105010 #5 어른덜이 그 말을 허여. 맥진다리처럼 았아둑서. 췌헌디 물에 들영 보민 톡 부텅 눈만 영 톡 부텅 ㄱ만히 눈만 말뚱말뚱 헌 게난 아이고 옛날 어른들 잘도 았았네.

105010 @ 그치룩 았안 이성.

105010 #5 배가 불룩헌 게 아니라 고기에 췌, 췌, 췌 췌어져서.

105010 #4 맥진다리ㄱ췌 밥만 드렌 아녀시민 췌으켜.

105010 @ 배가 빨락

105010 #5 활동을 많이 안 하여. 앓아눕서 맥진다리ㄴ찌.  
105010 @ 사람들이 바당에서  
105010 #5 옛날 해녀들이 그 말이 흐뎡 허민 맥진다리ㄴ찌 앓아눕서.  
105011 @ 음, 기구나. 그 다음에 여기 낙싯대, 낙싯대를 뉘렌 헛수가?  
105011 #5 낙싯대 낙시.  
105011 #4 춤대.  
105011 @ 낙싯줄은 뉘엔 해?  
105011 #5 줄은 뉘  
105011 #4 아니, 게메.  
105011 #5 아이 그 도새기 피 막 맥여근에 쟁은에 허민 그게 버작허거든.  
105011 @ 음.  
105011 #4 노슬. 노슬.  
105011 #5 노슬로. 그냥 면으로 뉘 줄인다.  
105011 @ 예.  
105011 #5 그거에다가 뉘지피 말려가지고 그 줄이 엉키기 아녀. 경허영 만들영 쓰더라고. 사륙사륙허여 경허영 만들영 쓰더라고. 먼바당엔 굶디서 우리 아버지네는 배로 강 허니까 보문 그렇게 해서 만들더라고.  
105011 #4 노슬로 현 거게. 먼바당에 강  
105011 #5 그냥 노슬로 영경은엔에 허지 못헌텐 게난 엉키지 아녀게.  
105011 #4 차례대로 줄을 낚 가. 우리 집의 아방도 바당에 뎡겨나신디.  
105011 #5 뉘지키 맥영 그 줄이 사륙사륙하게 엉켜지지 아녀게 만들더라고.  
105011 @ 음, 질기곡. 경행 하고. 낙시도 그 고기의 종류에 따랑 트난텐 허멍 예?  
105011 #4 트나지.  
105011 #5 주낫 낙시가 틀리고.  
105011 #4 고생이.  
105011 #5 저 뉘냐 네 개 행 영영 허민.  
105011 #4 영 허민 떼어가민 영영 허영 떼로 놀아뎡기다가도 걸린텐.  
105011 @ 건장낙시?  
105011 #5 건장으로.  
105011 @ 건장으로도 허고 두 개 게민 여기 오장에 ㄴ뜨 거는 낙시가 트나텐 허멍마씨?  
105011 #5  
105011 #5 돛보.  
105011 #4 존존현  
105011 @ 거는 돛보낙시렌 허고예>  
105011 #4 돛보낙시는 옷도 입지더라.

105011 #5 어게.

105011 #4 옷 입져. 옷 입져근에.

105011 #5 옛날은 낙시 이쪽을 이거 영 낙시가 영 켜 거 아니라. 요 주둥이엔 빨간 거 허영 입지고. 요딘 하얗게.

105011 @ 아아.

105011 #4 미끼로 알앙 지네 먹는 밥으로 알앙.

105011 #5 지금은 다 만들어정 나오니까.

105011 #4 아이그. 돔보 낙시 만들어난.

105011 #5 우리도 그거 허민 아버지 하얀 천으로 허연, 옥양목 하얀 것이 있어. 완전히 하얀 거. 그거 떠나가 그걸로 만들어.

105011 @ 낙시도 만들언 옛날 경 쓴 거라예?

105011 #5 경 허여난 거.

105011 @ 그 다음에 뽕들은 어떤 거로 쓰는 거우과?

105011 #5 뽕들도 갈치 나끄는 거 틀리고 생성 나끄는 거 틀리고.

105011 #4 크고 죽음에 가.

105011 @ 크고 죽음에예?

105011 #5 이제는 옷걸이치룩 생긴 것인 양줄에 뽕들을 여기 돌아매여.

105011 @ 가운데예?

105011 #5 경헤연 헤낫주게.

105011 @ 그 낙시를 무슨 낙시렌 해?

105011 #5 거 뭇 낙시엔 현 지 모르커라. 뽕들이엔만 허난.

105011 #4 갈치낙시. 기냥 무신 낙시엔도 아녀고 갈치낙시.

105011 @ 마삭이엔 현 말은 안 들어봄디가?

105011 #5 마삭.

105011 #4 우린 갈치낙시엔.

105011 @ 낭으로 헨

105011 #5 그냥 낭이 아니거든 드랫줄.

105011 @ 드랫줄로 헨 허는 거.

105011 #5 얼른 꺼꺼지지 않은 드랫줄.

105011 @ 삼춘, 가면은 소살로 꿰기도 쏘아뵈?

105011 #5 음.

105011 @ 어떤 꿰기 쏘아뵈?

105011 #5 광어 우력덜.

105011 #4 지금도 솟주게.

105011 @ 소살로 꿰기 잘 쏘으는구나.

105011 #5 다음 달 뒤면은 이 가에 왕 산란을 허는 생이라.

105011 #5 다음달 소살 가정 다니주게.

105011 @ 주로 어떤  
105011 #5 켈 그것가 많이 광어.  
105011 #4 녀삭헌 거.  
105011 #5 쏘기도 좋고.  
105011 #4 녀으니까 쏘기 좋암지.  
105011 #5 켈집이 가져가민 사기도 허고게.  
105012 @ 해녀들이 주로 쏘으는 것은 어떤 거?  
105012 #5 북바리. 갓돔.  
105012 @ 음.  
105012 #5 우럭.  
105012 #4 우럭도.  
105012 #5 아이고 여름에 나앗양 잇입니다.  
105012 #4 우럭도.  
105012 #5 연애도 허여. 그거.  
105012 #4 아이고 춤.  
105012 #4 영혜영 입맞추멍 허여. 다른 고기 허는 건 못 봐신디 우럭은 여러 번  
봐서.  
105012 #4 경허니까  
105012 #5 영영 돌아댁기당 딱 강 입맞춤허더라고. 나 여러 번 봐.  
105012 @ 아아.  
105012 #4 경 허니까 그거 알을 베는 게 아니게. 고기도게.  
105012 #5 몰라.  
105012 #4 뭇 짐승이든지 경 안 허영 번성 허느냐? 뭇이든지 경해야 번성되는  
거지.  
105012 @ 계난 바당 소굽에 가면 희한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라예? 어떻  
세상입디가? 그 바당속은?  
105012 #5 벨다른 뭇가 잇어.  
105012 @ 막 구쟁이 이런 것들도 놀아댁긴텐 허명예?  
105012 #4 기어 땡겨. 이녁 고망 좃앙 땡겸실 데주게.  
105012 #5 먹을 거 땡기당 감태. 감태에 돌아정 떡곡 . 전복도 마찬가지로.  
105012 @ 전복도?  
105012 #5 논다, 논다 느는게 아니.  
105012 #5 전복은 빠르주게. 소라는 몸 무거왕.  
105012 @ 아, 전복은 빠르구나.  
105012 #5  
105012 #4 소란 뚜꺼와부난 못 감구나.  
105012 #5 전복은 논텐 옛날 어른들은 논다 논다 느는 게 아니고 그만큼 빠르



다 그 말이지.

105013 @ 기지예? 여기 퀘깃베들은 어떤 퀘깃베덜이 잇어마씨?

105013 #5 옛날은 낙베게.

105013 #4 낙베도

105013 #5 노 저영 낙베. 또 기계선은 또 뭇고 통통배. 통통배엔 헤여낫주.

105013 #4 이젠 낙베 엇어.

105013 @ 이제는 낙베 엇고예?

105013 #5 낙베 엇고 말고. 우리 아버지께 젤 마지막까지.

105013 #4 영 네 젓영 영 네젓는 것이 낙벤디.

105013 @ 그 돛도 돌아져마씨?

105013 #5 브름으로

105013 #4 브름 영영 허민 빨라.

105013 #5 그땐 노 안 젓주게. 바람으로 가니까.

105013 @ 돛 몇 개 돌아난?

105013 #5 큰 거 작은 거 두 개.

105013 #5 낙베엔 두 개.

105013 @ 낙베엔 두 개예?

105013 #5 물속에도 가면 물풍엔 물에 가면 물에 끌어가지 말레 물 알려레 풍을 쳐.

105013 @ 예.

105013 #5 경허른 물을 받아져서 물 물속에도 풍이 잇어.

105013 @ 아아, 밖에도 풍이 잇주마는? 거는 물풍?

105013 #5 물풍.

105013 @ 물풍문 몇 개해? 거는

105013 #5 배 밑에 허는 거지.

105013 @ 앞에 해? 두에 해?

105013 #5 중심으로 잡양 그것ㄱ지는 잘 모르겟는다. 앞에 가운데로 해야 건 잘 몰르커라. 어디 허는 거는?

105013 @ 물풍이엔 곁아예?

105013 #5 물풍.

105014 @ 알앗수다. 즈녀들이 채취허는 해산물은 어떤 것이 잇어마씨?

105014 #5 옛날엔 미역을 주로 헛거든. 중간에 미역이 완도에서 많이 나는 바람에 미역 시세 싹 없어졌거든. 미역 안 즈물아 기냥 내불어 기냥.

105014 #4 돈 얼마 안 주고 허난게.

105014 #5 버청 버청 돈이 몇 푼 메역 내불어.

105014 @ 이 바당에도 메역 나

105014 #4 올히. 경허민

105014 #5 나 귀 빠진 이후에  
105014 #4 올히? 경허민 바당에 미역 종민  
105014 #5 원 두에만. 아무디도 아니.  
105014 @ 자연산 메역들은 비싸던데?  
105014 #5 아이고, 헤드렌 해도 안 헤져. 돈 멧 폰  
105014 @ 아, 삼춘 아까 메역 어떻 허민 마진다고?  
105014 #5 메역 많이 난 해도  
105014 #5 게도  
105014 @ 겨울마 점수계.  
105014 #4 많이 난 해엔 마 진덴.  
105014 #4 오월장마  
105014 #5 오월유월 장마는 꺾 와도 잇넨 허거든.  
105014 #4 그 대신으로 영 주룩주룩 허는 생이렌 허더라.어떤 할무니.  
105014 @ 겨울에 너무 비완예? 요즘예?  
105014 #4 장마가 웃엇게 마는 꺾다도 진덴 올린 오월장마가 그 대신으로 가을  
엔.  
105014 #5 꼭 잇넨.  
105014 #4 어디 강 푼 꺾와도 장만 진덴 헤낫주게  
105014 #5 여라 날은 장만 저나주기.  
105014 #4 경해도 옛날ㄴ치 경 아년.  
105014 @ 맞수다.  
105014 #4 옛날ㄴ찌.  
105014 @ 그 다음 메역허고 어떤 것들해?  
105014 #5 청각. 청각도 허든 그땐 받으레 와나서계.  
105014 @ 아아.  
105014 #5 그때만 해도 가마니에 얼마?  
105014 #4 정각.  
105014 #5 그땐이 저울이든 벨 거 아니? 가마로, 가마니로 풀아나서.  
105014 #4 일일이 저울이기 실편 그런 거주.  
105014 #5 저울을 몰란 거라. 그냥 담양 ㄴ득은 거만 알안.  
105014 @ 정각허고 가을에는?  
105014 #5 가을엔 이제 소라 잇지.  
105014 @ 소라를 여기서 뭐렌 허여?  
105014 #4 구쟁기. 구쟁기.  
105014 @ 구쟁기, 구쟁기.  
105014 #4 구쟁기 잡으레  
105014 #5 구쟁이 잡으레 가게 경해신디.

105014 @ 강은에 뭐 잡았수가?  
105014 #5 문어. 어찌다 외도 바당엔 전복 많이 나났거든.  
105014 #4 이디 저 무시겨 목요탕 잇기로 더께.  
105014 #5 아니, 아니, 부영.  
105014 #5 모욕탕 물은 다 저레 감수계개. 부영 짓을 때 그디서 흑탕물이 씨가 죽어분 거라. 그 후에 없어져불었어. 바당에 왕 흑으로 글라앗앗단 날 췌니까 그 자리 걸어져부니까 그 자리가 하얗게 돼불어서.  
105014 @ 아아.  
105014 #4 씨가  
105014 #5 해초 나는 것도 안 나고 해영해 불었어.  
105014 #4 해초도 안 난.  
105014 @ 부영에 손해배상 해야커라.  
105014 #5 정각도 패마농 싱근 밧 잇지이. 그렇게 짝 깔려나났주게. 바닥이  
105014 @ 손해배상해야컨게.  
105014 #4 막  
105014 #5 우리 힘이 어디 셔?  
105014 #4 정작은 춤 맛 좋게  
105014 #5 양념 김치가 싱싱헌텐  
105014 #4 싱싱허고 그거 줍아먹고 이제 파 놓득기 옛날은.  
105014 #5 정각 싹 벗어나.  
105014 #4 정각 무채 맛 좋아났주게.  
105014 #5 먹는 몸도 그거 허영 그거 정각 나는 자리에 그 몸이 나거든. 겨문이 중간으로 간 비여오곡 해나신디. 알러렌 부글레기가 만허난. 이젠 흔 폐기도 안 남 수게.  
105014 @ 웃음. 그때 흑탕물들이  
105014 #5 자리가  
105014 #4 어디 가불어서?  
105014 #5 그게 소생허질 못허는 생이라.  
105014 @ 음.  
105014 #4 것ㄴ라 춤몹엔 해났주게.  
105014 #5 이제는 모자반이렌 허더라마는 먹는 거엔 춤몹, 춤몹.  
105014 #4 옛날 장항에 영 커근에 지로도 넘어나고이.  
105014 #5 돼지 뼈따귀 끓인 물음 몹이 췌고.  
105014 #4 몹국물.  
105015 @ 그 다음 삼춘, 물질허젠 허민 어떤 도구들 가정 물질헛수가?  
105015 #5 옛날은 고무옷 입으난.  
105015 #5 망아리.

105015 @ 망아리허고.

105015 #4 테왁, 테왁.

105015 #5 테왁도 멧 년 아녕 빠지곡. 이젠 아이스박스 그 거 나오난 그걸로 데  
껴붙어도 안 까지고.

105015 #4 여에 다대겨도 안 까져이?

105015 #5 안 까져. 부서정 더러 나오긴 해도 어땡 안 허여. 덩 경허난 씹주게.  
수협에서 나와.

105015 @ 예.

105015 #5 흥실감ㄴ찌 싸. 어디 강 다쳐도 부서지지 아녀.

105015 @ 음, 그치룩헤영 하고. 전복 트는 건 무신 겨우과?

105015 #5 비창.

105015 @ 비창도 가정가곡. 망사리도 쪼끄만 것도/  
105015 #5 조레기.

105015 @ 건 조레기?

105015 #4 즈레기는

105015 #5 신발.

105015 @ 조레기는 멧 개 가정가?

105015 #5 하나게.

105015 @ 건 하나만 가져가?

105015 #4 하나에만 그득아도 좋주기. 웃음.

105016 @ 옛날에 삼춘네 옛날에 가져가는 도구허고 요즘허고 물질하는 게 어땡  
달라졌수가?

105016 #5 물질허는 건 마찬가지로. 도구덜이 틀렸다는 옷도 고무옷 물에 강  
달라진 거지.

105016 #4 고무옷 속곳

105016 #5 미빠쟁이 빠당 새끼 꼬양 망아릴 만들엇수게. 요즘은 구물 강 이만이  
강 사오민 망아리 하나 만들고 얼마나 편헌 디.

105016 @ 옛날에는 도구들 옛날 도구허고 하영 달아진 거

105016 #5 많이 달라졌지.

105016 @ 그런 거를 곶아줍서.

105016 #5 우리 그 저망아리를 만들젠 허믄 그 억새 잇잖어. 억새 막 피기 전에  
그걸 강 빠와. 그걸 그걸로.

105016 #4 꼬왕.

105016 #5 꼬양. 새끼 까늘게 그걸로 망아릴 만들엇거든

105016 #4 그것이 막 질기주게.

105016 #5 경헤나서.

105016 @ 예. 경허영 에움도 트나지 않아?

105016 #5 드렛줄.

105016 #4 드렛줄허레 공짜로 강 헤영 올 건디 안 거주기. 웃음.

105016 #5 산에만 가든 그건 얼마든지 헤오는다. 드렛줄로 헤여낫주.

105016 @ 물질 가는 시간도 옛날 속곳 입을 때 물에 드는 시간도 달를 거 아니  
라예?

105016 #5 속곳 입을 때 이십 분도 못 살아서.

105016 #4 멧 곱 헤염주.

105016 @ 이십 뿐 또 들고

105016 #5 왕 불초왕 제게 아니 일어 예술이 어멍. 맨발로 불 발락발락 발랑 꾸  
와불어. 발이 췌뎡인 생이라. 겨민 할 수 엇이 불 다 끄민 그디 뉘허레 앓아게. 일  
어상 웃도 같아

105016 #4 우리 물질 안 헤뵈주마는 물 불초는 거 보면은 이디가 얼룩얼룩허여.

105016 #5 이런디가 얼룩얼룩허주게.

105016 #4 물에 강 하도 실려나난.

105016 #5 실려나곡 지금은 몰레 헤우기도 허주마는 그때만 해도 짠물. 짠물 경  
허곡 허니까 막 그 실려왕 불에 곱곡 얼럭얼럭

105016 #4 해너 모욕탕이 시난 그런 모욕탕이.

105016 #5 수도에서 몸 헹젠 허든 스뭇.

105016 #5 에에그 수도에서 곱앗수게. 처음에 우리 집의 연탄 그 통에 물 퍼당  
허곡 헤엇지..

105016 @ 바로 바당이난예?

105016 #5 바로 즈긋디도. 불 출 일도 엇고.

105016 #4 영헌 방도 잇고게.

105016 #5 전기보일라 허든

105016 @ 이제는 작업하기가 .

105016 #5 너무 고급 암만 노력해도 나라에서 잘 안 뉘든 호강해질로고. 아메도  
나라 잘 뉘든 덕택이지.

105018 @ 툇은 언제 헤낫수가?

105018 #5 음력 삼월에. 음력 삼월 보름이든 꼭 헤여.

105018 #4 삼월 보름에 허민 툇뵈. 바당에 이 삼월 보름 물찌에 집의 앓은 거는  
도둑질이나 허젠 앓앗주기. 이 바당에 아니 온 것은 우시개로게.

105018 #5 옛날 선비도 도폭 입은냥 바당에 갓젠.

105018 @ 그만큼 툇은 공동으로 채취헌 거 아니예?

105018 #5 지금도 툇 공동으로 허여. 어촌계에서.

105018 @ 어촌계에서. 옛날엔 우미

105018 #5 별도로 우미 즈물지 잘 허민 열 푸대.

105019 @ 우미는 언제 허는 거우과?

105019 #5 그건 스월. 스월.  
 105019 @ 스월에. 우미도 공동으로 허는 거 아니면?  
 105019 #5 서이만 즈물아.  
 105019 #4 해녀덜만 허난.  
 105019 @ 이 바당 주인이 셋이구나 게믄.  
 105019 #4 옛날부터 이 외돈 해녀들이 경 엇어게.  
 105019 #4 몸덜을 에깁 연댄엔 현디 한다.  
 105019 #5 연대 이제 열두인가라.  
 105019 #4 지금도.  
 105019 #5 내도보다 연대가 더 하다이.  
 105019 @ 게믄 무신 일을 현 거라?  
 105019 #5 밧일들이난 허곡게.  
 105019 #4 밧일이나.  
 105019 @ 옛날 모즈 즐곡 허난 경헌가.  
 105019 #5 모자 즐 시기를.  
 105019 #4 우리 배웁지 못허연게.  
 105019 #5 우리 어머니 그거 즐렌 허영. 어떻사 성질 난지 놀레 못가게 허영 그거 밤의 즐렌게. 어떻사 성질난 디 이런 거 밤의 에이그, 걸랑걸랑 어머니가 그거 허랭허연 그거 앓앙 헤나서.  
 105020 @ 음, 그 다음에 전복허고 소라는 언제가 가장 하영 허는 거마씨?  
 105020 #5 전복은 이제는 못허고 지금 소라 많이 날 때주.  
 105020 @ 음, 지금 소라 날 때.  
 105020 #4 전복 즈무는 것도 철이 있어.  
 105020 #5 전복은 뭐 아무 때나 허는 디 나 일년에 하나토 못합니다.  
 105020 @ 아아.  
 105020 #4 이.  
 105020 #5 전복은 질이 몰라부러텐 허난. 옛날은 소라 돈이 열만디. 안 웨거든. 전복 좃으레만 저까지 짐만 웨게 안 현다. 모살통 ㄱ튼 디 기프지. 전복 잇거든. 난 그것만 허레 탱겝주 소라 개꿀레 현 완.  
 105020 @ 음.  
 105020 #5 경 헤신디 그런 디 가믄 뭐 전복 부뻐던 돌이 헤영헤불엇거든.  
 105020 #5 게난 다음들 셤들이나 나민 해삼이 조끔씩 나누게. 경허믄 그런 때 모살통에 좃으레 탱기는 거라.  
 105021 @ 해삼은 모살에 사니까. 전복도 크기에 따라 불르는 이름도 트나예?  
 105021 #5 크기에 따라가 아니고 전복이 동글락허게 보통으로 영헌 거 좃아. 겐디 동글락헌 거를 우리 암천복 암천복 헛거든.  
 105021 #4 암천복엔 헤나신디.

105021 #5 암침복 암침복 헤신디 그거 아니엔?  
105021 @ 수침복은 어떤 거라?  
105021 #5 그걸 옛날 어른덜은 헛거든. 겐디 종묘사에서 굳는 거보난 당웨이 아닌게.  
105021 #4 납작헌게 암천복이렌.  
105021 #5 동글각허주게. 어디레 가지 아녀. 게연 그 수커는 여기저기 텅기는다.  
105021 @ 음.  
105021 #5 암침복ㄹ치 요거는이 부뻐다 그거 암천복ㄹ치 ㄹ지직헌 년. 옛날 어른덜 경 곺아나서. 암천복ㄹ치 ㄹ끄뉘허엿젠.  
105021 @ ㄹ끄뉘헤엿제. 그제 무슨 말이우과?  
105021 #5 그제 무신 말이라게. 다 쉐 이제 ㄹ끄뉘허다 헌게 아멩해도.  
105021 #4 ㄹ음이 기냥 꺽꺽하지 아녀다 그 말이지.  
105021 #5 활발허지 못헤가지고 마음이 활발허지 못헌 사름 그런 사름,  
105021 @ 쫘 욱으로 허는 거우과?  
105021 #5 욱으로 허는 거지. 쫘 잘못뉘영 뉘 의논을 헤도 통화가 안 뉘 그런 경우 잇잖아. 에이고 암침복ㄹ치 ㄹ끄뉘헤여뉘수.  
105021 #4 늣광 틀어져더 얼는 말 안 곺안 성질머리도 ㄹ끄뉘허게. 지금도 경헤.  
105021 #5 지금도 할망덜은 경 곺아. 우린 성질이 바쁘니까 만약 ㄹ뉘다 허믈 나가 얼른 말 곺아 안 경허믈이 이이 곺특쟁이 암천복 모양으로 ㄹ끄뉘헤여뉘서. 곺특쟁이.  
105021 @ 곺특쟁이.  
105021 #5 막 경허연 허주,  
105021 @ 예. 전복도 전복새끼ㄹ라는 뉘렌 험니까?  
105021 #5 조갱이. 물 조갱이.  
105021 #5 족은 거 물조갱이.  
105021 @ 물조갱이. 아아, 전복 작은 거를예? 그 다음에 보통 이것덜은 감태 먹어?  
105021 #5 감태 먹고 미역도 먹고 몹 그런 거 해초 다 먹어..  
105021 @ 전복허면은 뚜껍을  
105021 #5 거평.  
105021 #4 거평 큰 전복  
105021 #5 거평은 큰 전복.  
105021 @ 거평 영 허영 조갱이 물질허레 갈 때  
105021 #5 본보기. 만약 점복을 볼 거 아니라게. 슝 놔뉘 왕 슝취어 가지고.  
105021 #5 봄조갱이.  
105021 #5 그것ㄹ라 봄조갱이. 그거 놔뉘왕. 다른 볼 수도 잇잖아. 이거는 그냥

올라오곡.

105021 @ 아아.

105021 #5 지금은 아무라도 기어 당기당 먼저 말 못허여.

105021 @ 옛날에는 안 현 거라? 양심적으로.

105021 #5 다 알 거든, 경허니까 그걸 봄조쟁이엔 허지.

105021 @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아까 구쟁기?

105021 #5 빨이 엇영 문둥구쟁이. 문둥이.

105021 #4 쌀구쟁이. 세 가지 일름도.

105021 #4 조구쟁이.

105021 #5 세 가지주게.

105021 @ 쌀 잇는게 쌀구쟁이. 뭐가 맞종읍니까?

105021 #5 문둥구쟁이 늙어, 늙엇거든. 질겨.

105021 @ 아아.

105021 #5 으물도 쌀구쟁이보다 족곡.

105021 @ 구쟁이 살 때 쌀구쟁이로 사사쿠다예?

105021 #4 쌀구쟁이가 으물이 하.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뚜껍들 이름도 특납니까? 이렇게 허면 구쟁이허멍 꺾데기 이름허고 이 뚜께 이름허고 불르는 이름이 잇어?

105021 #5 구쟁이 딱살. 똥그란 거. 딱살.

105021 @ 뚜껍은 딱살. 으.

105021 #5 구쟁이 겁죽엔만 허난 그건 몰르킨게.

105021 @ 속에도 이름

105021 #4 속곳엔 현 거 잇어.

105021 #5 속곳엔 현 거 영 씨와정 잇주게. 그거 먹으면 씨.

105021 @ 건 속곳예? 구쟁이도 속곳을 다 입영 잇어예?

105022 @ 옛날 여기 테우도 헛수가?

105022 #5 자리 떠난 테우 잇어나서.

105022 @ 아버지 헤난 거?

105022 #5 우리 아버진 그건 안 허고.

105022 #5 나무 여깁 테우 만드는 거 게. 시절꺾진 셔나 지

105022 #4 통낭으로 여깁.

105022 #5 마찬가지 다 여깁 만들어 그건.

105022 #5 시중이 아버지 자리 테우 헤영 헤어나서이. 연대 장난꾸레기 하르방 우리 주녀에 갈 때 “이녀 난 것덜아 자리 따울리지 말렌.”

105022 #5 사들이엔 허주.

105022 #4 사드레렌 헤나서.

105022 @ 사들.



105022 #5 이 집 혼자서는 못 허여. 둘이서나 허주,  
105022 @ 둘이.  
105022 #4 멜  
105022 #5 보는 망원경 닮은 거 이만은 현 거 잊주게. 자리가 그디 들러내곡 우리 같은 수경 닮은 건디 있어. 그거 보는 거?  
105022 @ 그거 이름이 뭐엔 허여?  
105022 #4 그거 ㄹ로 무신겨여 무신 거? 그거 물안경이렌 헛주게.  
105022 #5 물안경. 우리가 쓰는 거고. 테우에서 이만인 허는 거 잊수다게. 이만은 현 거.  
105022 #5 수경, 수경. 수경인 거 닮수다.  
105022 #4 물안경 말로 들어봐신디.  
105022 @ 그게 그 말인디.  
105022 #5 그때만 해도  
105022 @ 어쨌든 허든 테우하면은  
105022 #5 그때만 해도 수경엔 현 거 닮아.  
105022 #5 수경이 맞은 거 닮아. 물속을 본다해서 수경.  
105023 @ 알아수다. 그 다음에 삼촌네 아버지 헛던 돛배. 돛배는 어떤 그 아는 대로 글아줍서.  
105023 #5 처음에는 풍선헬고 나중에는 기곷배 헛지께.  
105023 #4 낙배에 선 들렸주기.  
105023 @ 그걸로 헤영 뭐 현 거? 아버지는?  
105023 #5 각제기도  
105023 #4 우럭이여 불락이영  
105023 #5 우럭 불락은 배로 강 그거 벌이  
105023 #4 닥치는대로 물문 데껴불지 아너거든게.  
105023 #5 그거 나쁘레 일부러 가진 안 헛주.  
105023 @ 주로 나쁘는 거  
105023 #5 이 철에 고등어 나쁘지 각제지 아지 그거 나쁘지. 이 철엔 그걸 대목 나까서.  
105023 @ 아지는 어떤 고기마씨?  
105023 #5 각제기.  
105023 #4  
105023 #5 지역마다 틀립디다.  
105023 #4 전라도 사름덜은 아지엔 허대.  
105023 #4 우리 제주도만 각제기.  
105024 @ 예, 예, 각제기. 혹시 돛대 부분 명칭 알아지쿠과?  
105024 @ 이름들 뭐렌 해?

105024 @ 뒤에는?  
 105024 #5 뒤코지 ㄹ라 뭐엔 한다.  
 105024 #4 이물엔 해신가.  
 105024 #4 우리 집의 아방은 기계 봐낫주마는.  
 105024 #5 앞코쟁이 주기. 두허고  
 105024 @ 이물 고물.  
 105024 #5 맞아 경헌 거 답아.  
 105024 #4 고물.  
 105024 @ 앞에는 이물.  
 105024 #5 앞에서는 큰 거 돛 거 앞에  
 105024 @ 돛을 옛날 초석이렌 말도 들엇지예.?  
 105024 #5 초석엔도 해낫주게.  
 105024 #4 베초석. 배에들리는 거나 베초석.  
 105024 @ 베초석 알아수다. 잠깐만예?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옛날 여기서 밥 해 먹어난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어낫수가?  
 107001 #4 그거 남으민 찰 지금은 음료수여 쉰다리라고이 누룩해영 낫당 누룩 순다리 해영.  
 107001 #4 우리 나가 어린 때에 워정 나가 뭐헛주기 한다. 우리 할머니네가 우리 하르버지가 장손으로 우리 하르버지 형제간이 알로 ㄹ녀 돌아가신디 멧 성제 우리 족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우리 족은아버지가 오랜 허연 그냥 지금은 전화상인디 그땐 아니오크 경허난 찰 지금 ㄹ트민 파출소주기.  
 107001 @ 예.  
 107001 #4 호출허다시피 우리 족은아버지네도 완 허여신디 나가 우리 족은아버지네 이제 저 아덜이 성젠디 우린 족은아버진 찰 족은아버지 족은아덜은 말젯아버지 알로 양가불고 우리 족은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큰아방이니까 어머니 기일 제스, 자기가 허켄 허연 허염주기.  
 107001 #4 그 견디 나 생전 잇어버리버리지 아녀. 동생 아이덜이 찰 자식은 부모 따른텐 헨 게 경 날 생각허곡 기냥 우리 스춘 아시 나가 그른 일을 헤도 나신디 레 욱을 못허영 스춘아시신디레 ㄹ치 부영 언니  
 107002 @ 알아수다. 밥 해먹어난 찰 종류들은 어떤 거. 보리찰.  
 107002 #4 바르르 급허연근에 온 보리찰 싹고 벌러진 보리찰 싹고 경 곶야난.

여 보리쌀 의새끼 흰 보리쌀 의새끼엔 골아나서. 보리쌀 의새끼 퀘아사

107002 @ 보리쌀 의새끼 어명하고.

107002 #4 보리쌀 의새끼 강 퀘아사컬. 퀘아사컬 제게 강 밥을

107003 @ 그 보리밥은 어떤 식으로 헤엿수가? 옛날에.

107003 #4 물 놓곡 그것만 허곡. 가을에 풋 흰 때 ㄱ치 허곡. 콩 골양 콩국 끓리곡. 옛날은 콩죽을 많이 썩, 즈냘이 때에.

107003 @ 알아수다. 보통 보리밥을 흰 거라예?

107003 #4 보리밥게, 좁쌀이나 서끄곡 존 가을 들어사 좁쌀 허영 흐린좁쌀 모인 좁쌀 흐린좁쌀은 지금도 그계 잇주게. 흐린좁쌀엔도 허고 꿰허영 콩밭디 켈 따로덜 가는디 옛날은 콩 갈민 콩밭디 머드레엔 췌쌀 삭삭 빼면은 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굴룬 걸로

107003 @ 예.

107003 #4 지름도.

107004 @ 옛날에 반지기밥엔 흰 거 뭐를 말허는 거우과?

107005 @ 반씩 논 거 반지기예? 옛날은 곤밥은 언제 먹엇수가?

107005 #4 곤밥은 멥질 때나 제스 때나. 경허고 고기 적갈도이, 우리 할머니네 지금도 경허주마는 옛날은 남자허는 집은 남자가 헌디 우리 할머니가 허여. 적갈ㄱ튼 거 어려운 때난 우리 동생 나 밑에 서신디 춤 세상을 떠불언게. 서울 간 결혼허영 서울 간 성제가 오독오독 앓이민 그거 허여낭 브시레기 할머닌 어린 때니까. 저 우리 하르버지 허는 말이 “가네덜 쥐. 즈손이 먹어야 조사동 잉감헌덴.” 위허여 가네덜 쥐. 하르버지가.

107005 @ 예.

107005 #4 경허난 생각 원 잊어불지 안 허여.

107006 @ 옛날에 조팍혈 댐 어떻헛수가?

107006 #4 좁쌀 낱은에 경허연 댐 조팍혈 때도 고구마 낱 허영 허민 밥이 더 흐리고이. 고구마가 흐뵂 들코롬허지 아녀. 그런 뵂으로.

107007 @ 조팍혈 댐 풋밥은 어떻 헤마씨?

107007 #4 풋밥은 보리쌀에 ㄱ치 놔.

107008 @ 풋밥은 이제 경행 먹고. 여기도 피 갈아났수가?

107008 #4 피 셔난. 눈에 나룩허영 싱그민 피 아닌 싱그진 안 허고.

107008 @ 예.

107008 #4 피가 어떻허연 나룩밭디 강 피 메여살 켜 피 메여살 켜 그런 말도 들어나고.

107009 @ 밥을 헤 먹거나는 안 허고예? 게민 감저 썰어놔 허는 밥은 어떤 밥 들.

107009 #4 숲다근에 밥 좁쌀 또 그건 이녀 즈유니까 보리쌀에 ㄱ치 놔근앵에 도 에 뵂헌 디 경 온차 숲다근에 팍팍팍 찍으민이 이제 감저에 그 밥에 서꺼지민

들코롬허영 허민 그런 빛으로도 떡곡.

107009 @ 옛날엔 감저허영 행 밥 하영 행 먹었구나예?

107009 #4 공출덜 경허영 허민 그 이제 저 봄 나민 지슬 싱것당이, 봄 나민 가을 들영 지슬도 지슬ㄴ라 지금은 감저, 감저 허지. 경 건디 그것도 행 청 떡곡. 옛날 계난 우리 때에 우리 할머니네가 집 가까운 디 출왓을 쉼 메곡 출왓을 나가 어런 때 들란 간에 집의 혼웃이 멀지 안 허난 간 허연 헌디, 할머니네 허진 못헤도 영 ㄴ찌 즈름에 앓안에 그때에 그 해방 뒤 허기 전이난 일본 군인덜 텅길 때난에 그 나 출 비엄시난에 질긔밧 나가 머리가 막 질언. 경허난에 조선 군인 우리 한국 신 생이라게. 이제 그 일본말로 머리 ㄴ라 가미 가미 헛주게. 우리 한국말론 머리 아니라게. “에이고, 경 조선 군인이다. 우리 조선. 군인이다. ㄴ찌 말렌. 일본 군인덜광 ㄴ찌 가지만. 조선 군인들인 줄 알민 뭐 허카부덴 경헌 생이라. 경 현 거 잇어 부리지 안 허여” 쫓.

107010 @ 삼촌, 밥 혈 땀 늬삐도 ㄴ치 낱 밥헝니까?

107010 #4 무수 주로 감저.

107011 @ 주로 감저예? 여기 흥년 송년들 때

107011 #4 툫밥 재산이 셔낫주기. 우리 할머니네 밥 싯고 나록도 헤나고이. 경 허연.

107011 @ 툫밥 늬

107011 #4 우리 할머니네도 그런 거 헤 먹어보진 안 허연. 콩은 곶아당 헤 죽 쭈고. 콩죽 ㄴ멸 곶안 ㄴ멸츄베기 경 헤난.

107012 @ 계난 그 옛날에 물룻에 페 낱도

107012 #4 물룻. 그런 것도 안 헤보고 그땐.

107012 @ 삼촌네는 잘 사니까에예?

107012 #4 돈딱 집 즈끗디 먹실일도 다 허곡 재산이 좋아난. 그런 거세기 먹는 건 안 봐나고 저 무사산디 우쟈도 경허연 헌 디도 그 승키 그거 허여 먹는 것을 어 떠난산디 대옴허영 허민 우리 봄 나민 삼월 나민 보리왓디 텅기명 드룻늬물 지금 ㄴ트민 유채늬물 는 거라게. 보리왓디 텅기명 미나리 논 어염에 미나리 승키로 떡곡 경 헤난.

107013 @ 국허여난 건 어떤 국덜을 헤영 먹어나신고예?

107013 #4 국도 그거 승키 콩 주장으로 콩국. 우리 하르버지가 풍으로 춤 뭉 허연에 몸이 안 좋안 혼 저 밧딘 일을 잘 못허연 허난 쉼덜, 쉼 밧갈쉼 밧갈쉼 허주기. 쉼 웃은 사름ㄴ라 느네 농스도 허곡 우리 것도 헤드렌 쉼에 경 허는 것도 봐나고 경 헤연.

107013 @ 국은 그냥 승키허영 허는 거라예?

107013 #4 웬장국게.

107014 @ 늬물국은 웬장국이우과?

107014 #4 경허곡 콩 숲아근에 메주허영 지금은 그런 것도 웃주마는 중간에 헤

영 춤 보선이나 새 곤 거 신곡 거세기 그때 시절엔 그런 것도 었언. 그자 마께로  
도고리에 난. 경혜난.

107015 @ 똗앙예 늑뵀국은 안 헐 덕어난마씨?

107015 #4 무사 막 어려운 때난 어려운 때난에 우리 하르버지가 늘 풍으로 못  
허난 이젠 우린 할머니네 우리 어린 때라도 소낭뵀도 그런 소낭 형제간덜이나 친족  
낭 허영근에 췌에 시끄곡 든 어려운 시절이난게 콩국 우리 할머니 지금은 질로지만  
썩 밥을 거렁 먹엄주마는 낭푼이에 거렁이, 그 낭박세기.

107015 @ 예, 예, 예, 예. 낭박세기.

107015 #4 막 더 먹으렐 막 기냥 거려주민 우리 아주머닌 우리 저 그 셋하르버  
지 말췌하르버지넌 경 허연. 스 형제라나서. 아주머닌 아주머님. 아주머님은 기자  
먹으라 먹으라만 그런 반가운 소리로이.

107015 @ 예, 예.

107015 #4 반가운 소리. 흥번은 밥을 꺼문솅디 밥 불 검질불 습안에 영 그 췌  
질루난, 덕어난 췌데치 췌데치 허영근앵에 솅강알에 불 습아 나쁜 솅강알에 불치가  
이실 거 아니? 경허영 헐 디게 즈끗디 간 검질 집의 간 밥 먹주긴 허연 바로 알력  
뵀 무신 산앗은 뵀.

107015 @ 예.

107015 #4 또 어떠난 산디 기뵀이뵀. 알력뵀인에 집 알력웁이 우리 어린 때도  
이.

107015 @ 예.

107015 #4 흥번은 오란 집 즈끗이난 그 일본 군인덜 막 한국 온 데에 배고팡  
하영 죽엇주기. 경허연 허난 군인 신어난 군 그 신발이, 허난 솅강알 솅두쟁이 데여  
덕어나고 구뵀발 퍼푼퍼푼 아이고, 할머니 “내블라, 오죽 배고파사 경허느냐?

107015 @ 할머니가

107015 #4 믑음 낑 덕영 가렐 헐 췌. 그 웃은 트멍에 사름 알아시민 기냥 덕영  
가렐 허췌. 경도 헤어나고이. 일본 군인덜 올 때 막 큰 물이, 호달매 호달매 헤나서  
그때.

107015 @ 호달매.

107015 #4 올레에 방엿간 이제 그 신제주 로타리도 그런 길로 경허연 헐 대.

107015 @ 예.

107015 #4 방엿간에 허쁜 오죽 배고파사 경허여, 새로 방에 짓언 그스썰 막 빠  
덕언게. 그신새 막 빠덕언게. 군인 물덜이 집 막 틀어부러신게 물도 경허느냐. 경  
출 흥 못 출 가져당 경 올 줄 데경 우리 할머니.

107015 @ 할머니가.

107015 #4 우리 할머니 친정은 저 낑은 지금은 낑음엔 허는디 옛날은 과납

107015 @ 과납.

107015 #4 지금은 표준말로 과납 이라낑주게.

107015 @ 삼촌, 또 호박잎 국도 하영 행 먹어서예?  
 107015 #4 무사산디사 우갓도 널르곡 경 승키 꿩마농 캐레 막 경 텡겨난.  
 107018 @  
 107018 #4 물 팔팔팔 꿩와근엔 그 낭푼이에 ㄱ를 캥 영 들렁 ㅁ실ㅁ실 수제비  
 요만씩 꿩곡 춤 집 허터져근은 아이고, 배불리 먹어졌져  
 107018 @ 집 허트는 건  
 107018 #4 집 밑을 갈아낫주기.밀ㄱ리. ㅁ물ㄱ리도 밀ㄱ리.  
 107018 @ 밀로예?  
 107018 #4 경허연.  
 107019 @ 여기는 몸으로도 국 헛수가?  
 107019 #4 몸국. 꿩야지고기 이디도 그 잔치 때나 지금은 뭐 경허영 몸국을 그  
 런 고기 큰숫되 솥아나민 그 고기 솥아난 사름덜이 지. 오죽 어려와야 경허카이.  
 107019 @ 이 바당에도 몸이 하낫구나예?  
 107019 #4 이 바른 아래 오염뉘연 해미안 모옥탕 전복 ㄱ튼 것도 해 엇어점젠  
 굴안게.  
 107019 @ 대소상 때나 잔치 때나 보통.  
 107019 #4 것도 맛 좋덴 허명덜.  
 107020 @ 생선국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  
 107020 #4 게영 풀리는 거.  
 107020 @ 그 생선이 옥돔인가마씨?  
 107020 #4 오일장도 마트에 옛날은 그게 허른 이 등사근에 바당 역불 강 등삿  
 당 배강 줄 허여근에 집 앞에 영 불리왕 경도 허영 허곡. 또 저 이 지금은 이디 꿩,  
 이 바닷가 거세기 허영 허주마는 산촌엔 경헌디 고기 사례 경허른 점수 으라 개 나  
 는 거온.  
 107020 #4 경허연 갈치로도 제숙 쓰고.  
 107020 @ 갈치도 제숙 써예?  
 107020 #4 지금은 우리 할머니넨 기자 조건 써나서. 조기허고 갈치 안 써 또 이  
 산촌에 경 저 무시거고 큰고모네도 금덕 집가지 아래 돌아매여.  
 107020 @ 예.  
 107020 #4 망데기에 꺾 영 깎아 그 다음에 집 깔앙 들른 갈치 영 농곡 먹썰일  
 107020 @ 맞수다.  
 107020 @ 꺾으로.  
 107020 #4 포주겨 놓민 산산허게 깎아근에 경허영 향아리 망데기 흐뎡 영 배욱  
 영 공기 나가 고펡 안네 들어뉘게.  
 107020 @ 예, 게른 생선국 허는 거는 게영할 때는 고등에국이나 각제기국  
 107020 #4 각제긴 비늘 신 거니까. 고등엔 안 허고.  
 107021 @ 그런 건 아녀고예? 메역국은

107021 #4 지금이난 허고. 지금도 메역국 춤 그런 떡쌀일 때에도 메역국은 영  
굴안게. 이제 떡쌀일 때에 게영국 메역으로 안 끓린 . 이 메역은 미끄른 거니까 조  
상들이 잉감 것도 문체주기게. 경 딱 무수나 경 낱 끓리고 미끄러부는 거난 우리  
씨어머니네 우리도 메역으 안 끓려. 그

107021 @ 예. 아.

107021 #4 아니, 상에

107021 @ 상에 올릴 때는예? 따로

107021 @ 여름.

107021 #4 누들 씹은 웬장 경허영 허영 먹고. 옛날 우리 웨할머니네 귀리엔 귀  
릿장에 가자. 우리 웨할머니네 질긋디 집윈디 그 어려운 시절이난 그거 허영 해당  
그 장터에 막 물리왕이 보리왔디 깎아.

107015 @ 집에서 콩누들.

107015 #4 그때도 콩주름. 망데기에 콩주름 놔사 떡쌀일 또 그 중간에 우리 허  
뽀 알 터진 거 아니?

107015 @ 예.

107015 #4 그레 형꼬 깎앙 우로 알로 영 세는디, 옛날은 헐 충사 시리에 형꼬  
영 깎아근에 콩 놔근에 뽀족뽀족헤여가민 그릇게 경허고 지금은 찻장 그릇 어프는  
디. 살레.

107015 @ 예, 살레.

107015 #4 웨정시대에도 경 헤여난. 지금은 춤 그런 거 저런 거 지금 세상에는  
질로지만석 그뎨 웨정시대엔 쉿결. 쉿결허렌 헤연에 그 믱을에 구장.

107015 @ 음.

107015 #4 지금은 동장인디 구장엔 헤연에 왕 믱 조사허고. 쉿결, 봄 나민 쉿결  
허렌.

107015 @ 예.

107015 #4 지금은 찻장이라고 살레엔 구것도 믱 내여낱 시치곡 경허연 허는 거  
봐난. 우리 어린 때에 우리 할머니네.

107015 @ 쉿결허렌예?

107015 #4 그런 것도 믱을에서 쉿결허렌.

107023 @ 음, 알아수다. 경허고 요즘 성계예?

107023 #4 성계.

107023 @ 예.

107023 @ 구살로도 국헤여받마씨?

107023 #4 구살로도게 메역국게.

107023 #4 메역이 테운 거.

107023 @ 어떻 끓리는 순서를 곁아봅서. 어떻허허야 좋은 지.

107023 #4 구살도 놔사 헤싸지지 아녕이, 구살이 토락토락헤여. 구살은 메역이

태왕.

107023 @ 그 다음에 보말은?

107023 #4 으.

107023 @ 보말국은?

107023 #4 보말국은 풀리젠 허믄의 메역에이 보말은 그 영허영 내민 딱지 문  
공들주게. 이만씩 헌 거. 그건 춤 무랑무랑 무르췌민 똥이 헤싸질 거 아니게. 경혜  
영 헤여사 국이 맛있고.

107023 @ 보말도 메역 낱?

107023 #4 메역이 태왕.

107023 @ 넘페.

107023 #4 넘페. 메역 다음에 넘페. 흥뽀 똥겹국 까실까실허주게. 그런 것도 경  
허영. 툃아당 이젠.

107023 @ 이젠 안 헤예?

107023 #4 아니.

107023 @ 넘페국도 허고.

107023 #4 떡쌀땀 안 허고. 이녁 떡젠. 넘페 강 국 풀렁 이녁 떡쟁덜. 메역세엔  
헌 거 셔. 메역 닳은 거이.

107023 @ 예.

107023 #4 요만식 허여당 기냥도 떡곡. 메역센 떡쌀일 때도 알룬 거니까.

107023 @ 메역세로 헌 건 메역세국?

107023 #4 메역 잇고 메역세.

107023 @ 예.

107023 #4 여에 영 부땡 셔. 메역세 툃으렌 땡기건 이젠 바당에 바당에 딱 어촌  
계서 금허니까 소라 ㄹ땡 거 못 땡기게 허주게.

107023 @ 음.

107023 #4 그런 존존헌 조갱기새끼 요맨이 헌 거 어디서사 그걸 씨전사 어촌계  
에서 허영 오민 그거 그거 헤영 사근에 해녀덜이 바당에 뿌려도 어땡어땡 허연 여  
쫓양 살아오란 여에 오랑 부트는 생이라. 지금도 못 땡겨.

107023 @ 아까, 뿌리는 게 무신거마씨?

107023 #4 조갱이.

107023 @ 조갱기가 뭐우과?

107023 #4 전복새끼

107023 @

107023 #4 해녀덜이 그걸 어땡사 씨 전중사 허염신디 허기 때문에 우린 이런  
사름 여에나 소라나 부떠시민 떼여와불카텐 못 땡기게.

107023 @ 음.

107023 #4 ㄹ딴서 조개 갱이 잡는 건 내부느니. 경 그 여에 땡기진 못허게 헤



여. 지금도.

107023 @ 지금도예?

107023 #4 해녀들이 다 돈 내영 허는 거난.

107023 @ 가시리도 국 험니까?

107023 #4 가시린 국 안 허여.

107023 @ 가시린 국 안 허여.

107023 #4 옛날은 가시리 해영은에 발래영 풀 브른바구리도 블르곡이 그치룩으  
헤나신디. 가시린 넘패국은 헤여도 넘패 메역샌 가시리 거 풀 허는 거.

107023 @ 가시리는 풀허는 거예?

107023 #4 밀 지금은 경허난 브른바구리로 기지덜 허영 봉강 블랑. 그것마라 브  
른바구리. 브른. 바구리 송키바구리 블르민 그거 브른바구리엔 허여근에.

107023 @ 그 다음에 프레는마씨?

107023 #4 프렌 프레도 바당에 나는 건디 프렌 프리롱허니까 프레도 허영 춤프  
레 싯곡 밧디허는 프레 싯곡 따나.

107023 @ 밧디허는 프레는?

107023 #4 경허민 뤼헌 사름들은 잘 아년덴 헌게. 저 무신 거 스앵이검질 난데  
허영 옛날은 그거 허민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아녕 농스도 아녀곡 허는 사름은 이  
제사 삶이 대통령 삶이주기.

107023 @ 맞수다. 물웨ㄴ튼 건 어떤 거 헤여먹어신고예?

107023 #4 삼월 나민 웰 갈아근에 우리 하귀 웨가에도 웨 놈근에 춤 이제 뤼  
허영 밧디 웰막 짓어근엔 직허멍 허는 거 우리 아인 때에 봐나신디. 물에도게 이디  
오이게.

107023 @ 예.

107023 #4 그거라도 그런 물웨 엇어. 물웨엔 헌 건 익은 건 씨허영근에게 그 거  
울차 썩영 허여사 경헤여난. 경 허영 춤 물웨 잘 익은 건 흐끔 새금트랑도 허주게.  
씨허젠 역불 경 익영. 익형 씨도 거울차 ㄴ치. ㄴ치 썩영사 허연 허고. 호박도 옛날  
은 호박허영 싱그젠 허민 호박 거울차 이 ㄴ튼 디 어디 축담 ㄴ튼 디 대개 거울차  
짜 부지대경 그거 허영 ㄴ류왕 지금은 기냥 물류와도 뤼주마는 옛날은 경.

## 죽류

107024 @ 맞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콩죽도 헤여 집에서 헤 먹어난 죽 종  
류는 어떤 것들이 잇어마씨?

107024 #4 집의서 저치룩헌 영영 젓으멍 모힌좁쌀에. 흐린좁쌀은 안 뤼고.

107024 @ 음.

107024 #4 모힌좁쌀에 콩ㄴ르 서텅. ㄴ트레기 지니까 그릇게 ㄴ트레기가 안 지  
거든. ㄴ트레기 콩국 끓릴 때도 그 뤼허는 사름덜은 흐끔 옛날 아니라근에 젊은 사  
름덜은 아메도 그런 거 몰랑 경헌 생이라. 콩국 ㄴ를 영영영 허영 헌덴 서서. 건디

콩국도 끓리젠 허민 맛트레기지지 아녜그릇게 카근에 느물 므녀 뇌사. 경 안 허민 경허곡 그런 것도 싯곡. 우린 경혜여난.

107024 #4 콩ㄱ를 솟되 젓으멍 영 허민 흐끄 두께 왈락 부꺼불민 아무 것도 엇어.

107024 @ 아아.

107024 #4 흐끔 짐 나뉘 허여가믄 올라. 둠비 거세기허듯 느물 국자로나 영허영 허민 창에 놀지 아녀게꾸리 느물을 들모레기 경허영 허고.

107025 @ 삼춘, 들무레기 무신 말이우과?

107025 #4 곤죽은 쓸 어려운 때난 몸이라도 아광은에 뭐 음식 못 먹을 때 죽곡 경 혜연게.

107025 @ 아무 때나?

107025 #4 이녀이 돈 신 사름은이 춤 나록 메 낳은에 싱그곡 경 방 벌영 먹썰 일 허는 사름덜 경 먹썰일 때난 쓸밥 먹주기. 옛날은 경 혜난. 경허민 켜당칩의 제자 흰쌀밥 강덜 앗앙. 아이덜이영. 아이덜토 경허영 가나곡.

107026 @ 줍썰로도 죽합니까?

107026 #4 모힌줍쌀 콩ㄱ를에 서깁 경 맛좋아.

107026 @ 줍쌀로 쏘?

107026 #4 콩죽 모힌줍쌀 모힌줍쌀 낱 죽 썬라,

107026 @ 죽 이름은 안 굴곡.

107029 @ 므물쌀은?

107029 #4 ㄱ레 앗정 즈베기나 혜영 떡게.

107029 #4 기냥 그 수제비도이 므물쌀 곶앙.

107030 @ 녹디죽도 썬떡어마씨?

107030 #4 녹디도 썬다근에 지금은 조리가 싯지 아녀. 그런 거 웃이난인 채롱착으로 경혜영 곶렁 녹디 주시가 나게.

107030 @ 예예.

107030 #4 것도 벨미로.

107030 @ 맞수다. 요즘은 녹디죽은

107030 #4 간세로. 썬민 맛좋앙 어디 사먹으레 가카 몰라.

107031 @ 맞수다.

107031 #4 득죽은 약재로.

107031 @ 음.

107031 #4 정월 나민 득 메와 그 득이 안아근에이 춤 아기 품듯이 안아근엔 그 날짜 몸질을 계란을 둥그런게.

107031 @ 음.

107031 #4 경허는 쟁이라. 어떤 거세기로산디 경허영 허민 지금은 흐끔 흐끔 뽀듯헌 디 싯지이.

107031 @ 뽕죽헌디로예?

107031 #4 빙아리 영 보문 꼭 좃으민

107031 @ 유.

107031 #4 어려운 때난게. 유월 쓰무날 웨민 어느 제랑 경도 허곡. 이녁 즈유로 이녁 기려우민 뉘허게 살안.

107032 @ 이제 국죽이렌 현 것도 잇수가?

107032 #4 밥이라도 먹당 그런 거 놔근에 국죽이.

107033 @ 꿩죽은 삼춘은?

107033 #4 꿩죽 쓰듯기. 꿩꿩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느냐 그럭저럭 사노라. 그런 속담이 잇어나서. 생각으로 경계. 꿩은

107033 @ 예.

107033 #4 콩 간 때엔 생각으로 현 곧는 걸 들어난.

107033 @ 알력밧디 강도 먹고

107033 #4 꿩꿩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느냐 알력밧디 강 그럭저럭 사

107033 #4 그런 노래 부르는 것도 들어나서.

107033 @ 예에.

107033 #4 얼굴 뚜럼이더라. 산에 뚜럼이렌 허는 꿩 닭은 것이 고개 뚜럼이엔 게. 그런 그 짐승은 먹음이 좋아난 생이라. 얼굴 난전밧디 간절기 종네기. 그건 쓰 곡 곱긴 허여도 신 거세기 선 때엔 얼굴 굿고 속 굿인 건 속 곧 건.

107033 @ 예에.

107033 #4 그런 속담이 잇어. 뚜럼이엔 현 걷는 짐승이 셔난. 막 웃드리 산 중에 사는 거.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삼춘, 범벅도

107034 @ 강이

107034 #4 강인 잡양 죽은 쭈지. 뽕아근에 든물 문딱 짬물 바까불민 걸러 지름 끼가 막 베지근허여.

107034 @ 바당에 강이예?

107034 #4 속담으로 그거주기게. 부디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런 생각에 강이 많이 다리도 덜 아픈다, 골아지는 거엔 곧는 말.

107034 @ 삼춘도 강이

107034 #4 경헌디 먹음 마께로 그릇게 살아나젠 경 못헨게.

107035 @ 마음 약해 갖고. 아까 즈베기, 즈베기덜은 어떤 즈베기덜 헤영 먹어마 씨?

107035 #4 또 기냥 곧죽 쭈는 디 수제비 그런 밀그리도 이녁 생각대로. 칼국수로 쓰

107035 @ 보릿ㄱ를로도.

107035 #4 옛날 보리떡 아이고, 보리쌀 곶아당 보리초베기 그런 거세길 허여.  
김치 ㄱ튼 거 흘 줄 몰랑 우잣덜 하도 누물 같안 헤도 돼주마는.

### 김치

107037 @ 김치 헤 먹은

107037 #4 김치도 잘.

107037 #4 성할망 애월면 지금도 표준말이라. 유수암 우리 하귀. 출장소 우리 웨하르버지가 한문 선생으로이, ㄱ는ㄱ는 막댕이 창문 그디 앓아근에 우리 웨삼춘네 답도리 실평 딱 정구리 혼 정쟁이 정구리 혼번 맞으래 그런 말도 나 들어나고이. 경허영 허문 그 콩죽 굽에 잘 젓느렌 누렁지가 돼지게. 말째엔 수까락으로 들러지곡 코시롱 그거 먹젠덜 막 나도 먹젠, 나도 먹젠 허여가민 누렁이 먹으민 공부 못 헌덴. 누렁지 경허명 우리 웨하르버지 한문 ㄱ르쳐 난 건 난 알아져.

107037 #4 강

107037 @ 예.

107037 #4 시에 상곶동산 잇지이. 상교에 휘 보레 우리 웨하르버지가 텅겨나고. 우리 웨삼춘도 시 성젠디 큰삼춘이 서울 간 문딱 그디서 돌아가션. 하귀 집의라 하귀 산수덜 시난 우리 살명 별초명 경헤연 혼 나가 알아지곡. 동네에서 옛날은 옛날은 공부덜 내낭중 우리 셋삼춘이 우리 하르버지가 공불 허곡 글을 아기덜이 육지강 살아불민 전화 통화가 편지 이름 쓰렌 오라. 우리 어린 때라도 거 알아져. 편지 혼 장씩 써줘게. “삼춘, 뭇엔 씩니까?” 우리 셋삼춘이 곶을쳐레 모르커라. 어떻사 속엿말을 다 부모님전 상서 그영 나가 들어나서게. 놈의 어른 속엿말을 자꾸 편지 나가 기억해져.

107037 @ 음.

107037 #4 우리 삼춘, 스나이 허영게. 동넛어른덜 편지 쓰레 와난 거 기억해져.

107038 @ 김치덜 하영 헤낫지 아녜주마는 배추김치예, 배추 누물. 배추누물짐친 어떤 식으로?

107038 #4 소금 그걸 어려왕이 소금 돈 드는 거엔 허영 웃음. 바당에 강 시청, 바당에 호갱이에 경 돌 지들황.

107038 @ 음.

107038 #4 그거 허영 절여질 거 아니라.

107038 @ 예.

107038 #4 경허영 허문 건져당 돌 지들황 떠나지 못허게.

107038 @ 예.

107038 #4 뒗날은 잘 돌 지들루민 떠나지 아녕게.

107038 @ 예.

107038 @ 양념덜은 무신 거 낱 헤마씨?

107038 #4 멜젓 낱. 지금은 새우젓을 놔사 김치가 싱싱허거든.  
 107038 @ 아아.  
 107038 #4 멜젓은 많이 놓면 김치가 검어. 경허곡 새우젓을 많이 놓은 색깔도  
 좋곡 익어갈수록 맛도 좋앙 싱싱허여근엔 현디, 멜젓은 확허게 제게 풀이 죽는 생  
 이라.  
 107038 @ 예.  
 107038 #4 색깔도 검도. 지금도 새우젓을 많이 놔.  
 107039 @ 새우젓예? 그다음에 여기 츠마기짐치덜도 헤마씨?  
 107039 #4 깍데기로 썰영게. 기냥 예점 허영 허곡. 옛날은 나가 영 헤 흐끔 익  
 은지후제 훝게 썰영 싱근지라고 국물 우터레 막 올르믄이.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햄서. 요새 사름덜 김치 허여도 멧 푸기 일년 먹을 거. 옛날은  
 107039 @ 예, 예, 예.  
 107039 #4 사례 마트에 지금 경 아는 친구 요펜이 느믈 사례 허노렌  
 107039 @ 예.  
 107039 #4 젊은 사름덜은 불렁덜 먹곡.  
 107040 @ 그 다음 싱근지 헛주마는 늣빠 하영 담앗잖아예?  
 107040 #4 그건 소금물을 헤여사 우터레 그 국물이 올라사 경허영 허믄 그거  
 싱근지엔 수왕수왕 맛 좋곡.  
 107040 @ 삼춘, 여기 떠난.  
 107040 #4 뒤 해 살단 완.  
 107040 #4 나 어린 때에. 어린 때에 열댓 슬에.  
 107040 @ 아아, 물짐치도 헤  
 107040 #4 깍데기 썰영  
 107040 #4 그때 어린 때라도 목포 해남 사름들이 반찬덜도 잘허곡이 현덴 허여  
 낮주게. 잘 허여근엔에 허곡. 저 옛날은 멜젓동이 멜젓 알은 뿌라지고  
 107040 @ 이렇게 생긴 거예?  
 107040 #4 멜젓동이 멜젓동이 허명 근 맞게 허염신ㄱ라 육깃멜젓 동이로 상은  
 에 멜젓동이 멜젓동이 허대. 이디도 이디도 잘덜 그런 거세기가 엇주게. 옛날은 경  
 헤난.  
 107041 @ 동지로.  
 107041 #4 그거 동지짐치. 그것도 베추짐치나 양념은.  
 107043 @ 동지짐친 맛좋아예?  
 107043 #4 파짐치엔 허는 거주게.  
 107043 @ 이 동네서는 뭐렌 불러났수가?  
 107043 #4 패마농. 콤데산이. 웃음.  
 107043 @ 패마농, 콤데산이.  
 107043 #4 꿩마농 캐곡 담에염에 논에염에 경현디 어려운 때난 주 삼아 경.

107044 @ 꿩마농으로도 짐치헤여마씨?  
 #4 파짐치 허듯기계, 꿩마농 코시롱헤. 빨리가 ㄴ치  
 107044 #4 지금 허듯기 허영은에  
 107045 @ 걸 꿩마농짐치.  
 107045 #4 갓?  
 107045 @ ㄴ물 님은 거. 갓ㄴ물.  
 107045 #4 베추에  
 107045 #4 딱로 허곡 속에 담으민 베추짐치가 맛있게 흐뎡 속 담곡. 갓ㄴ물짐친  
 흐뎡 독허주게. 양념 베추 더 메웁곡. 잘 익어서  
 107045 @ 물짐치도  
 107045 #4 기냥 ㄴ치ㄴ를 흐뎡 물짐치로 옛날 어른덜.  
 107045 @ 물 하영 낱 물짐치로?  
 107045 #4 ㅼ뜨니 공으로 뵈이든지 절약으로.  
 107045 @ ㅼ뜨니 공.  
 107045 @ 예예, 경허곡.  
 107045 #4 아이고, 옛날이사 ㅼ뜨니 공으로 살앗주기.  
 107046 @ 새우리짐치?  
 107046 #4 새우리짐치도 경 하여도 안 허주기구. 그 초가집 아니? 경허민 집 아  
 래 새우릴 굴룬 거세기로. 집가제 웅장에도 웅장도 데경 떡곡 경허연게.  
 107046 @ 짐치  
 107046 #4 경을 헐 층 몰란게. 불휘 파당 헐 층을 옛날은  
 107047 @ 경허영 허고예? 아까 ㄴ물짐치 순서를 양념까지 캐영왕은에.  
 107047 #4 옛날은 소금 아까왕이 바당에 강.  
 107047 @ 예.  
 107047 #4 그디 허영 호쟁이 절어근에 돌 지들황 낯당 몸 죽으민 건져오랑. 어  
 려운 때난 경허여난.  
 107047 @ 양념덜은 어떤  
 107047 #4 마치 그것저것 멜젓 주장.  
 107047 @ 멜젓에.  
 107047 #4 그거 소금 ㅼ근에 멜젓 국물 소금으로 ㄴ 맞황. 지금 그런 능력이 엇  
 이 살앗주기. 옛날 어른들은.  
 107047 @ 고치ㄴ르들은  
 107047 #4 갈앙이, 경허민 헤 기자 칼로 허영 즈질이 썰곡 썰어ㅼ근에 ㅼ는 도  
 기통이 셔나서. ㅼ나곡 옛날도 풀ㄴ레라고이 옛날 광목 미녕 이불안이 이불안에 풀  
 허젠 허민 풀ㄴ레라고 셔나서게. 동글 풀 그 ㄴ는 물 내리는 디 조쌍 그레 그릇 받  
 아근에 거려놓멍 쫄 들어가게 그 물 허영 쫄 그거 받앙 이불안도 옷에 풀도 허곡.  
 107047 @ 예, 그런 식으로.

107047 #4 그 풀ㄹ레도 아무 디나 엇영. 곶아가곡 경 해난.

107047 @ 아까 늣뻘집치 순서는 어떤 식으로 답아?

107047 #4 싱근지라고 무시거 소금물 많이 늣뻘도 뉘게 기냥 온차 존 것 걸르  
곡 소금물 집치도 돈덜토 아까왕 행 먹어서.

107047 #4 옛날은 돈 들 생각만 허고.

### 젓갈

107048 @ 맞수다.

107049 #4 뉘젓은게 뉘 풀레 그거 상은에 그냥 소금 버물영이 국물 우터레 올라와야 돌 경 아녀민 내음새 말앙 쉬프리 왕프리이. 버랭이 쉼텐 뉘 험벅 기지 헤  
여근엔 딱 지금은 고무줄도 혼헛주마는 옛날은 미 저 신늘 옛날은 초신 삼을 때난  
몰르레기 봉가당 지금 고무줄 옛날 어른덜 뉘헌 세상 살안.

107050 @ 그 뉘젓 헛 때 소금허고

107050 #4 경허난 자리젓 허듯기 영 서꺼보멍이, 그때 경 곶아나서. 자리젓이나  
뉘젓이나 ㄹ트난 혼 말에 소금 저 반싱 하나.

107050 @ 음.

107050 #4 근 맞넨

107050 @ 반싱 하나

107050 @ 바싱하나레 허른

107050 @ 혼말에 소금은 뉘로?

107050 #4 자리젓이나 뉘젓.

107050 #4 잇어부런.

107050 @ 자리젓을 하영 해수가? 뉘젓을 하영 헛수가?

107050 #4 자리젓 망데기 조금 허영 벌경케 맞쫑덴덜 허멍.

107049 @ 자리젓 맞쫑게.

107049 #4 소금 근 맞으민.

107049 #4 뉘젓도

107049 @ 먹을 뉘 어떻게?

107049 #4 자리젓 뉘장 그거. 지금은 양념허는 것도 뉘 거 마농도 그런 거 저런  
거 헛 충사 아까왕 경헌 양념을

107051 @ 생선으로 어우생이렌

107051 #4 아우생이.

107051 @ 아우생이로도

107051 #4 젓 허여난.

107051 #4 아우생이 고퉁에 아우생이나 아무 거라도 창지 부청이. 뉘 영 빠뉘  
아우생이 그것 ㄹ라 알게미젓.

107051 @ 알게미젓.

107051 @ 삼춘도 알게미젓 허영 먹어봐?  
 107051 #4 갈치라고 창지젓ㄴ란  
 107051 #4 큰 벌겨진 아우생이 떼여불곡 아이고 옛날. 옛날 어른덜 뒤희게 살단  
 돌아가션. 웃음.  
 107052 @ 강이도 젓허여마씨?  
 107052 #4 강이 든물에 커근에 흐뎡 쫄물 흐뎡 빼여두고 장물에게.  
 107052 @ 음.  
 107052 #4 간장 낱 근 맞창.  
 107052 @ 강이가 어떤  
 107052 #4 춤강이 싯곡 식강이 이 아래도 식강인 등뎡이 거무룽허곡. 춤강이엔  
 경 ㄴ난 춤강이. 흐뎡 커. 돌고망에 식강이엔 허곡.  
 107052 @ 젓 답을 뎡  
 107052 @ 거는 색깔이 흐 가지우과?  
 107052 #4 강이젓 푼는 디 실 거라.  
 107054 @ 강이젓 하고예? 반찬허민 출레렌 곱아서예?  
 107054 #4 출레.  
 107054 #4 출레라도 저낙 멀컬. 아이고, 뉘장국이 허컬 허민 젓부지.  
 107054 @ 음.  
 107054 #4 그것ㄴ라 멀젓엔 허는디 그것ㄴ라 짜니까 무사사 출레 강 출레라도  
 지저.  
 107054 @ 출레  
 107054 #4 뉘젓도 지  
 107054 @ 뉘에서  
 107054 #4 지금은 그 몰라게. 냄비라도 어린 때에 사용이엔 현가. 지금 생각에.  
 107054 @ 예, 예.  
 107054 #4 사용에 낱 출레 지저사  
 107054 @ 그거는  
 107054 @ 혹시 전복꺽테기 거평  
 107054 #4 그런 것에도 뉘젓 브글브글 오죽 냄비 어려왕. 냄비도 못 상.  
 107054 @ 고망도 이신디?  
 107054 #4 고망 뉘으로사 막앙은에 허는 그것도 영현 무시거 시발쇄 닳은 거  
 그레 앓정  
 107054 @ 그게 출레  
 107054 #4 출레 짠 것 말로사 무사산디 기자 경 곱아. 출레나 지저사 밥 먹컬.  
 107054 #4 지금 우리 고기 반찬 먹듯기.

## 장아찌와 회



107054 @ 지도 하영 담양 먹어수가?

107054 #4 아이고, 옛날은 우짖을 흐뎡만 지만큼은 어려운 때난 웨정시대 공출 덜 보리공출 그런 거 쫄 ㄱ뎡 거 어려왕 허든, 밥을 경 배부른 삼실 못 먹엇거든. 마농지 허영은에 그거 일년 반찬으로 먹는 거라. 장항뒤에 망데기에 굴른 거 사 먹을 것도 엇고 겨영 베고프고 어머니나 그거 모르게. 모르게 슬째기 앳앙 찢영도 먹곡 해난.

107054 모르게.

107054 #4 경 그거 입주정으로 경 먹엇주게.

107056 @ 그럼 마농지처럼 지

107056 #4 장물 놔근에. 장물 꿩앙이, 장물도 더울 때 익 꿩우는 건 무사 꿩우는 마농진 아멩해도 소금을 허더라 해도 변허지 장물 장물을 꿩왕 식형 마농지에도 놓고 늣뻘지.

107056 #4 으, 늣뻘지.

107055 #4 썰어근에 크게 썰영 시들시들허게 물리왕. 물에 등갓당 경허민 경 맛 좋아. 시들왕.

107055 @ 크기는?

107055 #4 요 지리기 허곡게, 아메도 두쩍게 썰영. 지로게. 반찬으로 먹을 거난. 늣뻘지

107055 @ 반추지.

107055 #4 반출?

107055 @ 흑시?

107055 #4 춤뎡은 이 우리 어털 때 봐나신디 장을 돕을 거 아니? 항아리에 춤뎡 저 ㄱ클 시쳐뎡 바당물 웬장 그 영 담은 때에 웬장 거리기 전의. 그걸 흐뎡씩 그것ㄱ라 뎡치.

107055 @ 뎡치는 뎡량은에

107055 #4 늘 거.

107055 #4 늘 거라도 그 물리왓당 뎡앙게.

107055 #4 장항에 그거 흐뎡 찢지뎡 겨난 그것ㄱ라 뎡치.

107057 @ 바당 걸로 허는 거는 뎡치 하나? 그 다음에 꿩 헤먹는 고기는

107057 #4 상어 ㄱ뎡 거이. 거 기자 경 헤여난.

107057 @ 상어는 이름은 어떤 상어?

107057 #4 상어엔만 허난 상어꿩

107057 @ 상어꿩예?

107057 #4 그 다음에 자리물꿩 자리 비늘 거시려뎡이, 윗가지 풀랑지 비 나풀나 풀 머리뎡은 좇아. 막 좇아근에 풀박세기 지름이 시니까 머리뎡은 흐뎡 먹은 것 뎡게. 슬은 먹곡 머리뎡은 막 좇아, 좇아놔사 자리꿩가 맛 좋앙.

107057 @ 요즘은 거의 다 찢라부는디예?

107057 @ 도새기새끼호.

107057 #4 역불 크는 새끼 새 아니라게. 먹실일 먹을 때 아니라도 지금ㄴ치 돼야지처럼이 우리 돼야지처럼이나 경허영 허믄 새끼훤 허믄 그 새끼훤민 그것도 훤허영 경헤난.

107057 @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림 같은 거?

107057 #4 조림?

107057 @ 예.

107057 #4 졸르는 것ㄴ라

107057 @ 졸르는 거는 어떤 고기덜 헛수가?

107057 #4 어려운 갈치 제숙 환전동으로. 그거 반찬으로 꺼문속으로 낭불 베통.

107057 #4 폭허게 빼다구영 즈근즈근

107057 @ 자리같은 거는 경허영 허믄 맛좋아예?

107057 @ 우럭 같은 거는?

107057 #4 우럭이 가시가 쟈지. 잘 졸랑 우럭 콩도 맛좋아.

107057 @ 마농지

107057 #4 늘래난 고기니까 그 콩 낭 졸르 콩 그 졸르민 콩도 고깃물 들영.

107057 @ 경허니까.

107057 #4 옛날 어른덜 먹어볼 거 못 먹어방 돌아.

107057 #4 고사리국은이 돼야지 빼다귀 허곡 저 기냥 고사리국은 돼야지갈리빼나도 멧 번 아이덜 불런 주고 헤난디, 판장에 등뼈 빼다귀이. 허믄 가운데 골이영 윽갈리 슬이영 가시 탁탁 고기도 많이 나와. ㄴ치 낭 고사리도 지니까 무르췌여근에 그것에도 밀가리나 쫄끔 허텅은에 허믄 나도 춤 뜰네 사위덜 불렁 멕여난, 자꾸. 신제주 오랑 먹을다 허민 사위덜이여.

107057 @ 삼춘이 고사리

107057 #4 경 오라난. 고사리국허고 동네에 잔치나 대소상 때나 돼야질 기냥 돼야지로 허여낫주기. 그 국물에 또 고사리국을 끓령은에 즈꺃되서 경헤난.

107057 @고사리국행예?

107057 #4 몹죽이나 고사리국고 경허영.

107057 @ 옛날은 물웨들도 하영 같아서예?

#4 호박도 기일 제사 때도 호박 채소. 채로 안 허영이 요만씩 우리 지금 저 무신 거 국 끓리젠 허민

107057 @ 식게칩 가면은

107057 #4 호박채 경.

107058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옛날 봄에 주로 헤 먹는 반찬

107058 #4 무시거 반찬 기냥 춤 그 무시거 봄엔 난시 그런 거 우쟈이 그런 걸 경 캐어나서.

107058 #4 그런 거. 캐나서.

107058 @ 봄에는 그런 거. 여름에는?

107058 #4 이녀 우영에 역불 밥 헤여근에 그 쉰다리이 밧되 강 더운 때 그거 허영 혼 그릇 아이고 씨원허영 좋다, 허는 말 들어난.

107058 @ 여금엔 경허곡. 가을에는.

107058 #4 경허난.

107058 @ 예.

107058 #4 겨울에 같은 때는 뭐?

107058 #4 감냥이 감 잘 열고. 산물냥이라고이. 중간에 지금은 중간엔 정굴엔 정굴. 요만씩 현 거 것도 아무 집의나 엇어. 우리 할머니네 떡쌀일 주로 우영에 나무를 싱건. 잘도 켜. 경허난 그것이라 정굴엔 골아낫주게. 익혀근에 그것도 허영 망 데기에이. 칭칭이 과일로 써서. 지금까지 옛날 과일 써서게. 그것도 떡쌀일 허는 아무 집의나 엇어. 그 나무가.

### 장 담그기

107059 @ 집집마다 장들 담앗잖아예?

107059 @ 장은 언제 담아마씨?

107059 #4 가을 들어 불르던지 마께로 돌아매주. 마리에 돌아매영허민 그것도 그것도 메주도 잘 텅 잘 터야 장이 맛 좋넌 헤나서게. 봄 나민 정월 나민 그 가을에 다. 가을에 솥양 뒤희영 허민 정월 나민 장 됴므민 뜻아사 울어난덴.

107059 @ 게른 갈라야 텔 거 아니우짱예?

107059 #4 장물은 장물대로.

107059 @ 장 갈 때.

107059 #4 가을에.

107059 @ 가을에 담앗다가.

107059 #4 동지석들.

107060 @ 장도 종류가 이십니까?

107060 #4 항아리에 들이청 발강케 경허난 벧 맞취야. 경 아녀민 곱팍 피어불곡이. 벧 날 때마다 올라사.

107060 @ 곱팽이를.

107061 #4 지금은 곱팍. 장황 자꾸 곱팽이 피영, 곱팽이 피영.

107061 @ 고치장도 담아판마씨?

107061 #4 마농지 고치장 마농지 좁아 먹젠 허민 밧도 거 반찬으로.

107061 @ 예.

107061 # 밥허고 짐치 마른 마농지 주장.

107061 @ 장 담젠 헤도 밥을 보리밥을

107061 #4 우린 콩만 솥양. 콩 솥아근에 방엿혹으로 메주 덩어리 이만씩 허영. 경허영.

107062 #4 돌아매영은에. 짚으로 영허영 으깬 돌아매영 허민 그거 그것도 잘 터사 장맛 좋덴 해나서. 곱게 터야.

107062 @ 음, 터야예?

107062 #4 그것도 검은 곰팍이나 안 좋넨 허곡 경허연.

107063 @ 그래도 메주 삶을 때는 날뿜 허지 아녘니까양? 어떤 날 뿜은에 허는 거.

107063 #4 독날 ㄱ튼 때가 좋네. 그 독날 이치적으로 그거주게. 독날은 고달이 빨강허곡 독날. 경허곡 저 그거 장 담을 때도 이녁 본명일엔 안 돕넨 해나서.

107063 @ 음.

107063 #4 경해나서.

107063 @ 본명일엔 안 담고.

107063 #4 경 곱아난.

107063 @ 그 다음에 장 또 메주 삶 때라도 어느 헤치힐 때는 안 담는 헤치 있지 않으우까?

107063 #4 ㄱ날 ㄱ튼 때에이.

107063 @ 음.

107063 #4 독날 ㄱ튼 때에 그것이 좋덴.

107063 @ ㄱ날허고 독날허고예? 본명일 안 하고예. 그 다음.

107063 #4 독도게 고달이 빨강허고게 뭐 허난 생각, 지금 생각인디 그때 절에 우리 생각도 못 헤신디 지금 생각엔 독도 기자 고달이 빨강허고 뭐허곡 뿜이든지 무슨 집안에 일 발루젠 해도 ㄱ날이 집안에 본명일만 엮으면 ㄱ날이 좋덴 해낫주게.

107063 @ 아, ㄱ날이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장 담을 때라든가 그 메주 삶 때도 경 날 보고 장 걸를 때도 날 보고?

107063 #4 아니 장 걸를 때엔 경헌 날은 안 헌디 담을 때.

107063 @ 담을 때.

107063 #4 담을 때 날 봐사.

107063 @ 메주 삶 때 보고 담을 때 보고 그것도 똑ㄱ타마씨? 날이.

107063 #4 경 저 그것도 일년 먹을 그 뒤시기는 날을 뿜 허는 거엔 곱아난 옛날 어른덜.

107063 @ 음.

107063 #4 일년 먹는 거니까 날 보고 담는 사름 본명일에 아니 허고 경헌덴.

107063 @ 그치록허영은네 날, 저기 장들 고려부는 사름덜도 잇어예?

107063 #4 장 그런 건 그건 어떻 근해 못 맞춘 거주게. 싱거나 어떻허민 장을 고려부는 거 싱겁거나 어떻허민.

107063 @ 음.

107063 #4 우린 옛날 그, 그 흔 허벅에.

107063 @ 예.

107063 #4 물 허벅 씻지 아녀? 물 흔 허벅이 소금 뒤싱 석 뒤 글민 꼭 좋넨 헤난.

107063 @ 예.

107063 #4 글아난. 경허연 헤여난.

107063 @ 음.

107063 #4 경헌디 허벅은 웃어부난, 허벅 웃인 때엔 바가스이.

107063 @ 예.

107063 #4 바가그 저 보통 바가스 흔 허벅에 두 개 그 가랑 허여. 바가스 두 바가스민 흔 허벅 가랑 그치룩 허연 장 담아난.

107063 @ 계난 보통 옛날에는 허벅에 물 질어 오난예?

107063 #4 허벅으로 짐작허여근에 거세기. 계난 흔 허벅에 소금 뒤싱 석 뒤허민 꼭 좋넨 헤나고.

107063 @ 경 허여근에 장 담곡. 장 갈르면 하나는 뒤장이고?

107063 #4 하나는 간장계.

107063 @ 간장을 여기서 뒤렌 불러났수가?

107063 #4 간장, 이젠 잊어불커라. 간장ㄴ라.

107063 @ 장물?

107063 #4 장물. 장물 거려오라, 경. 장물 거려오라 경.

107063 @ 장물엔 헤서예? 예. 삼춘, 막 지치우과?

107063 #4 아니, 무사 지쳐?

107063 @ 안 지쳐? 계믄.

## 떡류

107064 @ 식게 허젠 허민 떡들 헛잔아양? 떡 종류 쪽 글아줘봅서?

107064 #4 떡도이, 중간엔 기자 허지 좋게 이녁 즈유로 이녁 생각대로 쉽게 허난 지금은 송편 주장 아냐?

107064 @ 예.

107064 #4 설기떡 허고 송편 주장인디 옛날은 저 모뎀 헤여근엔에 반죽허영 막 돛베에 영 큰 안반돛베에 놔근에 거 미는 걸로 널리 밀어근에 그 판이 셔. 뜨는 그 종갓집 그런 딴 판이.

107064 @ 예.

107064 #4 경허영 허민 그것에 헤영 은절민 영영 꿇어근에 영 밀어냥 건 이녁 생각대로 꿇으민 뒤는디, 세미 뜨는 그 판이 잇어. 세미떡 허는 건 똥글락헌 건 그 걸로 떠근에 쫓 그레 쉬 담양이 즈아근에, 즈아근엔에 허곡. 그것ㄴ란 세미인절미.

107064 @ 세미인절미?

107064 #4 지금은 쉽게 뭐헌 사름은 들반착이여 뭇여 허는디 옛날은 흰떡으로.

107064 @ 예.

107064 #4 찰떡으로 소랑허게 판이 잇어 것도. 뜨는 반이. 들반착ㄴ치. 그 판 이  
시민 솔벤.

107064 @ 솔벤.

107064 #4 동글락헌 거 절벤 경 해난. 경 곶아난.

107064 @ 예. 게믄 이제 그.

107064 #4 겨고 지름떡이. 지름떡엔 헌 건 또 판이 또 잇어게. 영 요만씩 허영  
지름떡은 꼭 그 허대. 경허영 그 우터레 질 마지막으로 우터레 ㄴ찌 허영. 그것도  
신디 지금은 그거 아녀곡 그 고장떡이라고 영영영영 헌 거 허주게. 지금은.

107064 @ 예, 예.

107064 #4 지금은 경헌디 옛날은 거 판이 셔.

107064 @ 게믄 아까 고장떡은 뭐우과?

107064 #4 고장, 고장떡은 영 즈은거게.

107064 @ 즈은 거를 고장떡이렌 헤여예?

107064 #4 손부리로 고장 닻지 아녀게. 영영 쪼끔 동글락허게 그것도 기냥 하나  
만 영허영 영허영 허질 아녀고 요만씩 허영은엿에 두 개에 헤여근에 그걸 마주 부  
쨌근엿에 허영 마주 부정 꼭 누르땡은에 영영영 헤가믄 바위가 그 뭇허게 말앙 그  
두 개 부쨌 거 알아지게.

107064 @ 예.

107064 #5 알아지게 쪼끔 튀나게꾸리 헤영 그 경 해나서.

107064 @ 응, 이제는 고장떡. 옛날에는?

107064 #4 아이 그것ㄴ라 고장떡게.

107064 @ 예, 고정떡 허영예, 고장떡에 물도 들여나수가?

107064 #4 물 들여나신디 우리 할머니넨 물은 안 들여반 원, 물 들인는 건 물은  
안 들여반 기냥 희게.

107064 @ 희게예?

107064 #4 희게 뽀으로만 고장ㄴ찌 손부로로 영영영영 즈앙은에.

107065 @ 게믄 하나씩 물어보커라예? 옛날 시리떡. 시리떡은 어떤 떡들 헛수  
가?

107065 #4 시리떡은 지금은 설귀엔 허는디, 그전에 시리떡은 침떡. 침떡은이 기  
냥 영 간 때 갈라 떡젠 기자 좁쌀 헤여근에 풋 영 거세기허영 친 것ㄴ라 침떡이엔  
허곡. 그것도 허연 허어나고. 이제 설귀떡이엔 헌 것도 건 상에 올릴 거. 상에 올리  
는 걸로 허영은엿에 징징이 풋 놓멍 시리에.

107065 @ 예.

107065 #4 경허영 짐작삼앙 박세기로 거려놓앙 풋 서경 허영 허민 그 우터레

딱로 영허영 짐작허영 혼 징씩 허갯구리 허믄 그 풋 그 거세기로 고물로 딱허게 갈라져게 부뜨지 아녕.

107065 @ 예.

107065 #4 풋 논 거. 경헌 거 해난.

107065 @ 계난 그 떡은 무신평?

107065 #4 설귀떡.

107065 @ 설귀떡? 상에 올릴 때도 풋 논 것도 올립니까?

107065 #4 풋 놓은 것도 올려나신디 옛날 어른덜은 경허연 부뜨지 아녀게 올려나신디 그 중간엔 그거 풋은 흐뎡 저 안 좋은 거엔 허영 방법이엔 허여근엔그냥 설귀로만 헛지. 옛날은 그 풋 그 부뜨지 아녀게꾸리 옛날 어른덜은 그렇게 해난.

107065 @ 예, 예, 예. 음, 대썸 낱은에 헤보지 안 허고예?

107065 #4 대썸은 시리떡 칠 때.

107065 @ 예.

107065 #4 칠 때에 그 시리에 읍에 부뜨민게 영 비우민 얼른 뒹허지 안 허여. 시리에 그 떡 친 걸 부뜨지 아녀게꾸리 영 처음에 영허영 허민 대 썸 영허영 놔근에.

107065 @ 시리 옆에 영.

107065 #4 읍에 영 세와.

107065 @ 아아.

107067 #4 시리에 떡을 부뜨지 못허게 그 대썸을 놔.

107065 @ 음, 밑에 깎는 게 아니고.

107065 #4 경 대썸도 놔놔고. 풋 아녀고 헛 때엔 대썸도 놔근에 그거 허민 설귀떡.

107066 @ 설귀떡 행예? 그치룩허영은에 이제 그 상에 이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송편도 허여마씨?

107066 #4 송편, 옛날은 송편을 안 허영. 송편으로 저 솔벤 절벤이엔 헛 거 들 반착 헛 거 허고 동글락헛 거 거세기 영 허여나신디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쉽게꾸리헤영 송편이지. 솔벤 절벤 대신 송편 혼 곳 아니게.

107067 @ 예. 예.

107067 #4 설귀떡허고 송편. 경허곡 흐뎡 뒹헌단 그 영 고장떡이라고 그거 허곡. 지금도 그건 허주게.

107067 @ 예, 예.

107067 #4 고장떡이라고.

107067 @ 지름떡 그거예? 그 다음 여기 빙떡도?

107067 #4 빙떡도 허영 허믄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적에 보믄 풋은 그 영혼에 흐뎡.

107067 @ 음.

107067 #4 반대 거세기라근엥에 저 무수. 채 썰엉이, 채 썰엉 그것에 양념 헤영  
팻ㄴ를이여 기냥 그 뉘 양념허영 우리 줍아 먹게 싱겁, 짜다 뉘허게 말아근에 양념  
허영 빙떡에 그거 놓곡. 풋은 먹는 건 허여도 풋은 그 붉은 거니까 영혼상에 올리  
지 아년덴 허영 몰라 그전엔 다른 디 어떻사. 우리 할머니네 경 허대. 풋은 영혼허  
고 반대엔. 반대난에 경허영 그 무수 채 썰엉.

107067 @ 음.

107067 #4 무수 채 썰어근에 양념 헤여근에 빙떡 돌아난.

107067 @ 음, 게든 그 빙떡 든 것도 상에 올려예?

107067 #4 으. 빙떡 채소 거세기난 상에 올려.

107067 @ 건 따로 안 올리고

107067 #4 딱로게. ㄴ치.

107068 @ 그 다음 상웨떡도 여기 헤낫구가?

107068 #4 상웨떡엔 그 밀ㄴ르 반죽헤영 그 이제 이제 빵침이 빵 푼는 것ㄴ라  
옛날은 상웨떡엔 헤여낫주게.

107068 @ 예, 예.

107068 #4 상웨떡게. 그것도 밀ㄴ리 반죽허영 부경. 부끄게시리 우의 무시거 반  
죽허영 우의 무시거 더끄곡 뜻은 옛날은 그 방 댄다이, 뜻은디 낱은에 허영 영 보  
명 부게기 부꺼가민 그걸 것ㄴ라 상웨떡엔 헤영 그거 헤나고.

107068 @ 그것도 올리는 거 아니라예?

107068 #4 거 올리주게.

107068 @ 상웨떡은 주로 어느 계절에 헤마씨?

107068 #4 아니 것도 먹썰일 때에 허는 집인 먹썰일 때에더 허곡게. 아무 때나.  
먹썰일 때도 허여.

107068 @ 식게 떡도 허고.

107068 @ 게민 상웨떡도 보면?

107068 #4 그것도 허영은에 지금은 질로지만씩 허영 다 이젠 쓸밥덜 떡곡 그런  
거 먹고 다 헐 때난 옛날은 이녁 반 안넌 제술 넘을 거 아니? 경허민 이녁 반 안넌  
동, 이녁 반.

107068 @ 예.

107068 #4 멧 집 헤영 반 안넌 다 그 반을 떡을 느봐나서. 옛날은 어려운 시절  
이난.

107068 @ 예.

107068 #4 서로 간에 경. 그 집의도 경 제스 넘어나민 경 서로간에 헤어나신디  
이젠 경 아녀난 상에 올릴 거나 허영은에 허곡 춤 초즈낙이 켜당덜 먹으레 오민 기  
자 영 내낱은에 입가심헐 거 그거 허염주기. 경허난 펜안허지 지금은.

107068 @ 예, 예, 예.

107068 #4 옛날은 이녁 반엿 사름신디 다 느봐난.



107068 @ 음, 경허민 떡도 하영 해야 되고요?

107068 #4 아이고 하영 허고.

107068 @ 그때 헐 때 상웨떡덜 하영 헐 겨우과?

107068 #4 경허연게. 경허연. 상웨떡이나 허여사 반 안네 매집의게.

107069 @ 예, 그러면은 우리 식게 때, 식게 헐 때 떡 올리는 떡 퀘는 순서 알아 지쿠과?

107069 #4 퀘는 순선 그거 그 풋 논 건 뒤희여근에 우리 옛날은 좁쌀도 허영 침떡엔 헤여낫주기. 좁쌀침떡. 그건 먹젠 경허는 거고. 초즈냐이덜 오랑 앓이민 심 심허영 앓이민 먹젠 경 역볼로 따로 허는 거고. 경 그 설귀떡은 춤 제숫상엔 그 풋, 풋이 그 풋은 무사 경 거세기 헐고 허민 지금 옛날은 사름, 동네에 누게 집안에 돌아가시민 풋죽을 써나지 아녀서게.

107069 @ 예, 예.

107069 #4 풋죽을 췌거든. 풋죽을 췌 허영 허민 이제 흐뎡 영 췌당덜토 영 사돈 침의도 옛날은 가제허민 장난 디 가젠 허민 죽 췌 허벽에 질언 땡겨나서 옛날은.

107069 @ 예, 맞아마씨.

107069 #4 죽 췌. 죽 췌 풋죽도 췌곡 흰죽도 췌곡. 경 상제마다. 상제덜 으라 집 의. 딸 씨집의서나 누게 어디 메누리 친정에서나 경허영 허민 흰죽이엔 허여근에 쓸만 낱 흐 허벽 질곡 풋죽이엔 허영 방법으로, 풋은 방법이난 경도 허영 가민 이 건 어느 상제 즈름에 왓젠 허영 어려운 시절이난게 헤영 맥이곡. 이 건 어느 상제 조름에 어느 딸상제 즈름이엔 헤연 맥이곡. 경허여멧 츠레 맥이는 거 우리 봐나신 디. 경헌디 이제사 경헬서게. 경 옛날 어려운 시절이난 경.

107069 @ 겨난 그 식게헐 때 삼춘 삼춘 아까 돌아강예, 맨 밑에 떡 올리젠 허 면 맨 밑에는 설귀떡 올리는 거 아니예? 멧 개 올려?

107069 #4 두 빗게.

107069 @ 두 빗 올려. 그 우의는 뭘 올립니까?

107069 #4 두 빗 올령. 그 우의는게 그 옛날식으로 헐 때엔게 그 술벤 절벤 그 런 거 거세기.

107069 @ 게문 술벤을 먼저 올려마씨? 절벤을 먼저 올려?

107069 #4 그 소량한 그 거세기 헤여사 절, 술벤은 들반착ㄱ라 술벤엔 허거든. 설귀떡 위에 그거 놓곡게?

107069 @ 설귀떡 우에 저 뭘 은절미?

107069 #4 으, 은절미.

107069 @ 아, 은절미 놓곡.

107069 #4 은절미 놓곡 술벤 절벤게. 세미은절미 하나에 다 경 퀘는 거 봐반.

107069 @ 하나에예?

107069 #4 설귀떡 놓민 그 우에.

107069 @ 차근차근 허민 맨 밑에는 설귀떡?

107069 #4 질 설귀떡. 그 다음엔 솔벤, 솔벤인가 절벤인가 너개반떡 모름으로 헛 거 그거 허영 영 퀘고 그 다음엔 저. 세미은절미.

107069 @ 예.

107069 #4 세미은절미 혼 거세기난 혼 색깔이난 경허영 허곡. 그 다음엔 지름떡 이어 무시거여 경허연 혼 상에.

107069 @ 혼 상예예?

107069 #4 하나에 경 해연게. 그것저것 옛날은 따로따로 못허연게.

107069 @ 맨 우에는 뭐 냐?

107069 #4 우에는게 그 저 무시거. 수꾸락떡이라고 싯주기 또.

107069 @ 아, 수꾸락떡.

107069 #4 이만큼 허여근에 허영 허민 수꾸락즈룩으로 영허영 허곡 영허영 허곡 두 밧디이.

107069 @ 예예.

107069 #4 그것도 허영 해나고. 또 지금은 춤 뭐 경 아녀 건디가 오래신디 옛날은 수까락떡이엔 허영 경도 허고. 또 저 병것떡이엔 허여근에 세미ㄴ치 쪼꼬만허게 이.

107069 @ 예.

107069 #4 쪼꼬만허게 허여근에 쉬 쪼폼 냐. 쉬 쪼폼 냐근에 영영 세미ㄴ찌 헛 거 아니? 그거 허민 요영 오그려근영에 똑 줍아놓민 그것ㄴ라 병것떡이엔 해여난.

107069 @ 병것떡. 게문 그것도 우에 놓곡.

107069 #4 그거.

107069 @ 손가락떡?

107069 #4 이. 손가락떡과 ㄴ찌 허영.

107069 @ 아, ㄴ찌 해영은에.

107069 #4 손가락떡 다음에 병것떡 우티레.

107069 @ 병것떡이 질 우티레 놓은 거라예? 그것도 식게 때도 그거 해여마씨?

107069 #4 식게 때도, 춤. 우리 뭐허도록은 그거 해여낫주기.

107069 @ 아아.

107069 #4 해여난.

107069 @ 삼춘도 멧 년까지 해여난? 멧 년도까지?

107069 #4 멧년도사 돼여신디 몰라.

107069 #4 그거 경 허여난. 요즘은 집의서 번창허난에 뭐허연 헛디 옛날은 다 집의서 켤당덜 오랑 떡허곡 다 해나신디 그걸 뭐허난 맞추왕 허여도 그걸 허여드렌 헛 해어나서.

107069 @ 아아 그거 해여도렌예.

107069 #4 떡집의서 맞창.

107069 @ 아아.

107069 #4 그거 헤어나니까 떡집의서 맞추왕.  
107069 @ 요즘도 그걸 험구나예?  
107069 #4 경허영 허는 집은 험디. 지금은 그것 저것 경 허는 디 엇어. 요즘은 다 설러두고 설귀민 설귀 그 송펜.  
107069 @ 예.  
107069 #4 그것만 헤어.  
107069 @ 이제는예?.  
107069 #4 이제는 그것만. 뭇이던지 간단하게 허염실 거라. 옛날ㄴ치 고려시대 그런 거 경.  
107069 @ 엇어예?  
107069 #4 엇어.  
107070 @ 게믄 그 집에 상 나면? 그때는 문딱 해야되는 거 아니우과? 상 난 때는예?  
107070 #4 어땡.  
107070 @ 돌아가실 때 떡들은 어떤 떡들을 허여?  
107070 #4 옛날은 고적이라고 지금은 부주로 다 쁘당덜터 나 헤나신디 옛날은 고적이라고 장 나민이 친축이나 누게 장냥 허민 지금은 돈으로 부주허니까 간단허 거든, 경헌디 옛날은이 떡 헤어근엥에 저 떡으로 고적을. 고적이엔 허여근에 부줄.  
107070 @ 부줄?  
107070 #4 떡으로 헤나가서. 장밧디서 일헌 사름덜 떡으로 멕여.  
107070 @ 게믄 그?  
107070 #4 경허영 허곡. 저 무시 거 물떡이엔 헌 건 세미 영 즈앙 쉬 낱 크게. 크게 물떡이엔 허영은에 그것 쉬정을 더 허연. 더 내놓넨 허는 거 들어나서.  
107070 @ 음.  
107070 #4 그거허고 또 저 그것ㄴ란 또 이제 잊어부러져. 그 물떡엔 헌 건 경 헤나신디 또 이제 저 너게반득허게 크게 아니 저 동글락떡. 동글락헌 것도 그 떡도 포부썩. 포부썩근에 그치록허연 그거 부주로 장밧디도 허여난.  
107070 @ 돌레떡?  
107070 #4 그거 동글락헌 거난 돌레떡이 맞을 거라. 돌레떡.  
107070 @ 그런 식으로 행근에.  
107070 #4 돌레떡허고 세미떡 닳은 건 큰 건 물떡이엔 헤난.  
107070 @ 물떡이랜 허고예? 예, 예. 그거면 장밧디 가면은 이제 그 나눠 주는 거라예?  
107070 #4 그거 허영 고적으로 받앙은에 장밧디서 일허는 사름덜 멕이는 거.  
107070 @ 게믄 고적허는 거는 친척들이 허는 거우과?  
107070 #4 친척게.  
107070 @ 뭇 촌까지 허여?

107070 #4 가까운 친족덜게. 식계멍질 먹으레 땡기는 친족게.

107070 @ 그런 사름들은 그걸 고적을 허는 거라예? 아까 설귀떡 허는 거는 곤  
촨로 허는 거?

107070 #4 곤촨로게 게. 곤촨로 허곡 풋 낱 부뜨지 아녀게 허는 거주마는 영혼  
은 풋은 비상이거든. 경허난 죽으민 풋죽을 썬근에 케우리곡 뒤헌데. 잡귀덜 풋은  
그런 뒤으로. 경허연 허어나신디 이젠게 그 풋죽 썬서게. 풋죽도 안 쓰고.

107072 @ 인절미 헐 때는 인절미는 아까 저기 믰말로만 헐니까?

107072 #4 으. 믰말로.

107072 @ 촨로는 안 하고.

107072 #4 믰말로. 믰말로 세미 은절미.

107072 @ 은절미.

107072 #4 쉬 놔근에 세미.

107074 @ 네모나게 헐 건?

107074 #4 은절미.

107074 @ 은절미 예. 그 다음에.

107074 #4 촨로 들반착허곡 동글락허게 허는 건 솔벤 절벤.

107074 @ 솔벤 절벤. 그 솔벤 절벤 헐 때는 혹시 슸으는 거우과? 아니면 어땡?

107074 #4 처.

107074 @ 청은에?

107074 #4 저 슸으민 그 알룬 거니까 꺼꺼져불거든. 세미 그튼 건 슸는디 그 촨  
로 헐 건 솔벤 절벤은 경허젠 허민이, 예.

107074 @ 예.

107074 #4 솔입 향이 경 좋거든. 솔입 과랑헌 솔입이, 그거 뽉뽉 뽉으민 다 벗  
어지게 뽉아져. 경허영 허믄 그거 허영 헤여당 ㄱ궂 확 데우청.

107074 @ 응.

107074 #4 데우쳐불어사 송진이 엇거든.

107074 @ 아아.

107074 #4 경허영 허믄 시릿징 놔근앵에 큰 슸에 시릿징 낱 허민 솔입 혼 처레  
허영 삭삭 서꺼근앵에 그레 떡 놓곡.

107074 @ 음.

107074 #4 또 그 떡 놓은 우터레 또 솔입 서꺼근앵에 떡 놓곡 경허영 허민 다  
쳐지믄 솔입차 물러레.

107074 @ 음.

107074 #4 냉수. 냉수레 영허영 등그민 그 솔입 트로 떡 트로 경허영 허믄 그  
츨 차롱착에 꺼꺼지지 아녀게 잘 헤여근앵에 경허고 허여난 거.

107074 @ 계난 친 다음에 잇으는 거라예? 혼번예.

107074 #4 잇영. 솔입에 헤어나부난 시청.

107074 @ 시청은에. 거기에 뭐 지름 부르거나 영은 안 해마씨?  
107074 #4 솔벤 절벤엔 지름 안 현디 동글락현 거엔 지름 불리는 거 우리 봐난.  
107075 @ 우에 고장떡에는. 게영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그 지름, 지름떡에 그 거 멘드는 거는 어떻게 헤여마씨. 거는 지지는 거우과 치는 거우과?  
107075 #4 처난.  
107075 @ 옛날에는 처난?  
107075 #4 처난. 것도 솔입에 난 처난.  
107075 @ 청은에 기름 불량 허고. 요즘은 지름떡들 다 저기 후라이팬에 허잔하 예?  
107075 #4 지름떡 후라이팬에 다 지점주기.  
107075 @ 예, 이제는 옛날은 그대로.  
107075 #4 그대로게.  
107076 @ 그대로 이제 행은에 만들곡. 그 다음에 혹시 삼촌도 당에도 텡겨봐마 씨?  
107076 #4 당.  
107076 @ 예.  
107076 #4 옛날 당?  
107076 @ 음.  
107076 #4 당에 이 아래, 요 이 아래, 이 아래가 아니고 어디고? 요펜이구나. 옛날 당 셔나서. 당 셔단디. 외도도 당 셔나신디 그 난 텡겨보진 아녀신디 당에 허여 근앵에 자꾸 뭐허곡. 아이덜만 쪼끔 아파도이 우리 보른 당에 텡기는 어른덜 볼 땐 우리 아인 때지게. 당에 텡기는 거 보른 큰 나무.  
107076 @ 음.  
107076 #4 큰 나무 허영은에 허민 영 돌로 쌓근에 사름 들어가지 못허게 잡 사름 들어가지 못허게 허영.  
107076 @ 예.  
107076 #4 쌓근에 허영 아이덜 몸에 부스럼지만 나도 아이고, 당에 강 와사키여. 경허영 허는 거 들어난. 경허연 메허곡 그디도 들레떡이나 무시거 허곡 지전 몰랑이, 지전 몰르는 건 그 돈ㄴ찌 옛날 그 저승돈엔 허주게.  
107076 @ 예예.  
107076 #4 그거 몰르곡 그거 허곡 기냥 또 지전 스는 거엔 허여근에 기냥 또 백지.  
107076 @ 예, 백지.  
107076 #4 백지 그 종이이. 그거 허영 가정 강 슬아근앵에 이녁 냥으로 기자 입 담허곡 경 허여난 이디도. 요, 요 해미안 그 이제 거세기현 디도.  
107076 @ 겨난 그 당 일름은 뭐우과? 여기서는.  
107076 #4 당 일름은 우린 몰르커라. 현디 그냥 당엔만 헤엿주게.

107076 @ 할망당예?

107076 #4 할망당. 할망당, 할망당게. 그디 강 빌곡 허난 할망당엔 허는 거. 저 할머님당에 강 와사켜. 주로 곶아난.

107076 @ 할머니당에예?

107076 #4 아이 부스럽지만 나도 그거 퀘로와도 그거. 옛날 지금이난 헛주기 옛날은 병원에 경 가지 아너곡 경 해놓난 마노라엔 헌 건 지금 그.

107076 @ 홍역.

107076 #4 홍역이지. 경허난 마누라 허영 혈 때엔 그 제게 그 뭐허렌 헤여근엔 에 저 풋. 풋 영 놓곡 허영은에 그 시리떡 청이. 이 머리맛디 놓는 것도 우리 봐나서.

107076 @ 아, 아.

107076 #4 그거 헤나른 제게 뭐허영 닥지 입영 뭐허렌 헌 뜻이엔.

107076 @ 아아.

107076 #4 경허영 일주일이나 메칠 그 혼이 뒤편가른 그거 그 떡을 죽장 놓는 것이 아니고 경허영 입담 허멍 그 뭐 헤난 그 다음엔 깨끗하게 곱게 헤여줍센 헤연 백시리 청은에 또 놓는 거 봐난.

107076 @ 옛날은예? 정성들을 그렇게 헛다예?

107076 #4 정성. 정성들을. 경허여도 홍역 허당 가는 아이덜이 하낫주기, 옛날은.

107076 @ 맞수다.

107076 #4 병원에 안 텅겨부난. 병원이 엇어부난, 침이나 맞치곡 기자 춤 심방 허영 빌기나 허곡 헛주기게.

107076 @ 맞수다.

107076 #4 경허난 헌디 지금만 조그만 감기 기운 헤도 병원에 들고 이 즈음은 아이덜이 무정허게 크는디 옛날은 요 해미안 요디도 저 그 어린 무덤덜이 경 하낫젠 헤서.

107076 @ 아아.

107076 #4 그디 기냥 이 목요탕 짓기 전이 그디 그 막 뭐헌 디가 셔낫주기. 겨난 그디도 천지고. 또 이제 외도 이 내.

107076 @ 예, 예.

107076 #4 내로 우터레 올라간 디, 짐동산엔 헌 디가 있어. 짐동산, 짐동산 헌 디, 그디도 맨 아이 무덤.

107076 @ 음.

107076 #4 옛날은 그런 거세기가 한게. 병원에 안 가근에 그런 홍역허당 가부는 아이들이 한. 그디도 하난디 이젠 그것저것 그디도 싹 허연 밀어볼곡.

107076 @ 예.

107076 #4 이디도 경헤연 저 허여볼고, 경.

107076 @ 계난 삼촌네는 당에도 안 가고. 집에 심방 빌영은앵에 뭐 곳해보거나 영 해보진 안 험디가?

107076 #4 아니 저 우리 집윗 아방이 옛날 그 차 탈 때난 옛날 시절에 차 탈 때난 저 찰 거세기, 질 이 동네선 질 므녀 운전을 해신디. 그 우리 결혼허기 전의 군대에 가신디 군대에서 차 탄에 운전을 배우난 군대 면허증을 허연.

107076 @ 예.

107076 #4 면허증을 허연 제대해온 이디 오난 군대 면허증이 시난 면허증 따기가 쉬완.

107076 @ 예.

107076 #4 쉬완에 면허증 허연 관광. 옛날은 웃동네 절물이엔 헌 디 서.

107076 @ 예, 예. 절물.

107076 #4 그디 전분공장이 셔나서. 크게 전분공장. 시로 이렌 그 전분공장이 질 커낫주기게.

107076 @ 예.

107076 #4 계난 그디도 차, 거기 차 스리뛰타에 헌 거 그 추럭 쫓꼬만헌 거이. 스리뛰타엔 헌 거 그 공장에 시난 그거 타신디. 공장장이 좋은 어른 만난 막 오라, 오라 경허연 그디 차 타단에, 이젠 또 저 신진관광은 관덕정 이펜이 휘사가 셔 나서. 그디 차 타근에 저 도일주이.

107076 @ 음.

107076 #4 도일주 소님덜 시경 경허곡 경허명 허단, 어떻허연 집안이 안 좋젠 허난에 니가 알런게.

107076 @ 음.

107076 #4 니가 알런에 막 허난 흐뭇 춤 뒤희연. 어려운 시절이난 경허연 허난 이젠 치과에 가난에 저 시에 그 중앙로 아래 제주치과엔 헌 디 셔나서. 서구, 저 북 국민학교 우넉펜이.

107076 @ 음.

107076 #4 제주치과 셔난디 그디 헤연 가난 니 곱곱허난 알리난 니 빠줍센 허난에 “못 빠젠” 허난 죽어져도 좋난 빠줍센 허난. 누게 보증을 앓이렌 헌 생이라. 우리 죽은 이발소에 땡길 때난에 이제 아시신디 간 느 영영 허연 보증앓이렌 허난 아시도게 겁난 나 죽어도 좋난 보증만 앓아드렌 막 허난 흘 수 웃이 성이 경 글으난 보증을 앓안에 허연 닐 이젠 뻥 거라. 뻥 허난에 그 알리는 건 덜 허여신디 동티로 경헌 걸 몰란.

107076 @ 음.

107076 #2 닐 뻥, 거 생니를 뻥 거지, 츄츄츄츄 아귀턱이 내려앉아부런게. 요만 이 입이 못 벌견. 못 벌견 허난 무신 거 죽을 써고 그자 영 거려 먹지 못허고 후려사 먹고. 밥을 해도 물에 즈양 국에 즈양 경허연 해낫주기게. 경허연 허난 그 혼이 웨연산디사 어딜로 춤 거세기사 해신디 우리 씨어머님넨 시에 그 한내 요 서넉 편

이 서국민학교 뒤에 살아신디.

107076 @ 예, 예.

107076 #4 넘어 가는 어른이 아메도 우리집의 아방이 큰아덜이곡 허난 할망이 스몯 걱정 근심을 헤여신ㄴ라 질긔집의 여름이난 산 그레 젓억 저레 젓억 근심 걱정 헤여신ㄴ라 어떤 노인네가 여즈 어른이 넘어가단 혼이 웬 쟁이라. 넘어가단 이디 흐뎡 잇들에 흐뎡 그늘에 흐뎡 쉬영 가쿠다. 경험센 우리 씨어머님이 헛젠, 영허영 시난 우리 씨어머님이 걱정 근심이 딱 시난. “아주머닌 걱정 근심이 싹구나양” 허난, “싹수다.” 경허멍 허난 “손그릇을 보게마썸” 헤렌. 경허연 손그릇을 봐줍센 허연 보난에 저 이 아픈 사름, 그 이제 큰, 아주머니 큰아덜 이제 당헌 할머니 산을 천리헤보민 알을 드레가 실 겨우덴. 경허난 “아이고, 경허우젠” 우린 경우 오래 경 아방이 경헤불곡 아이덜 어리고 허연 허난 춤 그때도 놈의집 빌언에 살 때라. 우리 집 아방이 관광 시에서 살단 이디 와서. 돌아댁길 때엔 그 화토 잘 치곡이.

107076 @ 웃음.

107076 #4 막 경헌 걸로 벌영오라도 경 문 디밀아불영은에 아기덜 생각도 아녀곡 경 안 헤시민 우리 시에 살아실 건디. 나 우리 셋아지방은 시에 살암서게. 경헌디 나 어린 때 우리 족은 아버지네광 살 때는 아버지, 암만이라도 못 살쿠다 나 이디 방 흐나 빌어줍센. 족은아버지가 방 빌어진 경허렌 아기덜 들고 우로 씨어머님 신디 강 암만이라도 못 살쿠덴 허고 우리 셋덜만 어린 것만 업어 와전 왓주기게. 오난에 우리 씨어머님은게 아덜찌레 속숨헤여게. 집의 와서난 “막 기냥 손지 보게 웨여시넨 막 기녕 뉘 허연 허난 춤 돌아아전 기어들어놓난에 우리 족은아버지가 경 곧는 거라. “놈으 서방이란 웨도 못허곡이 뉘헌다. 어떻 허느니 느 팔즈가 살아사 허주기 아기덜 보는 게 살라, 살라.” 허연 춤 살아신디 어떻 어떻 전분공장에 차 타 멩도 뉘허연도 베에 또 좋아허영 개올레 드리 아래 베 타는 디 구경가곡 허단. 베탕 나가 벨 타지 못허연 이녁 차 타단 건 전분공장에 다른 사름 면허춤 타게꾸리 허연 ㄴ리천 이젠 허연 쥐두고 벨 탄 거라게.

107076 @ 아.

107076 #4 베 탄 배에 경 뎡기멍, 아이고, 잘 즈들환. 경허영 헌디 그 어려운 시 절이난에 아귀톡은 구완 잘 맞으로 헌 거난 잘 거세기 못 허연. 허연 헛단에 그 우리 씨어머님이 경허난 스춘덜ㄴ라 느네도 할머니난 어떻 허느니? 모다들영 느네도 조상이난 천릴 헤여살 거 아니가. 그집원 아이덜이 때 굽게 웨부난 그 집원냥으로 우리 스춘 씨아지방 우리도 경허민 경험주게. 성님 경허는 거 경험주겐. 스춘 씨아지방 모다들영 천릴 허연 보난에 그 식으로. 처음엔 요 트가리 조훼로게, 불고롱헛단 아이고 아이고 그것이 츄츄 웃어졌단 웃어졌당 자꾸 그치룩허연게. 경허난 조훼로 경 헤염젠 보난 천리헛 보난 아닌케 아니라이 돌세기 하나 특허게 트가리 새각 비환 경 허엿젠. 돌세기도 새각 비환 그레 등그러왓젠. 경허난 하관 시간이랑 즈손덜 돌 잘 좃으라, 돌 잘 좃으라, 경헤연 헤난 쟁이라게.



107076 @ 예, 예. 그때 허영 굿 험디가?

107076 #4 경허연 나그네도 자꾸 거세기 허연 굿도 허고이, 막 경 허여난.

107076 @ 음.

107076 #4 경허곡 천리허곡 허난산디사 낮안 그르후제 또 배에 텅기고 허단 돌아가선.

107076 @ 예, 게난 굿헝 때 떡들은 어떻 거 험디가? 굿떡은 어떻 험디가?

107076 #4 굿떡은 그냥게, 그냥 돈으로 메견.

107076 @ 아아.

107076 #4 메견. 놈으 집 살아놓고 허난 아이덜 어리고 허난 나가 흘 수가 엇이나 돈으로 뭉허커매 알아근에 허연 허고. 그것도 그것고. 저 그 흐뎡 숨쉬영 살렌 허젠 허난산디사 자꾸 저 동문로타리 그 동더레 가민 사라봉 앞의 사라봉 잇지 아녀.

107076 @ 으.

107076 #4 그 앞의 보살이 살아신디. 그 보살 저 셋어명인가 누게 우리 친구라 나서. 요동네 사느디 이 보살이라고. 경헝 이젠 경헌 말 곱으난 우리 친구가 우리 조케안티가 들어보렌. 간 들으난 경허고 저 경 헝 수가 엇영 어떻 허영 허느니 경허명 그냥 와서게. 온 디 흘 메칠 시난에 저 우리 그때도 놈의 밧거리 살 때주기. 경허연 완에 “이수강? 이수강” 허영 보난 가난 보살이라. “아이고, 어떻 허연 완딘 허난?” 아척이 새벽 꿈에 지네 조상님이 아명 아명 헝 딜로 가보니 알 드레가 실 거옌 허영 오그렌 오난. 흐변 와나지도 경허난안 헝 사름이 그 보살이 완. 이 보살이 경헤연 완. 그 문전에도 빌고 이 해미안 아래.

107076 @ 예, 예.

107076 #4 글로 간에 글로 간 바당으로 허연에 잘 뭉시기 허연 헝디, 그것도 춤 몰르텐 헝 수가 엇이커란게. 경허난 막 무시거 허연 이젠 허연 막 빌고 막 허연 허단에, “청춘에 죽은 영혼이 집안에 시넨?” 경허여. 경허난 그 전에 우리 씨어머님 허는 말이 씨고모가 절혼도 못허고 씨누이가 나가 들어나서. 경허난 “우리 씨어머님이 영영 헝 말은 곱아났수덴.” 경허난. 그 청춘에 죽은 영혼이 이제 뭐 허연 허난 그 상에 잘 허렌 헤연 허난. 옷이라도 허영 성의껏 허영 흐 불 허영 잘 고운 걸로 헤당은에 슬아내렌 우리 스춘 아시그라 경 곱으난 우리 씨누이가 옷 장시 험니덴. 게건 곤 걸로 상 오렌 헝 보낸 놘두난 씨누이가 그런 장시 허난에 그런 디 쓰는 그 옷을 풀안, 허연 폭난에 이 곤 걸로 그런 영혼은 이런 물색 거 곤 거 이런 거 헝덴 허여렌 허명 아전오란. 그 거세기로 이젠 나가 헤연 그 상에 막 허엿어게. 그 상에 허연 허영 허곡 그럭저럭허난산디 츄츄츄 낮안게. 경허는 거 보난이 그냥 공동 먹는 것도 아니란게. 그때 보난.

107076 @ 예, 맞수다. 그런 사람들도예? 음.

107076 #4 경허연 낮안 그르후제 춤 살단 뭉 허연.

107078 @ 알아수다. 게른 우리 보통 집에서 그냥 일반예 먹을, 먹젠 허영 멘드

는 떡들은 어떤 거 있어마씨?

107078 #4 기일 제스 때에.

107078@ 아니, 기일제사 때라도 아니면 보통 평소라도.

107078#4 평소에 경 떡은 경 허영 먹어져게.

107078 @ 뭐 속떡같은 것도 하고.

107078 #4 썩 캐여당 썩 버무리라고이.

107078 @ 음.

107078 #4 기냥 떡 멘들질 아녀고.

107078 @ 아아.

107078 #4 썩 솥앙 물에 썩 쓴 거 우려뒀은에 딱 쟈질앙 썰어놔근엔에 그냥 밀  
가루나 무신거에 삭삭 버무리, 시릿징에 낱 청 허민 그것이 썩버무리.

107078 @ 음.

107078 #4 그걸 허연 또 심심헌 때에 영 먹어나고.

#### 소와 고물

107079 @ 썩버무리헤영 먹고예? 예, 혹시 이제 그 떡 할 때 그 쉬로 놔난 거는  
어떤 것들 놔마씨? 주로. 쉬 놓는 거.

107079 #4 쉬 놓는 건게 썩쉬게.

107081 @ 썩쉬밖에 안 놔. 따른 건 안 놔?

107081 #4 썩쉬.

107081 @ 썩쉬가 주로예. 예.

107081 #4 그거 쉬운 걸고 썩 솥앙 썩 썩앙 썩쉬.

107081 @ 속에 놓는 것도 썩, 밖에 징허는 것도 썩.

107081 #4 썩게.

107081 @ 옛날에 떡 치젠 허면 허지 말라 이런 말도 잇엇어예? 떡 칠 때 아무  
디나 막 들어오지도 말렌 하고.

107081 #4 경 게메. 떡 거세기 허는 건 붉은 썩은 방법으로 먹썰일 때에 제에  
올리는 거는 안 허주게. 아녀근에 이녀 춤 뭐 헌 때난. 옛날은 어려운 때난 보리떡  
보리떡 봄 나민 보리떡 허영 이 춤 동네에 돌령 허민 거 무사 헤신고 허민 우린 아  
녀봐신디 우리 친구 어명이 그걸 허영 허민, 혼 징에 보리 얼마?

107081 @ 음.

107081 #4 혼 징에 보리 말가웃. 경허영 허민 어려운 시절이난 그거 부주 정동  
이 가정 먹젠 헤도 혼 징을 못 먹어. 반징 허민 보리 돼싱 석 돼. 경허명 옛날은 어  
려운 때난이 보리떡도 동네 돌려근에 그것도 허영 사 먹어나고.

107081 @ 음, 게난 보리 썩은에 떡을?

107081 #4 경허민 보리철 나민 그거 그자.

107081 @ 아, 보리 바짜 먹은 거라예?

107081 #4 바짜 먹은 거주게. 혼 징에 말가웃씩. 경허영 현 적도 셔난. 경 아녀 민 떡 먹을 거 거세기가 엇엇주게.

107081 @ 예, 예, 예. 맞아, 맞아. 떡도 맨 마지막에 만든 떡은 먹지 말렌 현 거 도 잇어예? 아이들은?.

107081 #4 그건 잘 모르커라. 먹진 말렌 현 건.

107081 @ 그런 거는 모르고예? 그 다음에 시리떡 혈 때 무사 그 부정탄덴 허는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가?

107081 #4 시리떡 혈 때 부정탄 덴 허는 거는 젊은 사름덜 몸 곳인 때. 경

107081 @ 그런 건 잘 모르고예?

107081 #4 문직지 못 허게.

107081 @ 문직지 못허게.

107081 #4 젊은 사름덜 뭇혈 때 문직지 못허게 허고. 어디 아니, 장난 디 그런 디 강 온 뎀 제스 먹으레도 아니 오주마는 경 흐끔 그런 정성 셔낫주기.

107081 @ 예, 알아수다, 삼춘, 오늘랑 이만큼 허지예? 지청은에.

107081 #4 지침이사 무슨.

107081 @ 시간 하영 똤엇수다.

107081 #4 저 시계 뭇 허연. 저 시계 안 맞은 거. 약 떨어전.

107081 @ 점심시간. 삼십칠분. 점심도 먹어야 허고.

107081 #4 혼시 삼십칠분.

107081 @ 오늘날 이만큼허쿠다. 웃음.

## 별식

107082 @ 어제 이영예 음식헌 거, 여기 그 수에? 수에 멘드는 거?

107082 #4 순대.

107082 @ 으, 그, 여기 수에 허잖아예? 옛날에. 그 수에 멘드는 과정 혼번 곱아 쥐봅서? 삼춘.

107082 #4 그건 뭇 옛날 우리 할머니적에 우리 어린 때 보문 이 보리쫄 영 곱 앙 조금 흑게. 흑게 곱아야 것이 똤덴. 경허영 그것에 똤야지 잡으민 피이 그거 받 아근앵에 그것에 셔건.

107082 #5 똤지 피에 창자에 그거주 무신.

107082 #4 그것에 영 답아. 경허난 똤야지도 큰베설 작은베설 잇거든. 경허난 그것에 작은베설에 담은 건 깃늘고이 큰베설에 담은 건 보기 좋게 흑곡 경허연 잔 치 때에 대소상 때에 그것도 영 옛날, 지금은 순대민 순대대로 고기민 고기대로 영 허영 먹고픈 사름 순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옛날은 똑 고기 석 점. 순대 혼 점 가 운데로 영 놓곡 옛날은 경 해난.

107082 #5 두부 두 점 놓곡.

107082 #4 두부도 두부 경허곡 경헌디 그 막 옛날 때 우리 어린 때 보문, 그 그

특게 사라에 놔도 복잡헨사 것산디 사라가 웃언 것산디 그건 어린 때라부난 물론디.

107082 #5 꿩영.

107082 #4 꼬지에 꿩영 밥그릇게 꼭꼭 질렁.

107082 @ 으음.

107082 #4 그릇을 안 썩. 그 고기, 고기 석 점 순대 혼 점 영 꼭 꿩영 그 밥그릇더레 꼭 찢러근에 경허난 간단은 허지게.

107082 @ 게영 그치록 썩 꿩기는 무신 꿩기렌 험니까?

107082 #5 돼지고기.

107082 #4 돼야지꿩기에 순대.

107082 #4 고쟁이에 썩 거.

107082 @ 음, 그런 식으로?

107082 #4 돼야지꿩기게 꿩여근에.

107082 #5 우린 그거 안 봐뵤.

107082 @ 아, 삼춘은 안 보고예?

107082 #5 우리 이 시 관리에선 그런 거 허지 아녀서.

107082 #4 옛날 우리 할머니적에 경.

107082 #5 농촌디레 가민 경헛주 이렌 경 안 썩. 그릇에.

107083 @ 둠비도 직접 썩들어 볶디가?

107083 #4 옛날 어른덜 말이 아덜 결혼시경 메뉴틸 허면 예, 그 어떤 의미지 건 모른디, 에이고, 둠빳물에 손 댄 메뉴리.

107083 @ 음.

107083 #4 손, 둠빳물에 손 댄 메뉴리 그걸 경 귀중허게 생각을 현 것 닐아.

107083 @ 음.

107083 #5 잔치 혼번 허젠 허민.

107083 #4 꼭허게 꼭 둠빳 헤여사 허니까. 경허곡 둠비 헤난 주시 짜놓믄.

107083 #5 갈라 먹엇지.

107083 #4 우리 어릴 때 바구리 헤영 사발 하나 들이치곡 행영은에 들이 땡기 명 영 거리민 혼 사름은 사발 가정 강. 그것도 음식이라고 받아먹고 놔뵤 먹젠 그런 것도 셔난.

107083 @ 게난 그 둠빳주시를 여기선 뵤렌 곱아낫수가?

107083 #5 비제기.

107083 #4 비제기.

107083 @ 음, 비제기, 예.

107083 #4 또 그것도 세 멀리 사름은 못 썩 허지. 경허믄 아이고, 비제기 혼 그 특에 어려왕 영현 말도 나나곡. 또 이제 옛날 어른 말이 둠비 사례 갓당 말이 고마 우믄 비제기도 상 와나ㄴ렌.

107083 @ 둠비 사례 갖당?

107083 #4 으, 말이 고마왕 비제기도 상 오고렌 경.

107083 @ 음, 비제기도 상왔다고예?

107083 #4 비제긴 잘 아메도 풀진 못헤난 생이라. 경허난.

107083 #5 사질 안 해낫지게.

107083 #4 말이 고마우민 둠비 사례 갖당 아, 이것도 사 네살로구나 허영 사와 난 뵈이 신 생이라. 그런 거 속담이 있어. 어른들 곤는. 둠비 사례 갖당 말이 고마우민 비제기도 산 오란 경.

107083 @ 예, 둠비 만드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헤영 만들엇수가?

107083 #5 옛날은 콩을 물에 불려. 경허영 ㄱ레에서 그물 나온 거 짜. 짜가지고 그 물을 끓이른 두부가 뵈지.

107084 @ 음, 그 다음에 모멸목예, 여기. 모멸목은 어떤 식으로 행은에 만들안?

107084 #4 ㄱ멸목은 ㄱ를 곱앙.

107084 #5 ㄱ물 곱아단. 풀 쭈듯이 썬지. 풀 쭈듯이 썬.

107084 #4 ㄱ를 곱앙 물에 타근에 배수기로 이렇게 젓으멍 경 썬.

107084 #5 풀 쭈듯이 썬 놔두민 튼튼행영 목이 뵈지.

107084 #4 경허른 그거 거렁 옛날은 그 도고리라고이, 남, 나무로 현 판 도고리.

107084 #5 옛날은게 다 낭으로 뵈 거만 써시난.

107084 #4 그것에 영허영 거렁 놔두민 트랑트랑 얼리우민 영 뵈여.

107085 #5 청목은 또 그냥 메밀쌀로.

107085 @ 음.

107085 #5 쌀로 물 컷당 그거 짜가지고 썬 게 청목.

107085 @ 음, 청목 잇고 ㄱ멸목 잇고예? 어, 게른 청목이나 ㄱ멸목은 언제 썬는 겨우과?

107085 #4 덕썰일 때에게.

107085 #5 저 뵈 제사 때나 뵈 먹을일 이신 때만.

107085 #4 제스 때에게. 그것도 어려와근에 춤 경 특별헌 제스 때나.

107085 #5 잘 사는 집의난 청목까지 헤실 테주.

107085 #4 멩질 때나. 옛날은 청목이 어려완. \*\*\* 목 썬.

107085 @ 예.

107085 #4 ㄱ멸 갈아근에게.

107085 #5 잘 사는 집의난 청목까지 헤실 테주.

107085 #4 잘 사는 집도 옛날 그런, 헐 충도 몰란 못헐주. 청목은.

107085 #5 경헤도게 옛날은 그게 내려왔수게. 쪽.

107085 #4 그 ㄱ멸, ㄱ멸은 칠월 나사 또 갈곡.

107085 @ 예.

107085 #4 가는 철이 또 따로 잇어.

107085 @ 가는 철이예? 여기도 ㅁ멸 하영 갈았수가?  
107085 #5 하영, 아니.  
107085 #4 이제는 잘 아녀.  
107085 #5 저 동쪽디레나 가야 많이 헛지. 이짜 더렌.  
107085 #4 이젠 아녀, 아녀.  
107085 #5 그 농사가 안 되는 지방에 ㅁ멸을 갈주게. 왜나면  
107085 #4 막 산중에.  
107085 #5 토지가 안 좋양은에 초벌 이제 조나 콩이나 그런 거 해 놔두민 잘 안 돼영 잘 나지 안 허던가 경허른 그 자리에 매말째 갈았거든.  
107085 @ 음.  
107085 #5 ㅁ멸은 매 나중에 뭐 해서 안 쉐 자리.  
107085 #4 나록 대신 산디라고이.  
107085 @ 예.  
107085 #4 밧디 가는 거 산디. 그런 거 같아나고 밧디. 쓸은 우리 나록쫄 ㅁ썸 쫄은 허는디 논에 나록은 심으는디 산된 밧디 같고.  
107086 @ 예, 혹시 개역은 어떤 개역덜 헤먹엇수가?  
107086 #5 보리 보깡게.  
107086 @ 그 개역 허는 거 흐뵂 과정을 곱아줍서?  
107086 #5 보리 그냥 보까. 솟 마강.포망가정근에 잘 안 돼곡 놀곡 허는 솟디서 보까, 보리를 보까가지고 이제 그걸 곱아.  
107086 #4 맏돌에 곱지.  
107086 @ 음.  
107086 #5 곱양 그거 체로 쳐가지고 그걸 개역엔 허영 먹엇주게.  
107086 @ 개역은 주로 어느 철에 헛수가?  
107086 #4 여름에, 여름에.  
107086 #4 여름에 밧디 강 왕, 밧디 강 왕 더우민 개역 카근에 혼 사밭 싹 먹으민 아이고, 씨원허다 경 허곡 경.  
107086 @ 물에 강근에예? 혹시 옛날에도 지짐이덜 헵 먹어수가?  
107086 #5 예.  
107087 @ 지짐이 어떤 지짐이헤연 먹언? 삼촌.  
107087 #5 어뵂 지져. 그거야 뭐 반죽허영 솟두썸 가르쳐놔 웃음 그계 지짐이 헵 먹엇지. 이제 허는 식이나 마찬가지지 그건.  
107087 @ 삼촌, 어떤 지짐이 헤연 먹언?  
107087 #4 지짐이도게 그식, 그식. 옛날은 다 그 식.  
107087 @ 여기 밀도 가난예?  
107087 #4 밀 갈아나난.  
107088 @ 혹시 오메기술도 헤난마씨?

107088 #5 오메기, 오메기술.  
 107088 #4 오메기, 그 흐린좁쌀, 흐린좁쌀 곶양은앵에 떡 쟁 경허영 오메기떡  
 그거 허영.  
 107088 #5 떡을 막 크게 만들어. 가운데.  
 107088 #4 가운데 고망 딸루민 그 물로 글로 영허영 가운데도 잘 익고 허렌 고  
 망 딸른 거 닳아. 경허영 허영 허민 그걸로 막걸리도 만들고.  
 107088 #5 물에 이제 누룩엔 현 거, 그거 낱 쩌.  
 107088 #4 그거 낱.  
 107088 #5 놔두든 부글부글 꿰주게. 그계.  
 107088 #4 게문 막걸리.  
 107088 #4 막걸리 거치록 그계 드끈 곶라얏으민 청주엔 허곡.  
 107088 #4 남즈 어른덜 어디 춤 일허게 강 왕 그거 흔 사발 짝 먹으민 아이고  
 좋다 경허곡.  
 107088 #5 요즘도 오메기술 오메기 술 허주게. 텔레비전 보든 오메기술 오메기  
 술 허는 게 그거.  
 107088 @ 오메기로 만들앙 허는 거라예? 그 오메기힐 때는 좁쌀은 어떤 좁쌀로  
 했수가?  
 107088 #5 흐린좁쌀계.  
 107088 #4 흐린좁쌀, 꺼문 흐린좁쌀.  
 107089 @ 꺼문흐린좁쌀예? 예, 어제도 했주마는 쉰다리?  
 107089 #4 쉰다리 밥 쉰 거.  
 107089 @ 음.  
 107089 #4 여름에 지금은 냉장고도 식곡 밥통에 늘 놓난 쉬는 버릇이 엇주마는  
 옛날은 밥허영 남으민 그냥 놔똥 밧디 강 오민 쉬거든. 경허문 그것에 누룩 놔근앵  
 에 보객이 꿰든 경 쟁걸로도 떡곡 아이덜은 쏘앙 쥬 떡곡 경 해난.  
 107089 @ 음, 게난 옛날에는 쉰다리를 하영 해서예?  
 107089 #5 우리 하르버지 매일 헨 그거.  
 107089 #4 그거 주장계 옛날은계.  
 107089 #5 우리 하르버지 술은 아니 먹으난 쉰다릴 그치록 좋아헤여. 맨날 쉰다  
 리.  
 107089 #4 지금 ㄱ뜨민 여름 ㄱ뜨 거 놔시민 더 씨원허지마는 그런 거시기가  
 엇엇거든.  
 107089 #5 겐디 기냥 먹은 것이 좋은 거라. 너무 차게 먹으민 설사 나잖아.  
 107089 @ 으음.  
 107089 #5 겐 그계 좋앗던 거 같아.  
 107089 #4 경 하영 놔계?  
 107089 #5 아니라.

107089 #4 그런 것두 어려워, 옛날은.

107089 #5 두루 켜 것 먹으면 아이덜도 설사 나곡 헛거든. 차지 안 현 것이 존 거 닳아.

107090 @ 그게 요즘 발효식품에? 음, 소화도 잘 되는 거. 그 삼춘, 누룩은 어떻게 만듭니까? 누룩 만드는 과정을 쪽 글아줍서. 한번.

107090 #5 누룩은 보리 영 글민 그 스테기가 나와게. 경허민 그런 거 허영 그를 에 서겨진 거 그거 허영은에 찌영 돌레떡그치 동그랴게 허영 티왕 경허영 누룩.

107090 @ 그렇게 허면 누룩 돼고예?

107090 #4 그런 걸로 허영 그.

107090 #5 건 기냥 영 뭐 쳇망 같은 것에 이만이 현 것에 그냥 꼭꼭 눌렁 놔두 든 그게 누렇게 저 뭐가 돼주, 발효가 돼주게. 경허민 그걸 바삭 말려. 게영 그거 놔둬서 이제 쉰다리헛 때도 그거 농곡.

107090 #4 게도 잘 터야.

107090 @ 음.

107090 #5 곱게 잘 터야.

107090 @ 게난 그 누룩에도 허면 영 곱쟁이들 이런 거 나잖아예? 어떤 곱쟁이가 좋은 거우과? 누룩에.

107090 #4 흰곱쟁이가 좋지게. 아멩헤도게.

107090 @ 아아.

107090 #5 푸리릉헌 것이 쪼끔씩 쪼끔씩 나와.

107090 #4 경헤도 경 나쁘지 안 허여.

107090 #5 푸릿푸릿헌 것이 쪼끔씩 쪼끔씩 나오주게.

107090 @ 음.

107090 #5 그거 경허민 누룩으로 쓴 거.

107091 @ 예, 그 다음에 옛날은 몸보신 허젠 옛덜도 하영 다깡 먹어서예?

107091 #5 옛?

107091 @ 으.

107091 #5 으, 우리 할머니 남편날엔 현 날이 무신 날산디, 날이라. 그날 돼민 꼭 옛을 만들더라고.

107091 #4 남편날 춤 일년 열두 둘에 흥번게 남편날엔 헤근에.

107091 @ 음.

107091 #5 뵈날인지 몰르커다.

107091 #4 감주 헤영 짜근에 그걸 막 즈끄민 옛이 돼영 경.

107091 @ 예, 게든 그 옛 만드는 거 밥헛 때부터 행은에 쪽 그 과정을 흥번 말 헤줍서? 할머니 어떻게 헛디가?

107091 #5 만약 이제 줍쌀로 그게 이제 그냥 바상 물르게 아녀고 쉼죽그치록 행 우린 헤서. 그게 너미 뜨거운 때 말고 흥끔 식으론 그 곱그를을 놔. 게영 젓영



놔두면 그게 좀 부그락한 기가 있어. 올라오는 기가. 경허민 그땐 그걸 걸러. 계영 걸른 물을 냥 막 끓이든 옛 돼는 거.

107091 @ 음. 계영 그.

107091 #4 감쥐.

107091 @ 감주예?

107091 #5 옛 돼기 전엔 감주로 먹는 디 옛을 헐라든 그걸 막 오래 끓여. 경허민 옛 돼는 거.

107091 #4 거 짜사. 주시 걸러두고.

107091 @ 예.

107091 #5 걸러, 게메.

107091 @ 음, 게문예, 그거는 그냥 흔 가지만 현 거잖아예? 뭐 거기에 고기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 엇어마씨?

107091 #5 아, 그런 거 엇어.

107091 @ 아, 그런 건 안 헛수가?

107091 #5 경헌디 우리 할머니는이 그때 꿩이나 닭, 그런 거 허영 냥 허여주더라고.

107091 @ 음.

107091 #4 꿩 그든 거 놓든 거 좋덴 허주기. 닭보다는 꿩은, 닭은 이 풍징 신사름도 안 좋고, 독 안 먹는 사름덜이 시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경허난. 꿩이 좋덴.

107091 #5 경 또 어떤 땐 속폴리렌 돼지고기도 냥 허곡.

107091 #4 돼지고기 논 건 속 폴리렌. 흐끔 지름기가 시난 흐끔 늣삭허지. 경 허연.

107091 #5 겨문 무사 돼지고기로 햄수젠 허민, 이거 먹어사 속이 풀린다. 옛날은 고길 자주 못 먹엇잖아.

107091 @ 예, 예, 예.

107091 #5 경허니까 이런 거 냥 해야 속이 풀린다 허멍 할머니가 해쥬 먹어난 알아져.

107091 @ 음, 게문 그때 엇헐 때는 줍쓸은 어떤 줍쓸로 헛수가?

107091 #5 것도.

107091 #4 흐린줍쓸게.

107091 @ 것도 흐린줍쓸?

107091 #4 검은 흐린줍쓸. 그걸로 밥 허여근에.

107091 @ 음, 게난 옛날 어른들은 전부 그 생활 속에서예, 다 헐. 삼춘, 남평날이 언젠지 알아지쿠과?

107091 #5 몰를 커라. 그거. 남평날, 남평날엔 헐에.

107091 #4 남평날엔 말만 들언.

107091 @ 예.

107091 #5 그날이 어느 날인지 몰르커라. 일년에 혼 번이라. 딱.  
 107091 #4 남평날에 옛 허영 허는 건 거 약재로 헌 생이라. 남평날은 약재로.  
 107091 #5 뭇 날인지 그거는 생각이 안 나, 남평날엔만 들었지. 뭇 날을 두고  
 그걸 곱아신디 모르커라.  
 107091 #4 게고 아이덜 득 잡아주는 것도 유월 쭈무날 뉘든.  
 107091 #5 이 가을, 가을 들은은엔에난 아메도 이 추위갈 뉘든.  
 107091 @ 예.  
 107091 #5 요때 쭈민디.  
 107091 @ 요뉘 쭈예? 예.  
 107091 #5 요뉘 쭈민디 뭇 날인지 몰르커라.  
 107091 #4 건 이운 몰르지.  
 107091 #5 그거 저 뉘로 보든 모르카?  
 107091 @ 음, 알아질 거우다. 제가.  
 107091 #5 저 인터넷인가 무신 걸로 알아보든 알아지커라.

## 기타

107092 @ 계난 경허고 삼춘, 흑시 외도에, 외도에서만 특별허게 헛던 음식 잇수  
 가?  
 107092 #5 특별헌 게 헌 음식 외도에서 헌 거 뉘 엇어.  
 107092 @ 외도천예?  
 107092 #5 외도천예. 뉘? 거 저 부지런헌 사름덜은 은어 떠당 은어 뉘뉘라 헤  
 먹는 거. 그런 거나뉘긴.  
 107092 #4 은어뉘뉘라 그런 것도 벨미로이, 먹썰일 먹썰일 때에 친척덜 모다오  
 민.  
 107092 #5 그거 벨미로 헤낫지. 외도천예 은어가 사니까.  
 107092 #4 은어 튀김이 질 세여낫주기, 춤.  
 107092 @ 예.  
 107092 #4 아무나 못 헤여난 것도.  
 107092 @ 저도 월대 은예, 은어 튀김 먹으레 와낫수다. 게든 그 은어 튀김은 어  
 뉘 식으로 만드는 거우과?  
 107092 #5 그냥 다른 튀김이나 마찬가지로.  
 107092 #4 뉘뉘라나 허듯기에. 반죽허영 그거에 적정 영.  
 107092 #5 튀기든 뉘는 거. 건 아주 간단허게 헛주게.  
 107092 @ 간단허게예?  
 107092 #5 은어 뜨기가 거 아무나 뜨지 못헛지. 워낙 빠른 거난.  
 107092 #4 이제 월대에 은어 실 거라이.  
 107092 #5 잇지. 은어 살아낫젠.

107092 #4 은어 관광객 뿔으로 딱 금혜연게. 못 잡게.  
 107092 @ 예, 은어 뜰 때는 어떤 식으로 떼수가?  
 107092 #4 족바지.  
 107092 #5 족바지.  
 107092 @ 아아.  
 107092 #4 즈룩 질게 헤여근에게 그물 영 허영 영 허영 허른 거 때, 뿔때 뎅기  
 듯게 떼로 뎅기주기. 경허영 허민 그자 춤 족바지 들르곡.  
 107092 #5 동작 뜬 사름은 못 허여. 은어가 빨르난.  
 107092 @ 아아.  
 107092 #4 막뎅이 혼 착 손에 탁 두드리민 착 들르곡. 우리 스춘 아시 남편 그  
 거 은어 잘 떠낫주.  
 107092 #5 동작이 빨라야.  
 107092 #4 잘 떠난.  
 107092 @ 은어가 빨라서예? 예, 알아수다.  
 107092 #5 내 터질 뎨  
 107092 @ 으.  
 107092 #5 막 내 터진 뎨 흑물 뉘잖아. 게문 강 족바지 대영 시든 그것에 걸렁  
 뜨곡 경헤낫주.  
 107092 #4 흑물 쉘 뎨 것도 눈이 어둑는 생이라.  
 107092 @ 예, 웃음.  
 107092 #5 흑탕물 뉘든게 방법이 잇어게. 게난 어디로 가지는 중 몰르게 가당  
 잡히곡.  
 107092 #4 경허영 춤 우의서 더 내려완.  
 107092 #5 내 터지민 그거 허젠딩 냇가에 족바지덜 들렁 샷지.  
 107092 @ 아아, 내 터질 때는 다 이 동네 사름들이 모다지는 거라예? 거기에  
 예?  
 107092 #5 그것도 아맹이나 그 족바지가 잇는 사람이라야 뉘여.  
 107092 #4 아, 은어엔 현 건 아무 동네나 엇어.  
 107092 @ 예,예, 맞수다.  
 107092 #4 외도천.  
 107092 #5 외도천에.  
 107092 @ 거난 이 동네 특별한 음식인 거지.  
 107092 #5 장어도 잇곡 허난.  
 107092 @ 아아, 여기는.  
 107092 #5 민물장어.  
 107092 #4 그 은어 사는디 장어도 잇고.  
 107092 @ 으음. 장어 뜨렌덜도 막 가곡 헤난?

107092 #4 장언 돌 소곱에 곱양 잇주게.  
107092 #5 나깟주. 나간.  
107092 @ 아아.  
107092 #4 그거 낙시 헤연.  
107092 #5 장언 나간.  
107092 @ 게른 장어로는 어떤 음식덜 헤 먹는 거라마씨?  
107092 #5 그건 막 뒤 보약으로 먹넨 허연.  
107092 #4 장언 보약으로, 장언 막 비짜곡. 지금도 이 웃동네.  
107092 @ 예.  
107092 #4 저 절물동네에 가른 은어식당이라고 지금도 간판 그대로 잇어.  
107092 @ 예.  
107092 #4 주로 그 식당에서.  
107092 #5 그 집의서 그걸 많이 헛지. 그, 집의.  
107092 #4 식당에서. 그 특별히 은어식당. 간판도 은어식당엔 허고.  
107092 @ 지금도 은어헤마씨? 그 집에. 어.  
107092 #5 지금도 허여.  
107092 @ 아, 은어식당예?  
107092 #4 게난 은어식당.  
107092 @ 혼변 가봐야지.  
107092 #4 간판 이제도 잇어.  
107092 #5 은어집의엔 허지 아녀. 은어식당.  
107092 #4 은어식당.  
107092 #5 은어식당. 그 전윈 은어집이엔 헤신디.  
107092 #4 식당으로 딱 사거리에 간판 잇어.  
107092 @ 은어 잡게는 험구나예?  
107092 #5 잡는 생이라.  
107092 @ 아, 알아수다. 잠깐만예?  
107092 #4 은언 그.

## 제2절 어휘

### 1. 인체

####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드맹이
201002	대가리	드맹이, 데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굴, 숨굴
201005	제비초리	생이출렁이
201006	머리털	머리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얼럭지,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닿다	닿다
201014	비녀	비녀
201015	고수머리	뽑실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갈름
201019	이마	임뎡이
201020	넓다[廣]	넙다
201021	이마뼈기	이마뺨, 임뎡이
201022	솜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뇨
201024	낫[面]	뇨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시숫사리, 세숫사리, 세숫대양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거울, 민경, 섹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볼뺨
201032	뺨따귀	뺨얌데기, 귀똥베기

201033	때리다[打]	내후리다
201034	불	불빼
201035	불따구니	불빼
201036	불거리	불거리
201037	광대뼈	불빼
201038	보조개	보조개, 췌고망, 췌고냥
201039	주름살	주름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자, 흰공쟁이
201042	검은자위	검공공자, 검은공쟁이
201043	눈꺼풀	눈뚜껑
201044	거적눈	더깨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쑥눈썹, 쑥엿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눈두새
201049	수침(垂針)	마농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랍다
201052	눈곱	눈꼽제기, 눈꼽
201053	눈초리	눈돌아진사람
201054	사팔눈	사팔눈, 사과리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등
201059	세다[強]	썰다
201060	콧구멍	콧고냥
201061	코딱지	코닥지, 코꼽제기, 코푸랭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따끄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콧대쉬염, 콧수염
201065	인중	콧닛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춤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거짓갈, 그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도리허다
201072	입술	입바우, 입바위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
201075	말하다	곤다
201076	입방아	입방아, 놈의 공론
201077	허풍	허풍, 자닥
201078	뇌다	뇌다, 노다시리다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呑]	숨지다
201081	가래침	게춤
201082	뱉다[吐]	마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활르다
201087	헛바늘	셋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빨
201089	앞니	압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걸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벌은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막니
201095	옥니	오금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
201098	옥물다	즈그못허다
201099	턱	턱가리
201100	턱살	턱가리살
201101	빨다[稍峽]	뽀라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자락
201105	귓볼	귓볼
201106	귓구멍	귓고냥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긱밥
201109	귀이개	귀오브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긱둥이, 긱둥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엄
201113	목	목, 야계기
201114	굽다[顛]	굽다, 슬지다, 무룩허다
201115	모가지	야계기
201116	멕살	멕살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뒗테가리
201119	꼭뒤	뒤꼭지
201120	뒗덜미	뒗야계기

#### 상체

201121	어깨	웃독지
201122	어깨뼈	웃독지짱
201123	어긱죽지	푼체짱
201124	겨드랑이	즈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고비, 폴곡지, 폴딱지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힘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고비
201132	팔목(=손목)	홀목, 폴목
201133	뼈	짱
201134	뼈다귀	짱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착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쟁이
201139	손등	손등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뚝	손콥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슴
201145	할퀴다	극주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
201148	검지손가락	안주웨기, 줄락생이, 곤지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느니에기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름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뛰다, 뛰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모순이
201157	명자리	맹주먹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고고리
201160	젓명울	젓몸살, 젓몸살
201161	짜다[攥]	짜다, 빠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배때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옆갈리
201168	갈비뼈	갈릿뼈
201169	등	등, 등뎡이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등)오그라지다
201172	등때기	등뎡이
201173	가렵다[癢]	ㄴ렵다, ㄴ릅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냉수, 언물, 썬헛 물

201178 등마루 등머리  
 201179 등뼈 등팡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ㄴ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엉둥이, 엉치  
 201184 살집 술집  
 201185 볼기 잠지폐기, 잠짓머리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술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망, 새끼또꼬냥  
 201191 더럽다[汚] 추접허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베다  
 201194 살 즈금테기  
 201195 가래뿔 멧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허벅지  
 201199 넓적다리 넓적다리  
 201200 무릎 독무릅  
 201201 무릎뼈 독머리팡  
 201202 뼈다[櫪] ㄴ무끄다  
 201203 정강이 정쟁이  
 201204 정강뼈 정쟁이팡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딴지 쥐술  
 201207 오금 오금, 즈금테기  
 201208 복사뼈 귀마리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굶다[凶] 굶다  
 201212 헛발질 헛발

201213	발목	발목, 발목다리
201214	겹질리다	ㄴ무끄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부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ㄴ롭다
201220	간지럼	즈글름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어금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상발가락
201221-3	가운뎃발가락	*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름
201223	까치눈	발가락눈(트다)
201224	티눈	티눈, 명구쟁이
201225	고린내	고랑내
201226	발톱	발굽, 발톱
201227	발뒤축	뒤치기,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심사, ㅁ음새, 심덕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베설
201233	목숨	목숨, 명, 밍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한숨

## 2. 육아

###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베다
202002	시다[酸]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애깃뭇, 애기방석
202007	땃줄	베똥줄
202008	나이	나, 낫술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믈이
202011	갓난아이	근난애기,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끌이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아기, 큰애기, 옥은아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깝다	아시롭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게
202018	엿저지	애기할망
202019	품다	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정쟁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기
202024	누다[便]	누다,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래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냇저고리	배냇저고리, 붓데창옷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베불레기
202032	포대기	뚜대기
202033	보자기	보따리, 포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치네	*
202038	띠	걸렝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튼바지

###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좀매좀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선매선매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짜짜꿍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걸음마걸음마
202046	걸음마	걸음마
202047	걸리다	*
202048	곤두박질	황곱사다
202049	곤두서다	황곱사다,
202050	가동가동	가동가동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지다
202053	목말	정에고개, 청게고개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털다
202056	엄살	언섭, 엄살
202057	쌈	시알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몽니, 심술
202062	밋다[憎]	밋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일)
202066	딱지치기	딱지치기, 뺏지치기
202067	통차기	깡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곱음제기
202069	숨다	곱다

202070	소꿉놀이	밥허멍놀자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뒤쓸락, 바둑뒤쓸락
202073	풍계문어	(수건)굽질락
202074	줄넘기	베뿔락, 베뜰레기
202075	줄다리기	(줄)똥길락
202076	수수께끼	예숙제낄락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꼰
202081	땅뺏기	땅따먹을락
202082	사금파리	사금파리
202083	말놀음질	물탈락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대막댕이물
202085	달음박질	들음제기
202086	겨루다[競]	심백허다, 숨백허다
202087	제기차기	쫓깨차기
202088	혜엄치다	휘엄치다
202089	웃놀이	넉똥베기, 웃놀이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짓혀졌을 때	웃, 슷
202090-5	모	네 짝 모두 얻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지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흔 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 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 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 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모컬방, 절이는 거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쌍앵이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드투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듬치기
202100	편벽하다	편백허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도레기치기
202102	팽이	팽이, 도레기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장연, 정연
202107	가오리연	장골레비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대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들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줄	연의 꽂달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
--------	----	----

202114	두모얼레	착얼레
202115	네모얼레	통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글히
202118	퇴김	태견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밀신개	*
202121	굴렁쇠	굴렁췌
202122	구르다[轉]	둥그리다
202123	썰매	*
202124	자전거	즈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క్క다리, 활대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위염
202128	선하품	선하위염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세증허다
202132	놀라다[驚]	놀라다, 놀래다
202133	졸음	즘,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즘무층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푸대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허다
202144	트림	게트림
202145	딸꾹질	틀곡지
202146	재채기	헛쟁이
202147	개치네췌	어치나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복제기, 똥찰방
202151	구린내	똥내, 구렁내
202152	노린내	그끄렁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마누라, 족은마누라
202157	학질	학질
202158	천연두	큰마누라
202159	곰보	엷베기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득
202164	웃	칠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군버즘
202167	진버짐	도리버즘
202168	주근깨	프리짬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
202172	멍	멍
202173	피렁다	푸리룽허다
202174	굳은살	깡이
202175	부스럼	부시럼지, 부시럼
202176	종기	종기, 허물
202177	습종	십쫑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북
202180	다대	허물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본치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얹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기, 땀뚜드레기
202190	소경	봉스
202191	청맹과니	튼봉스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베기
202194	사팔뜨기	사팔이
202195	다래끼	개씹
202195-1		개씹
202195-2		개좃, 들럿
202196	언칭이	얼칭이, 청보
202197	외언칭이	웨얼칭이
202198	쌍언칭이	쌍얼칭이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막쉬
202201	병어리	모레기
202202	말더듬이	더두에기, 반버버리
202203	혀짤배기	*
202204	입비뚫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퐁
202206	가납사니	말차제기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곱세, 등곱세
202209	절뚝발이	절룩발이
202210	얏은뱅이	얏은뱅이
202211	문둥이	용다리, 문둥이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버지
203002	어머니	어머니
203003	아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갓, 두가시
203010	싫다[厭]	긋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큰놈

203012-1	큰아들	큰놈
203012-2	둘째아들	셋놈
203012-3	셋째아들	말젓놈
203012-4	막내아들	족은놈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놈
203012-6	둘째아들	셋놈
203012-7	셋째아들	말젓놈
203012-8	넷째아들	큰말젓놈
203012-9	막내아들	족은놈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큰놈, 셋놈, 말젓놈, 큰말젓놈, 셋말젓놈, 족은말젓놈, 족은놈)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에비딸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들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잇딸
203025	어ैया들	이세끼
203026	막이	믄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단아덜, 웨동아덜
203034	외딸	단딸
203035	쌍둥이	글레기,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틀리다
203037	같다[如]	ㄴ트다
203038	양자	양자, 양아덜
203038-1		양가다
203038-2		양들이다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날보다
203044	중신	중매
203045	웬당	웬당
203045-1		덤덜, 웬당 일체 *그 집안 덤덜
203045-2		방상, 친척, 웬당
203046	얕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머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방
203050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지바님, 아지버님
203057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지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늡으신네	늡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꼰롱팔십
203063	병추기	빙쭈시, 병쭈시
203064	거동하다	거동허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지, 손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친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켤당, 성가
203072	외척	웨켤당, 웨가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백부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넛할아버지	넛하르방
203087	넛할머니	넛할망
203088	넛손자	넛손지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웁딸	비린뜰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늬, 늬

#### 4. 의복

#####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ㄴ음, 옷ㄴ심
204002	끓다	끓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썰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썰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엿새무명	*
204011	생목	지켓미녕, 토목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게
204017	풀숨	맹지숨, 설맹지
204018	숨틀	숨틀, 소게클
204019	숨틀집	소게칩, 소게테우는 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넛드레, 멘넛도레기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번데기
204025	고치	고추
204026	뽕잎	뽕낭입, 뽕낭잎생기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
204029	오디	뽕낭으름
204030	다듬잇돌	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잇마께

204032	피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개꿈
204035	물거품	물개꿈
204036	빨랫돌	물광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서답구덕
204039	헹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물르다
204042	바지랑대	서답작대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걷다
204045	바래다[褪]	바라다
204046	헹겘	헹벅
204047	찢다[裂]	치지다
204048	나부랭이	헹벅물르레기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자락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옷곰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섶	섶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막작단추
204060	동정	동진
204061	소매	옷소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감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폭

204066	두루마기	후루매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손토매
204070	누더기	뚜대기옷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뿔쟁이
204073	잠방이	정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띠
204075	주머니	주멍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넣다, 찢르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뾰족한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
204083	훔옷	훔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솜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얄루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사이
204094	누비이불	글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보푸레기
204097	홀칭	홀칭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옷수건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잇
204107	베갯머리	머리맛디
204108	베갯모	베게모메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밑짚모자	말낭패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딤총박이	각신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막창신
204123	부르트다	북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
204127	부채	부채, 선채
204128	미선	*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새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골미
204134	실	쉴
204135	실꾸리	*
204136	실패	쉴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졸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집다	줍다
204143	실밥	쉴밥
204144	집다	집다, 오그리다
204145	곱치다	곱치다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자봉틀
204148	다리미	다루웨
204149	다리다[蔑]	다리다
204150	인두	운디
204151	인두판	운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무르에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칼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앞는 앞을깨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베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가레기

204154 물레 무르에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 5. 음식

###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궤다
205007	빼다[渴水]	뺏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팍밥	팍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이, 누렁지
205016	눌은밥	누렁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뜻은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
205019-1	괘밥	*
205019-2	과래밥	*
205020	밥보	밥푸대
205021	밥술	밥수까락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끄끄렁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춧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쌀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김치
205050	배추김치	낙물김치
205051	무김치	눔빼김치

205052	열무김치	춧마기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
205055	갯김치	갯노물김치
205056	파김치	꽤마농김치
205057	깍두기	깍데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다
205060	간장	간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정갱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소금바치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근허다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주름
205071	무나물	*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노물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손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고단, 세계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네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추
205082	푸성귀	승키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참웨
205086	수세미외	*
205087	만물	초물
205088	깍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절귀
205090	원두막	웻막
205091	깻잎	유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푼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ㄱ를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줄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알게미젓
205106	짜다[鹽]	차다, 짜다
205107	초(식초)	초, 췌

###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설귀떡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래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두
205117	가루	ㄱ를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묽다[淡]	얄롭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봉지	봉투지
205127	과줄	*
205128	엿기름	골
205129	감주	감취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자울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추니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쓰다
205146	갑시다	꺾끼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누리미
205149	산적	적갈

####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인걸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제비차락
205156	내[煙氣]	네
205157	낮다[低]	눗다, 야프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슬먹
205160	검댕	검댕이, 솟검댕이
205161	아궁이	솟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메우다, 꿩우다
205164	부뚜막	화덕
205165	붓돌	솟덕
205166	솔	솟
205167	옹달솔	옹조리
205168	무쇠솔	무쇠솟, 췌솟
205169	끓다[沸]	꿩다
205170	솔뚜껑	솟뚜껑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솟천
205173	솔바닥	솟창
205174	솔밑	솟창
205175	솔검정	솟검은데기
205176	부삽	불갈래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방석
205182	성냥	불곽, 곱
205183	성냥개비	불곽살
205184	성냥갑	통곽,
205185	부시	부췌
205186	부싯돌	부돌
205187	부싯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부지쌈지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각짓불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초룽
205193	남포등	등피
205194	접싯불	젍싯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까망허다
205198	숯가마	숯구덩이
205199	뜬숯	계수미(일)
205200	숯검정	숯검은데기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카는내
205203	불태우다	불케우다, 불부찌다
205204	불티	불똥
205205	끄다[消火]	끼우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봉당	*
205210	화룻불	화룻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화든거
205213	부손	불수까락
205214	부젓가락	불제불
205215	다리쇠	적쇠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츄	*
205217-2	츄항	*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부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뱃지, 남통머리
205226	담배쌈지	담뱃봉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수박기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껍	뚜껍이
205235	접시	젍시
205236	굽달이	굽돋은젍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제기, 종지
205240	간종지	장종지, 장물종제기
205241	숟가락	숟가락, 수제
205242	젓가락	즈뵈
205243	수저통	숟가락통, 수제통
205244	설거지	그릇 시치는 거
205245	구정물	긧인물
205246	도시락	동고량
205247	주전자	주젠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꼭박
205250	박	꼭
205251	뒤옹박	두옹박
205252	조롱박	쪽박
205253	쪽박	쪽박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독사발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
205260	시룻번	시룻마게
205261	경그레	시룻장
205262	함지박	남박세기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ㄴ데  
 205270 굳은대 매운데  
 205271 무른대 \*  
 205272 향아리 향  
 205273 물동이 허벽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굴다  
 205281 솟돌 쉰돌  
 205282 날카롭다 느슬다  
 205283 행주 상피  
 205284 번철 \*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우굽  
 205287 죽젓광이 배수기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판  
 205290 밀판 안반(돌)  
 205291 밀개 흥짓대  
 205292 소줏고리 고수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
205292-4	(받이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퐁

205293 빗다 다끄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식발췌  
 205296 달이다 딸리다

## 6. 가옥

###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초가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넓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에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웨거리
206012	안채	안거레
206013	바깥채	밭거레
206014	안팎채	안팍거리
206015	문간채	*
206016	결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항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왕간, 쉐왕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통세, 통시
206026	부춘돌	드들팡
206026-1	부출	드들팡
206027	기척	기척, 인기척
206028	맞서다[拮]	*
206029	냄새	냄살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웃담
206032	울안	웃담안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늘
206035	보릿가리	보릿늘
206036	짚가리	짚늘
206036-1	출늘	출늘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늘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으끄다

###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체
206043-1		풍체, 들풍체
206043-2		선풍체
206044	디딤돌	잇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삼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창곰, 호령창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지기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안자리
206057	아랫목	밧자리
206058	천장	천아반
206059	닿다[觸]	걸리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
206062	방문	지계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206067	바람벽	축벽름, 백벽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헛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얄	비얄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챗방
206077	광	퀘광
206078	두다[置]	놓다
206079	광문	퀘광문
206080	간수하다	간수허다, 곱지다
206081	안뒤곶	안거리두에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함석, 양철, 도당(일)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집가지
206088	처맛기슭	집가지
206089	낙숫물	지숫물
206090	덧돌	잇돌
206091	흙	흑, 흑
206092	진흙	질흑, 질흑
206093	찰흙	촌흑. 촌흑
206094	흙덩이	흑덩이, 병에
206095	새벽	개백
206096	흙길	흑길
206097	이기다[沓]	뀌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생깃지둥
206101	뒷기둥	셋기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르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입쟁이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튀기
206111	인방	지도리?
206112	문설주	문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206114	문얼굴	문지도리?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문지방
206117	문흙	문흙베기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계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창곰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밀문, 미닫이
206127	여닫이	으닫이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것창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돌철귀
206133	암톨쩌귀	암돌처귀
206134	수톨쩌귀	수톨처귀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걸췌
206137	퀘	퀘
206138	열다[開]	을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쇠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못다
206143	서랍	설랍

###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장툽, 대툽
206148	툽밥	툽밥, 툽ㄹ르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옥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못빼기, 빠루(일)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마깨, 망치
206157	방망이	마깨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홈베기대패, 홈미리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손
206167	쇠흙손	쇠손
206168	나무흙손	남손
206169	흙받기	흑바대
206170	돌물레	*
206171-1	집줄 꼬는 도구	호랭이, 뒤치기



## 7. 생업

### 농업

207001	농사	농시,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드로쟁이, 드로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잠대, 장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주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뺀어 나간 나무	무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뺀 나무	성에
207008-5	좀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설칫못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들뱅이뿔
207008-9	'뚝'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뚝

207009	육보다	육보다, 속다
207010	저리	저리
207011	벧밥	벧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
207014	밭두둑	밭두둑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고지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썰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죽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괭이	괭이
207022	곡괭이	못괭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스랑
207025	삽	삽,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멩탱이
207034	꿈개	섬비, 섬피
207035	남태	*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막불검질, 세불검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글라
207043	호미	글쟁이
207044	홍아기	사대
207045	늪	늪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삯	쿰

207048 비싸다 비싼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죽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당갈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호미날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껌기 \*  
 207055 새끼 새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 쉼앗베  
 207061 짐바 짐페  
 207062 질빵 질빵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쉼질메  
 207066 말길마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멧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물레
207066-5	등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오랑꾼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고들개친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고들개
207066-9	배뎛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오랑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멩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접개, 즈개
207067-2	봇줄	멩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등퀴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숨비줄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매 오리목끈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오리목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다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뺏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겟세역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등태
207068-5	지게꼬리 (밀뻘)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겟작대기

207069 바지게 \*

207070 발채 바지게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석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
207076	벼훑이	훑테, 나록클
207077	그네	보리클, 산디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마당질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식은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저를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털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틀레

207085	여물	쉐것
207086	쪽정이	졸레
207087	풀	출
207088	풀밭	출왓
207089	풀꾼	출놈
207090	풀단	출못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마차, 구루마
207093	복두	용도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좁진체
207099	굽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체받침
207103	어레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술박’	좁박
207109	풍구	풍기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사리
207112	되	뒤
207113	관되	뒤
207114	사삿되	*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귀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골르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구그네
207120	떡동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끗다[引]	끗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근다
207125	자루[袋]	찰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놈쟁이(영)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ㄴ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솔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것보리
207138	쌀보리	솔우리
207139	맥주보리	두줄베기,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숙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보비다, 부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솔
207154	조짚	조집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묘관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딧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산디솔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멧돌	ㄴ래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ㄴ렛돌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우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쫓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렛즈록

207165	맷방석	ㄴ렛방석
207166	매함지	ㄴ렛도고리
207167	풀맷돌	풀ㄴ레
207168	풀매	풀ㄴ레
207169	썰기	세, 세역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세콜방에
207171-2		네콜방에
207171-3		*
207172	방아확	돌혹, 방에혹
207173	방앗간	방엿공장
207174	븀비다	부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방에
207178	방앗돌	방엿돌
207179	연자맷간	돌방엿간
207180	절구	절귀통
207181	절곳공이	방엿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니, 머을
207184	고르다[擇]	골르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주름콩, 콩주름콩
207190	콩각지	콩각메기



207191	콩짚	콩꼬질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빗물
207195	뜨겁다	지접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주시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폿
207202	팔알	폿방울
207203	팔밥	폿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꺄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츄지름
207208	깻묵	지름주시
207209	고소하다	꺄시롱허다
207210	메밀	꺄믈
207211	메밀밭	꺄믈꺄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꺄믈체
207214	메밀국수	꺄믈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꺄믈츄베기, 꺄믈조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꺄믈칼국수
207217	메밀떡	꺄믈떡
207218	메밀묵	꺄믈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뺏데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지실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빨리

207225-3	마늘중	마농쥬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쭉파, 패마농
207227-1	파밑동	마농빨리
207228	무	늬뻬
207229	무청	츄마귀
207230	시래기	씨래기
207231	장다리무	씨늬뻬
207232	열무	츄마기
207233	배추	늬물
207234	고갱이(배추)	늬물쭉
207235	나물	승키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유래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대죽
207240-1	옥수수	부래기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썰대죽
207243	비목수수	빋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냥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즘녀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소중이, 물웃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족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뜯채	보제기

207256	그물	죽마지
207257	돛단배	초석배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돛, 초석
207261	마룻대(돛대)돛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용도베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네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쭝	*
207274	닷	닷
207275	닷가지	*
207276	닷줄	닷줄
207277	닷돌	닷돌
207278	닷걸이	*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킷대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삿대
207284	떼[浮筏]	테우

##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믁을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계
207290	윗마을	웃동네, 웃드르
207291	옮다[移]	옮다
207292	아랫마을	해변
207293	마을가다	믁실가다
207294	밤마을	밤믁슬
207295	가게	점방
207296	구멍가게	고망점방
207297	다녀오다	뎡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거스름돈, 주리
207302	있다[有]	잇다,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거스름돈, 주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남제기
207307	홍정	홍정, 홍성
207308	빛	빛
207309	빛지다[負]	빛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왕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모릿돌
207316	모루채	췌마께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망근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근
207321	결다[編]	줄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바치, 사농꾼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갈르다
207331	갖다[持]	가지다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여덟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서 말
208005-4	(4/너, 닉)	닉돼	너 말
208005-5	(5/닷)	다섯돼	다섯 말
208005-6	(6/엿)	으섯돼	으섯 말, 옷말

208006 한두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개	흔두 돼	흔두 말
208006-2	(2-3/두세)	두세 개	두서 돼	두서 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 개	두서닉 돼	두서너 말
208006-4	(3-4/서너)	세네 개	서닉 돼	서너 말
208006-5	(4-5/네댓)	너댓 개	너댓 돼	너댓 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 개	대으섯 돼	대으섯 말
208006-7	(6-7/예닐곱)	예술곱 개	예술곱 돼	예술곱 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덟 개	일고으덟 돼	일고으덟 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더아홉 개	으더아홉 돼	으더아홉 말

208007 여남은 으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뽕 조리, 조리뽕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마흔 자
208014-2	명주	마흔 자
208014-3	광목	마흔 자
208014-4	베	스물넉 자, 마흔 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150 평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무깨미  
 208019-1 보달  
 208020 조짐 흔짐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
208021-2	조(이삭 있음)	*
208021-3	콩	*
208021-4	밭벼	*
208021-5	꿀	60
208021-6	띠	*
208021-7	각단	*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적  
 208023 섬 섬

208023-1		15말
208024	덩이	뎡이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 가지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머리
208028-1	두[頭]	바리, 머리
208028-2		바리, 머리
208029	축	*
208030	궤미	궤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결레(신)	베
208035	바퀴(운동장)	바쿠
208036	뭇	뭇
208037	죽	죽

## 9. 민속

###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아기할망,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베창옷, 붓데창옷
209005	배넛머리	배속엿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스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씨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씨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계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계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槩]	뿌러지다
209019	이바지	이버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밖사돈(님)
209022	접사돈	접사둔
209023	상갓집	영장난 디
209024	수의	호상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만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귀낭
209032	짚동	짚뎡이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고렘가다
209035	뒋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제
209042	상두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장날, 영장날
209044	장지	장밭
209045	광중	개광자리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층	*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마치다
209054	벌초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벌초,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제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제스,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침
209059	편틀	낭정반
209060	퇴물	식계뒤편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계영국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제편
209065	인절미	은절미
209066	절편	절편
209067	웃기떡	지름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테와주다
209070	몫	적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맹질
209073	세배	과세.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꿈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귀
209080	뽕과리	뽕과리, 뽕메기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맹질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구침, 모래뜸
209085	추석	팔월맹질

##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맹감코스, 문전제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밭
210008	명두	맹디칼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슬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허깨, 헛거
210017	어둑서니	그순새
210018	무섭다	무섭다
210019	겁쟁이	겁쟁이
210020	고사(告祀)	코스
210021	고수레	*
210022	포제	포제

## 11. 자연

###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부찌다
211005	내[川]	내, 내창
211006	넷가	넷가. 내긋되
211007	물가	물긋되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자왈
211014-1	가시덤불	가시자왈
211015	돌무더기	*
211016	갈림길	(네) 커리
211017	묻다[問]	듣다
211018	비탈길	비트레기질
211019	벼랑길	*
211020	내리막길	내리막질
211021	오르막길	동산질, 오르막질
211022	길가	질에염
211023	큰길	큰질, 한질
211024	분화구	움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오름)밭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노룻
211030	상고대	상강
211031	구렁	굴형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빗물
211037	숲	고지
211038	성(城)	성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개곶
211041	바닷물	바당물, 쫄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몰레
211047	모래밭	몰레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개곶
211050	필	필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과도	절
211053	과닷소리	절소리[절쏘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
211056	굼뉘	*
211057	물결	물결
211058	잔물결	*
211059	무수기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9~10일, 24~25일
211059-2	두무날	두물	11일, 26일
211059-3	서무날	서물	12일 27일
211059-4	너무날	너물	13일 28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4일 29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15일, 30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6일, 1일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17일, 2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8일, 3일
211059-10	열무날	열물	19일, 4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20일, 5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1일, 6일
211059-13	(열서무날)	*	
211059-14	아끈쨌기	아끈쨌기	22일, 7일
211059-15	쨌기	쨌기	22~23일, 7~8일
211059-16	한조금	한쨌기	24일, 8일

211060 여 여  
211061 콧(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싹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닐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닐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녁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그지께  
211075 새벽[曉] 세백  
211076 꼭두새벽 동세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ㄴ슴, 저녁ㄴ슴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별
211091	은하수	미릿내, 칠성별
211092	달	달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달갓
211095	초승달	초생달
211096	보름달	보름달, 대보름달
211097	그믐달	그믐달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상고지, 항공지
211100	쌍무지개	쌍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셋절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흐를, 하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을
211110-4	나흘	나을
211110-5	닷새	닷쉐
211110-6	엿새	웃쉐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을
211112	너더닷새	너닷쉐
211113	대엿새	대웃쉐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초흐를보름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선달	선들
211120	올해	올히, 올해
211121	내년	내년, 새해, 멩년
211122	내후년	우멩년, 또내년, 또새해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벳
211126	별살	벳살
211127	따스하다	뜻뜻하다, 뜨시다
211128	땡별	즈작벳
211129	가을별	ㄹ슬벳
211130	양지받이	양지바른디, 해남석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치기, 그들대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머리
211137-2	바람아래	브름각
211138	맞바람	양맞순
211139	바람받이	브름코지
211140	바람살	브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돛쟁이, 돛쟁이브름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봄장마
211149-2	가을장마	가을마, ㄱ을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
211152	여우비	(마 카운디도 벳남찌)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건드럽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뭇	ㄱ뭇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으남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힘벽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느리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비눈, 눈비
211181	우박	우박

####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에
211184	결	즈끗디
211185	옆	옴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웬착
211191	오른쪽	느단착
211192	밑	깍
211193	흐르다[流]	홀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껏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사리
211198	가[邊]	에염, 궂디
211199	가장자리	가생이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곧다

## 12. 동물

###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숫췌  
 212005 뿔소 속췌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큰췌, 맛갈췌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석, 췌석  
 212012 끌다 끄다  
 212013 송아지 송에기  
 212014 배넛소 맴췌, 병작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승	금승몽생이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
212015-4	나릅(4)	나릅	스수
212015-5	다듭(5)	늑듭	오수
212015-6	여듭(6)	으섯슬	육수
212015-7	이릅(7)	일곱슬	칠수
212015-8	여듭(8)	으덥슬	팔수
212015-9	아듭/구릅(9)	아홉슬	구수
212015-10	열룻/답불(10)	열슬	십수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췌것  
 212018 구유 것통, 낭도고리  
 212019 말[馬] 물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물, 즈매
212023	수말	수물,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물
212026	청충마/총이말	청충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대
212028	얼룩말	월라물
212029	유마	유마
212030	백마	백아
212031	고라말	고라물
212032	곰배말	활등이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므쉬
212036	글경이	*
212037	털[毛]	털
212038	말고삐	물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이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쏟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롱이
212048	비루먹다	도롱이 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쟁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터쟁이
212058	산떡	목구레
212059	닭의어리	(독구덕)
212060	닭장	독망
212061	달갈	독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랑내
212063	병아리	비에기,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깨우다
212065	돼지	도새기, 돛
212066	수돼지	수돛,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돛,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하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일숨씨
212072	생등이	손매
212073	새끼 돼지	새끼도새기, 자럿도새리
212074	돼지우리	통시, 통세
212075	돼지고기	돛퀘기
212076	적	적갈
212077	적꼬치	적고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판장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췌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믈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도새기, 지지랭이돛
212081-4	둘암개	*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올랭이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	----	-----

212085	파리	푼리
212086	쉬	쉬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구더기, 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푼리
212091	쇠파리	쉐푼리
212092	똥파리	똥푼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
212096	장구벌레	장콜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蠹]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훑이	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게우리
212103	거머리	거말
212104	바구미	돛보리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모살고냉이, 다마베랭이
212110	노래기	구더기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 일다, 진쉬 켜다
212114	하루살이	헝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들벙이
212117	민달팽이	집웃은들벙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개염지
212120	왕개미	뜰개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심방말축
212124	여치	썩썩말축
212125	사마귀[螳螂]	극주에기
212126	귀뚜라미	뽕중이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뿔박벌레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떠렁췌, 꺾췌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놀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잠자리, 밥주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밥주리
212141	장수잠자리	청청밥주리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흘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왕재열, 푯재열
212146	소금쟁이	옛장시
212147	방개	물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한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물벌, 사상벌
212154	붓다[腫]	뭇다
212155	진드기	잔독
212155-1		서미역

212155-2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소낭버랭이
212157	개구리	글게비
212158	올챙이	멘주에기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테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독달귀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독사

#### 들집승

212166	여우	여시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에기
212169	토끼	튀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꿩	꿩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드람쥐
212176	오소리	오로, 지달이
212176-1		지달이굴, 오로굴
212177	지달(이)	
212178	지달피	오로가죽
212179	멧돼지	산툃
212180	원숭이	즌나비
212181	원숭이띠	즌나비띠, 즌나비헤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범헤치
212184	꼬리	꼴랑지, 꼴랭이



###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꽁지	생이꿀리, 생이꿀랭이
212187	깃[羽]	짓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새가슴, 생이가슴
212190	참새	밥주리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생이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소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삿꾸기	삿꼭새
212200	종달새	총대기
212201	올빼미	옷밤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독새기
212206	꺼병이	꿩비에기
212207	두루미	학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굴매기

### 바다 동물

212210	고둥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둥	코트대기
212212	명주고둥	*
212213	눈알고둥	문다두리
212214	밤고둥	떡보말
212215	팽이고둥	수두리보말, 수두리
212216	각시고둥	*
212217	두드럭고둥	메옹이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동	*
212220	대룡빨고동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비말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돌큰벗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이
212227-1		문둥구쟁이, 조쿠쟁이, 쌀구쟁이
212228	전복	점복
212228-1		암참복
212228-2		수참복
212229	전복갑	거평
212230	오분자기	오분작
212231	게	강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놈의집살이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어금발
212240	갯강구	뱀게
212241	말미잘	물미줄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뚝성게	습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212248	해파리	물이슬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해습	
212253	멍개	멍개
212254	바닷물고기	바릇래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베카다
212261	생선(生鮮)	늘래기, 성헌래기
212262	미끼	이껍
212263	갯지렁이	게시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멩글다
212267	낙싯줄	낙싯줄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왕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구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멜갈치
212279	베도라치	보들래기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아여리
212283	고생놀래기	고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썰어렁이
212287	옥돔	생성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벙에돔	귀릿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거리다, 뜨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백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부찌다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솔치
212307	독가시치	따치, 따돔
212308	방어	방에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에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준다니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금수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낭

### 13. 식물

####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풀	미뻬쟁이
213005	화승(火繩)	미심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휘차다
213009	빨기	뻬잉
213010	사초	상고지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돌ㄴ작쿨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소세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
213023	원추리	ㄱ시락쿨
213024	메꽃	미마줄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츄비눔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체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크로바
213039	개자리	개자리쿨
213040	냉이	난시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룻
213043	여뀌	연뀌
213044	오이풀	오나리불휘
213045	엉경귀	스웡이, 왕스웡이
213046	췌기풀	췌와기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짜리	불철귀
213054	땅짜리	*
213055	피막이풀	빈네쿨
213056	도깨비바늘	가메귀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쿨
213059	왕모시풀	진
213060	천남성	천남성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오께기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개삼동
213067	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두루에기

213069	부처손	부체순이
213070	방가지똥	똥수웨
213071	닭의장풀	고냉이쿨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취, 꼭
213074	취덩굴	꼭줄, 취줄
213075	취뿌리	취뿌리, 꼭뿌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동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족박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
213081	함마기	*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인동고장
213085	멀꿀	멍줄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걱정동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생래, 개생개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땀싸리	웁시리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늬물
213096	달래	드룻마농
213097	씀바귀	고름풀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저슬살이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관초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물늣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늣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봉오리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꽃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독 <sup>2</sup> 달꽃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베염쿨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
213139	선인장	손바닥낭
213140	문주란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줄기, 낭
213144	가지	가지, 가쟁이
213145	잎	낭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허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술잎	술입
213151	술가리	술입
213152	술방울	술똥
213153	멜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막티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붉다, 빨강허다
213161	멀구슬나무	고련목, 먹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 아카시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음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벗낭
213170	왕벗나무	벗낭
213171	사옥	사옥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베염부기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굴낭, 미짱낭(일)
213181	따다[摘]	타다, 따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정굴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지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롱낭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개칠낭
213192	팡팡나무	팡낭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돈낭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개팡낭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긧가시낭
213217	덜꿩나무	월호래비낭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구낭
213220	좀머귀나무	논독낭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다간죽낭
213225	참식나무	식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릅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썰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후박낭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츠낭
213236	참나무	*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췌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사철낭
213241	겨우살이	*
213242	모람	모람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숨부기낭
213246	붉나무	*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으름, 열매
213250	껍질	껍데기
213251	깎다	까끄다
213252	벗기다	벧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게엄지탈
213255	멍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위
213264	개머루	개멀위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등당멀위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러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개드래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밋볼레, 보리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
213275	앵두나무	어영뒤낭
213276	앵두	어영뒤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짱(일)
213280	밀감나무	미짱낭(일)
213281	탱자	개탕주
213282	탱자나무	개탕주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쫄잡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감
213287	풋감	쫄라운감
213288	청미래덩굴	멥게낭
213289	멥감	멥게, 멥게으름
213290	찔레나무	새비낭
213291	영실	새비
213292	사과나무	*
213293	사과	능금
213294	배나무	물배낭
213295	배	배, 물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즈배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213303	복숭아	복숭에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열매) 졸갱이(줄)
213307	오미자	오미자

####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
213310	미역쇠	메역세
213311	김	짐
213312	파래	포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페
213315	넓패	넙페
213316	지층이	주층(몸)
213317	다시마	*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